장편력사소설

을미년의 봉화

박 종 철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 (2011)

차 례

제 1 장

의병들은 일어나라

1

며칠전부터 오며말며 내린 눈으로 희끗희끗해진 산은 잎떨어진 나무들의 거무틱틱한 모습마저 드러내며 끊임없이 다가오고있었다.

말들은 뭉툭한 큰 쇠갈구리모양 발굽을 굽히고 쉬임없이 언땅을 그러당기건만 골짜기를 따라 기여올라간 길은 해종일 끝날줄 몰랐다.

어디나 산이였다. 굵고 가는 무성한 가지들이 하늘을 가리운 골짜기를 지나 릉선에 올라서면 또 한모양새의 산이 앞에 나서군 하였다. 그렇게 벌써 2백리길을 달려오고있는 그들이였다.

앞선 말에는 융복차림의 무관이 타고있었다. 시뻘건 주락상모가 달린 전립을 쓰고 역시 붉은색 전복에 허리에는 칠척장검을 찬 몸집이 큰 사나이였다.

그는 닫는 말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가끔 뒤따라오는 사람을 향해 시꺼먼 수염이 움씰움씰하도록 얼굴을 찡긋거렸다.

뒤말에는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량볼이 볼록하면서 몸집이 똥똥한 사

람이 타고있었다. 전형적인 문관차림으로서 전이 넓은 까만 통영갓에 흰 도포를 두르고 술띠를 띤데다 흰 옥당목버선에 역시 흰 갖신을 신은것으로 하여 더더욱 선비라는것이 뚜렷이 알렸다. 그만큼 말타기도 힘든듯 두손을 말등에 꽉 붙이고 줄곧 찌프린 얼굴에 때없이 밭은 목을 빼들군 하였다.

그뒤로 서너명의 기수들이 따르고있는데 그들은 앞선 사람들의 구종이거나 호위군사들인듯 흰 무명옷이나 베바지저고리에 목수건을 대충 두르거나 새까만 더그레에 산수털벙거지를 제나름으로 걸친 사람들이였다.

하늘은 오늘도 찌프렸다. 언제 눈을 쏟칠지 알수 없는 시꺼먼 구름장들이 좁은 하늘을 이리저리 헤매며 구석구석을 살펴본다. 여기에 누가 있는가, 무엇하러 가는 사람들인가, 몸에는 무엇들을 지니였는가.

그 모습에 위압을 느낀듯 사람들은 가끔 하늘을 쳐다보며 불안스레 눈을 껌벅였다. 구름장들이 왜 저리 성급하게 구는가, 하늘이 또 무슨 재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세월이였다. 하늘에 구름장 하나가 별스레 떠돌아도, 별찌 하나가 길게 떨어져도 제나름대로의 재변을 생각하며 공포에 사로잡히군 하던 때였다.

《여보게 강세, 하늘에서 뭔가 쏟아질듯 하이. 눈에 길이라도 막힐게 아닌가?》

뒤사람이 숨찬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앞선 사람은 그냥 박차를 가하였다. 나라의 중부산악지대를 남북으로 꿰지르는 꽤 큰길이다.

그러나 내용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보잘것 없는 길이다. 필요한 때에는 고을의 현감이나 군수 같은 사람은 말할것 없고 도의 관찰사나 저 서울의 당상관나으리들도 때없이 오가는 길이건만 누가 언제한번 닦은적 없고 그렇다고 타발한적도 없다. 산이 생긴대로 이리저리 굽은데다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제멋대로 삐여져나와있고 나무들도 저마다 제멋대로 뻗어있다. 그것들이 달리는 말의 발굽에 채이거나 말탄 사람의 갓양테를 쥐여당기는것쯤은 례사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응당 그러려니 했다. 언제한번 수레를 통하여 이 고을의 특산물이 저 고을로 넘어가고 저 고을의 명산이 이 고을에 퍼지여 문물의 변화를 가져

온적이 없다. 그것이 천연의 법으로 되여 사람들의 시야를 좁혀주고 생각을 짧게 해주는 요인으로 세세년년을 계속해오건만 누구 하나 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더구나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다 왔네. 저기에 춘천고을이 보이는구만.》

마침내 령마루에 올라선 앞선 사람이 말하였다.

뒤따르던 사람이 다가와 앞을 내다보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다왔군, 그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도포자락 한끝으로 이마의 땀을 문대겼다. 그동안에도 눈은 줄곧 춘천고을을 놓지 않고있었다.

그것은 산굽이를 에돌아 희뿌연 안개속에 아물아물 바라보이는 산간고을이였다. 역시 무성한 숲속에 키낮은 초가들과 동기와집이 널린 가운데 키가 훌쭉한 기와집들이 드문드문 박혀있었다. 그들은 말에서 내렸다.

《우리가 왔던것이 지난 8월 한여름이였지? 그때만 하여도 나라가 편안했어. 지금처럼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거던.》

갓쟁이가 나무그루터기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무사차림만은 여전히 고을쪽을 주시하고있었다.

《편안했다니, 그때에도 의암선생이야 예고하지 않았나. 나라에 반드시 큰 변이 날것이라고 말이야.》

《하긴 그래, 근년치고 언제한번 나라에 편안한 날이 있었나…》

뒤따르던 사람들도 마저 올라와 주인들의 눈치를 보다가 그대로 앞질러나갔다.

그들도 다시 말에 올랐다. 갓쟁이만은 무사가 엉치를 떠받들어주어서야 올랐다. 그의 몸은 지금 공중에 매달린것처럼 둥둥 떠있는듯 했다. 그만큼 진종일 말우에서 시달렸다. 언제한번 그렇게 말을 타본적이 없는 그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었다. 참아야 했다. 참을뿐아니라 더 빨리 서둘러야 했다. 지금 그의 어깨우에는 《나라》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실려있다.

분명 자기 어깨우이다. 꼭 그렇게만 생각되였다.

지금 내가 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왜적이 침노하고있다. 저 섬

나라 오랑캐들이 내 나라의 서울에까지 기여들어와 궁궐을 점거하고 국모까지 살해하였다. 이제 나라님에게까지 손을 뻗칠지 어찌 알랴.
이렇게 생각하며 먼길을 달려왔다. 저 충청도 제천에서부터 먼 수백리길을 하루길에 잇대여왔다. 이제 저 춘천고을에만 가면 알도리가 있다고 믿는때문이다. …
마침내 춘천읍에 들어섰다. 말들은 고을안의 크고작은 집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가운데로 흐르는 소양강기슭을 따라 한참 오르다가 거리에서 외따로 떨어진 크지 않은 기와집앞에서 멈춰섰다.
서둘러 주인을 찾은 그들은 하인이 나오기 바쁘게 떠들썩이며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하얀 종이를 바른 분합이 드르릉 열리며 주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흰 무명바지저고리에 반백의 수염이 얼굴에 어설핀 체소한 로인이 웬일인가 하고 밖을 내다보다가 와뜰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게 누구들인가. 응? 형석이, 강세… 이 사람들, 어서 올라오게!》
주인이 성급히 마루우로 튀여나오며 말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득의양양해서 들어서던 두사람은 올라서지 않고 그대로 뜰아래에 섰다.
《선생님, 급히 알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충청도 제천에서 오는 길인데 지금 그곳에 의병들이 모여있습니다. 여러 의병들과 의병장들이 의암 류린석선생님을 총대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식을 알리는것과 함께 선생님을 모셔갈 임무를 받고 달려온 길입니다.》
형석이라고 불리운 문관차림의 뚱뚱한 사람이 말했다.
집주인 류린석은 그의 긴 설명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선채로 무릎을 털썩 치며 《의병들이란 말이지. 그예 모여들었군!》 하다가 마지막까지 다 듣고나서는 《나를 대장이라고? 에잇, 그건 안되네. 내가 무슨 군사를 안다고 대장이 되겠나.》했다.
옆에 섰던 무관복의 강세가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들이 모여온것은 선생님이 이미전부터 의병을 일으킬것을 주장해왔고 이번에 또 전국에 격문을 날리여 나라를 구원할데 대한 호소에 따른것입니다. 다시 변경 못합니다.》
류린석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여직 그들을 뜰아래 세워두었다는것

을 알아차리고 급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가 늘 글쓰고 책을 보는 사랑방이였다.

그들은 서안우에 문방제구들이 갖추어져있고 여기저기 금방 쓴듯 한 종이장들이 널려져있는 방에 마주앉았다.

《그래 누구누구들이 모여왔다고? 제천이라면 분명 하사 안승우가 있는 향교일테지. 의병들은 모두 몇명이나 되나?》

류린석이 처음의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다그쳐물었다.

《옳습니다. 계현(안승우의 자, 하사는 그의 호)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여온 사람은 지평에서 리춘영이, 문경에서 리린영이, 안동에서 리범직이, 관동에서 리직신이 그리고 우리 두사람과 그때 떠돌아다니던 총각 김백산이, 쇠부리터의 사석이 등 해서 여라문명이 잘되는데 의병 총수는 도합 2천이 훨씬 넘습니다.》

문관복의 형석이 다시 대답했다. 형석이란 그의 자이고 본 이름은 김복한이다. 그가 류린석의 제자인 까닭에 스스럼없이 그렇게 부른것이다.

린석이 불시에 복한의 손을 덥석 잡았다.

《2천명씩이나? 그참 대단하군. 그속에 떠돌이를 살던 김백산이도 있단 말이지?》

《지금 보아선 그 총각이 그중 인원도 많고 병기도 괜찮습니다. 화승총만 해도 2백자루나 됩니다. 인원도 4백이 넘습니다.》

《원 저런…》

린석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한마디 내뱉고 복한의 앞에 한걸음 다가앉았다.

《참, 자네도 의병을 모집해왔다지. 진정 군수의 벼슬자리는 버릴셈인가?》

의혹과 호기심이 어린 이글거리는 눈이 그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그가 그렇게 묻는것은 복한이 여직껏 관직을 탐내지 않고있다가 최근에야 과거를 보았는데 어느 고을의 군수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였다. 말하자면 충주에 있는 그가 그곳 관찰사의 눈에 들어 어느 고을의 군수로 내정되고있는것이다.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것이 아닙니까. 왜놈과의 싸움에는 책임있는 관리들이 앞장서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놈에게 붙어

나라를 팔거나 의병싸움을 반대하는자가 있으면 기어코 의병을 보내여 그런자부터 처단하겠다, 격문에 이렇게 썼지요?》

《응? 내가 분명 그렇게 썼던가…》

린석이 처음 듣는 소리인듯 눈을 껌벅이다가 소리내여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웃었다.

《그런즉 자네 강세도 싸움에 나섰겠다? 저 지평현감 우삼(리춘영의 자)이도 그렇구 현감자리를 내놓고 싸움에 나선다는게 헐치 않을걸?》

린석이 어느덧 심각한 안색을 짓는데 강세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의 본 이름은 주용규요 호가 강세이다. 그도 한때는 린석의 휘하에서 글을 배웠는데 십여년전부터 외세의 침입이 강화되자 단연 군사에 뛰여들어 감영군의 장교노릇을 하다가 지난 갑오년에 전라도농민봉기군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죄로 파직되여 고향에 내려가있었다. 하다가 이번에 을미사변이 터지고 린석의 격문이 발표되자 단연 의병에 뛰여든것이다.

《저도 저이지만 여기 복한형님이나 지금 제천에 와있는 춘영형님들이 쉽지 않은 길을 택했지요. 군수나 현감자리를 내놓고 싸움길에 나선다는것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암, 그렇지. 자네들은 물론이구 집없이 떠돌아다니던 저 김백산이는 또 어떤가. 나라에서는 그에게 준것이 없는데 그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거던. 게다가 싸움준비도 제일 잘했다지?》

《그게 다 선생님께서 격문으로 사람들을 잘 일깨워준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미전부터 조선8도 각 고을에 격문을 날린것만 해도 벌써 세번째가 아닙니까.》

《물론 쓰기야 썼지. 하지만 그것이 어찌 격문의 힘만이겠나. 그게 다 우리 백성들의 애국지심에서 나온것이야. 제 나라, 제 겨레를 사랑하는 이 나라 만백성의 충성된 마음에서이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안해 리씨가 주안상을 차려왔다. 그러자 이야기는 더 활기를 띠였다.

호가 의암이요 이름이 류린석인 그는 평시에 그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였으나 오늘만은 많이 했다. 주로는 대국들의 간섭으로 나

라안에 위기가 조성된데 대한 한탄과 울분이였다.
일본, 청나라, 미국, 로씨야, 도이췰란드, 프랑스… 어느 나라나 조선을 집어삼키자는 놈들뿐이다. 그가운데서 가장 악착스럽고 교활한 나라는 일본놈들이다. 지어 이놈들은 남의 나라 왕궁에까지 뛰여들어 왕비를 살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것이 지난 8월 20일(양력 10월 8일) 밤이였다.
그 일을 놓고 온 나라가 분개하였다. 그날을 《국치의 날》로 정하고 서울과 지방의 여러곳에서 사람들이 떨쳐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시위투쟁을 벌렸다. 세론도 물끓듯 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이상은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았다. 오히려 왜놈들은 그것이 자기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바로 그때에 류린석이 격분을 참지 못하여 온 나라에 보내는 격문을 썼다.
…오호라, 오늘의 참변이 웬일이냐. 원통하고 통분할사. 이 나라의 국모가 원쑤 왜놈에게 살해되다니. 조상전래 동서고금에 이런 참변이 언제 어디에 있었더냐…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모가 살해되였다는 거기에서만 출발한것이 아니였다. 원쑤 왜놈에 대한 총체적인 증오와 분노에서 시작된것이였다.
지난해에도 격문을 썼었다. 바로 갑오(1894)년 6월 21일이였다.
그때에도 왜놈들은 조선의 왕궁을 습격했었다. 야수적이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이 섬나라 오랑캐놈들은 새벽야음을 리용하여 수천명의 병력과 대포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한 다음 오래동안 나라의 상징으로 신성시되여오던 조선왕궁을 일거에 습격점령하고 그안에 있던 30문의 대포와 8문의 기관포, 2천정의 신식보총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를 략탈하여 인천으로 실어갔다. 왕과 왕비는 완전한 연금상태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기를 한달여일, 그사이 왕궁을 샅샅이 뒤지며 력대로 보관되여오던 문화재들을 략탈해간것이 그 얼마였던가.
그리하여 그는 썼다. 《8도 여러 고을에 통고한다》는 첫 격문이였다.
《아, 우리 8도 동포들아.
이 나라를 어찌 저 원쑤들에게 내맡기며 암흑의 생지옥으로 화하게

하겠는가. 조상대대로 애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슬기로운 민족인 우리가 내 나라, 내 집을 위하여 떨쳐나지 않을수 있겠는가…

아, 통분하다. 갑오년 6월 21일을 당하여 3천리 우리 조선이 옛모습을 잃게 되였으니 불구대천의 원쑤 왜적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더욱 사무친다. 환난을 피하기는 죽기보다 어려운것이니 멸망을 기다리기보다 싸우는것이 곱절 더 현명하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어진 법을 본받아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저마다 충의심을 발휘하여 반드시 구제하고야마는 전통을 가지고있다. 임진년(1592년의 임진조국전쟁)에도 그랬고 병자년(1637년의 병자호란)에도 그랬고 의로운 군사가 수많이 일어나 기어코 외적을 이 땅에서 내쫓고야말았다. …

피를 마시며 맹세하노니 성패와 리해는 따질바가 아니며 경중과 대소를 론할바가 아니다. 우로는 정부관리로부터 아래로는 평백성에 이르기까지 각자는 무기를 잡고 의로운 군사가 되여 끓는 물과 단불에도 뛰여드는 용감성을 발휘해서 나라의 중흥을 기약하고 태양이 다시 밝음을 보게 하자.

이 공로는 한 나라에만 한정되는것이 아니고 실로 만고의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

《선생님의 그 뜨거운 마음은 실로 하늘도 감득할 일이였습니다. 이제도 그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았으니 한시바삐 제천으로 가서 의군을 이끌어주십시오.》

류린석의 격문을 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김복한이 상앞에 넙적 엎드리며 청을 드렸다. 주용규도 따라 엎드렸다.

그제서야 생각이 난듯 류린석은 약간 의아한 자세를 취하며 손을 내흔들었다.

《물론 마음이야 지금도 끓고있지. 하지만 그때에도 이렇다 하게 의병을 일으키지 못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얼마간 모여들기는 했지만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채 헤여져버렸거던. 게다가 이제는 나이도 먹었어.》

《그런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때에 이어 세번씩이나 격문을 날린것은 선생님의 높은 애국심과 강경과단한 자질을 보여주신것으로써 지금도 만사람의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만큼 비록 년로한 몸이지만 이제라도 대장으로 나서신다면 높은 인망과 정력만으로도 사람들

이 따를것입니다. 속히 대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두사람의 눈에는 뜻밖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린석이 황황히 그들을 일으켜 잔을 따랐다.
《내가 대답을 저어하는것은 오직 군사를 모르는때문일세. 이로써 내가 격문을 낸것이 의병장이 되자고 한노릇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지 않나. 하면서도 그대들의 간절한 부탁과 제천에 모여왔다는 사람들의 정상을 보아서 생각을 좀 해보겠네.》
《실은 그들의 대부분도 싸움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이라는것이 더욱 중요하지. 내가 겉으로는 하겠다고 쉽게 대답을 해놓고 군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런 대장을 모신 자네들의 심정이 어떻겠나. 그래서 오늘 밤은 푹 쉬고 래일 다시 의논하세. 먼길에 수고많았네.》
그가 이런 말로 위로해서 각기 잠자리에 들었다.

2

린석은 온밤을 잠들지 못한채 뜬눈으로 새웠다. 그도 그럴것이 평생 붓대를 손에 쥐고 붓대와 함께 살아온 그였기때문이였다.
춘천이 고향인 그는 향교의 교사였던 아버지 류중곤의 지도로 글을 배웠고 유교성리학에 깊이 몸을 잠그었다. 그에게 두 형이 있었지만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혈육이라고는 그 하나만 남아있었다. 그만큼 그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마저 그가 한창 성장하던 때 중병으로 세상을 뜨고말았다.
한창나이의 혈육들을 다 잃고난 그는 그들이 못다한 학문의 뜻을 받들어 극성스레 공부를 하였다.
유교성리학이 비록 타국에서 들어온것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심원한 뜻과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는가. 임금과 신하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

고 부자간엔 정이 있어야 하며 남녀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3강과 어른과 아이, 웃사람과 아래사람사이에는 순서가, 벗들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륜리도덕을 합쳐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이 진리야말로 이 세상을 받드는 주추돌이요, 나라를 나라로서 유지하게 하는 기둥이다.

사람은 다 자기 분수에 맞는 지위가 있다. 임금이 있어 신하가 있고 부모가 있어 자식이 있으며 웃사람이 있어 아래사람이 있는것은 다 하늘이 정한 리치로서 이것은 누구도 변경을 못한다. 따라서 사람은 이 정한 리치에 따라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웃사람이 현명하고 아래사람이 우둔한것도 다 이 정해진 리치에 따른것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땅에도 높고낮은데가 있듯이 사람도 그렇다. 세상이 소란하고 복잡한것도 바로 이 정해진 리치에 어긋나게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서 오는것이다.

임금은 곧 하늘이다. 임금은 하늘의 뜻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천자이다. 따라서 임금께 충성하는것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도의로서 누구도 거기에서 제외될수 없다. 바로 이것을 대의명분이라고 하며 세상을 받드는 또 하나의 기둥이고 주추돌이다. …

린석은 자기가 배우며 평생 굳혀온 유교성리학의 의미를 다시한번 음미해보았다. 할수록 그 뜻이 깊고 의미가 심원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굳게 다져온 진리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안으로는 상하귀천의 기틀이 헝클어져 그 차이가 줄어들고 밖으로는 양놈, 왜놈들이 쓸어들어 나라의 기반을 흔들어놓고있다.

특히는 력대로 조선을 상국으로 섬기며 뢰물까지 바쳐오던 왜나라가 갑자기 《대국》으로 둔갑하여 왕궁을 침범하는가 하면 8도 각지를 싸다니며 재물을 략탈하고 사람들까지 죽인다. 분수에 어긋나도 류만부동이지 쪽발이 왜놈들이 어떻게 감히 이럴수 있단 말인가. …

그리하여 린석이 뛰여든것이 위정척사운동이다. 즉 유교교리를 더욱 튼튼히 다지여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계를 굳건히 고수해나가는것이다. 그러자면 유교를 제외한 모든 이교도 특히 카톨릭교를 철저히 물리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 …

비록 맹목적인 충군사상에 기초한것이기는 하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커다란 사회적운동으로까지 번

져갔다. 척양척왜의 구호가 하나의 풍조로 되고 도처에 《척화비》가 세워지게 된것만 봐도 그들의 영향력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여론이나 환기시키고 이런저런 운동이나 벌리는것으로 끝났지 직접 총칼을 들고 침략자들과 싸움을 벌려보지는 못했다. 물론 린석이 의병대를 조직해보자고 여기저기 뛰여다니기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지금 제천에 의병대들이 모인것은 잘한 일이지만 자기가 그 대장이 되는것은 다른 문제이다. 역시 군사를 모르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여차하다가는 싸움에서 패하고 뭇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줄수 있다. 그때의 책임을 어떻게 말아안을수 있겠는가.

그가 지금껏 의병투쟁을 호소한것은 싸움에 일어나라는것이였지 자기가 그 대장이 되자고 한것은 아니였다.

그가 지금 제천으로 가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림종을 눈앞에 둔 어머니가 있는것이다.

고령 심씨인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들을 앞세운 어머니이고보면 그럴만도 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였다. 그는 린석이 아직 배속에 있을때 자기 배꼽에 벌떼가 한뭉치 매달린 꿈을 꾸고나서 이제 태여날 아이가 반드시 큰 인물이 되리라는 예언을 했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린석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머리가 영민했다. 열살이전에 벌써 천자를 통달하고 훈몽자회(어린이들을 위한 한자교재)를 뜬금으로 외웠으며 남들이 한생을 바쳐도 터득하기 힘들다는 사서(유교교리를 설교한 고전들. 곧 론어, 맹자, 중용, 대학의 4가지)와 륙경(역시 유교교리를 적은 고전들로서 주역, 상서, 시경, 춘추, 례와 악의 6가지 경서)을 젊은시절에 다 뗐다.

성격도 남달리 강직하고 대가 발랐으며 정의앞에서는 굽힘을 몰랐다.

그가 일곱살때 한번은 뒤산 동굴속에 도적들이 웅거해있다는 말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오르기를 주저하였다. 그때 린석이 동굴로 혼자 올라갔다. 마침 굴앞에서 훔쳐온 물건을 나누고있던 도적들은 종주먹을 쥐고 부릅뜬 눈으로 숲속에서 나오는 그를 보고는 기급하여 달아났다. 이런 린석을 두고 사람들은 호랑이처럼 사납고 나는

룡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기상이라고 하였다.

열살이 넘어서부터는 서울에 올라가 공부를 하였는데 추운 겨울에 거지아이들이 길거리에 누워자는것을 보고는 자기가 덮던 이불을 내다주고 자기는 허리를 꼬부리고 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아마 지금도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잊지 못해하며 따르는것이 깊은 학식과 함께 그와 같은 깊은 인정미에 끌려서일것이다.

류린석의 이와 같은 굳세고 곧바른 성격을 말할 때 어머니 심씨의 노력을 론하지 않을수 없다. 그는 아들에게 눈먼 사랑만 쏟아붓지 않았다.

린석이 아직 어렸을 때 한번은 음식을 잘못 먹어 온몸에 요충이 퍼졌던적이 있었다. 콩알처럼 뭉친 요충들이 온몸의 여기저기에 돋아났다.

아들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그 시각 어머니는 아들을 알몸뚱이로 꽁꽁 묶어 모기장안에 집어넣고 그안에 벌통 하나를 터쳐놓았다. 성난 벌들이 린석에게 무자비하게 달려들었다. 린석은 수백수천마리가 쏘아대는 벌독에 취해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다.

그것이 우연이였던지 아니면 벌독의 효과에서였던지 린석은 사흘만에 의식을 차렸고 요충들은 간 곳없이 사라졌다. 아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모질고도 굳센 의지의 발현이였다.

바로 그런 손길아래 자란 린석이기에 지금 그는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차마 자기가 떠나야 한다는 말을 입밖에 내기가 힘든것이다. 린석이 하루만 보이지 않아도 진종일 그 이름을 찾는 어머니였다. 하다가도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문득 웃음을 지으며 언제 그랬느냐싶게 반기군 했다. 바로 그런 어머니이기에 내가 없다면 얼마를 더 견디여내며 내가 없는 사이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일을 어찌랴 하는 생각이 밤새도록 그를 잠 못들게 하였다. 아침상을 마주할 때까지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떠나자고는 하면서도 어머니의 정상때문에 입을 열수가 없었던것이다.

그가 식사를 끝내고 마루우를 서성거리고있는데 안방에서 그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여성아, 애아버지야… 이리 들어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린석이 장가를 든 이후부터 노상 이름대신 자

로 여성이라고 부르는 어머니였다.

《어디 갈 일이 있니? 왜 밤새 잠들지 못하고 뒤채기고있었냐?》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앉았던 린석은 한순간 몸을 흠칫했다. 딴방에서 잠을 잔 자기를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는데 어머니가 마른 나무가지같은 손을 들어 린석의 팔목을 잡았다.

《갈데가 있으면 가려무나, 내 걱정은 말구… 네가 분명 나라일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사내는 그래야 한다. 어서 가거라…》

순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팔다리가 떨렸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작별의 말씀이 아니겠는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평시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린석이 어디로 떠나지 못하게 어디가 아프다, 오래 살것 같지 못하다 하면서 옴짝을 못하게 붙들어놓기만 하였다.

《저 사람들이 널 데리러 왔지?》

어머니가 재차 물었다. 그때에도 린석은 대답을 못하고 머리를 수긋하고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하였다.

《어서 떠나라는데? 나라때문에라면야 가야지…》

또다시 가슴이 뭉클했다. 오, 어머니. 이것이 나의 어머니 아니였던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려운 때마다 매양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어머니는 그를 떠밀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라는것이다.

《어머니, 세밑으로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대답을 했다. 그러나 인차 후회를 했다. 아니, 나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 올수 없다. 왜놈들과 싸우는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계속했다.

《이런 때 끌끌한 손자녀석들이라도 있었으면, 그것들이 너를 대신할수 있겠는데…》

아들이 없는 린석을 탓해서 하는 말이였다.

어머니는 늘 그것을 한탄했다. 그때마다 린석은 가슴이 찔리군 했다. 자식의 불효중에도 제일 큰 불효가 대를 이을 자식을 남기지 못하는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에게 후취를 해서라도 꼭 아들을 보라고 했다.

한것을 린석이 하지 않았다. 안해 리씨를 생각해서였다. 마음씨 무

던하고 살림살이에 극성인 안해는 평생 그에게 말대답 한마디 안하고 살았다.

그는 류씨집안에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것을 최대의 죄악으로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이 리씨로 하여금 집안의 모든것에 순종하게 하였는지 모른다. 반대로 린석은 그런 리씨의 정상을 가긍히 여겨 후취를 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니 이제 그것이 가슴이 짜릿하도록 후회된다. 이런 때 길 떠나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위안거리로 될 손자녀석들을 안겨주지 못하는것이 가슴이 아팠다.

《사람들이 기다린다, 어서 떠나거라.》

어머니가 다시 보챘다. 그것이 린석으로 하여금 모든것을 잊고 용기를 내게 하였다.

《어머니, 되도록 빨리 돌아오겠으니 그사이 부디 앓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하직인사로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고 밖으로 나온 린석은 새롭게 갈마드는 죄의식에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인차 올수도 없을뿐아니라 어느 전장에서 목숨을 바칠지도 모르는 자기이기때문이다. 그것을 안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어머니는 그를 떠나보냈다. 결코 무사하리라고만 볼수 없는 길입을 어머니가 어찌 모르랴.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을것이다.

세밀으로 오겠다는 말에도, 빨리 오겠다는 말에도 어머니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손자에 대해서만 말했을뿐이다. 이것은 벌써 어머니가 이것저것 다 타산을 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아, 어머니…

그것이 린석의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의지를 가다듬고 분연히 일떠서게 하였다. 내 기어코 가리라. 의병들의 기대와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한몸 다 바쳐 싸우리라…

사랑방에서 기다리고있던 김복한과 주용규가 긴장한 시선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가세, 결심을 굳혔네.》

《정말입니까. 어머님이 승낙하셨습니까?》

《바로 어머님이 나를 떠밀어주었네.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싶은

심정이야!》

두사람의 얼굴도 금시 밝아졌다. 당장 떠날 차비를 서두르며 밖으로 나왔다. 린석도 나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해 리씨가 부엌문을 열어제끼며 곧장 린석의 앞으로 달려나와 길을 가로막고 섰다.

《어디로 가신다는것입니까. 가셔선 안됩니다.》

두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머리우로 하얀 가리마가 동그랗게 굽어졌다.

린석은 무춤 놀랐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있었다. 아니, 잊었던것이 아니라 뒤일은 그가 다 맡아주리라 굳게 믿고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렇게 돌발적으로 앞을 막아서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당신이 내앞을 막다니?》

《안됩니다. 어머님의 병환이 중하신 이때에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당신이 있지 않나?》

《저하고 나리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나리가 없으면 그때부터 아드님을 찾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응낙하셨는데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다가도 일단 떠나시면 그때부터… 그러시다가 혹시…》

《음흠? 당신이 언제부터 사나이의 한마디한마디에 대답질을 하는 버릇이 생겼나?》

《이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병세가…》 하는데 분합이 열리며 심씨의 목소리가 튀여나왔다.

《저런 말버릇 보아라. 어미가 이미 말을 했구 서방이 그만큼 타일렀으면 그런게다 하구 물러설것이지 무슨 대답질이야, 방정맞게시리…》

리씨는 그 말에 더 대답을 못하고 희끗한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며 도로 안으로 들어갔다. 나이 쉰이 넘도록 시어머니에게서 노상 아이 취급을 당해오는 리씨다. 그러면서도 언제한번 말대답을 몰랐다.

녀자는 응당 그래야 한다. 유순은 녀자의 첫째가는 미덕이다. 그래서 집안의 말 한마디도 밖으로 새여나가는 일이 없이 조용히 지내왔을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안해가 불쌍하기도 했다. 그는 방금 자기가 떠난 후 어머니의 병세가 더하거나 혹은 잘못될 경우까지를 타산해서 감히 남편앞에 나섰을것이다. 한것을 그는 무작정 욱박질렀다. 돌이키면 한생을 그렇게 살았다.

부부유별이라는 3강의 륜리가 그에게 녀자는 언제든 남자와 나란히 할수 없다는 인식을 깊이 심어주었다. 하여 열여섯 그 나이에 결혼한 다음부터 언제한번 애틋한 정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나마 한창때에는 집과 떨어져 산 때가 많았다. 어려서 글공부를 할 때에는 서울로, 산속으로 떠다녔고 젊어서는 학우들과 제자들을 찾아 전국을 편답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척양척왜운동과 이단배척투쟁으로 지방과 서울을 부단히 오고갔다.

그때마다 리씨는 그의 려행길을 말없이 도와주었고 집안살림을 빈틈없이 꾸려나가는것으로 뒤받침을 든든히 해주었다. 그때마다 린석은 부부는 인륜의 으뜸이요, 이성지합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한 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하면서도 리씨앞에서는 때없이, 어떤 때는 처음부터 큰소리를 질러 그를 놀래우거나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이제 막상 집을 떠나자고 하니 새삼스럽게 그것이 후회된다. 왜 그에게 실없이 큰소리를 쳤던가. 내가 떠나가면 어머니의 지청구를 또 얼마나 들어야 할것인가. 혹은 어머니가 잘못되는 경우 그에게 지워질 부담이 얼마나 클것인가.

안해는 분명 이 모든 경우를 생각했었을수 있다.

그러나 그런 후회도 오랜 세월 굳어진 그의 습벽을 버리지 못했다. 안해가 방에 들어갔다가 보짐을 싸들고 또 부엌에서 음식그릇들을 들고 나와 집군들에게 나누어줄 때에 그는 또 저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질렀다.

《뭘 그렇게 꾸물꾸물거려. 빨리 하지 못하구?》 하다가 그는 리씨가 하녀에게서 놋잔에 술을 받아 앞에 내미는것을 보고 흠칫 놀랐다.

《먼길에 몸성히 돌아오십시오. 집일은 소첩이 있는 힘껏 맡아하겠

습니다.》

그는 얼결에 잔을 받았다. 술기운이상 가슴이 짜릿했다. 매 사람에게 잔이 돌아가고 리씨에 대한 찬사가 터져나올 그때에야 속에 든 진정이 울렸다.

《여보, 나는 아니떠날수 없소. 왜놈, 양놈들이 쓸어들어와 지금 나라형편이 어지럽기 그지없소. 국모가 왜놈들에게 살해된것을 당신도 알지?》

《다시는 앞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고생이 많을줄 아오. 하면서도 떠나지 않을수 없는것은 오로지 나라근심때문이요. 대신 당신이 집일을 잘 돌봐주오. 황소가 끌어도 못하는 일을 녀자가 한다고 했소. 당신이 내내 그렇게 했지. 그걸 내가 모르는바 아니요. 이제 내가 돌아와서는 그만큼 당신을 도와주겠소.》

그때 린석은 안해의 얼굴에 상긋이 피여나는 웃음을 보았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그 얼굴의 웃음은 장마구름사이로 난 해살처럼 린석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어머니를 부탁하오.》

말하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물큰 새여나왔다.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을 돌리며 말우로 훌쩍 뛰여올랐다. 미구하여 높지 않은 솟을대문과 납작한 담장에 둘러싸인 그의 집은 아늑한 산기슭의 풍경화마냥 아물거리다가 사라져버렸다. 그날이 을미(1895)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말이였다.

3

복잡다단했던 갑오년이 지나고 을미년에 들어서면서 잠시 조용해지는가싶던 형세는 일제의 민비살해책동으로 또다시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세론을 물끓듯 소란하게 했다.

돌이키면 갑오년 그해에 세상을 놀래운 사변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전봉준지휘하의 전라도농민폭동과 그의 전국적파급, 전주성점령, 그에 당황망조한 봉건정부의 《전주화의》의 체결과 그 막뒤에서 청나라군대를 끌어들인 민비일당의 책동, 그것을 구실로 뒤따라 자기 군대를 끌어들인 일제, 자기들의 요구를 기어이 관철할 의지로 농민군이 삼남지방의 수십개 고을에 설치한 집강소들과 그들의 활동으로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진 봉건통치체계, 청일전쟁의 도발과 조선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 조선내정에 대한 일제의 란폭한 간섭과 왕궁점령, 외세를 밀어내고 자체의 힘으로 근대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혁신관료들의 군국기무처의 설치와 부르죠아개혁, 일제에 의한 그의 파탄과 친일내각조작, 그에 격분한 전봉준농민군의 재궐기와 서울공격작전, 공주대격전, 그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농민폭동의 실패…

우리의 적은 왜놈이다. 저 쪽발이왜놈들이 기어코 조선을 집어삼키려 하고있다. 갑오년에 이어 계속된 일제의 부단한 간섭책동, 특히는 을미사변과 같은 경악스러운 사건들은 왜놈들이 우리의 주되는 적이며 그놈들을 기어코 밀어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주었다. 바로 이 사건으로 하여 평시부터 반일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 혹시 우리를 도와주지나 않을가 하고 미련을 가졌던 사람들도 일제를 반대하는데로 생각들을 모아갔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한곬으로 모여온 사람들의 하나가 제천에 집결한 각지 의병부대들이였다.

바로 그날 류린석이 김복한, 주용규들과 함께 춘천을 떠날 때 제천에 있는 향교마을은 각처에서 모여온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마을이라고 해야 향교와 불과 몇십채밖에 안되는 농가가 전부이지만 요즘은 전에 없던 인총으로 붐비고있었다. 향교가 들어선 골짜기의 무성한 숲속마다는 떠들썩한 훈령소리, 노래소리, 거치른 롱담과 욕질소리로 벅적 들끓었다. 어뜩새벽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사방에서 피워올리는 연기로 골짜기는 진종일 젖빛안개속에 묻혀있었다.

바로 그런 속에 제천고을의 유지의 거두이며 향교의 교사인 유생 안승우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인가에 들지 못한 태반의 의병들이 개울가나 산비탈에 천막이 아니면 반토굴집을 짓고 거기에 들었다. 하거늘 어찌 잠시인들 방심을 할

수 있으랴. 교생들은 물론 향교의 땅을 부치며 사는 농호들까지 전부 동원하여 그들을 돕게 하였고 자신이 직접 뛰여다니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댔다. 그렇게 하루이틀 지나며 일정하게 자리가 잡히게 되자 비로소 친구들을 자기 집에 청하였다. 여러 고을에서 의병들을 달고 온 의병장들이였다. 밖에 나서면 의병장이지만 이렇듯 한방에 모여앉으면 소꿉동무이며 동문수학생들이다. 너렁청한 방에 술상을 차려놓고 오래간만에 취흥을 즐겼다.

《암, 총대장이야 의암선생이 되여야지. 그이만이 이 싸움을 참답게 이끌수 있어. …》

안승우가 술상을 탕탕 두드리며 떠들었다. 벌써 몇번째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였다.

그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했고 또 한결같이 대장으로 추천도 한바이다. 그래서 저 김복한이나 주용규들이 그를 모시러 가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안승우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것은 빨리 류린석이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을에 와있기는 하지만 제힘으로는 그들을 이끌수 없다는 두려움에서이다.

《헌데 의암선생이 와주기나 할가. 혹시…》

누군가 한마디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반발하는 말들이 튀여나왔다.

《혹시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의암선생이 바로 우리 스승이고 왜놈이라면 치를 떠는분인데 응하지 않을수 있나?》

그러자 말한 사람이 급히 손을 쳐들었다.

《아니, 난 그런걸 념두에 둔 말이 아닐세. 물론 그 말이 옳기는 하지만 의암선생으로 말하면 그대로 어려움이 있네. 집에 로모가 계시구 또 자신도 년로하시지 않나, 게다가 군사도 배운것이 없구… 이에 대해선 언제인가 선생자신이 말씀하신적도 있네.》

잠시 술상이 조용해졌다. 그 말이 옳거니 긇거니하는 시선들이 오고갔던것이다. 그때 안승우가 손을 들어 상우를 가로세로 휘저었다.

《그럴것 같으면 선생이 왜 격문을 몇차례나 전국에 띄웠을텐가.

그쯤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 뭐 우리는 애초부터 무관이였던가. 우리가 언제 손에 창칼을 쥐여보았고 전장에는 나가보아서 이 자리에 모여왔나. 이게 다 애국지심에서 나온것이야. 아예 그런 말 말라구.》

그를 두둔하는 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상이 흔들리고 잔들이 부딪치고 노래가락이 울리였다. 그러자 승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 한수를 읊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도 벗이 있어 먼곳에서 찾아주니
이 아니 반가울소냐
아이야 거문고 가져다 청쳐라
어쩌다 만난 날에 마음껏 취코싶다
래일 전장에서 헤여지면
우리 다시 만나지 못할수도 있으려니
…

안승우는 보통 말이 적고 조용하며 성격도 그닥 트인 사람이라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일단 취하고보면 앞뒤를 가리지 않으며 고집도 옹고집을 부린다.

또다시 그에 호응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평시에는 머리에 쓴 갓망건 하나 벗기를 저어하며 바재이기를 그지없어하던 사람들이 오늘만은 맨 상투바람에 창옷고름마저 다 풀어헤쳤다. 그까짓 의관갖춤새가 무엇이랴. 지우들사이의 의리와 친분이 이렇듯 두터우니 가리울것인들 있으랴 하는 심산들에서였다.

그때 살며시 문이 열리며 녀자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틈사이로 흘러들어왔다.

《아버지 취하셨어요. 남의 시도, 자작시도 아닌 시를 마구 읊으시면 어떻게 해요.》

안승우가 흔들거리는 몸을 바로세웠다. 문가에 딸 미영이 서있었다. 집에 하나밖에 없는 녀종과 함께 술심부름을 하던 그다. 딸이 지금 자기를 탓하기는 하지만 생긋이 웃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제 손으로 만들어입은 초록치마에 분홍저고리는 또 얼마나 고운가.

하면서도 입으로는 딴소리를 했다. 역시 속에는 품은 소리다.

《너 또 어른들 일에 참견질이냐, 그러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글하는 아버님이 남의 글을 망탕 외우면 욕해요. 그건 잘못이 아니람?》

안승우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옆에 앉았던 리춘영이 끼여들었다.

《미영이 말이 맞는다. 아무렴, 남의 글을 함부로 외곡하면 안되지. 여보게 하사, 딸의 말을 듣구 그만 앉으라구.》

리춘영이란 지평에서 현감벼슬을 하다가 과감하게 의병에 뛰여든 사람이다. 류린석의 같은 반 제자들가운데서 유일하게 벼슬을 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5백명이 넘는 의병들을 데리고온것으로 하여 누구보다 인망이 높다.

《내가 보기엔 미영이 네가 아버지보다 낫다. 네가 비록 자습을 했다 하지만 글공부를 그렇게 잘한다지? 차라리 네가 한수 읊어보아라.》

이번에는 문경에서 온 리린영이 나섰다. 그도 문경에서 향교를 운영하고있는데 승우의 딸이 글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소문으로 듣고있어서 한번 시험쳐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미영은 대답을 안하고 방에 들어와 빈그릇들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린영의 흥취를 더 돋구었다.

《이런 산속에 어떻게 저런 인물 잘나고 글 잘하는 녀자가 생겨났을가. 게다가 집안살림살이까지 잘한다지. 여기 제천의 물이 좋은가?》

《물뿐인가요, 산좋고 나무좋고 바위좋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다구요?》

미영이 한마디 대답하자 린영은 더 성수가 났다.

《이 애 말 말어라. 제천하며는 예로부터 산이 깊기로 유명하다. 오죽하면 먼 옛날 이곳에 왔던 정승 한사람이 저 륙미정 현판에 이런 시를 걸어놨겠니.

가고갈수록 맑은 물과 버드나무숲
산은 또한 우중충 높구나
드문드문 사람사는 집

마치 그림속을 들여다보는듯》

미영이 그 시를 음미하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시는 우리 고장을 겉만 보고 지은 시예요. 차라리 제 시를 한수 들어보세요.

길가는 나그네들 험한 산길 싫다지만
산중에 사는 사람들 오히려 산이 좋다네
봄이면 당귀며 고사리 산나물이 좋구요
밤이면 앞개울에서 고기잡이 더욱 좋네》

갑자기 술좌석이 벅적 끓었다. 짝짝 손벽을 치는 사람, 쨍강쨍강 접시를 때리는 사람, 허허 소리내여웃는 사람, 한마디로 미영에 대한 감탄과 찬사의 소리였다.

《이 애, 그게 너의 자작시냐?》

《린영이 미영이한테 졌다. 듣던바대로 네가 영특한 애로구나.》

《그게 백호 림제(리조 중엽의 작가. 〈재판받는 쥐〉의 저자)의 시이구먼. 그렇더라도 마치 즉흥시처럼 얼른 대구로 읊어대니 그게 조련한 일인가.》

리춘영은 물론 안동에서 온 리범직이, 관동지방에서 온 리직신이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러는 사이에 미영은 밖으로 나갔다. 자기도 모르게 어른들의 이야기에 끼여들었다는 무안하고 죄스러운 생각때문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안승우가 얼굴이 벨개서 다시 볼부은 소리를 했다.

《계집이 버릇없기란…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를 않거던.》

《뭐가 어드래서? 사내처럼 시원시원해서 좋지.》

《아무러면 자네처럼 꽁하고 샌님같아야 좋을가?》

여럿이 떠들었으나 승우의 자세는 여전했다.

《저게 시집가서 남의 사내들앞에서까지 저러면 어찌겠나. 필시 좋아 안할것이거던. 시부모들은 또 뭐라고 할것인가. 어미없이 자란 계집이라 아비의 말은 도무지 듣지를 않거던.》

사람들이 그런게 아니라고 거듭 말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오래 굳어진 버릇이 어느덧 딸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로 몰아간것이 아

닌지…

지금 그에게 살붙이라고는 미영이 하나밖에 없다. 벌써 몇해전에 온 마을을 휩쓴 알지 못할 전염병으로 안해와 함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것이다. 미영이만은 서울에 있는 외가집에 갔다가 천행으로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 끔찍한 참변이 딸에 대한 애정을 곱절로 더해주었다. 승우가 상처를 한 후에도 재취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딸을 위한 생각에서였다. 그에게 계모의 화를 입지 않게 하자는것이였다. 그때 미영의 나이가 겨우 열세살이였다. 대신 집안의 크고작은 일이 다 미영의 어깨우에 얹혀졌는데 놀랍게도 그는 다닥치는 일을 잘 처리해나갔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한것은 아니고 승우나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섰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모든 일을 그가 채잡고 운영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언제나 집안이 훤한것이라든지 손님들이 와도 무안해본적이 한번도 없는것이라든지 또 몇해가 가도 가산이 기울지 않는것이라든지 하는 모든것이 전수 미영의 덕분이였다.

그럼에도 승우가 항시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은 그것이 어미없이 자랐다는 선입견과 아울러 사내처럼 덜렁덜렁하고 어른들의 일에까지 끼여들어 아는체 하려는것이였다. 그것만이라면 또 몰라도 근대문명에 따라 자기도 신녀성이 되여야 한다며 서울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떠하며 글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따위에 곧잘 신경을 쓴다.

그런것이 계집에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계집이고보면 몸이 건강하여 시집가서 아이 잘 낳고 집안살림이나 잘하면 그만이지 하고 그는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러한 생각의 뒤에는 미영을 어느 명문가의 집에 시집을 보내여 자기의 나머지 여생도 곡절없이 보내겠다는 속심이 깔려있었다.

《하사, 한잔 받으라구.》 하는 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마주앉은 사람이 상너머에서 팔을 벌려 잔을 내밀고있었다. 승우가 그 잔을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앉았던 리춘영이가 먼저 받아 꿀꺽꿀꺽 마시였다.

승우가 은근히 화가 동해 바라보는데 춘영이 하는 말이 가관이였다.

《잔이야 내가 먼저 받는게 옳지, 일개 고을의 사또가 아닌가.》

허허거리는 웃음과 한쪽눈을 찔끔해보이는 뒤에는 분명 딸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승우에 대한 힐난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승우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발끈 성을 냈다.
《제가 사또라고 해서 아무데 가서도 사또인가. 제발 이런 좌석에서까지 저만 저인체 말게.》
같은 량반이라고 해도 벼슬하는 관리이고보면 딱 질색하는 승우였다. 그래서 이곳 군수와도 사이가 좋지 못한것으로 고을에 소문이 나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야 나라가 인정하는 일개 고을의 현감이요, 사또가 분명하지. 그만큼 내 입에 들어오는것도 많아야 할게 아닌가?》
《그런즉 자네도 알만 해. 고을의 장관이랍시고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고 토색에는 또 얼마나 극성이겠는지.》
《흥, 말도 말게. 벼슬 한자리를 얻어하게 되면 그날 밤부터 아첨군들이 찾아들고 뢰물이 굴러들거던. 그런자들을 보면 무척 사랑스럽고 믿음이 가지만 말대답이나 톡톡 하고 제 소견머리나 고집하는자들을 보면 낯색부터 찡그려진단 말이야. 이건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어서 그런것일세.》
《흥, 내 친구 하나가 고을의 사또가 되였길래 신세를 져볼가 했더니 안되겠군.》
누군가 이죽거렸다. 그러자 이번에도 리춘영이 얼른 받았다.
《이 사람이 모르는군. 〈나에게 좋은 벼슬이 있다는것은 곧 너를 구속한다는것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나. 신세같은것은 말도 말게.》
춘영이 원래 롱담을 좋아하는데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요령까지 배워서 제법 능청을 부렸다. 그러나 승우는 더욱 앵돌아져서 상에서 벌컥 물러나앉더니 장죽을 빼여물었다.
《실컷 그래보게. 하지만 그때에는 우리의 벗이 아니구 도학군자가 되지 못한다는것을 명심하게. 우리가 애초에 의암선생에게서 글을 배울 때 모두가 도학군자가 될것을 목표하지 않았던가. 했던것을 이제 현감벼슬 한자리 얻어하더니 순간에 탐관오리가 되여버렸구만.》
《글이라는것이야 철없을 때 하는것이구 아래사람들이나 하는것이지 웃사람들이 언제 책같은것을 펴볼새가 있구 또 그럴 필요나 있

다던가. 원, 저렇게두…》

《그러니 자넨 밤낮 아첨군들의 말이나 듣고 그들이 맞춰주는 비위에 따라 정사라는것을 하고있겠군. 더럽다, 더러워. 퉤…》

승우가 참지 못해 때아닌 깃부채를 들고 화락화락 젓다가 춘영의 옆에 대고 침을 뱉는 시늉을 하였다. 이번에는 춘영이 발끈해서 얼굴의 땀을 씻어내며 이것 보아라 하고 달려들 자세를 취하였다.

바로 그때 갑자기 좌중을 짓누르는 귀설은 소리가 울려나왔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모두가 그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리린영이가 상앞으로 제비처럼 입술을 쪽 빼들고 지지위지지를 외우고있었다.

순간에 웃음판이 터졌다. 지어 다같이 성이 올랐던 안승우와 리춘영이마저 입을 벌쭉거리다가 허허 너털웃음을 터쳤다.

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 외우던 공자의 말이다. 즉 《아는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것은 모른다고 하는것이 곧 아는것이다》라는 뜻인데 그때 그들은 그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누구나 애를 먹고있었다. 그중 안승우만은 누구보다 빨리 따라외울뿐아니라 그 발음이 제비의 울음소리와 하도 비슷해서 자주 놀려대군 했는데 지금 린영이 그때의 흉내를 내는것이였다.

모두가 허리가 끊어지라 웃어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소리가 그들을 한바탕 웃기였다.

《독식락여 중식락 숙락!》

그 《독식락여 중식락 숙락》이라고 하는것은 《혼자서 먹는것이 좋으냐 여럿이 먹는것이 좋으냐》하는 뜻으로서 원래는 맹자가 왕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독악락여 중악락 숙락》이라고 했던 말이다. 즉 《음악을 혼자 듣는것이 좋으냐 여럿이 듣는것이 좋으냐》하는 뜻으로 했던 말인데 그들이 글공부를 하면서 그 소리를 개구리울음에 비유했을뿐아니라 먹는다는 의미로 와전까지 했던것이다. 그 소리만은 이 자리에 없는 김복한이가 특별히 잘해서 의암선생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한것을 그들은 복한이 식성이 좋아서 몸에 맞게 비유를 잘했을뿐이라고 하면서 그를 노상 놀려주군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아득한 옛일로 되여 하나의 즐거운 추억으로

밖에 남지 않았다. 한바탕 웃고나자 그것도 사라지고 보다 급한 눈앞의 현실이 다가왔다. 나라가 위태롭다는것이다.

왜놈들이 내 나라를 침노하고있다. 조선이라는 신성스러운 나라가 저 바다건너 섬오랑캐족속들의 발굽에 짓밟히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모여앉았다. 방금 주고받은 롱담이나 언쟁들조차 그 심리적압박감속에 제나름으로 터쳐놓은 반감일수 있다. 나라가 위태롭다. 장차 이 나라를 어떻게 건져낼것이냐…

《미영아, 술 더 가져오너라!》

다시 술상에 다가앉은 춘영이 소리쳤다. 한참동안 대답이 없던 미영이 문가에 나타났다.

《술이 없어요. 아니, 마셔선 안돼요.》

그 소리를 듣고있던 승우가 춘영의 편을 들었다.

《어른들앞에서 또 무슨 대답질이냐. 어서 가져와!》

《큰아버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돼요. 술이 없어요.》

《큰아버지가 언제 오실줄 알구. 어서…》

승우의 마음이 돌아선것을 보자 모두가 성수가 나서 술을 더 요구했다. 그러나 미영은 대답을 안하고 입만 사려물었다.

그가 말하는 큰아버지란 곧 의암 류린석이다.

성이 류가인 그가 안미영의 큰아버지가 될수는 없다. 그러나 미영은 문중의 개념에서보다 린석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를 늘 큰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고있다. 아버지 승우가 스승에 대한 도의감으로 늘 련계를 가지고 가며오며 하는 과정에 맺어진 우정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보다는 미영이 어머니를 여의고 집안살림을 맡아하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린석이 안해 리씨를 한해동안이나 미영에게 보내여 살림을 돕게 하였다. 바로 그런 관계로 미영은 린석뿐아니라 안해 리씨까지 큰어머니라 부르며 따르고 존경하고있는것이다.

그만큼 지금 미영은 의병대장으로 추대되고 사람까지 보내여 모셔오게 한 린석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언제면 오실가. 빠르면 오늘이라도 당도할수 있을터인데. 큰아버님 성미에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앉아계시지 못할거야… 하고 그는 내심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더니 곧장 누군가의 높고 긴 소리가 방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대장님 행차이시요. 의암선생님이 당도하시였소!》

방안사람들이 후들쩍 놀라 일어서고 미영은 어느새 뜰아래로 뛰여내렸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활짝 열린 대문으로 린석이 들어서는것을 보았다.

흰 무명도포에 검은 통영갓을 쓰고 바지를 가뜬히 동여맨 발목아래에는 목까지 올라온 갖신을 받쳐신었다. 많지 않은 수염은 이미 반백이 지났으나 얼굴에는 아직도 진한 홍조가 어리고 희열이 넘쳤다. 환한 웃음으로 뜰안을 둘러보는 눈에는 열정이 이글거리고있었다.

《대장님께 문안드리오. 원로에 수고하셨소이다!》

《귀체만강하셨나이까. 만년축수를 바라옵니다!》

각기 제나름대로 올리는 인사소리가 뜰안을 울렸다. 린석은 한사람한사람을 일으켜세우며 답례를 했다.

《고맙네. 음, 자네도 왔군. 잘 왔네…》 하고는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들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승우가 그를 아래자리에 앉히고 같이 온 김복한과 주용규를 그옆에 앉히였다. 이윽하여 모두가 자리를 차지하자 린석이 말하였다.

《이렇게 모두들 모여와주어서 고맙네. 그 수고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겠네. 다만 여기 괴은 리춘영이를 비롯해서 모두 힘든 고행길을 스스로 택한데 대하여 고맙게 여길뿐이네. 나로 말해도 애초에 의병을 호소할 때 무슨 의병대장이 되자고 해서였겠나. 다만 왜놈들과 일어나 싸우자고 호소만 했을뿐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모여왔기에 같이 힘을 써보자고 달려왔네.》

《선생님, 이것은 정당하며 마땅히 그렇게 되여야 하는 일인줄로 압니다. 선생님은 평시에 나라라는것은 우리가 딛고선 땅이고 하늘이며 먹고 쓰고사는 모든것을 안겨주는 근본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잃고나면 어디에 가서 의지할 곳을 찾겠습니까. 아울러 저희들을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모든것을 의탁하는것은 마땅한 도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리춘영이 먼저 말하고 그앞에 엎드렸다. 뒤따라 모든 사람들이 일

제히 엎드리며 합창을 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끌어주십시오.》

린석은 수염을 쓸어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여럿이 일심협력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나설 때에만 성공할수 있네. 이것을 잊지 말것만 바라네.》

여럿이 또다시 머리를 방바닥에 조아리고 모두를 대표하여 먼저 안승우가 한잔 따랐다.

린석이 기분좋게 그것을 받아마시였을 때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미영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누구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그대로 문앞에 무릎을 꿇고 린석을 향해 큰절을 했다.

《큰아버님 오셨습니까.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는 여느 녀자들 같으면 어디론가 달려갔을것이지만 그는 곧바로 린석의 옆으로 발름발름 다가가 팔을 붙잡고 나란히 앉았다.

《큰어머님은 무고하신가요? 큰할머님은요?…

저는 오늘 큰아버님이 꼭 오실줄 알았어요. 그래서 술도 내놓지 않고있었는데 이젠 마음껏 드셔도 돼요.》

린석은 그의 마디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해 웃음을 금치 못하였다.

《네가 한해사이에 또 몰라보게 이뻐졌구나. 이젠 시집을 가야지. 신랑감은 골라놓았니?》

《큰아버진 또… 난 의병이 될래요. 녀자도 싸울수 있지요?》

《네가 의병이 되겠다구? 난 녀자가 의병이 되였다는 말을 여적 듣지 못했다.》

《음? 큰아버지가 격문에 그렇게 쓰구선, 왜놈과 싸우는 일에는 남녀로소 존비귀천을 가리지 말고 모두 떨쳐나서야 한다구.》

《그랬던가? 그럼 미영이도 싸워야지. 창칼을 들고 전장엘 함께 나가보자꾸나.》

그 소리에 모두가 따라웃었다.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안상을 주관하던 안승우도 그 소리에는 따라웃지 않을수 없었다.

4

제천이라고 하면 험한 산세와 수려한 풍치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게 된다. 가까이에 고을의 진산이라고 하는 룡두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대덕산, 박달산, 부곡산, 감압산들이 불과 몇십리안팎에 둘러싸여있고 또 백리안팎으로는 나라의 동남부에서 제일 큰 소백산과 태백산줄기들이 연해 솟아있다.

하기에 이곳을 찾는 사람이면 동서남북 어디로나 우중충한 산세에 눌리워 혀를 차며 먼저 떠나갈 생각부터 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도의 소재지인 충주성이 불과 사오십리밖에 안되는 곳에 위치해있고 나라의 중부산악지대를 남북으로 련결하는 도로가 길게 꿰질러있어 그렇게 궁벽하다고만 볼수 없는 고을이다. 오히려 경치가 수려하고 물과 공기가 좋아 예로부터 지체는 없으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안승우가 바로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한때 린석의 휘하에서 유교교리에 깊이 취해있던 그는 최근 십년어간에 급격히 대두한 외래침략세력에 대처하여 척양척왜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위정척사론》을 향교의 교생들과 고을의 유생들에게 심어주는 일에 전심하고있었다. 그런 일로 하여 류린석이 이곳을 자주 다녀갔고 승우와 가까운 친우들도 기꺼이 찾아드는 고장으로 되였다.

바로 이런 곳을 다시 찾게 된 린석의 감회도 깊었다. 애써 정을 들이고 품을 들인 고장에서 옛 제자들이며 동시에 학우들이기도 한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벌리게 되는것이다. 바야흐로 그 싸움이 눈앞에 박두하고있다.

다음날 그는 안승우, 리춘영, 주용규들과 함께 향교마을을 돌아보았다.

향교는 제천읍에서 십리가까이 떨어진 의림지를 마주하고 풍치 아름다운 곳에 자리잡고있다. 하늘을 덮는 느티나무, 락엽송, 소나무,

밤나무, 참나무들이 무성한 아래에 나지막한 담장을 둘러치고 단청이 아롱다롱한 강당과 사당이 있고 교생들이 기숙하는 천계각과 현은사를 비롯한 몇채의 건물이 자리잡고있다.

한여름이면 우거진 나무그늘아래에 각종 새소리, 풀벌레소리들에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지만 지금은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사그라지는 해볕에 얼어든듯 바싹 옹크리고있다.

향교를 나온 그들은 대덕산에서 흘러내리는 얼음낀 개울을 건너 인가가 있는 마을로 들어섰다. 대부분이 동기와를 얹거나 새초로 지붕을 씌운 집들인데 그들이 바로 향교의 땅을 얻어부치고 사는 농호들이다. 지금 그 집들사이로 각지에서 모여온 의병들이 어디라없이 싸다니고있다. 그중에서도 분명한것은 산릉선과 골짜기마다에서 들려오는 힘찬 군령소리이다.

《앞으로 갓!》, 《우로 돌앗!》 하는가 하면 《앞으로 찔럿!… 힘을 주면서》 하다가 급격히 어조를 바꾸어 《옆에서 왜놈이 달려든다. 창대로 막앗! 이렇게…》 하는 창격전훈련소리도 들려온다.

리춘영이 먼저 자기 부대가 자리잡은 군영으로 린석을 안내했다.

무성한 나무숲사이로 의병들의 훈련모습이 바라보였다. 전이 좁고 색이 붉은 갓을 쓴 사람 하나가 그들을 배워주고있다. 분명 현에서 병방의 장교노릇쯤 하던 사람인듯 그 동작이 그럴듯하다.

앞에 늘어선 의병들의 대부분은 흰 무명바지저고리 아니면 베잠뱅이를 걸친 사람들이다. 머리에 쓴것은 저마다 달라서 목수건을 질끈 둘러맨 사람, 대가치나 버들가지로 엮은 패랭이를 한쪽옆구리에 삐딱하니 붙인 사람외에 갓쟁이, 망건쟁이, 두건쟁이, 맨머리에 머리태를 뒤등으로 길게 늘어뜨린 총각쟁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들이 가지고있는 병쟁기도 저마다 같지 않아서 긴 대끝에 날창이 번뜩이는 사람, 삼지창을 삐죽이 쳐든 사람, 괭이나 쇠스랑 같은것을 얼추 뚜드려가지고 날을 세운 사람, 대창이나 지어 맨 몽둥이만 가지고 서있는 사람도 있다. 그밖에 칼이나 활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부대가 달라서 따로 훈련을 하고있다.

《저의 훈령 한마디에 따라선 사람들이다보니 아직 병기준비와 훈련이 보잘것 없습니다.》

리춘영이 좀 무안하기는 하나 그대로의 자부가 없지 않은 소리로 설

명했다.
린석은 대답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것은 사람을 세워놓고 칭찬을 하지 않는 그의 굳어진 버릇이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를 칭찬하고 있었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인가. 저의 현감이 한마디했다고 하여 저 먼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수백명이 따라섰으니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것인가…
린석이 이런 생각을 하며 돌아본 다른 부대들의 형편도 어슷비슷하였다. 오히려 어떤 곳은 그보다 인원수도 적고 병쟁기도 부족했다.
그러나 린석은 그쯤만 해도 얼마든지 싸울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모여온 사람만 해도 하루이틀사이에 더 많아져 벌써 삼천명을 넘어섰다. 지난 갑오년에 그가 의병을 처음 일으켰을 때보다 열배가 넘는 인원이다.
《장하네, 그대들이 참으로 수고많았네.》
마침내 린석이 말하였다. 그가 돌아본 의병장들이 모두 따라섰다.
《이제 선생님의 구령 한마디만 떨어지면 전국이 떨쳐나설것입니다. 그때는 과연 싸울만 할것입니다.》
의병장들이 대답하였다. 하지만 린석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격문만 날려놓고는 혼자 집에 배겨있던 자신이 생각나서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그런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격문과 함께 시 〈강화도양요〉 하나만으로도 전국의 의병들을 이끌만 합니다. 이제 두고보십시오.》
누군가 또 추어올렸다. 그것이 문득 그를 몇십년전 세월로 이끌어갔다. 병인(1866)년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때의 일이다. 그때 프랑스의 함대가 강화도를 거쳐 서울로 쳐들어오면서 《화친》을 주장해나섰다. 조정이 그 일을 놓고 옥신각신 론쟁을 벌리며 결심을 못하고있었는데 바로 《위정척사론》의 창시자의 한사람인 리항로가 서울로 달려올라가 침략자들과 끝까지 싸울것을 주장하였고 제자 량헌수를 강화도에 보내여 놈들을 짓부시게 하였다. 결과 놈들은 쫓겨가고 나라는 위기에서 구원되였다. 그때 한창 젊었던 린석도 서울과 강화도로 오가며 싸움에도 참가하였고 그 체험을 담은 시까지 한수 썼다.

그것이 바로 《강화도양요》이다. 지금도 그는 그 시를 뜬금으로 외우고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있다.

세월이 태평한지 하도 오래서
사람들 안일하게 살아왔더니
오랑캐 검은 연기 바다를 덮으니
강화도초소에는 파발이 급하여라
온 서울 들끓어 정부도 당황한데
조국이 고귀할사 의병들 일떠섰다

싸움으로 대항하자 우리 선생 바른 주장
분분하던 강화론을 통쾌하게 부셨구나
장하구나 량장군 출전하는 그 기세
하늘이 무심하랴 정녕코 위훈 세우리

그랬다. 그때 린석은 사람들을 이끈 화서 리항로나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량헌수장군을 높이 우러렀고 자기도 그들처럼 싸우리라 마음도 다졌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는 말뿐이고 지난해처럼 싸우자고 일어섰다가도 누가 그만두란다고 하여 물러섰던 일까지 있다.

이제 여기에 모여온 사람들을 보면 그 모든것이 후회된다. 싸우자, 싸울수 있다,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의병장들을 향하여 머리를 들었다.

《다른데를 가보세. 이것이 전부가 아니겠지?》

《있습니다. 녕월에서 온 김백산이와 여기 제천에서 조직된 사석의 부대들인데 그들은 저 골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승우가 대답했다.

린석은 잠시 의아했다. 그들이라고 왜 기본부대와 떨어져있을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는데 안승우가 앞장서걸었다.

《갑시다. 저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왜 그랬는지는 가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린석도 뒤따랐다. 그러자 또다시 의혹이 떠올랐다. 그들이 왜 외딴

골짜기에 따로 떨어졌을가. 량반이 아니라고 누가 따돌렸는가. 아니면 저들자신이 스스로 위축이 되였는가…

따지고들면 린석이 그들을 알게 된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또 남달리 깊은 인연이 맺어진것도 없다. 그럼에도 한시바삐 그들을 만나고싶은것은 무엇때문인가. 실상 그는 어제 승우의 집에 의병장들이 모인 가운데 그들이 없는것을 보고 속으로 섭섭히 생각했다. 같은 의병장들인데 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설사 그것은 그렇다치고 왜 부대마저 외따로 떨어져 자리를 잡았는가…

린석이 김백산을 처음 알게 된것은 지난해 여름 의병조직차로 여기 제천에 와있을 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여기에 있는 몇몇 의병장들과 함께 향교의 강당에 모여앉아 의병들을 어떻게 모집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리고있었다. 그때야말로 일제가 왕궁을 기습점령하고 왕과 왕비를 연금상태에 둔 때여서 형세가 매우 긴박한 때였다. 그래서 린석이 전국에 보내는 격문을 발표하고 제천에까지 와서 의병모집문제를 토의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았으나 실지 모여든 의병들은 이삼백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땅》 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듣는 소리여서 놀란것은 물론 영문을 알수 없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얼마간 지나서야 밖으로 나갔다. 하다가 문앞에서 모두가 굳어지고말았다. 한것은 향교담장너머 바로 안승우의 집과 잇닿은 우물가에 미영과 함께 웬 낯선 총각 하나가 서있는것이였다. 더우기 알수 없는것은 둘이가 다같이 방금 재미난 일이라도 있었던것처럼 소리내여 웃고있는것이였다.

《이놈,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야?》

안승우가 먼저 참지 못하고 그리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는 더한층 놀랐다. 바로 그 총각이 손에 신식보총을 쥐고 있는데 아직도 총아구리에서 하얀 연기가 문문 나오고있었던것이다.

승우를 본 총각이 그제서야 웃음을 거두고 자세를 바로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흥, 이것 보아라. 남의 연약한 녀자앞에서 탕탕 총을 놓구

서두 실수야? 당장 물러가지 못할가?》 하는데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였다. 그때 미영이 나섰다.

《아버지, 이분은 전라도에서 오신 손님이예요. 전봉준대장님이 아버지앞으로 보내는 격문을 가지고왔대요.》

그 말에는 승우도 대답을 못하고 잠시 총각을 지켜보았다.

수수한 무명바지저고리에 긴 타래를 한쪽으로 툭 꺾어묶은 머리우에 질끈 동여맨 목수건, 큰 키에 우뚝한 코, 우멍진 눈확속에 이글거리는 눈만 아니라면 이렇다 하게 표나는데라고는 없는 보통 사나이였다. 그럼에도 몸에서 돋기라도 한듯 한쪽어깨에 삐죽 솟은 신식보총과 아울러 전봉준에게서 왔다는 남다른 징표가 함부로 대할수 없다는 기분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렇다 한들 그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승우로 말하면 전봉준이 아니라 그 할애비가 왔다 해도 반가울데라고는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전라도의 전봉준이라면 전국을 소란케 한 민란의 두목이요, 그 민란으로 말하면 동학무리가 일으킨것으로서 자기들의 유교성리학과 대치되는 이단분자들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그들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여러 고을을 점거하고 관청들을 들부시다못해 이제는 감히 나라님이 계시는 서울까지 넘보려 하고있다. 그런 곳에서 왔다니 이자가 누구인가.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자고 하지 않는가.

승우가 이런 생각으로 당황망조해있는데 린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 격문이란 어떤겐가. 나도 좀 봅세.》

그 말에 총각이 얼른 품속에서 먹으로 갈려쓴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린석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선채로 대충 훑어보아도 거기에는 심각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즉 전라도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정부에서 나와 《전주화의》를 맺었던바 이로써 봉기군은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되는것으로 알고 그이상 무력행사를 벌리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기회를 리용하여 정부에서는 청나라에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원군을 요청하였고 그것을 구실로 이번에는 왜놈의 군대까지 기여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이리를 불러들여 제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놀음이 아닌가. 이로써 우리는 창생구제와 함께 척왜척양의 구호를 들고 왜적을 물리치고 간신역적들을 처부시기 위해 도적들의 소굴인 서울을 들이치자고 한다. 뜻있

고 의리있는 모든 백성들, 선비들, 충의의사들은 모두 떨쳐나 우리의 이 호소에 함께 떨쳐나서기를 바란다.
격문의 내용인즉은 이러하였다.
린석은 그전까지만 하여도 전라도농민폭동에 대하여 안승우네들과 별다른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했다. 우선 그들이 동학도들이라는데로부터 자기네와 다른 이단자들로서 배척했고 관청을 부시고 사람들을 죽이는 란동분자라고 단죄했다. 최근에는 그들이 외세를 물리치고 특히는 왜놈들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감동하는바가 있었다. 방금 총각이 가지고온 격문에도 그런 구절이 강조되여있었다.
여기에 자못 심중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예감한 그는 총각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일행을 이끌고 다시 강당으로 들어갔다.

5

밖에는 다시 두사람만 남았다. 그러자 미영이 황황히 얼굴을 붉히며 사죄를 하였다.
《미안해요, 사실 총은 제가 놓구선…》
그러나 총각은 그에 개의치 않고 방금 그들이 들어간 향교만 주시하고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겠는지…
총각이 거기에 신경을 모으게 된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였다. 사실 그가 격문을 가지고 제천에 도착한것은 벌써 며칠전이였다. 같이 온 동료들과 함께 읍거리에 주재하면서 격문과 방을 붙이고 연설도 하면서 사람들을 싸움에로 불러일으켰던것이다. 바야흐로 서울공격을 앞두고 공주격전을 준비하고있던 때였다.
하루이틀사이에 벌써 수백명이 모여들었다. 론산과 삼례방면에는 이미 십여만명의 봉기군이 집합해있을 당시였다.
그때 지금 향교에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 왜놈칠 의논들을 하고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알 도리가 있을것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하여 총각은 같이 왔던 사람을 모여온 봉기군들과 함께 먼저 떠

나보내고 단신으로 말을 달려 예까지 왔던것이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보니 예상외로 조용하였다. 사방 우거진 숲속에서 새소리, 매미소리만 요란하고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말에서 내려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향교옆 자그마한 기와집담장안에서 동이를 들고 나오는 처녀 하나가 보였다. 그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오른쪽옆에 큰 향나무 한그루가 서있고 몇길이나 되게 우뚝 높은 바위밑에 있는 박우물에 다가가 물을 긷기 시작하였다. 마침 목이 말랐던 총각이 그에게 다가가 물을 한바가지 청하였다.

그가 물을 마시는 동안 처녀는 총각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놀라운것은 그의 어깨에 메워져있는 신식보총이였다. 그것이 처녀의 호기심을 끌게 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여기에 안승우란 선생님이 계시오? 난 그분을 만나자고 왔소…》

그가 설명을 했다. 이름은 김백산이며 전봉준대장의 부하라는것과 함께 전라도민란에 대하여 그가 묻는대로 대답을 했다.

처녀는 그 말을 듣고도 리해가 안되는듯 후 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고도 총각이 메고있는 총에 대해서만은 호기심을 금할수 없는듯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그 총은 어디서 난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가 눈을 깜박이며 다시 물었다.

그것이 총각의 장한 용기를 북돋아주었는지 모른다.

《왜놈에게서 빼앗은거요. 이 주먹으로 한놈 까눕히고 빼앗았소. …얼마 무겁진 않소.》

《얼마나 멀리 나가요? 한번 놓아보세요.》

《화승총에 비할바 없소. 이것으로 벌써 왜놈을 몇놈이나 잡았소.》

《어떻게 놓아요. 저도 한번 잡아보자요.》

이번에도 장한 기분이 총을 처녀에게 잡아보게 하였다. 그리고는 총의 제원과 구조작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했다.

《이것이 방아쇠라구요? 당기면 나간다니 어떻게…》

총소리는 바로 그때에 난것이였다. 멋도 모르고 무작정 방아쇠를 잡아당겼던 처녀는 놀라서 총을 집어던지고 눈귀를 가리우며 땅에 주저

앉았다. 우짖던 새소리, 매미소리도 순간에 뚝 그쳤다.
안승우와 류린석이네들이 달려나온것도 그때였다. …
《미안할게 없소. 같이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녀자들이 책임지는 법이 없소.》
이윽고 백산이 강당에서 시선을 떼며 말하였다.
그 소리에 미영은 붉혔던 얼굴을 들었다.
《그렇지도 않아요. 집안에선 모든 잘못을 녀자들이 뒤집어쓰거던요. 그저 잘못했다고만 해야 해요.》
《그 역시 남자들이 집안정사를 잘못하는때문이요. 잘한것과 잘못한것을 분명히 하는것도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소.》
처녀는 더한층 놀라운 눈으로 백산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어딘가 남다른데가 있어 흉금을 터놓고 론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것을 감촉한때문이였다. 그러나 아직은 초면인 그에게 아무 말이나 터놓을수 없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경계하게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류린석일행이 다시 나오고 남자들끼리만 통하는 대화가 시작되자 미영은 동이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말았다.
그때까지 린석은 둘사이에 있은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총각이 가지고온 격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다.
《총각이 수고를 했소.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동학도들이 왜놈들과 싸우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나라의 임금이 있는 서울을 공격하자는데는 찬성할수 없소. 우리는 우리대로 싸우겠소.》
그 말에 백산은 예기치 않았던 왕청같은 소리로 대답을 했다.
《말씀을 좀 진중히 해주십시오. 봉기자들속에 동학군들이 많기는 하지만 전부가 동학을 믿는 사람이 아니며 더구나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동학이든 아니든 임금이 계시는 서울을 치자는것이 아닌가. 그래 우리까지 란민이 되라는겐가?》
안승우가 참지 못하고 발끈했다.
그때에도 총각은 침착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자는것은 임금이 아니라 왜놈들과 양놈들이며 그놈들에게 나라를 파는 간신역적들과 나라와 백성은 아랑곳없이 저들의 배만 불리우는 탐관오리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임금이 계시지 않는가. 이것은 임금을 반대하는것이 아닌가?》
그 소리에 백산은 더 말을 않고 돌아섰다. 더이상 론쟁을 해야 필요없다는것을 깨달은 모양이였다.
《잘했습니다. 저런 불학무도한 놈이 전봉준의 부하라고 하니 그도 알만 한 사람입니다.》
그 소리에 말에 오르려고 편자를 손질하던 백산이 돌아섰다.
《선생님, 뜻있는분들은 지체를 낮춘다고 말하던데 선생님은 반대이시군요. 우리 대장님을 욕한다고 선생님의 지체가 올라갈것 같습니까?》
한순간 당황했던 안승우가 계속했다.
《그 욕은 네가 번것이다. 비록 너의 대장이 명령하지는 않았더라도 너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있지 않느냐?》
《우리 대장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만백성이 대장님을 따르고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근본을 이끌고나선 우리 대장님이 무엇이 어쨌다는것입니까?》
《근본이고 무엇이고 나라가 이렇듯 소란한것이나 외세가 이 땅에 미쳐온것이나 다 너희들이 소란을 피운때문이 아니냐. 너희 대장이란 사람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조차 않았을게다.》
《여러분의 뜻을 알만 합니다. 글하는 선비님네들이라고 높이 보고 찾아왔더니 그런것이 아니였군요. 지금 나라는 백성을 잊은지 오래고 백성은 백성대로 나라에 등을 돌려댄지 오랩니다. 이제는 그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울을 점거하고 나라를 평정하게 될 때 서로 원쑤가 되여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분명 승우보다는 웃사람으로 되여보이는 린석에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바로 그때에 미영이 다시 나타나 말에 오르려는 그의 앞을 막았다.
《잠간만…》 하고는 안승우에게 돌아섰다.
《아버지, 끼때가 되였는데 식사를 시켜 보내야 하지 않아요?》
《보고도 모르겠니. 례의도 지켜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게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러 우리 집엘 오셨던 손님이 아니예요.》

《마음대로 하라만 집안에는 못 들여놓는다.》

하고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미영이 량해를 구하고는 다시 안으로 뛰여들어갔다가 보자기에 싼 크지 않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나왔다.

《힘들게 왔던 길에 안됐어요. 가시다 잠간 요기나 하세요.》

백산은 잠간 주저하다가 그대로 받았다.

《고맙소. 성의를 잊지 않겠소.》

《욕 많이 하세요. 아버진 성미에 맞지 않으면 저렇게 참지를 못하신답니다.》

《나는 떠돌이생활 십년에 겪을만 한것은 다 겪은 사람이요. 그만큼 눈치에 밝고 세상리치에 훤하오. 아버지도 본시는 분명 착한 사람인데 오래동안 학문에 구애되고 번폐스러운 례의에 치여서 재는것이 많아진듯 하오. 아가씨가 그속을 용케 헤쳐나갈것이라고 생각되는구만. 량반의 벗은 아침으로 사귀고 장사군의 벗은 리속으로 사귄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질 못하오. 만약 아버지도 그런 지지한 말마디나 낡은 례의범절에 구애되여 헤여나지 못하면 한생 진정한 벗을 사귀지 못할거요.》

《뭐라구요? 이자 한 말씀을 다시…》

《아가씨, 자기의 옳은것을 누가 알아주지 못할가 속타하지 마시오. 그것이 진정 옳을 때에는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옳은것으로 남게 될것이요.》

마침내 그는 말에 뛰여올랐다. 미영이 고삐를 잡았다. 말없이 백산을 올려다보는 눈에는 가느다란 미소와 함께 눈에는 아롱다롱 눈물이 고였다.

《글을 아세요? 아시면 편지를 하세요.》

《내가 겪을것을 다 겪어보았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소. 서당에서 심부름만 삼년석달을 했소.

그러나 편지는 쓰지 않겠소.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만날 필요가 없기때문이요. 줄을 잇지 못할 거문고는 애초에 없는것만 못하오.》

미영은 다시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말이 발굽을 걷어차며 앞으로 내달렸다. 미구하여 그 모습은 무성한 숲속으로 사라지고말았다. …

이것이 린석이 백산을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다. 그후에는 다시 보지 못했는데 승우를 통하여 소식을 알게 되였다. 그가 공주대격전이 있은 다음 산속에 들어가 의병을 모집하고있다는것이였다.

하면서도 승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필경은 산속에 숨어 남의 물건이나 털어내는 도적으로 되였다는것이였다. 그는 그것을 자기 말을 빼앗은 사실로써 명백한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린석의 생각은 여기서 끊어지고말았다. 백산의 진지에 다 도착했던것이다.

6

그곳은 다른 의병대들과는 딴판 다른 광경이였다. 수백명의 의병대원들이 공지의 넓은 마당에서 한창 놀음놀이를 벌리고있었던것이다.

이곳 사람들이 일명 닭싸움이라고 하는 무릎싸움이 진행되고있었는데 수십명 장정들이 한쪽다리를 무릎우까지 꺾어들고 다른 한쪽다리로 정둥정둥 뛰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였다.

모두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여서 공격자도 방어자도 간단치 않았다. 와와 떠들며 놀음에 참가한 사람, 밖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들떠있어서 린석이네들이 도착하는것을 알지 못했다. 마침내 한쪽켠은 다 넘어지고 기골이 특별히 큰 한사람만 남았다.

이쪽켠은 두사람, 여차하면 그들도 한순간에 나가넘어질 위험에 처해있었다. 그때 키가 작달막하고 나이도 애돼보이는 총각이 어느 사이에 뒤로 돌아가더니 키큰 사람의 허리를 지끈 들이받았다. 그 장대한 사나이가 앞사람만 상대로 기회를 노리다가 뒤로부터 불시에 들이닥친 타격에 그만 코를 밀며 앞으로 꼬꾸라졌다.

순간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같은편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의 손을 높이 떠받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린석은 저으기 놀랐다. 어쩌면 싸움의 리치를 련상케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다른 한켠으로는 총각

이라고 보았던 그가 머리를 얹은 장가간 사람이라는 놀라움도 없지 않았다.

사람들의 손에서 풀려나온 키작은 사나이는 멋적게 뒤통수를 긁적거리다가 한순간 린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그는 제잡담 사람들속을 뚫고 어디론가 달려갔다. 그러자 잠시후 《의병대 모엿!》 하는 구령소리가 들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뛰여가고 뛰여왔다. 이윽하여 놀음판이 벌어졌던 마당에 수백명의 의병들이 일제히 렬을 지어 섰다. 그속에서 다시 《의병대 우로 나릇!》 하는 힘찬 구령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급히 달려와 린석의 앞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대장님께 문안드리오. 강원도 녕월의병대는 지금 휴식중에 있습니다.》

순간 린석의 눈빛은 반가움속에 한결 부드러워졌다. 보고를 하는 사람은 다름아닌 김백산이였던것이다. 여전히 두레머리에 한쪽어깨에 삐죽 나온 신식보총도 전과 다름없었다.

《이 사람, 수고했네. 왔다는 말을 들었네.》

린석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세웠다.

그러나 그는 일어서지 않고 앉은자리에서 리춘영과 안승우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였다.

(변하지 않았다, 조금도. … 내가 그때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린석은 이런 생각으로 소리까지 지를번 하였다. 그러나 그런 티는 내지 않고 반겨 묻기만 했다.

《사람이 얼마나 되나?》

《사백이 좀 넘습니다.》

《내 들은바가 있네. 병쟁기는?》

《화승총이 이백정에 신식보총이 다섯정 그리고 창과 칼이 각각 백자루, 활이 이백자루입니다.》

《음흠, 괜찮군. 당장 싸울만 한가?》

《대장님의 명령만 기다리고있습니다.》

린석이 미리 듣기는 했었지만 막상 그를 만나고보니 진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량반도 관리도 아닌 한갖 평민에 불과한, 그것도 떠돌이총각의 몸으로 이만 한 싸움준비를 했다는것이 자못 놀라왔다.

부지중 지난해 여름 그를 처음 만났던 일이 떠올려졌다. 그때에도

그는 자기의 상상을 뛰여넘어 수백명의 사람들을 휘동해가지고 공주로 가지 않았던가.

《그사이 어디 가있었나?》

《여러곳을 편답하며 역시 떠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녕월땅에 웅거하여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때처럼 자기에 대하여 말할줄 몰랐다. 말없는 그속에 옹근 한해동안이나 깊은 산속을 헤매며 봉기후 여기저기로 흩어져갔던 사람들과 산포수들을 그러모아 이만 한 싸움부대를 만들어낸 그의 수고가 우렷이 안겨왔다.

그것이 불시에 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의병부대들을 이만 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것이였다. 좀전까지만 하여도 그는 병쟁기나 훈련은 고사하고 이만 한 인원수가 모집된것만 해도 상당한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김백산의 부대를 보고나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싸움을 하자면 이만큼은 모든 부대들이 준비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으로 사석의 부대를 찾았을 때 더한층 굳어졌다.

그의 부대는 백산의 부대보다 좀더 안으로 들어간 깊은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대로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있었다. 첫눈에 안겨오는 것은 골짜기에 자욱한 연기와 요란한 쇠망치소리, 쟁강, 쟁강하는 칼부림소리였다. 류린석이네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서 찾고 부르며 대렬부터 정렬하더니 대장 사석이 나섰다.

《대장님, 원로에 수고많으셨겠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선채로 읍만 하면서 하는 말이였다.

린석은 그것을 자기에 대한 남다른 존경의 표시로 알고있다.

《철덕군이 솜씨를 보이는 모양이구만. 대장노릇하기가 힘들잖은가?》

역시 며칠전에 만났던 친구들사이처럼 스스럼없는 인사가 오고갔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둘사이에 남다른 연고가 있다는것을 짐작케 하는것이였다.

그랬다. 역시 지난해 여름 린석이 의병조직차로 이곳에 와있을 때다. 의병조직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다 군수 리찬익이란 사람이 애초에 하지를 못하게 해서 고심은 곱절로 커졌다. 어차피 군수를 찾아가

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수가 용무중이라면서 그를 동헌밖에서부터 들여놓지 않았다. 그 용무란 바로 사석을 동헌대뜰아래 꿇어앉혀놓고 심문을 하는것이였다.

그때 제천의 목미고개에 있는 쇠부리터의 주인이였던 사석은 자기네에 대한 수탈이 너무 심하여 련명으로 된 상소문을 고을에 낸것이 있었다. 그런데 군수가 그것을 란동을 선동했다는 죄명으로 사석과 함께 몇명을 붙들어다 심문을 하고있는것이였다.

《련명으로 수결을 한 목적이 뭐냐? 뭐라고 선동질을 했느냐?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석은 절대 그런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

그때 목미고개 쇠부리터에서는 보습과 호미를 비롯한 농쟁기들과 가마와 남비, 화로와 인두, 다리미를 비롯한 여러가지 철물들을 만들고 있었다.

하루 생산량이 천근정도에 해당한것으로 수량도 많고 그 질도 아주 괜찮아 린근고을에 크게 소문이 났다. 문제는 그 소문이였다. 소문이 날수록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군에서는 군대로, 도는 도대로, 서울에서는 서울대로 저마다 진상, 공물, 상납, 인사치레하면서 하루에 보통 2천근, 어떤 때는 3천근어치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내라고 하였다. 이 철덕에서 일하는 로동자가 호주(책임자), 앞쟁이(조역), 돌패쟁이, 숯쟁이 등을 모두 합하여 서른명이 맞교대로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상납을 하고는 밤낮으로 쇠물을 부어내는 일군들이 삼시 밥도 빌어먹기 힘든 형편이였다. 그에 대하여 몇번이나 제기를 했으나 해당한 대책은 없고 그저 내라는 지시만 거듭 내려왔다.

《그런 사정이야 너희들이 일을 더 많이 해서 대책할것이구 우리가 묻는것은 왜 련명으로 상소를 했느냐 하는것이다. 여기에 반드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한짓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제 이름자들을 박아넣었단 말이냐.》

리찬익이 온몸이 꽁꽁 묶이운 사석이네들을 향하여 따지고들었다.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대답을 할 때까지 매우 치랍신다－》

급창의 긴 소리가 뜰아래로 굽이치자 긴 몽둥이를 든 사령들이 《예잇－》 하는 소리로 대답을 하고는 하늘중천에 긴 반원을 그리며

돌아갔다. 이어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그대로 사석의 잔등에 떨어졌다.
한번 또 한번…
밖에서 그 광경을 눈여겨보던 린석의 일행이 막아서는 파수들을 밀어제끼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또께서는 이게 무슨짓이요? 죄없는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서야 되겠소?》
린석이 뜰우로 뛰여오르며 대뜸 들이댔다.
그때까지 그들을 못 본척 하고있던 리찬익이 짐짓 놀라는체 하며 고개를 돌렸다.
《무엄하다. 누구들이 감히 남의 공무를 방해하는것이냐?》
《고을의 사또라고 하면 하정을 잘 살피여 그들의 편의를 돌봐주어야 하는것이지 무턱대고 죄인취급을 하며 매부터 들어야 되겠소?》
《보면 모르겠소. 저것들이 무리를 지어 쑥덕공론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애초에 박멸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가 소란하고 전국이 들끓고있는데 그 씨앗부터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 란동을 막을수가 없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나라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것이 없소. 법이란 만인의 공유물로서 사또 한사람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라는것이 아니요. 나라에서는 법으로써 백성들을 편하게 하라고 한것이지 억지로 죄를 만들어 괴롭히라고 쥐여준것이 아니요. 당장 중지하시오.》
했으나 리찬익은 더욱더 사납게 악을 쓰며 형을 끌고나가려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리강년이 나섰다.
그는 궁중에서 선전관(궁중에서 왕을 시위하는 하급무관)을 지내는 무사인데 이번에 의병을 조직하라는 최익현대감의 지시를 가지고 린석을 찾아왔던 사람이다. 허우대가 크고 성격이 좀 우직한 편인데 그때 공무아문의 대신으로 있던 최익현의 반일반침략사상에 감동하여 그와 가깝게 지내오는터였다.
《군수, 기어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텐가. 군국기무처(당시 혁신관료들에 의하여 조직되였던 부르죠아개혁기구)에서 모든 세납은 물

품으로가 아니라 현금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낸지가 언제인데 여기서는 왜 아직도 저런 물건타령인가?》

벼슬등급으로 말하면 군수가 그보다 몇등급이나 높지만 강년이 서울에서 내려왔고 더구나 임금까지 근시하는 인물이라 찬익이 혼자 제노라고 할수 없게 되였다. 하는수없이 사석이네들을 놓아보내고 사람들도 흩어지게 한 다음 그들과 마주앉았다. 그러나 의병조직에 대해서만은 우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응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전라도민란이 심한 요즘 며칠전에는 그곳에서 왔다는 어떤 총각놈이 수백명의 사람들을 휘동해가지고 간 일때문에 도에 있는 관찰사에게서 된추궁을 받았다는것이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끝내 군수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채 향교로 되돌아오고말았다. 군수가 관찰사의 승인을 받으면 자기도 그에 응하겠다는데 더 할말이 없었던것이다.

그때 린석은 전라도에서 왔다는 그 총각이 김백산이였음을 대뜸 짐작하였다. 결국 그에게 선손을 떼운셈인데 생각을 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였다.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그의 담대하고 리지적인 행동에 감동되는바도 컸다.

이러나저러나 의병조직에 대한 문제는 뜬 구름장을 쳐다보는 격이 되고말았다. 군수가 반대하는 일을 관찰사인들 하라고 하겠는가.

이렇듯 난감한 처지에 빠져있을 때 자기를 의병대에 받아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다름아닌 사석이였다.

쇠부리터에서 늘 숯과 쇠돌만 만지다나니 온몸이 거무스름하고 쇠내가 나는듯 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자기앞에 엎디여 선생님이 아니였더라면 자기는 매를 맞아 죽거나 병신이 되였을것이라고 하면서 꼭 의병대에 받아달라고 하던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 이왕 쇠부리일을 못할바에는 의병대에 들어와 왜놈과 싸우겠다는것이였다.

린석은 물론 그에 응했다. 더구나 그는 혼자가 아니라 쇠부리터의 서른명전원을 다 데리고왔다. 그 인원만 해도 어디인가.

이렇게 되여 첫 의병대는 이삼백명정도의 규모로 고고성을 울리게 되였다. 그만하면 싸울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그 조직을 선포했던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던 감영에서 사람이 내려와 그

해산을 선포했다. 관찰사 김규태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왕의 어지까지 읽어주는것이였다.

《나라안의 많은 선비들과 백성들은 이 말을 극히 명심하여 들으라. 내가 덕이 없어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나라가 문란해지고 백성들은 시달리고있으며 나라의 도처에는 이웃나라의 군사보루가 널리게 되였다. 생각컨대 너희들은 선대의 어진 후손들로서 훌륭한 문화와 례법으로 교육받고 대대로 아름다운 풍속을 지켜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에 와서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나라를 소란하게 하고 임금에게 근심을 끼치는것인가. 아, 너희들은 임금의 백성이 아닌가. 지금 내가 이렇듯 간곡히 가르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아비를 아비로 알지 않는것이다. 나의 이 말이 내려가면 즉시 모임을 해산하고 생업에 안착함으로써 밤낮으로 근심해 마지않는 나의 불안을 덜어줄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법을 맡은 관청이 있는만큼 결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

어지를 받은 린석은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무겁게 지지눌리는것을 느꼈다. 임금께서 오죽하면 저런 어지까지 내려보냈으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과연 내가 임금의 신하가 아니며 임금의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나라님께 저런 근심을 끼쳐드릴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기꺼이 시작했던 의병대조직을 포기하고 그 해산을 선포해버렸다.

소식을 듣고 사석이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해야 한다고 하던 주장은 어디에 가고 이제와서는 아니라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것입니까.》

《죽더라도 임금의 명령은 피할수 없소. 평시에는 그것이 옳고 해야 한다고 했더라도 임금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그만두어야 하는거요.》

《선생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오유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것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그사이 저는 산에 들어가 의병들과 함께 때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이렇게 되여 그들은 헤여졌다. 사석은 부대를 이끌고 산으로 들어가고 린석은 최익현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다.

그후의 사실들은 그때 사석의 말이 옳았다는것을 확증하여주었다. 즉 그때 왕이 내린 어지란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폭동을 말하는것이였지 제천에서 일어난 반일의병투쟁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였다. 한것을 충주관찰사 김규태란 사람이 어지라고 말을 만들어 그들에게 억지로 내려먹였던것이다. …

《자네가 부대를 해산하지 않은것이 지극히 정당하였네. 이제 그 빛이 나게 힘을 써보게.》

이윽고 류린석이 입을 열었다. 거기에는 사석에 대한 믿음과 아울러 관찰사 김규태에게 속았던 분함이 함께 어려있었다.

《저희들은 도창부대로 특기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총과 대포가 없는 대신 창과 칼만이라도 잘 써서 왜놈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사석이 다시한번 결심을 굳히며 대답했다.

그의 말이 옳다. 지금 골안은 여기저기 피여오르는 숯불연기와 요란한 메질소리로 가득찼다. 역시 철덕에서 생겨난 부대의 근본을 살리고있는것이다.

김백산의 부대에 이어 사석의 부대까지 돌아보고난 린석의 심중에 류다르게 고패치는것이 있었다. 무장장비나 훈련에서 부대마다 자기 특기를 살린다면 의병대의 전투력이 더 강해질수 있다는 생각이였다.

그런데 저녁무렵 예기치 않았던 한가지 근심이 떠올랐다. 무기를 잡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겠느냐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예로부터 그랬다. 여차하다가는 반역행위로 몰리울수도 있는것이다.

몇몇 의병장들에게 생각을 비쳐보았더니 역시 견해가 같았다. 듣고보니 그 생각이 맞는다는것이였다. 잘못하면 임금에게 근심만 더 끼쳐드릴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까지 생각들이 이어졌다.

그날 저녁 린석은 의병장들을 전부 향교의 강당에 모이게 하였다.

여느때에는 교생들이 무릎을 꿇고앉아 유교경전이나 소리내여 외우던 곳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칼을 차고 총을 멘 의병장들이 모여앉았다. 그들모두가 긴장하고 각성된 눈빛으로 린석을 쳐다보고있었다.

린석은 그들을 마주하고 한층 높은 교단에 앉았다. 낮동안과는 다른 긴장한 자세였다.

《여러 의병장들이 이렇게 와주어서 참으로 고맙네. 그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기회가 있는바이지만 먼저 한가지 의논하고싶은것은 의병대의 조직에 대한 문제때문일세. 요점부터 말하면 나라에서 의병을 일으키라는 지시가 없는만큼 여차하다가는 죄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일세. …》

그가 이렇게 서두를 떼면서 아까 하던 생각을 터놓았다.

모두가 긴장한 속에 아무도 말이 없었다. 듣고보니 과연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였다. 아닌게아니라 그중 앞에 앉았던 리춘영이가 먼저 입을 떼였다.

《대장님의 말씀이 옳은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자고 하여도 나라의 승인없이 시작을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설수 있습니다.》

나라의 정사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수 있는 그가 이렇게 말해서 생각들은 더욱더 그쪽으로 쏠리였다. 안승우가 그랬고 김복한이 그랬다. 의병대를 조직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여 우의 승인을 받자는것이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에서 알게 하여 지난해와 같은 쓴맛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렇게 거의 락착이 되여갈 때 뒤구석에 앉아서 지금껏 말이 없던 김백산이 불쑥 일어섰다.

《대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싸움을 눈앞에 둔 이때 우의 지시만 기다린다는것은 스스로 발목을 붙잡아매는것과 같습니다.》

린석으로서는 전혀 뜻밖이였다. 비록 그가 싸움준비는 그중 잘했고 사람도 똑똑하다고 보았지만 의병장들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리고 또 태반이 유생량반들인 이 좌석에서 그가 저렇게 불쑥 튀여나올줄은 몰랐던것이다.

《총각, 자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것이 사실일세.》

린석이 잠시 주저하다가 그에 대한 애착만은 잊지 못해서 총각이라고 부르며 설명을 했다.

《그러나 정사라는것은 그렇지 않네. 다른 일도 그러하지만 특히 무기라는것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것일세. 우리가 어쩌다 조총 하나를 잘못 놓거나 사람 하나라도 상하게 된다면 그게 정사에 어떤 영

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네. 더구나 그것이 임금께 알려져 근심을 끼쳐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는지 생각해보았나?》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임금님의 원쑤를 갚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돕자고 하는것이 해가 되는 일일지 우리가 알수 있나. 지금 중전을 잃고 누구보다 근심이 많은분이 바로 우리 임금님일세. 하면서도 아직 이렇다하게 민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것은 바로 그때문이 아닌가고 나는 생각하네. 그렇잖은가?》 하고는 잠시 말이 없는 백산을 보고 다시 계속하였다. 지난해에도 바로 그런 일때문에 도의 관찰사가 어지라는것까지 들고나와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백산의 곁에 앉았던 사석이까지 일어섰다.

《대장님, 그때 관찰사란 사람이 내려보냈던 어지라는것이 가짜가 아니였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대장님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만 린석이 아연해지고말았다. 그가 내심 우려하던 문제를 정통으로 찔렀던것이다.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때 관찰사의 소행을 놓고 분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럼에도 한켠으로는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관찰사뿐만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수도 있다. 그들이 어떤 수로 무슨 오그랑수를 쓸지 알수 있겠는가.

린석은 지금 그 모든것이 임금의 명예를 걸고 임금을 욕되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자체가 임금앞에 죄를 짓고 충군충의에 어긋나는 행위인것이다.

하여 무엇인가 더 설명을 하자고 하는데 백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장님, 우리는 빨리 의병대를 무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하는것은 싸움을 하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대장님께서 격문을 날린 취지에도 맞는것입니다. 하지 않다가는 또 지난번의 실책을 범할수 있습니다.》

갑자기 방안이 정숙해졌다. 모두 그의 말을 음미해보느라 생각에 잠긴것이다. 그러다가 방 한가운데서 누군가 큰소리로 웨쳤다.

《옳수다. 저 총각대장이 바로 말한것 같수다.》

뒤따라 몇사람이 한꺼번에 들고나왔다.

《의병대부터 빨리 조직하고 봅시다.》
《우리가 싸움만 잘하면 나라에서도 알 도리가 있겠지요.》
그 소리와 함께 방안에 화기가 돌았다. 후— 하고 큰숨을 몰아쉬는 사람, 허허 소리내여 웃는 사람에 대통에 담배를 채워넣고 부시깃을 탁탁 치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그통에 린석도 미소를 머금고 백산이 쪽을 돌아보았다. 그만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육초가락불 그림자밑에서 고개를 숙인채 사석이와 무슨 말인가 조용히 주고받고있다.
다시한번 그의 모습이 새롭게 안겨왔다. 백산의 말이 옳았던것이다.
따지고보면 백산이 별로 새롭다거나 기발한 안을 내놓았다고는 볼수 없다. 린석이 애초에 계획하고 추진하던대로 하자고 했을뿐이다.
문제는 린석이자신에게 있었다. 공연히 근심을 만들어가지고 하마트면 제발로 수렁속으로 기여들번 하였다. 이런것을 선비들의 우유부단성이라고 했던가, 이랬다저랬다 하기를 잘하는.
한것을 백산이 바로잡아주었다. 사석이도 큰일을 했다. 이중에서는 량반도 선비도 아닌 단 몇명밖에 안되는 량민(신분적으로 보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그 문제는 백산의 주장대로 의병대를 먼저 조직해놓고 우의 승인을 받자는데로 락착이 지어졌다.
그것이 끝나자 린석은 다시 상단에 자리잡고 앉았다. 그앞 좌우에는 서안우에 한대씩 세워놓은 육초가락이 극성스레 타고있다. 그 불빛에 자기를 향해 일제히 머리를 쳐든 의병장들의 모습이 환히 안겨왔다. 근엄하고 진중한 눈빛들이다.
그들을 향해 린석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마주앉고보니 참으로 감회가 깊다.
여기에는 누가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온 사람이 없을것이다. 모두 나라가 위급한것을 알고 스스로 달려왔다. 이것은 만세불멸의 국가를 위하여 자기 한몸을 돌보지 않으려는 애국의 마음과 충성된 마음에서라는것을 나는 잘 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온 의병들모두의 마음도 그와 같을것이다.
지금 임금께서는 중전을 잃으신 다음 밤낮으로 전전긍긍하시며 수라도 제대로 들지 못한다고 하신다. 이러한 때에 임금의 신하이며 백성인 우리가 자기 집에 있는것만 생각하고 나라에 있는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자식은 생각하면서 임금의 자식이라는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신민이 아니다. …

평시에 우리가 글을 외울 때 문교는 원대한 장래를 위한것이고 무기는 위급한 때에 조심히 쓰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옛말에도 사물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 일에 성공할수 없고 시기에 적절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있어도 쓸데가 없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한 성업에 자기를 바칠 때가 되였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달려왔거니 나도 그런 마음에서 대장으로 추천한 그 신의를 기꺼이 받아들일것이다.

나는 천성이 미천하고 아는것도 없으며 몸이 체소한만큼 마음도 용렬하다. 그러나 이왕 대장으로 받들린 이상에는 나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여러분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할것이다. 아울러 대장의 명령은 곧 법이며 법을 어길 때에는 누구도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는바이다. …

《대장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들겠소이다.》

《받들겠소이다.》

말이 끝나자 여러 의병장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여 화답을 했다.

이어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병대조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의논을 벌렸다. 다음날에도 의논은 쉬지 않고 계속되였다.

마침내 그것이 락착되자 전부대가 향교 앞마당에 정렬하였다.

각 지방에서 모여온 부대들이 단위별로 모여서자 향교는 전례없이 들끓었다. 수천의 의병들이 골짜기를 메우며 늘어섰는데 어디서나 기치창검이 번뜩이고 북과 꽹과리를 비롯한 악기들이 천지를 진동하며 굉음을 터쳤다. 각 부대들이 저마다 지지 않으려고 특기를 살리며 기세를 올렸던것이다.

류린석이 그앞에 나가 먼저 일장연설을 한 다음 의병대를 조직한다는 선포를 하고 부대의 명칭과 구성체계 그리고 각 지방 의병대장들을 발표하였다.

즉 부대의 명칭은 제천반일의병대라 하고 총대장은 창의대장으로서 류린석으로 하며 중군(부대장)은 리춘영, 군사장(참모)은 주용규, 군수장(후방부대장)은 안승우, 선봉장은 김백산으로 한다. 기타는 각 지

방에서 온 부대의 명칭에 따라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며 대장 역시 그대로 한다. …
이렇게 하여 충주와 원주, 단양, 녕월, 문경 등 관동과 관서, 령남 각지에서 모여온 부대들로 제천반일의병대가 조직되였다.
부대조직이 선포되자 의병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북과 징을 두드리고 기발을 휘날렸다. 수천군중의 힘찬 웨침과 마음껏 치고 두드리며 불어대는 악기들의 굉음이 향교앞 넓은 골짜기를 휘두르며 멀리로 퍼져나갔다.
모임이 끝난 다음 린석은 의병장들만 따로 이끌고 향교앞에 우뚝 솟은 뾰족한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의병장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가 가는대로 따라갔다.
그곳은 밑에서 보기보다 더 높고 아찔한 곳이였다. 우로는 구름이 손에 닿을듯 가까이에 걸리고 아래로는 울룩불룩한 산발들과 굽이굽이 골짜기들, 밭뙈기들, 농가들이 발밑으로 흐르고있었다. 뛰여내리면 발끝에 닿을듯 제천읍거리도 가까이에 보였다.
옛적 어느 한때에는 여기에 봉대가 있었다고 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위급함을 알리는 봉대, 거기에 오늘은 의병대들이 섰다. 역시 외적의 침입을 당하여 그 소식을 나라에 알리자는 뜻에서일것이다. 왜놈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 력대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세상에 이름을 떨쳐온 이 나라가 바야흐로 승냥이의 이발에 뜯기울 위험에 처했다. 겨레여, 백성이여, 일어나라. 손에 무장을 들고 왜적을 쳐물리치자. …
넓다란 바위를 가운데 두고 린석이 의병장들과 둘러섰다. 모두가 말없는 가운데 비장한 눈빛들이 오고갔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였다. 칼잡고 나선 사나이의 앞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수 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없다. 그만큼 알아줄 사람도 없을것이다. 그렇다고 곤난이 나선다면 뒤로 물러설것인가.
맹세를 다지자. 지금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늘밖에 없다. 모두가 저 하늘을 향하여…》
린석이 준비해놓은 잔에 술을 따랐다. 매 의병장들에게도 술을 따르고 일제히 손을 쳐들었다.

《왜놈들과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것이다!》
린석이 선창을 떼자 의병장들이 모두 따라했다.
《싸울것이다!》
《국사를 위하여 사사를 돌보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죽어도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
목청을 가다듬고 힘껏 웨쳐대는 사나이들의 함성은 산발을 타고 멀리멀리로 메아리쳐갔다.

7

제천반일의병대가 조직되였다는 소식은 고을과 고을지경을 넘어 여기저기로 퍼져갔다.
즉시적인 군사행동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장은 그렇게 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군사들의 훈련이 적은데다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때문이였다.
그리하여 우선 군수 리찬익에게 사실을 알리는 한편 서울에 사람을 보내여 최익현대감으로 하여금 김홍집총리에게 인준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임무를 김복한이 맡아나섰다. 그는 작년에도 린석과 함께 서울에 갔던 일이 있어 최익현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테니 기다리시우!》
그가 량볼이 불거진 둥그런 얼굴에 웃음을 한가득 안고 말했다. 성격이 좋고 붙임성이 있어서 무슨 일이나 시키면 잘했다. 그만큼 나서기도 잘하는 그였다.
이렇게 그는 떠나갔다. 그런데 군에 들어갔던 사람만은 그대로 돌아왔다. 군수가 의병조직을 한사코 반대한다는것이였다. 그뿐아니

라 충주감영에는 벌써 왜군토벌대가 주둔해서 의병부대들에 대한 토벌까지도 준비하고있다는것이였다. 조만간 싸움이 터지게 되리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있었다.

준비를 더 빨리 다그쳐야 했다. 중요한것은 의병장들부터 지휘통솔능력을 키우는것이였다. 전장에서의 지휘체계는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근본문제라고 할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린석이하 모든 의병장들은 《동국병감》이나 《병학지남》과 같은 옛 병서들을 뒤지며 밤새 눈에 익히고 낮에는 의병들과 함께 몸에 익히기 위해 애썼다.

군사지휘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기발이다. 기발은 그 가지수만 해도 대단히 많아서 그중 주작기, 청룡기, 백호기, 현무기, 홍신기, 람신기들은 각 부대를 표시하는것이며 누런기는 중앙을, 붉은기는 전방을, 파란기는 좌우를, 검은기는 후방을 표시하는 기이다. 청도기와 표미기는 대오의 앞뒤에 있고 당보기는 항상 높은데 올라 적정을 알리는 기이다. 또 령기(혹은 령표)가 있어서 명령을 전달하는데 쓴다. 일단 싸움이 일면 모든 장관들과 병졸들은 기발의 자세와 빛갈만 보고 움직이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기발이 앞을 가리키면 죽어도 전진해야 하고 기발이 누워있으면 적의 머리와 황금보석이 눈앞에 있어도 부동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당기가 좌우로 흔들리면 적이 왔다는 신호요, 령기가 없으면 설사 그 누가 왔다고 해도 출입을 허락하지 말며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나 기발신호는 단순한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특히 일단 싸움이 난 다음에는 군사들이 알아보기 힘들며 반면에 적들은 알아보기 쉽다. 더구나 밤에는 쓸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악기가 동반되여야 한다.

악기란 호적, 북, 징, 바라, 소라, 나팔, 솔발, 취라 등 여러가지를 말하는데 북은 전진하라는것이다. 북을 치는데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단고(한번 치는것)는 20보 전진하라는것이고 긴고(천천히 치는것)는 멀리 가라는것이다. 뢰고(매우 급히 치는것)는 접전하라는것이다. 징은 정지하라는것인데 거기에도 또한 여러가지가 있다.

기타 호적, 솔발, 바라들에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린석은 유교교리에만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병학에도 심원한 진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그 하나하나를 몸에 익혀 필승을 보장한다는것은 유교에 비할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만큼 훈련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향교주변이 밤낮으로 치고 때리고 불며 웨치는 소리로 끓던 어느날 서울에 갔던 김복한이 돌아왔다.

갈 때는 혼자였는데 올 때는 혼자가 아니였다. 지난해 의병조직때에도 왔던 선전관 리강년과 벽사 홍재우의 아들인 홍정식 그리고 또 몇명이 함께 왔다.

그들의 뜻밖의 출현에 린석은 한바탕 웃고떠들었다. 모두가 반가운 사람들이였던것이다.

《최익현대감님이 함께 동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의거가 역시 과단성있는 행동이였다고 하시며 이분들을 잘 이끌어주라고 하였습니다.》

김복한이 같이온 사람들을 소개하였다.

리강년은 지난해에도 내려왔던 사람으로 린석이 잘 알고있는 사람이다. 이번에 그는 답답한 궁중생활을 그만두고 의병싸움에 나서겠다며 제잡담 따라나섰다는것이다.

그밖의 한사람인 홍정식은 새파란 젊은이로서 린석이 이름이나 알고 보기는 처음인 사람이다. 대신 아버지 홍재우는 일찍부터 잘 아는 사이이다. 역시 위정척사론자의 한사람으로서 《강화도조약》을 반대하는 최익현의 상소문에 린석과 나란히 수표를 했던 사람인것이다. 그때 같이 수표를 한 쉰명의 사람을 다 알수는 없으나 맨 웃머리에 남먼저 수표를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뜻이 통하는데가 있는 사람이였다.

《자네가 벽사 홍재우의 아들이란 말이지. 아버지가 너를 보내더냐?》

린석이 묻자 정식이 눈을 껌벅이며 대답했다.

《아버님은 이미 별세하셨습니다. 오랜 신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버님은 일생 척양척왜를 목적하고 살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신다며 최익현대감이나 의암 류린석선생을 꼭 찾아가라고 하시였습니다.》

《너의 부친이 평시에도 몸이 건강치 못하시더니 그예 먼저 가시였

구나. …》

린석이 그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 다음 다시 정식에게로 향했다.

《선친의 뜻이 그러하시였으니 잊지 말고 명심하여라. 그런데 네가 전에는 군사에 몸을 잠그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린석이 새삼스럽게 그의 차림새를 살피며 물었다. 지금 그는 새까만 구두에 장딴지를 조이는 승마바지를 입고 우에는 고름이 짧은 두루마기에 한창 류행되는 신식모자를 썼다. 이를테면 양복과 조선복차림을 겸한셈인데 그나마 조선식이라고는 두루마기 하나뿐이다. 그를 기어코 군대에 집어넣겠다고 하던 아버지의 말과는 딴판이였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전에는 집안에 학문을 이을 사람이 있어야겠다며 저더러 글공부를 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쯤하면 리해가 되였다. 또 글공부를 하다가 의병에 나섰다는것도 찬양할만 한 일이였다. 그것만으로도 남다른 기대와 관심을 가질수 있었다. 그와 함께 다른 두 젊은이도 왔는데 그들도 과히 장하다고 할만 한 사람들이였다.

《최익현대감께선 뭐라고 하시던가. 따로 한 말이 없으시였나?》

린석이 묻는데 복한이 도포자락을 훨훨 날리며 향교안으로 이끌었다.

《따로 전하다뿐인가요, 창의대장님이 깜짝 놀랄만 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다.》

강당안에는 리춘영과 주용규, 안승우를 비롯한 여러 의병장들이 모여있었는데 복한이 그들모두가 들으라는듯 두팔을 높이 추켜들었다.

《최익현대감께서 이번에 상감을 만나보셨습니다. 하여 상감으로 하여금 전국에 의병을 일으킬데 대한 어지를 내리셨는데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팔소매에서 백로지 한장을 꺼냈다.

《그게 정말이요? 우리 상감께서…》

《됐구나. 왜놈들과 마음놓고 싸우게 됐어.》

《참으로 강경과단한 결심을 내리셨네. …》

누구누구해도 제일 반가운 사람은 류린석이였다. 그는 누가 빼앗기라도 할듯 그것을 덮쳐잡았다.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였던가. 헤덤비며 종이장을 더듬는데 글자들이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없어 해를 넘기며 왜놈들만 더 득세하게 하지 않았던가.
《애통소》
첫머리에 이렇게 씌여있었다.
《국왕은 이렇게 말한다. 아, 애통하구나. 나는 죄가 차고넘쳐서 하느님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라의 형세는 크게 기울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이로 말미암아 강한 이웃나라는 틈을 엿보고 반역자들은 롱간질을 하고있다. 반만년의 례의지국이 나의 대에 이르러 개나 양무리가 사는 지역으로 되고말았다.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그의 화에 걸려들게 되였으니 무슨 낯으로 선대의 여러 왕들의 령혼을 뵙겠는가.
지금의 형세가 이 지경이 되였으니 죄인인 나의 한가닥 명줄은 죽어도 아까울것이 없으나 종묘사직과 백성들을 생각하여 혹시 만의 하나라도 나라를 보존할가 하여 너희 충의로운 지사들을 격려하며 애통한 이 조서를 내려보낸다.
령의정 김병시(김홍집대신 잠간 대리하였음.)를 도제찰사로 하여 중앙과 지방에 진무하며 전 진사 김국량을 감군지휘사로 하여 7로에 근왕병을 두되 명칭은 호서를 충의군, 관동을 용의군, 령남을 장의군, 해서는 호의군, 호남은 분의군, 관서는 강의군, 관북은 감의군으로 한다. 의병을 일으킨 선비들에게는 겸하여 초토사로 임명하고 비밀명부도 마땅히 내줄것이며 매 군의 도장도 자체로 새겨쓰고 종사관에 대해서는 관찰사가, 군수이하는 그대들이 선발하여 세력있는 집안의 용사나 량반집의 인재들도 모두 초모할것이며 상벌관계를 정확히 집행할것이다.
흉년이 크게 든 고을은 조세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을 줄이며 고을장관으로 복종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우선 가려내여 처벌하도록 할것이다.
나는 나라앞에 죽기로써 맹세하였으니 중앙과 지방의 의로운 선비들은 나의 뜻을 알고 하나같은 마음으로 사직을 생각하라.
이 글을 포고하여 알려주는바이다.》
마지막글줄은 그가 읽었다고 생각했을뿐 미처 다 읽지를 못했다. 너무도 슬픔이 솟구쳐 소리도 제대로 낼수 없었던것이다.
왕비의 살해이후 줄곧 그에 대한 생각은 하고있었으나 이렇게까지

슬픔에 잠겨있을줄은 몰랐다.

그것은 비록 왕 일개인의 슬픔과 복수심에서 나온것이기는 하였으나 나라의 최고군주로서 자기 주권의 대변자였던 민비를 살해한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충분히 반영되여있었다.

하기에 《애통소》에는 의병들의 활동지역과 그 명칭, 관청장관들의 관계가 명백히 규정되여있으며 필요하다면 그곳에 보관되여있는 무기나 군량을 동원할 권리까지도 의병들에게 주어졌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린석이 그것을 다 읽고 용기를 내여 머리를 들었을 때 모든 의병장들도 강개한 마음으로 그를 향하였다.

《최대감께서는 이번에 상감을 만나보시고 의암선생과 함께 민중전(민비)을 만나보던 때를 회억하시였습니다. 하시고는 그때 만약 중전께서 의병을 일으키자고 하시던 제의를 받아들이였다면 죽지 않았을것이라고 비분을 표하였습니다.》

《최대감께서 끝내 상감마마를 만나시여 목적을 성취하시였구나.》

린석은 이렇게 말하며 의병장들과 함께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던 지나간 일을 추억하였다.

그것이 지난해 왕의 《어지》로 의병이 해산된 후 최익현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갔을 때 일이다. 그때 최익현은 새로 조직된 군국기무처의 공부판서직무를 수행하며 밤낮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럼에도 자기를 찾아온 린석에 대해서만은 반가움을 금할수 없어 집으로 데리고갔다.

그만큼 린석도 제천에서 있었던 의병조직과 그 해산에 대한 이야기를 허물없이 꺼내놓았다. 그에 대하여 익현은 제천의병대의 조직에 대해서는 임금이 알지도 못했고 그런만큼 어지도 내린적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것이 린석을 발끈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충주감사란 사람이 어지를 감히 날조하였단 말인가. 그런자들이 어떻게 뻐젓이 관찰사노릇을 하고있는가.

그러자 최익현은 허허 웃으며 조정에 그런 간신역적들이 한둘인줄 아는가, 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것이 바로 그 역적무리들이다, 그것들이 한무리로 되여 커다란 력량을 이루기때문이다, 김규태로 말하면

친일분자로서 내각의 내부대신 박영효나 군부대신 조희연이들과 한짝인데 바로 그들이야말로 일제가 조선의 내정에 박아넣은 앞잡이들로서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했다.

《하다면 총리란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명색이 김홍집내각인데 총리는 왜 자기 내각 하나 제사람으로 고르지 못합니까. 그도 친일분자입니까?》

린석이 여전히 참지 못하고 들이댔다.

최익현이 그를 피끗 바라보고 한숨을 내쉬였다.

《내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물론 정부대신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놈들을 통하여 공사관으로 들어가는판이요. 총리도 여기서 례외로 되지 않소.》

《그렇다고 왜놈들이 무서워 나라가 할일을 못하겠습니까. 그가 내각의 총리이고 군국기무처의 총재로서 만사람의 우에, 왕 한사람의 아래지위에 있는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하고는 아무 대답도 없는 익현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무릎가까이로 한걸음 다가앉았다.

《대감님, 제가 총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의병에 대하여 할말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만 합니다. 총재도 알고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최익현이 은근히 놀랐다. 린석이 담대하고 완고한 사람이라는것은 이미부터 알고있던바이기는 하지만 총리까지 만나겠다고 당당히 나설줄은 몰랐던것이다. 하면서도 의병투쟁에 대해서는 자기도 관심하는바가 없지 않아서 총리와 대면시켜줄것을 약속하였다. 그것이 의정부청사로서 당시 의정부뿐아니라 군국기무처까지 겸하여 쓰고있던 총리대신의 방에서였다.

류린석이 최익현의 안내로 김홍집총리의 방에 들어섰던것은 벌써 초경(10시)이 지난 밤이였다. 그만큼 그는 바쁜 몸이였고 개별적인 사람들을 만날 시간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때에도 홍집은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앉아 피곤에 몰린 눈을 잠든듯 감고있었다. 그들이 들어설 때에도 그는 눈을 들지 않고 익현에게만 그것도 여전히 잠든 소리로 물었다.

《최대감이 무슨 일로 왔다구요? 말씀하시오.》

방금전까지도 린석은 총리대신이 몹시 바쁘다는것을 익현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요즘 그는 종전의 6조에서 하던 일을 군국기무처의 8개 아문에서 맡아하는데 그 매 아문에서 해야 할 혁신적인 개혁안들을 제기해오면 그것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왕에게 제기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며 법령으로 발표해야 한다. 그 하나하나가 나라의 정사를 개혁하는 거대한 사업들로서 책임이 중하다거나 무겁다는 말마디로는 표현하기 힘든 일들이다. 일례로 군국기무처가 조직된 다음날 하루동안에 토의비준된 문제만 보아도 외국과의 조약체결과 특명전권공사 파견, 문벌과 반상의 차별철폐와 인재본위등용, 문존무비의 구별폐지, 조혼금지, 과부의 재혼허가, 공사노비법의 철폐, 인신매매금지 등 십수가지나 된다. 그 하나하나가 대대로 내려오던 구습과 악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혁신하자고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은 바야흐로 자체의 근대적발전을 위하여 전진하고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선사람자체로 하는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청일전쟁에서 우세하게 되자 왕궁까지 타고앉았던 일제는 다음부터 조선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해나섰다.

그중의 하나가 저들이 고안해낸 《20개조개혁안》이라는것이다. 놈들은 조선에서 자주 소요가 일어나고 발전하지 못하는것이 정치를 바로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내정개혁》을 하라고 마구 간섭해나서고있는것이다.

그런데 그 《20개조개혁안》이란 무엇인가. 그 대부분이 이미 군국기무처에서 토의하고있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교활한 놈들은 거기에 의정부와 각 아문들에 외국인고문들을 초빙할것과 일본에 류학생들을 파견할것 등을 강박하면서 나중에는 군국기무처의 권한과 조직에 대해서까지 시비해나섰다.

김홍집이 이 모든 직무를 다 맡아안고 누구보다 바쁘고 힘겹게 일을 해나가고있다는것은 말 안해도 짐작이 가는터였다.

《의병조직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지금 왜놈들이 저렇듯 살판치면서 조선을 통채로 삼켜버리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나라를 구원할 방도는 오직 군사를 일으켜 싸우는것뿐입니다.》

조는듯 팔걸이에 손을 기대고앉았던 김홍집이 얼핏 린석을 바라보고 다시 익현에게 고개를 돌렸다.

《최대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더라?》

《강원도 춘천에 사는 벼슬하지 않는 선비로서 저 병인년에 〈강화도양요〉를 썼던 사람입니다.》
린석이 말할수 없는 모욕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데 익현이 대답했다.
홍집이 그 말을 듣는듯 마는듯 하고 계속했다.
《서생이 말하자고 하는것이 무엇인지 알만 하오. 의병을 일으켜… 아니, 조선군사이면 더 좋겠지. 그래서 왜놈들과 싸우자는것이겠지?》
《최선의 방도는 군대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생, 〈당랑거철〉이란 말을 알고있지? 범아재비가 수레바퀴를 맞받아나간다는 말 말이요. 자그마한 소똥벌레가 쇠바퀴를 향해나가다가 그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것을 생각해보았소?》
김홍집은 여기서 약간 비양조가 섞인 쓴웃음을 지었다. 하다가 자리에서 벌컥 일어서는 린석을 보고 눈을 들었다.
《총리각하, 각하의 눈에는 제 나라, 제 민족이 그따위 소똥벌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의 정사를 펴나가는 근본입니까?》
그때 린석은 한갖 촌선비가 총리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신하앞에서 감히 이렇게 행세할수 없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제 나라 국민을 너무도 업수이 본데 있었다. 바로 총리란 사람부터 그런 관점에 섰기에 이 나라의 백성들은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어도 어디 가서 하소할 곳 하나 없지 않는가.
그러나 나라의 군국대사를 한손에 거머쥐고있는 김홍집이 그쯤한 공세에 놀랄 사람은 아니였다. 그는 지금 나라의 형편이 그처럼 어렵고 곤난한 속에서도 근대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밀고나가고있었다. 즉 일제가 그토록 사납게 날치며 궁성을 타고앉았던 다음날 군국기무처를 조직했고 놈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2백여건의 각종 법안과 지시문을 작성하여 전국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김홍집이 일제의 포악과 탐욕성을 견제도 하고 일부는 리용도 할줄 아는 그의 능력을 과시하는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김홍집의 머리속에는 얼마전에 있은 청일전쟁의 무참한 상황이 얼른거리고있었다.

충청도 아산만의 풍도해상에서 일본군함들의 포화에 얻어맞고 수뢰에 걸려 수천여명의 병력과 수십문의 대포를 실은채 수장된 청군함들, 그에 이어 계속된 성환역싸움과 평양성싸움에서 또다시 수많은 병력과 전쟁물자를 잃어버린채 살구멍을 찾는 쥐신세가 된것이 바로 황제의 나라라고 자칭하던 청국의 《위세》인것이다.
이 사람이 그 모든걸 알기나 하는가.
《서생,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소. 무슨 말인지 알겠소?》
마침내 김홍집이 입을 열었다. 그로서는 담대하고 다부지기는 하나 형세에는 캄캄한 이 촌선비를 무슨 말로 달래야 빨리 돌려보낼수 있을가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린석이 인차 다시 물었다.
《우리가 그렇게도 보잘것 없다는것입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소. 그래서 우리도 빨리 개화를 해서 힘을 키우자는거요. 그러자면 어차피 일본을 견제하면서…》
《소인이 듣건대 일본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립〉을 견제하고 〈개화〉도 요구하고있다 하는데 과연 그것을 바래서 하는 말일가요. 세론은 조정이 일본과 손잡고 개화를 다그치려 한다는데 이것이야말로 범에게 아이를 맡기는 격이라고 떠들고있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걱정이 더 급하다는 말이 있는데 조만간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고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김홍집도 분명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성은 낼수 없고 근대화에 대한 자기 생각을 터놓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린석은 벌써 그를 앞질렀다.
《지금 왜놈의 군대가 대궐에 침범해있고 요충지마다 틀고앉아 생사존망자체를 위협하고있는데 자립이란 웬말이며 개화란 어떻게 한다는것입니까. 그렇게 하여 안으로 자꾸 변고가 생기고 온 나라가 가마끓듯 하는데 한갖 관직제도나 고치고 관정이름이나 바꾸며 외국의것을 모방한 법령이나 자꾸 내려보낸다고 개화가 되는것입니까. 급한것은 빨리 우리 군대를 키워 왜놈과 싸우는것뿐입니다.》
《음흠? 이 사람이… 군대를 키우는것이 그리 쉬운 일인지 아오?》
마침내 홍집도 참지 못했다. 사실은 처음부터 하고싶은 말이기도 했

다. 지금 조선군대라는것이 겨우 9천명정도, 그것도 왜군에 비하여 장비나 훈련이 보잘것 없는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도 못할바에야 나라에 3공6경을 비롯한 고명중신들이 무엇하러 느런히 앉아있는것입니까. 그들이 력대로 명문거족이요, 원훈구신이요 하면서 충군충의나 애국충정에 대하여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김홍집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것은 무엇인가. 무식인가, 미련인가. 무식은 아니더라도 올려추어주기에는 촌선비로서 너무 과분하다. 뭐라고 해야 할것인가 하는데 옆에서 최익현이 끼여들었다.

《의암, 총리대신은 누구보다 임금의 신임을 높이 받고있는 신하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 애도 많이 쓰고있소. 함부로 말하는게 아니요.》

그러나 린석은 이번에도 굽어들지 않았다.

《사람이 날 때부터 타고난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임금이 명분과 지위, 등급을 준 다음에야 귀해지는것입니다. 그런즉 총리각하께서도 임금의 명분으로 그 지위에 오른것이며 그것으로 귀해진것이 분명합니다.

하다면 하는 일도 남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총애하는 신하로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있었으며 이제도 대책을 취하지 못하는 리유가 무엇입니까?》

그제야 리해가 갔다. 그 날카롭고 무자비한 기상이 결코 촌선비로만 볼 사람이 아니다. 한생 글공부를 많이 한 선비로서 위정척사론의 거두의 한사람이라고 하던 최익현의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다음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갑자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며 몇사람이 뛰여들었던것이다.

그들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방에 그렇게 들어선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잠간 지나서야 앞선자가 새로 부임된 일본공사놈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뒤에 선자들은 수원과 통역 그리고 호위장교들이였다.

《총리각하, 대일본국 조선주재 신임공사 이노우에 가오루각하께서 당신을 만나고저 친히 왕림하셨습니다.》

이노우에는 앞에 세운 지팽이에 두팔을 얹고 번뜩이는 안경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까지 김홍집은 아무 예고도 없이 자기 방에 뛰여든 불청객들을 못마땅한 자세로 지켜보고있었다. 그것은 외교관례로는 말할것도 없고 초보적인 례의도덕에도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이였다.

잠시후 이노우에가 그것을 느꼈는지 처음의 자세를 늦추고 얄팍한 입술에 살웃음을 지었다.

《총리각하, 미안하게 됐소이다. 불원간 마주앉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일로 하여 밤중에 찾게 되였습니다.》

《용건이 무어요?》

김홍집이 여전히 못마땅한 자세로 물었다.

이노우에는 옆에 앉은 최익현과 류린석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하였다.

《좀 불쾌한 말씀이오만 최근 우리의 소식통에 의하면 충청도 제천지방에서 무슨 의병같은것이 조직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전라도민란으로 소란스러운 귀국측으로 보나, 동양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대일본제국의 립장에서 보나 확실히 시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주성과 그 일대의 달천, 수안, 가흥지구에 군사를 배치하고 수비대를 두어서 의병의 발생을 그 요람기에 소멸하자고 합니다. 총리각하께서 충분히 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놈들의 행동을 아니꼽게 지켜보던 김홍집이 머리를 들었다.

《의병이라구? 당신네가 그걸 어떻게 아오?》

그가 놀라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방금까지 류린석과 의병조직에 대한 문제를 론하던것인데 이자들은 어떻게 하여 벌써 그 내막까지 알고있는가.

《총리쯤 되시면 그런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알고있어야지 우리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노우에가 흡족한듯 핀잔의 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이 홍집의 분노를 더 촉발시켰다. 그런 때일수록 침착해지기를 잘하는 홍집이다.

《몰랐던만큼 이제 알아보겠소. 군부아문에 과업을 주겠으니 후에 협판을 만나보시오.》

순간 이노우에의 량볼이 울룩불룩 끓고 코수염이 나래를 쳤다. 그도 그럴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국에서 내무대신을 했고 잠간이기는 하지만 총리대신까지 지냈던 인물인것이다. 그것을 홍집이 군부아문의 협판(부상급)이나 만나보라는 정도이니 분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총리각하, 이것이 어찌 군부아문에서 토의될 문제입니까. 설사 토의된다 하여도 여기에서 다시 론의해야 할것이 분명한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급합니다. 각하께서는 내가 이 문제를 전하께 상정시키기를 바라는것입니까?》

이번에는 김홍집도 당황하였다. 이 오만하기 그지없는 난쟁이외교관놈이 기어코 임금을 만나자고 할것이다. 그때에는 홍집이 자기가 일을 제대로 못한것으로 될것이다.

보다 더 우려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왕의 우유부단성이다. 결패가 없고 강경한 자질이 부족한 그는 그 누구에게든 맺고끊고하기보다 좋은 말로 얼버무리기를 잘한다. 나라의 운명과 관련한 전후사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

문득 홍집의 머리속에 왕궁을 습격당한 다음날 당시 일본공사였던 오또리놈과 왕이 만났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왕과 오또리 게이스께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

오또리: 놀란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감히 찾아왔습니다. 어디 상한데는 없습니까?

왕: 피해까지는 입지 않았소.

오또리: 이제부터 개화를 하면 두 나라의 우호관계는 더 두터워질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이것뿐입니다.

왕: 두 나라가 진실로 우호관계를 닦아나간다면 실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방도로 될것이요.

오또리: 일전에 제기한 다섯가지 조목에 마땅히 류의하고 그대로 시행하는것이 매우 좋을것입니다.

왕: 우리 나라에도 원래 옛법과 제도가 있지만 론의한 다섯가지 조목도 나쁘지 않을것 같소.

…

일종의 정치만화를 그대로 련상케 하는 왕과 일개 외교관과의 대화

이다.
얼핏 들으면 우호관계를 위해 좋은 의견이라도 교환된듯 한 인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새겨보아도 여기에는 만사람의 치를 떨게 하는 모순과 불평등관계가 얽혀있음을 알수 있다.
우선 오또리놈이 왕궁을 습격점령하고 왕을 연금상태에 놓은 다음날 만났다는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다음으로 둘사이 주고받은 대화를 두고보자. 그때 오또리놈은 《우호관계》에 대하여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우호》란 언제부터인가. 궁성을 타고앉은 다음부터이다. 그런즉 놈이 지껄인 《이제부터의 개화》란 저들이 하라는대로 하라는것이며 모든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소리이다. 또 놈은 5개 조목에 마땅히 류의하라고 했는데 그자체가 모두 저들이 필요에 의해 조선정부에 강박하는 요구들인것이다.
문제는 놈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는 왕의 자세였다. 총체적으로 보면 오또리는 훈시하고 강박하는 자세였고 왕은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세였다.
따지고들면 바로 이때부터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질 급전직하의 낭떠러지에 서있었다고 할수 있다. 청세력을 수세에 몰아넣은 일제가 왕궁을 타고앉은 다음 왕까지 저런 자세로 나왔으니 이제야 조선이 왜놈의것이 아닌가. 아무런 타산도 주견도 없이 나라의 운명에 대한 깊은 우려도 없이 쪽발이난쟁이가 주어던진 말마디에 끌려다니며 해버린 대답이 어떤 후과를 미치게 되리라는것을 과연 왕이 몰랐단 말인가.
바로 그런 왕이기에 김홍집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었고 자기가 대신 곱절로 애써야 한다는 근심에 싸여있는것이다.
그때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던 최익현이 대화에 끼여들었다.
《이보시오 이노우에, 당신이 무엇이길래 총리각하의 앞에 와서 무엄하게 노는거요. 하라는대로 하시오.》
이노우에의 눈길이 불시에 그에게로 돌아섰다.
《무엇이?… 당신은 누구요?》

《공부판서요. 당신은 례의도덕도 모르오?》
《례의도덕… 판서라는게 저렇소. 당신은 내가 대일본제국을 대표하고있다는것을 모르오? 우리는 제국의 리익을 위하여 그 누구와도 만날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할것이요.》
《당신을 누가 이 방에 들어오라고 했소. 당장 나가시오!》
최익현이 책상을 탕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노우에가 흠칫 놀라 물러서는 반면에 뒤에 섰던 호위장교가 손을 권총집에 가져갔다. 이다찌라는 중좌인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부터 권총집뚜껑을 만지작거리고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류린석이 앞에 나섰다.
《여보시오 공사, 지금 제천에는 의병이 없소. 그 일로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고 더구나 군사주둔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시오.》
《의병이 없다구?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소식통에 의하면 바로 엊그제 제천에서 조직되였소.》
《그 소식통이라는게 어떤 놈들인지 알만 하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한명의 의병도 없으니 필요하면 그 졸개놈한테 다시 물어보시오.》
제노라하던 놈들이 여기서 잠시 무춤했다. 저들로서는 알만큼 다 알아보고 들이댔는데 예상외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친것이다.
이노우에가 린석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들었소?》
《소식? 이 쪽발이놈아, 내가 바로 네놈을 쳐죽이자고 의병을 조직했던 류린석이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당장 물러가라!》
《오 류린석,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였는가. 그런즉 한갖 이런 장삼리사들이 우리 대일본과 맞서보겠다고 나섰다는겐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가?》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이다찌중좌가 권총을 빼들고 격발기를 잡아당겼다.
그때에도 린석은 까딱하지 않고 이다찌를 향해 날카로운 눈초리를 던지고있었다.
《쏴봐라. 내뒤에는 일천수백만의 조선동포가 있다. 네놈들이 지금은 겨우 몇만명의 군대와 대포를 끌고와 흰소리를 치지만 조만간에 우리 동포들이 하나로 뭉치여 네놈들을 바위로 닭알누르듯 깔아뭉갤것

이다.》
권총을 든 이다찌의 손이 서서히 들리며 목표를 겨냥했다. 이노우에가 책상을 치며 어서 쏘라고 악을 쓰는 순간 등뒤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조선군사들이 뛰여들었다.
《꼼짝 말앗! 움직이면 쏜다!》
어느새 억센 손아귀가 집게마냥 이다찌의 손목을 들이조여 권총을 땅에 떨구었다.
신식보총으로 무장한 조선군사들이 방을 반원경으로 포위하고 놈들과 마주섰다. 그중 둥글모자를 쓴 장교 한사람이 떨어진 권총을 구멍찾는 생쥐마냥 두리번거리는 이다찌의 눈앞에 내댔다.
《여기는 나라의 정사를 펴는 중앙관청이요. 우리는 이를 보위할 임무를 수행하고있소.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격하겠소!》
이다찌가 쓴웃음을 지으며 권총을 받아 집안에 집어넣었다. 하면서도 눈만은 여전히 린석을 쏘아보며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굳건히 한자리에 서서 자기를 주시하는 린석의 시선에 쫓기워 그대로 물러가고말았다.
이윽하여 방에는 다시 세사람만 남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짧은 순간에 너무도 격동적인 사실을 체험한 뒤여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던것이다. 왜놈의 본색이 어떻다 하는것을 누구나 똑같이 체험하였다. 그러나 그앞에서 취한 태도와 감정은 엄연히 다른것이다.
(류린석이란 사람을 결코 허줄히 볼것이 아니다. 적들앞에서 모두 그처럼만 당당할수 있다면 왜놈 몇만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김홍집의 생각이다. 그는 지금 궁중의 어느 누구도 그처럼 행동한 사람이 없고 또 할만 한 사람이 없다는것을 놀라움속에 자인하고 있었다.
《총리각하, 지금형편에서 중앙군을 조직하여 왜놈과 맞설수 없다는것은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병조직문제는 더 절실한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이 필요없습니다. 오직 임금의 이름으로 명령한마디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온 나라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날것입니다. 지금은 저 충주관찰사 김규태란 사람과 같은 지방관들때문에 더 반대를 하여 싸우자고 해도 싸울수가 없습니다.》

류린석이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일순 긴장했던 홍집의 맥이 풀렸다. 왕에 대한 말이 다시 나온때문이였다. 과연 그가 왜놈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의병을 일으키라고 온 나라에 호령할수 있겠는가.
《만약 그것이 힘들면 밀지로라도 지방에 내려보내주십시오. 지금은 의병을 일으키기보다 지방관리들과 싸우기가 더 힙듭니다.》
린석이 또다시 그를 앞질렀다.
홍집은 끝내 손을 들었다. 그는 린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며 고개를 흔들었다.
《노력해보겠소. 아니, 꼭 성사시키도록 힘쓰겠소. …》

8

《창의대장님, 새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답니다.》
문득 들리는 소리에 린석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그의 이야기에 팔렸던 여러 의병장들이 고개를 들었다. 향교밖 어디선가 장정들이 부르는 병정가와 함께 힘찬 군령소리가 들려왔다.
《새 부대? 어디서… 누가 대장이라고 하던가?》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문앞에 있습니다.》
린석은 제잡담하고 밖으로 나갔다. 활짝 열려진 삼문밖으로 몇백명의 장정들이 렬을 맞춰 서있는것이 보였다. 놀라운것은 그들이 선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였다. 그앞에 둥글모자를 쓰고 번쩍이는 구리단추가 달린 새까만 군인외투를 입은 사람이 서있다가 대렬에 차렷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곧바로 린석에게 달려왔다.
《창의대장님, 령남의병대는 대장님의 부대에 합류하기 위하여 도착하였습니다. 령남의병장 서상렬!》
(무엇이, 서상렬?…)
린석은 거수경례를 하는 그에게 같이 손을 들어야 할지 말지 망설이다가 그대로 달려가 상렬을 힘껏 그러안았다.

《서대장, 이 사람이 그예 찾아왔군. 예까지…》
서상렬이 키가 크고 몸집도 좋은 얼굴에 한껏 웃음을 지었다.
《선생님과 한 약속을 지켰을뿐입니다. 이런 날이 있으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부대는?…》
《군사가 삼백여명에 신식보총이 서른정, 탄알이 몇천발 됩니다. 기타는 화승총과 활, 창칼들입니다.》
《신식보총! 과연 자네답군. 장하네. …》
그는 부대를 휴식시키라 하고 그를 여러 의병장들에게 소개시켰다.
서상렬이로 말하면 지난해 김홍집의 방에서 이다찌놈이 권총을 빼들었을 때 놈들을 제압한 조선군대의 그 장교였다. 물론 린석이 그때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고 다만 조선군사들이 자기 임무를 괜찮게 수행한다는 인식만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린석이 최익현의 집에서 김홍집과 한 약속을 기다리며 묵고있는데 그가 찾아왔다.
《선생님께 문안드립니다. 저를 선생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상렬을 알아본 그는 와락 달려가 두손을 꽉 그러잡았다.
서상렬은 이미전에 린석이 쓴 《강화도양요》를 비롯한 몇편의 시를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련이어 발표되는 격문들을 보고 그의 강한 애국심과 반일정신에 늘 공감해오고있었다. 하다가 왜놈의 총구앞에 단호히 맞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그에 반해버렸다. 그가 군사를 동원하여 총리의 방으로 달려들어갔던것도 그때문이였다.
서상렬도 원래는 평안도의 어느 한 고을에서 쟁인바치질을 하던 천민의 자식이였다. 한것이 시위대에 뽑혀 서울에 올라가게 되였는데 총을 잘 쏘아서 점차 승급의 길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저는 한때 왜놈장교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왜놈의 구두발과 채찍밑에서 받은 민족적멸시와 구박을 잊을수 없습니다.
왜놈들과 수차 사격경기를 하였는데 이기면 이겼다고 차고 치더니 그래서 져주면 또 졌다고 온갖 모욕을 다하며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외딴데로 끌고가서 사격목표로 세워놓고 여러놈이 동시에 사격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

서상렬의 남다른 반일감정은 이렇게 생겨났다. 그때부터 그는 왜놈이라면 치를 떨었고 결사의 각오로 맞서싸울 결심을 품게 되였다. 그러는 가운데 린석이 쓴 글을 보고 소문도 듣게 되였으며 뜻밖에도 의정부청사에서 직접 보게까지 되였다. …

린석으로서는 전혀 우연인듯 하였으나 왜놈을 증오하는 한길에서 만났다는 그것으로 하여 참으로 뜻깊은 상봉이였다. 품을 놓고 찾아다닌다면 이만 한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날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날 그들의 상봉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그때 상렬은 말했다.

《선생님, 저의 부대는 지금 전라도민란을 진압하러 공주로 갑니다. 그곳에서 왜놈들과 함께 제 나라 백성들을 향해 총을 쏘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기회를 보아 총부리를 돌리고 반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일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의병을 일으킨다면 기어코 찾아가겠다는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짧은 상봉에 석별의 정만 길게 남긴 아쉬운 순간이였다.

무엇인가 많은 말을 하고싶었고 할수 있었던 사람을 놓쳐버렸다는 서운함이 고무줄처럼 한쪽가슴을 옭매고있었다.

뜻밖의 일로 그에 대한 생각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왕에게 청했던 의병조직에 대한 어지가 부결로 내려왔던것이다.

…지금은 왜인들과 싸울 때가 아니며 백성들이 저저마다 일어나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니다. 지극히 자중하고 심각하며 조심하라. …

왕이 김홍집의 청을 부결하여 내려보낸 어지였다. 린석이 기대했던 바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이였다. 그는 최익현에게 들이댔다.

《국가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인 이때에 왕의 대답이 왜 그리도 미미합니까. 꾹 눌리워 참고만 있으라 하니 어떻게 참는단 말입니까.》

그 말에는 익현도 대답을 못하고 음침해졌다. 평시에 격하기 잘하고 참을성이 적은 그였지만 이번만은 어째서인지 모진 고통을 참느라고 때없이 이마를 찡그렸다.

《여성이, 참으라구. 지금은 우리같이 글하는 선비들이 나설 때가 아닌가보네.》

《나는 지금 선비로 말하는것이 아니라 창칼을 들고 왜놈과 싸우자

는 무사로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말을 했든 듣는이 짐작이지. 비록 상감께서 하자고 해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되여있거던. 상감께서 보고 듣는 눈이 따로 있네.》

《중전마마(민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게 어디 민중전 한사람뿐이겠나. 지금은 민씨일파가 온 나라에 살판치는 세상일세.》

익현이 불만기어린 소리로 내뱉았다.

그로 말하면 대원군의 서원철폐를 반대하여 상소운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민비의 남다른 신임을 받은 사람의 하나이다. 일설에는 그가 민비의 추동을 받아 상소를 하였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민비의 경망하고 요사스러운 행동에 공감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는 민씨일파의 세도정치와 역적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제 돌이키면 대원군이 어디서 고르고골라 저런 녀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는지 그것부터가 원망스럽다. 그 녀자가 궁중에 들어앉자부터 나라가 소란하고 백성들은 궁핍해졌으며 외세가 쓸어드는 란무장으로 되고말았다. 저 병자년(1876년)의 《강화도조약》의 체결로부터 왜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공사관이 설치되기 시작하고 임오군란, 갑신정변때에는 청나라군대를 끌어들여 그를 무력으로 짓뭉개버리게 한것도 저 민비로부터 시작되였다고 할수 있다.

그런 민비가 한때 덕천군수를 지내다가 장악원(궁중의 음악과 무용을 맡은 관청)의 첨정이 된 민치록의 외동딸로서 일찌기 량친을 잃고 의지가지할데없이 고생스럽게 자란 녀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대원군에게 그런 녀자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 굳이 며느리로 삼았는지 알수가 없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가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나라에 끼친 해독과 피해가 얼마였던가. 자기 아들의 명복을 빈다며 금강산 1만 2천봉과 명산대천들에 쌀 한섬과 비단 한필씩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게 하고도 자기자신은 에짚트의 융단과 프랑스의 샴팡, 미국의 사탕과 커피, 이딸리아의 유리잔, 일본의 사기화로로 장식하고 먹고 마시며 하루밤 궁중

연락을 차리는데 드는 초불값만 80만냥, 궁녀들이 춤추고 노래부르는데 드는 비단포목이 수천수백필이다. 그러고도 밤에는 명주필 찢는 소리가 좋다며 온밤 생비단필을 쫙쫙 찢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다.

그런 녀자에게 과연 의병 같은것이 안중에나 있었겠는가. 분명 왕이 입도 벌리기 전에 옆에서 밀막아버렸을것이다.

이렇게 하여 린석은 애써 마련했던 서울길을 돌려 다시 춘천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집에 오래 있지 못했다.

마침내 농민군에 의해 터졌던 공주대격전의 참상이 그곳까지 전해졌던것이다.

수만명의 농민군이 공주와 그 주변의 산야에 쓰러졌다. 왜놈들은 그 대부분이 곤봉이나 죽창, 농쟁기밖에 든것이 없는 농민군을 향하여 대포와 기관총, 신식보총들로 무자비하게 휘갈겨댔다. 그리하여 서울로 진격하여 왜놈들의 소굴을 헐어버리고 매국역적들을 쳐부시자고 하던 그들의 념원은 초야에 널린 시체로 굳어지고말았다.

소식을 들은 린석은 또다시 집을 떠났다. 제천과 충주에 들려 안승우, 김복한이들과 공주에 가서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대참살만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때는 벌써 12월도 중순이 지난 겨울이였다. 같이 떠난 승우와 복한이들은 추위에 떨며 자기네 선생이 공연한 수고를 한다는 투정도 하였다. 그러나 공주를 가까이하면서부터 그런 말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점차 의분과 분노의 소리가 높아갔다.

처음 그들이 맞다들린것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디론가 꾸역꾸역 떠나가는 류랑민들이였다. 다음은 포화에 불타고 무너진 집들, 그다음은 여기저기 쓰러진 농군들…

시체들은 일제히 공주성을 향하여, 때로는 한둘씩, 때로는 몇명씩 덧쌓인채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공주대격전의 격렬한 싸움장면을 련상케 하는 광경이였다. 린석의 눈에 그때의 장면이 눈에 보이듯 떠올랐다. …

북소리, 바라소리, 호적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수만의 농군들이 성을 향하여 달려가고있다. 손에는 창칼과 몽둥이밖에 든것이

없다. 그때 돌연 요란한 총성과 폭음이 터져오르며 사람들이 쓰러진다. 그래도 사람들은 악악 소리를 웨치며 달려가고있다. 불과 며칠사이에 40～50차례나 공격을 들이댔다. …

문득 발부리에 불에 타다남은 종이장 하나가 눈에 띄였다. 린석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순간 손이 떨렸다. 전봉준이 격전전야에 정부군에 보낸 격문이였다.

《…일본과 조선은 비록 린방국이나 력대로 내려오며 적국이였다. 이에 우리 농민군이 군사를 일으켜 왜적을 소멸하고 친일파들을 제어하려 하는데 당신들 병정과 장교들이 의리를 생각지 않고 조선사람끼리 싸우려고 하니 인명이 상하야 어찌 불쌍타 하지 않겠는가. 비록 뜻과 리념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척왜척양의 정신이야 어디로 가겠는가. …

충군우국의 마음이 있거든 우리 편으로 돌아와 같이 척왜척양을 함으로써 조선이 일본의것으로 되지 않게 마음을 합하여 큰일을 이룩하자. …》

격문을 읽고난 그들은 비분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당연한 요구였다. 조선군대가 왜 일본놈과 한편이 되여 제사람들을 죽여야 한단 말인가.

세월이 흐르면 만약 그때 정부군이 전봉준의 말대로 총부리를 돌려 농민군과 함께 왜놈들을 공격했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력사가 창조되였으리라는 명백한 결론을 찾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류린석이조차 전봉준의 생각이 옳았다고는 보면서도 당시 시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김복한이 나서서 한마디 했다.

《선생님, 전봉준대장님을 만나봅시다. 그를 만나면 앞으로 싸움에서 참고로 될 귀중한 조언을 들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뜻밖의 이 한마디가 그들의 행로에 변경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린석이 지금껏 전봉준을 긍정하면서도 만나볼 생각을 못했는데 복한이 그것을 틔겨준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행로를 바꾸어 남쪽으로 향했다. 전봉준이 공주대

격전이후 전라도방면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소문을 들은때문이였다.
론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왜놈들과 또 한차례 치렬한 격전이 있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나 전봉준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수없이 돌아섰다. 이번에는 대전을 거쳐 옥천, 보은으로 하여 청주, 충주로 돌아올 예정이였다. 그런데 예견치 않던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오래 계속된 행군으로 지칠대로 지쳐 옥천을 지나 보은으로 향할 때였다. 어느 산골에 이르니 앞에 몇십명은 잘될 장정들이 걸어가고있었다. 이상한것은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무엇에 매달린듯 뭉쳐있으며 걸음이 몹시 굼뜬것이였다. 앞에는 중까지 한명 있어 행렬을 인도하고있었다. 천천히 걷는 말들도 인차 행렬을 따라잡았다.
그러자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렸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간다

소리는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것처럼 웅글고 느릿느릿했으며 분명치 않았다. 몇번이나 반복해서야 소리를 가려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수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금 그들이 어떤 병자를 들것에 싣고가고있으며 그가 거듭 선창을 떼는데 따라 노래를 반복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따라앞서자니 딱하고 뒤따라가자니 답답했다. 해는 뉘엿뉘엿 산머리로 다가가고있었다. 길은 벌써 속리산속 깊은 골짜기를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복한이 말에서 내려 행렬에 다가갔다.
《무슨 병자요?》
했으나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노래만 반복했다. 병자는 흰 이불에 얼굴만 내놓고 까딱하지 않는데 우묵한 눈만은 정기를 잃지 않고 높은 하늘을 향하고있었다.
그 가없는 푸른 하늘로 뭉게구름이 흘러가고 눈부신 저녁해빛이 반사되고있다. 해지기 전의 저녁은 꿈속을 보는 환영처럼 한순간 대지

를 더 밝게 붉은색으로 장식을 한다.
잠간동안 환자와 함께 거기에 눈길을 돌렸던 복한은 재차 그에게 돌아서다가 그 자리에 굳어졌다. 환자가 낯이 익다는 이상한 생각과 함께 찌르는듯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에 당황했던것이다.
《왜 놀라는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된것이 그리도 이상합니까?》
문득 환자가 입을 열었다.
린석이 다가왔다. 동시에 행렬이 멈춰섰다.
모든것이 순간에 마치 그렇게 짜고 하는것처럼 진행되였다. 린석을 보자 병자는 해쓱한 얼굴에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다. 어딘가 비웃음 비슷한 한쪽입귀는 씰그러지고 눈은 감기여지는 그런 웃음이였다. 병자가 건강한 사람을 향해 던지는 웃음자체부터가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는것이였다.
《여길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깨고소한 모습을 보자구서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나를 언제 보았다고 만나자부터 비양조로 나오는가.) 하는데 안승우가 곁으로 다가왔다.
《여름에 향교에 왔던 총각입니다. 김백산이라고 했던지, 전라도민란을 선동했던…》
생각이 났다. 여름날의 무성한 숲, 뜻밖에 울린 총성, 우물가에 나란히 서서 웃음짓던 처녀와 총각의 모습이다.
한것을 몰랐다. 안승우의 경우는 다를수 있다. 그의 딸 미영을 사이에 두고 티각태각이 있지 않았던가.
《가십시오. 어서 앞서… 거기야 량반님네들이 아닙니까.》
역시 비양조가 어린 소리다.
린석은 허리를 굽혔다.
《총각, 진정하라구.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건 알아서 무엇합니까. 이 가슴에 또 못을 박자구요?》
《총각이 말하는것 보아라. 아직 버릇을 못 고쳤나?》
옆에서 복한이 한마디했다. 그러자 옆에서 병자를 메고온 사람이 끼여들었다.
《손님, 말 조심하시오. 병자는 안정해야 합니다.》
《가십시오. 어서 가라는데… 쓸데가 무엇입니까.》

병자가 귀찮다는듯 용을 썼다.
《왜놈장교가 나를 쐈습니다. 와다나베라고 하는 대위놈이… 그놈의 옆에 조선량반 하나가 서서… 글공부나 한놈이겠죠. 나를 손가락질하며 왜말로 지껄이더니… 왜놈의 턱주가리밑에 붙어사는 더러운 놈… 어서 가라는데…》
《갑시다. 이거야 어디…》
복한이 참지 못하고 린석을 잡아당겼다. 그는 병자에게서 물러서면서 헤쳐진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앞서가는 중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사유를 알아보았다.
일인즉 농민군의 마지막싸움인 론산격전에서 생긴 일이였다. 그때 김백산의 부대는 전봉준을 비롯한 지휘부성원들을 빼돌리기 위한 유인전투를 한바탕 벌리고 다시 산기슭에 붙어서 매복전에 들어갔다. 백산이 화승총으로 와다나베를 겨누었다. 공주싸움때부터 자기를 지꿎게 뒤쫓는 와다나베였다. 그놈을 족치기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신식보총이면 더 좋겠지만 그때에는 이미 탄알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와다나베가 자기앞으로 바투바투 다가왔다. 화승총이라고 얕잡아본것이 분명하였다. 놈은 이미 조성조문안에 들었다. 그런데 심지가 타는 쑥냄새만 진하게 풍길뿐 화약이 튕기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 와다나베가 자기를 향하여 권총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하나, 둘, 셋, 넷… 련속 땅땅거리는 소리와 함께 탄알이 주위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그는 분명 들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듣지 못했다. 무엇인가 둔탁한것이 어깨를 세차게 때리더니 갑자기 눈앞이 새까매지며 맥이 빠졌던것이다. …
마침내 일행이 절에 도착하였다. 사전에 련계가 되여있었던듯 주지가 달려나와 그들을 판도방으로 안내하고 후한 손님접대를 하였다. 반대로 뒤따라간 린석이네들은 뒤구석의 쓰지도 않던 찬방으로 안내했다.
《리해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놈과 싸우다 부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록두장군을 구원해냈지요. 나라가 아끼고 돌봐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린석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불교는 유교와 같지 않고 동학과도

다르다. 그럼에도 왜놈과 싸운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하나의 뉴대로 이어주고있는것이다. 하다면 유교성리학자들인 자기네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저녁이 끝나자 린석이네들은 다시 백산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그들을 차겁게 대했다.

《왜 또 따라왔습니까, 무엇이 모자라서. …》

《총각, 용서하게. 아까는 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욕까지 해서 안됐네.》

《무엇이 없다구요? 내가 당신들을 몰라보았습니까. 나같은 사람은 아무리 멀쩡해도 다 제정신이 없어보이는가요?》

《잘못되였네. 그래서 다시 찾아오지 않았나.》

《필요없습니다. 이제는 모든것이 끝났습니다. 다시는 량반님네들과 마주서지 않겠습니다. 량반집 따님네와도… 그러니 걱정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승우가 흠칫 몸을 떨었다. 하다가 린석이 손을 꼭 잡는 바람에 그자리에 눌러앉았다.

《우린 전봉준대장을 만나자고 하네. 그이가 왜놈과 싸운 이야기를 듣자고 말이야. 어디에 가면 만날수 있겠나?》

《왜놈과 싸운다구요? 당신네 량반님네들이?》

그는 무슨 격한 일이라도 있는듯 흥 코방귀를 끼고는 안깐힘을 쓰며 자리에 일어나앉았다.

《이렇게도 모질게 못질을 하겠습니까. 함께 싸우자고 할 때는 서둘러 쫓아내더니 이제 다 망하게 되니 같이 싸우자구요? 바로 그렇게 하는것이 량반님네들이 하는 일입니까?》

《갑시다. 여기 있댔자 모욕밖에 당할게 있습니까.》

김복한과 안승우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김백산이 더욱 격했다.

《가십시오. 누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어서 가서 길지 않은 일생을 도덕이나 체면을 지키며 편안히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는것이 만세불멸의 나라에는 죄로 될지언정 저 하나를 위해서는 상책으로 될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제노라고 하는 고관대작으로부터 하향의 하관말직에 이르는 많은 량반님네들이 왜적에게 붙어 나라를 팔며 제 살

궁리를 하고있는데 이러한 대세의 추이를 따르지 못하는것도 지나가고나면 후회가 됩니다.》

《총각, 거듭 말하지만 우리도 왜놈과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요. 곡해하지 마오.》

《싸운다구요? 당신들이 왜놈들과… 좋습니다.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왜놈들이란 어떤 놈들인지 알게 될 때… 그때는 그만두어도 됩니다. 공적은 없고 형식만 취해도 그자체가 공적으로 될테니까요. 거기야 량반님들이 아닙니까.》

《총각이 량반들을 그냥 모욕할텐가?》

복한이 불시에 소리쳤다. 그러나 총각은 아무 감각도 없는 사람처럼 제 말만 계속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싸움을 해도 우리한테는 죄가 되고 량반님들한테는 공적으로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놈들에게 쫓기고 나라에서도 쫓기고… 왜 백성들은 이래도저래도 죽어야만 합니까. 아, 록두장군, 창의대장님,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어이 다시 일어납시다. …》

그는 이렇게 웨치며 방바닥을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은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린석이 그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병이 심하다며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다. 린석은 그것이 좀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가지고다니던 려비와 쌀, 음식감사리 얼마만 남겨놓고는 전부 절에 맡겨놓았다. 총각의 병치료에 보태라는것이였다.

그렇게 하고 떠나오는 동안 복한이와 승우네들은 노상 그를 욕했다. 역시 도덕이 없고 례의도 모르는 놈이라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사그라들고말았다. 어쨌든 다시 그를 만나지 않게 될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린석의 머리속에는 그 총각에 대한 인상이 떠나지 않았다. 감때가 사납고 막 자란 사람같아도 겁을 모르고 담차며 결패가 있는 그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얼핏얼핏 마구 던지는것 같은 말속에도 그대로의 뜻과 주장이 있는것을 보면 아는것도 많은듯 하다. 저런 사람이 자기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

그렇게 몇십리 산속을 걷는 동안 시꺼먼 먹장구름이 밀려오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곳 태백산줄기들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눈

이 많이 내리고 내리는족족 쌓여서 길이 자주 메이군 한다. 이제 또 얼마나 내릴것인지…

갑자기 말이 멈춰섰다. 솜뭉치같은 눈들이 쏟아붓듯 앞을 가리웠는데 시꺼먼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있었다.

《찍소리 말엇, 반항하면 쏴갈길테다!》

몇사람이 말고삐부터 빼앗아쥐고 소리쳤다. 또 몇사람은 뒤말에 싣고오던 부담짝들을 뒤지고있었다. 그 부담짝이래야 벌써 시일이 오래 지난데다 보은사에 다 떨군 뒤여서 보잘것이 없었다. 그런데 강도배들은 그것마저 다 빼앗아가지고는 어서 가라고 길을 비켜주었다.

자연 싸움이 일게 되였다. 이제 청주까지만 가자고 해도 이삼일은 걸리겠는데 푼전 한잎 없이 그것도 말 다섯마리를 다 떼워바치고 어떻게 간단 말인가. 아무리 못사는 량반이라 해도 말 한마리에 구종 하나는 달고다녀야 량반의 체면을 세우던 세월이다.

《어서 그냥 지나가. 우린 왜놈과 싸우는 군대란 말이야. 잘사는 량반들같은데 그만한것도 선사 못하겠다는겐가?》

《못하겠다. 너희들이 왜놈과 싸울것 같으면 큰길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울것이지 왜 이런 산속에서 강도질이냐?》

그들의 말에 복한이 맞섰다. 그러자 옆에서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가 들리고 복한은 뒤로 벌렁 넘어졌다.

그것이 더욱 악을 받치게 해서 복한이 달려와 악악 고아대는데 급한 말발굽소리가 들리더니 쏟아지는 눈발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웬 총성이요? 대장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왔소.》

저들사이에 몇마디 말들이 오고가더니 그 사람이 산굽이로 사라졌다. 그러나 잠시후 다시 나타나서는 그들전원을 대장님이 있다는 곳으로 데리고갔다. 그런데 산굽이를 채 돌아서기도 전에 누군가 급히 마주 달려왔다. 둥글모자를 쓰고 누런색구리단추가 달린 군용외투를 입은 장교차림의…

《의암선생이 아닙니까. 그럴줄 짐작했습니다.》

그가 소리치듯 말했다.

린석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이런 산속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절 모르겠습니까. 서상렬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만났던 훈련대중

대장…》
순간 린석은 두팔을 힘껏 벌리고 그를 그러안았다.
《으응? 그렇군. 자네가 맞아, 자네가…》
《이렇게 다시 만났군요. 어서 가십시다.》 하면서 앞장서는데 얼마 안 가서 꽤 큰 마을을 끼고앉은 골짜기가 나타났다. 상렬이 그들을 어느 한 집으로 안내했다.
《그때 선생님과 한 약속대로 우리는 반변을 했습니다. 저의 군사 백수십명전원이 성을 뛰쳐나와 농민군과 함께 싸웠는데 때는 늦었습니다. 대부분이 전사하고 지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의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의병을? 그게 확실한 소린가?》
린석이 깜짝 놀랐다. 자기가 지금까지 애쓰다가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하겠다고 하기때문이였다. 그의 애국지심에 공감이 갔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
밤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그 과정에 린석은 자기가 의병을 조직했던 이야기와 함께 왕이 내려보낸 어지에 대해서도 터놓았다. 지금형편에서는 의병투쟁이 불가능하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서상렬은 립장이 단호했다.
《아닙니다. 그 어지라는것은 왕이 아니라 민중전의 말입니다. 바로 그 암닭이 울어댔을것입니다. 이제 더는 그 말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기어코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상렬이 더더욱 격하여 주먹을 흔들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꾸었다.
《선생님, 이번 공주격전때 왜군대장이 누구였는지 압니까. 그때 호위대장이였던 이다찌중좌놈이였습니다. 나는 그놈이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대포를 쏘라고 명령하는것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런 놈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겨레가 망하고맙니다.》
《음흠, 이다찌중좌 그놈이…》
린석이 주먹을 불끈 그러쥐였다. 그때 자기를 향해 권총을 빼들던 장면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바로 그놈이 저 공주대격전의 참상을 빚어냈다니 그놈에 대한 격분이 더욱 솟구쳤다. 그럼에도 이제 다시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그러는데 상렬이 불의에 그의 손을 잡고 계속하였다.

《선생님, 이제 다시 임금의 어지를 청하려면 민중전을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하는것이 총리대신을 만나는것보다 더 힘있을것입니다.》

린석은 의아했다. 방금전까지 《암닭》이라고 욕하며 그 말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하던 그가 아닌가.

하다가 그의 숙어진 눈빛을 보고 인차 수긍했다. 의병을 일으키자면 자기도 어차피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세였던것이다.

그것이 은연중 린석을 또 한번 분발시켰다. 지어 그때 서울에서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가 하는 후회까지 따랐다. 그때 했더라면 공주격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싸움의 국면도 다르게 되였을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너무도 급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여서 옳은지 그른지 또 가능하겠는지 불가능하겠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민비를 만나 기어이 자기 요구를 관철해보겠다는 욕망을 금할수 없었다. 민비자신도 조선사람인데야 왜 일본놈을 증오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다시 서울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렇게 하여 민비를 만나보게 된것이 린석에게는 일생의 한이 될만큼 후회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상렬을 탓할것은 못된다. 반대로 그로 하여 나라의 실정을 더 잘 알게 되였고 자기가 할바가 무엇이겠는지를 심사숙고하게 되였다.

바로 그렇게 알게 된 서상렬이 자기를 찾아왔으니 이 아니 반가우랴. 그는 다시한번 그를 뜨겁게 포옹하고 제장들과 함께 손을 잡고 힘껏 싸울것을 다짐하였다.

9

미영은 아버지를 찾아 이리저리 뛰여다녔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총대장이 된 큰아버지라면 더 좋을수 있다. 그이하고는 더 허물없이 이것저것 물을수 있고 꾸밈없는 대답도 들을수 있을것이기때문이

였다.
그러나 아버지도 큰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다. 향교의 강당에도, 개울건너 마을에도 청계각휴식터에도 있는 곳이 없었다. 하는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머리를 목수건으로 질끈 동인 웬 사내아이가 마주오다가 무춤 멈춰서서 물었다.
《야, 너 향교집 처녀지. 창의대장님이 어디 계신지 보지 못했니?》
미영이 보기에는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린것이 반말로 나오는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대뜸 큰소리로 꾸짖으려다가 명색이 남자인데다가 창의대장님을 찾는 소리에 그냥 웃어넘겼다.
《너는 누구냐, 나를 어떻게 아니?》
《네가 향교집 고명딸로 창의대장님이랑 중군, 군사장어른들을 삼시 끼니대접한다는걸 내가 모르는줄 아니? 내가 바루 선봉장님의 전령수다. 하긴 늬 아버지도 군수장이지?》
《선봉장?…》
미영은 한순간 이 총각애가 알기는 아는 소리를 하는가 의심했다. 하다가 그가 분명 선봉장의 전령수요 머리뒤끝에 상투가 삐죽 내민것을 보고는 총각이 아니라 장가든 남자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어쨌든 그가 김백산을 안다는것이 기뻤다.
《그이가 지금 어디 계셔요. 선봉장님의 이름이 김백산이 맞지요?》
《우리 형님을 잘 알아? 언제부터 알게 됐어?》
《그러지 말고 선봉장님께 내가 한번 만나잔다고 전해주세요, 짬을 봐서 찾아오라고.》
전령수는 듣다말고 성수가 난듯 뛰여갔다. 자기네 대장이 량반집 따님을 아는것이 큰 자랑거리나 되는듯 했다.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역시 걸음을 돌렸다. 기어이 아버지를 만나 해댈것은 해대야 속이 시원할것 같았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집에 있었다. 그가 향교에서 돌아와 커다란 산판을 놓고 떼걱떼걱 굴리며 무슨 회계를 하고있다가 미영을 보고 반기였다.
《네가 마침이로구나. 어서 이리 오너라.》
《무엇을 해요? 아버진 어디 가셨댔어요?》
《싸움을 하자니 아무래도 가산을 덜어내야겠다. 이름이 군수장이

아니냐.》
《무엇이 필요하게요?》
《원, 그야 이것저것 필요한게 많지. 땅마지기도 팔아야 하겠구, 당장은 기발을 만들 비단포목이 있어야 하겠다.》
《기발이라면 무슨 천에 어떤 색갈이…》
《붉은색, 검은색, 누런색, 흰색 무엇이나 다 필요하지. 천은 비단일수록 좋구.》
《있어요. 쓸만큼 다 가져가요, 다른것들두.》
미영이 농짝문을 열고 비단포목들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어머니때부터 착착 쌓아내려오던 집안재산이였다. 미영이 가산을 말아보며 제손으로 마련해놓은것도 많다.
그러나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하는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마을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했다. '
그러면서도 미영의 생각은 줄곧 백산에게만 가있었다.
《아버지, 지금 선봉장으로 났다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지요? 작년 여름에 우리 집에 왔던… 그런데 저에게는 왜 말을 안했어요?》
비단필을 가슴에 안고 팔로 뽐을 재던 안승우가 눈을 찡긋했다.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걸 너에게 보고를 해야만 하냐?》
《거짓말을 하니깐 그러죠. 처음에는 불한당이라 욕하고 다음엔 강도라고 욕하고 이젠 선봉장이 됐으니 뭐라고 욕할터예요?》
흥에 잠겼던 승우가 장죽을 집어들고 부시깃을 쳤다. 불이 일지 않았다. 한참만에야 불을 붙인 그는 말없이 딸을 쳐다보았다. 당장은 할말이 없다. 실없이나마 그에게 거짓말을 한것이 사실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거기에도 뜻이 있다. 저 철없고 덤벙거리기 잘하는것이 혹시 김백산에게 마음이 끌려 그러지 않나 하는 근심이였다. 백산이라면 부모가 없는 고아인데다가 량반도 아닌 상놈의 자식이 분명하다. 그런 떠돌이총각에게 량반집 외동딸을 줄수야 없지 않는가. 계집들이란 생각이 산골짝 물처럼 외곬으로 흐르기를 잘해서 한번 거기로 빠져들기만 하면 되돌려세울수도, 옆으로 삐져나오게 할수도 없다. 그래서 백산이란 말만 나와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빼돌리군 하였는데 이제 또 그 말을 입밖에 내뱉는것이다.

《내가 거듭 말하지만 그 사람이 의병장이 되였든, 선봉장이 되였든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고 상종할 생각도 말아라.》

승우는 그가 또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엄포부터 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랬다, 승우에게서 백산이란 총각은 매번 불쾌하고 괘씸하다는 인상뿐이였다. 출신이 량반이 아닌것은 말할것도 없고 지난해 여름 자기 집앞에서 총을 놓은것이나 보은의 속리산속에서 자기들에게 함부로 욕을 한것이나 그에게는 다같이 불한당같은 모습이였다. 특히 지난 가을 강원도 정선에 있는 삼촌의 제사에 갔다오다 만난 김백산은 그보다 더한 강도의 모습이였다.

그때 승우는 제사를 마치고 짐군 두엇과 함께 고개마루를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장정 대여섯이 나타나 무작정 말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승우는 격분했다. 말을 내놓기만 하면 앞에 남은 백수십리길을 걸어야만 했던것이다.

《이 강도놈들 같으니, 네놈들이 나를 무얼로 아느냐, 못 내놓는다.》

그가 소리소리 질렀다. 그러나 몇마디 못해서 그만 입이 굳어지고 말았다. 숲속에서 몇사람이 더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몸에 피가 랑자한 부상자를 동행하고있었다. 보다 놀라운것은 바로 환자를 옆에서 부축하고있는 사람이 김백산이였던것이다.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굳어진듯 말을 못했다. 사람이 이렇게도 외통길에서 만날수 있단 말인가.

《으흠? 자네가… 길에서 사람들의 짐이나 터는 도적이 되였단 말이지?》

안승우가 부지중 소리쳤다. 그러나 김백산은 환자를 붙잡고 침착한 소리로 물었다.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내가 정선땅에 제사일로 갔다오는 길일세. 그런데 이게 뭔가. 왜놈과 싸운다고 큰소리를 치던것이 하는짓이 곧 이 모양인가?》

백산은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옹다물었다. 왜놈과 싸운다고 하던 주

장이 졸지에 도적으로 몰린데 대한 모욕과 분노에서였는지 모른다. 아니면 또다시 맞다든, 자기로서는 결코 모른다고 할수 없는 량반에게 어차피 행악을 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를 원망해서였을지도 모른다.

《방금전에 우리 사람이 왜놈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빨리 먼길을 가야 하겠는데… 그래도 내놓지 못하겠다면 그냥 타고 가십시오.》

그 말에는 승우도 대답을 못했다. 자기도 먼길을 가야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이 아닌가.

《우리는 도적이 아니며 그런만큼 억지로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깊이 하고 결심을 명백히 하십시오. 우리앞에는 왜놈이라는 공동의 원쑤가 있습니다. 설사 말을 준다고 하여도 토심(물건을 주면서도 속으로 언짢아하면 도리여 상대방에게 모욕으로 된다는것.)이 조금이라도 비낀다면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가 백산이 아닌 딴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는 불쾌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김백산이기에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딸 미영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얽혀있는것이다. 만약 이것이 연원이 되여 딸과 또 어떤 반연이라도 맺어지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타고가게.》

마침내 승우가 말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자기대로 결심이 섰다.

《한마디만 당부하겠네. 말을 돌려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시 내앞에 나타나지 말게. 무슨 말인지 알만 하겠지?》

부지중 백산의 얼굴에 웃음이 비끼였다.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의 근심이 그것뿐이라면 절대로 마음을 놓으십시오. 말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가 나타나지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영원한 작별로 될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네.》

승우는 서슴없이 대답하고 돌아섰다. 물론 그가 말을 돌려주겠는지는 두고보아야 알 일이다. 그렇더라도 미영만 건드리지 않으면 좋았다. 말 한마리 5백냥이 그에게는 적은 량이 아니지만 량반의 체면만 깎이우지 않는다면 그만해도 좋았다.

그렇게 하고 백수십리어간에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꺾일듯 아파오

자 생각이 바뀌였다.

행객들의 짐이나 터는 주제에 왜놈과 싸운다는게 말이 되는가. 말도 괜히 주었다, 저들이 일을 치면 얼마나 치겠다구…

마침내 쓰러질듯 집에 들어설 때에는 백산에 대한 분노가 하늘에 치밀었다. 말이 되돌아오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아버지, 웬일이예요. 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찌된 일이예요?》

그의 지친 모습을 보고 미영이 놀라 물었다.

승우는 구태여 그것을 말하고싶지 않았다. 백산이란 이름을 그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운신조차 할수 없게 몸이 아파오자 자연 그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올랐다.

《그놈이 빼앗았다. 김백산이란 놈이 길가에서 오가는 사람의 짐이나 터는 강도가 되였더라. …》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상놈이 그렇지. 례의도 도덕도 없다 했더니 갈데가 있느냐?》 이렇게 단마디로 규정해버렸다.

한편 미영에게는 그것이 천만뜻밖이였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의혹이 머리속을 감돌았다. 비록 그를 만난 시간은 잠간이였지만 그가 남긴 말과 비범한 행동은 머리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잃어진 말을 놓고는 믿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는지야 알수 있는가.

끝내 그를 잊자고 하였다. 그러나 잊자고 할수록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그의 모습이였다. 그가 뭐라고 했더라. 옳지, 자기의 옳은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타하지 말라, 옳은것은 언제든지 옳은것으로 남아있고 또 누구든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

그러던 어느날 웬 사람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다. 뜻밖에도 손에는 빼앗겼다고 하던 말이 끌려오고있었다. 키가 크고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절다마가 미영을 보자 반갑게 투레질을 했다.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세요. 이 말이 어떻게 되돌아오게 됐어요?》

《우리 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김백산이라고 아시죠. 지금 건강해서 왜놈들과 싸우고있습니다.》

《왜놈들과요? 어디서 싸운다는거예요?》
《그건 여기에 다 적혀있습니다. 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편지요? 어디에…》
미영은 그가 내미는 긴 봉투를 나꿔채듯 그러잡았다. 말고삐를 건사할 사이를 내지 못해서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종이를 펼쳐들었다.
《미영아가씨, 말을 돌려보냅니다.
먼저 아버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여 원로에 고생을 끼친데 대하여 사죄합니다.
돌이키면 저는 짧은 한해사이에 아버님께 세번씩이나 모욕을 안긴 무거불측한 놈입니다. 한번은 아가씨의 집에서 또 한번은 보은의 속리산속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강원도의 정선땅에서…
이러한 제가 편지를 쓰는것은 아버님에 대한 사죄와 아울러 나라를 위한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아가씨에게 호소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지난해 무더운 여름날 해빛 따겁고 매미소리 요란하던 향교집 마당가에서 신식보총에 그리도 호감을 가지고 사내들도 두려워하는 방아쇠를 서슴없이 잡아당기던 아가씨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 활달하고 담찬 기상을 왜놈잡이에 돌린다면 얼마나 큰 힘을 낳을것인가, 그런 녀성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이 나라 대장부들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미영아가씨, 지금 나라의 도처에 왜놈들의 군사보루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에서 동포들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조선이 몇년 안짝으로 왜놈에게 먹히우고맙니다.
그때 당하게 될 노예의 비참한 운명과 굴욕, 수치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일에는 존비귀천과 남녀로소가 따로 없습니다. 하물며 량반이라고 하는 체면이나 녀자라고 하는 제약성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기에 저자신도 지난 싸움때 치명상을 당했으나 죽지 않고 살아일어나 다시 싸움길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허물없이 말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싸움에 나서고 안 나서고 하는것은 전적으로 아가씨의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권고를 하고말고 하는것도 저의 자유입니다.
혹시 우리 둘사이를 놓고 아버님께서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안심하라고 하십시오. 우리사이에는 아무리 손저어불러도 넘어설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있기에 모든것이 무방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미영아가씨가 나라위한 싸움에 나서라는 한마음뿐입니다. 저는 일찌기 왜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 놈들인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놈들을 그냥 놓아둔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모든것이 후회됩니다. 나라가 잃어진 다음에 후회는 해서 무엇합니까.

이런 부탁이나마 하게 되는것은 미영아가씨에게 성근한 아량과 대바른 주장이 있다고 믿어지기때문입니다. 저의 이 추측이 정확하다면 후에 다시 만나도 남부끄럽지 않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부디 안녕히…》

미영은 마른 목을 적시듯 걸탐스레 편지를 보고 또 보았다. 그럴수록 김백산이란 사람이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올랐다.

(아니, 그는 절대 상사람이 아니야. 기백이 호방하고 결심도 뚜렷하며 문장도 있는 사람이야. 반드시 큰일을 칠수 있어. 그런데 아버진…)

불만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밤낮 량반상놈만 따지며 신분적차이를 절대시하는 아버지이다. 그 엄격한 계률이 그대로 자기에게 미쳐온다. 량반집딸은 무엇이 어떻고 또 무엇은 어째야 한다는 엄격한 요구와 무제한한 통제이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이 있다. 미영이 점차 자라면서부터 바깥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던 일이다. 지어는 동네아이들과도 마음대로 나가놀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에 항거하여 기쓰고 밖에 나가면 보다 더 엄격한 방법으로 통제를 하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미영은 집을 뛰쳐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소동이 났다. 집안팎을 다 뒤지고 동네를 소란케 하며 찾아다녔으나 미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야 사람들은 서리가 하얗게 내린 집뒤의 숲덤불속에서 꼬부리고 자는 미영을 찾아냈다.

끝내는 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그의 고집스럽고 지독스러운 성미에

못이겨 바깥출입만은 허용했던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미영으로 하여금 더욱더 고집스러운 녀자로 되게 하였다. 무엇이나 제 마음대로 해야 속이 시원해했던것이다. 그것이 또한 아버지와 늘 티각태각하는 일을 빚어내군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집안의 일상사처럼 굳어졌다.
김백산의 편지를 받았을 그때에도 그랬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불만이 미영으로 하여금 또다시 참을수 없게 했던것이다.
《아버진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빼앗는 도적이라고 했는데 도적도 빼앗은 물건을 돌려주나요?》
돌아온 말을 보고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말이 이렇게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던것이다.
《사람을 왜 모욕해요? 죄없는 사람에게 망탕 감투를 씌워도 되는것이 량반의 직분인가요? 량반은 그래도 무방한가요?》
미영이 끝없이 걸고드는데 승우도 발끈했다.
《무엇이 어째, 그게 아버지에 대한 효도냐?》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리해할수 없어요. 아버진 말끝마다 저에게 례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하세요? 례의는 다른 사람에게만 가르치고 자신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승우는 또 뭐라고 소리치려다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에 대해서는 네가 리해를 하여라. 아버진 네가 다 잘되기를 바래서 한 일이다. 네가 상사람들과 가까워지는것을 바라지 않는단 말이다.》
《저는 아버지의 그 의향을 따를수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모독한 그 사람이 더없이 장하고 잘나보여요. 그런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죄가 되여요.》
아버지와 딸과의 모순은 좀처럼 풀리지도 늦춰지지도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은 20여년이라는 긴 세월의 량끝에서 저마다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고있는것이다. 과연 이 두 세월이 한 점에서 만날수 있을가. 더구나 아버지는 완고한 유교관념으로 굳어진 저 한끝의 대변자요, 미영은 개화시대라고 하는 급변하는 추이에 따라 달리는 신시대의 대변자이다. 이들사이에 이어진것은 끊어도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혈육이라고 하는 피줄뿐이다. 그런데 그 끊을수 없는 정이 그들앞에

끊임없는 파란을 자꾸만 몰아오고있었다.

10

마침내 전군에 제천읍으로 진군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그것이 래일이다.

일단 명령을 떨구고나자 린석은 전보다 더 긴장해지는것을 느꼈다. 제천으로 나간다는것은 놓고보면 바라지 않는 싸움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앞으로의 큰 싸움을 위해 피할수 없는 싸움이다. 제천군수 리찬익은 의병모집자체를 역적행위로 몰아붙이며 관군을 동원해서 기어코 해산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한다.

린석이 왕의 《애통소》까지 내보이며 말을 건늬였지만 자기네는 그런것을 모른다며 발광을 했다.

싸움은 불가피했다. 왕이 비밀한 지시로나마 《애통소》를 내려보낼 때에야 그 비통한 마음이 어떠했으랴. 리찬익이 비록 임금의 은혜를 입고 군수노릇을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왜놈들과 손잡고 제 리속만 챙기는 나라의 역적이다. 마땅히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의병들이 벌써 그렇게 알고 싸움준비를 서둘렀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싸움을 한번 해보고싶은 마음에 손들이 근질근질해나는 그들이였다.

린석은 중군 리춘영, 군사장 주용규들과 함께 의병부대들을 한바퀴 돌면서 그것을 확연히 느꼈다. 그것이 린석의 마음을 한결 흡족하게 하였다.

《대장님의 전복을 한벌 마련했습니다. 래일은 입어보셔야지요?》

그들이 마을어귀에 들어섰을 때 주용규가 문득 한마디 했다. 저 임진전쟁때의 의병장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의병대를 책임진 사람이면 의례히 전복을 입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 그였다.

그러나 린석은 생각이 달랐다. 전형적인 선비인 자기에게 전복이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것이야 전문적인 군사—무반들이 입지 않는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하기에 그는 주용규에게 롱담 절반, 진담 절반으로 어물쩍 대답해버리였다.

《나처럼 체소한 몸에 전복이 어디 어울릴데가 있겠나. 대신 싸움에는 더 용감할테니 제발 그것만은 그만두세.》

주용규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간에 내린 그 결심이 어떤 후과를 미치게 되겠는지 그는 미처 몰랐다.

즉 그를 본받은 대부분 의병장들이 전복이 아닌 선비차림으로 싸움을 지휘하였으며 그것은 의병투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였다. 그로 하여 의병투쟁자체가 군사명령이나 지휘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약속이나 의무감에 의하여 진행되는듯 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후세의 사가들이 당시 의병투쟁이 실패하게 된 중요한 원인들중의 하나가 유생의병장들의 이러한 제한성에 기인한것이라고 분석한것이 우연치 않다.

그러나 그때에는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만 래일의 제천진군을 어떻게 하면 무난히 승리에로 이끌어갈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이 몰두해있었다.

이렇게 그들이 부대를 돌고 향교에 들어서는데 누군가가 대문앞에서 달려오더니 린석의 앞에 돌덩이처럼 굴러엎드러졌다.

《아이고 나리님, 춘천에서 왔습니다. 어머님의 병세가 급하여 급히 달려오는중입니다.》

순간 린석은 가슴에 무엇이 찔려드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어머님의 병세가 위급해졌구나 하는 자각에서였다.

《음, 자네인가. 일어나서 자상히 말해보라구. 어머님의 병세가 어떻게 되였다구?》

그가 엎드린 사람을 일으키며 말했다. 곁집에 사는 전호다. 하면서도 평시에는 말 한마디 해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달려온것을 보면 어머님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것을 말해준다.

《병세가 급합니다. 마나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나리님을 꼭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자네가 어머님을 직접 보았나?》

《보지는 못했지만 마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인차 못 오시면 로모님을 다시 보지 못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으흠? 어머니가 그렇게 되였단 말인가. 그런즉 안해가…)
그의 애타하는 모습이 눈에 안겨왔다. 보다는 이제 돌아서지 않으면 어머니를 다시 볼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허비였다.
《어머님을 빨리 찾아뵈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사람을 딸려보내겠습니다.》
리춘영과 주용규들이 보챘다. 그것이 린석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했다.
바로 그때 등뒤에 미영이 나타났다.
《큰아버지가 여기 계셨군요. 온 동넬 찾아다녔네.》
그가 말하고 옆에 팔을 끼고 붙어섰다.
《큰아버지, 래일 군사들이 제천으로 들어간다지요. 그때 저도 따라가겠어요. 받아주지요?》
미영이 미처 대답을 못하고 멍청히 서있는 린석을 보자 안으로 잡아끌었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자요.》
옆사람들이 당황하여 눈짓을 했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너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에게 물어서 결심해라. 너야 집살림을 해야지?》
춘영이 대신 대답했다. 그러나 미영은 그쯤한 대답에는 미리 준비가 되여있었다.
《아버진 걱정마세요. 집살림도 맡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는것을 본 미영은 금시 뾰로통해졌다.
《큰아버지, 제가 금방 선봉장님을 만났댔어요. 지금껏 그에 대해서 제게 말을 안해줬지요? 전에는 자주 해주시더니…》
《네가 백산선봉장을 만났단 말이냐?》
린석이 어느새 그의 이야기에 끌리였다. 그로서도 결코 모른다고 할수 없는 생활이 그들과 이어져있었던것이다.
《만났어요. 그이가 뭐랬는지 알아요? 저를 자기 부대에 오라는거예요. 뭐 선봉부대라나?》
《그럼 갈것이지…》

《조건부가 있대요. 대장님의 승인을 받아오라는거예요.》
《대장이 무슨 상관이냐. 너의 아버지이겠지?》
미영은 소리내여 웃었다. 그 말이 신통히 맞았던것이다. 백산이 그를 자기 부대에 받아주되 꼭 아버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이였다.
미영이 그것이 안될것 같아 먼저 린석에게 찔렀는데 결과는 같다. 역시 아버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미영은 두렵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도 의병이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던것이다. 머리속에는 방금전 김백산을 만났던 기쁨이 한여름날의 열풍처럼 온몸에 떠돌고있었다. …
먼저 어제 보았던 애어린 상투쟁이가 미영을 찾아왔었다.
《우리 선봉장님이 미영아가씨를 만나겠대. 저 강변으로 나오라는거야!》
그때 미영은 자기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르는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선봉장이 자기를 잊지 않고있었다는 감격으로 설레이던 그였다.
그는 달려갔다. 만나기만 하면 보내준 편지에 대하여, 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말에 대하여 또 보은의 속리산속에서 류린석일행을 만났던 일들에 대하여 마음껏 묻고 따지며 널어놓을 말마디들이 벌써부터 쏟아져나오고있었다.
그러나 백산을 보는 순간 미영은 그만 멀리에서부터 몸이 굳어지고 말았다. 먼저 강변에 나와 기다리고있는 백산이 그가 아닌 전혀 딴 사람이였던것이다.
그는 우죽뿌죽한 바위들이 키높이 솟고 쇠스래, 참나무, 오리나무들이 무성한 사이에 서있었다.
몸에는 진한 밤색곰털외투가 무릎까지 드리워있고 머리에도 역시 같은 색의 운두높은 모자가 씌워져있었다. 발에는 무관들이 신는 새까만 혜자가 발목까지 채워졌는데 어깨에는 지난해 그를 그렇게도 놀래웠던 신식보총이 삐죽 돋아나있었다.
한순간 미영은 자기가 상상했던 전라도총각이 아니라 전혀 딴 사람이라 생각했고 다음은 설사 그라고 해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우연히 만난 사람처럼 생각되였다. 그리하여 멀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비틀며 올라간 소나무뒤에 숨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궁당거

리는 가슴을 진정하느라 애쓰고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간, 미영은 거의나 경악에 가까운 앗 소리를 지르며 두손을 입으로 모아갔다. 전신을 곰털로 장식한 그 총각이 나래를 치듯 외투자락을 날리며 자기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
순간 미영은 자기가 갑자기 작아지고 전신이 오무라들며 입고있는 진한 꽃무늬비단초록치마도, 반들거리는 주홍빛릉라저고리도 일시에 빛을 잃는것 같았다. 장옷이라도 쓰고나왔으면 이렇게까지 무색하지는 않았을것이였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경황조차 없었다.
《실례되지 않았소? 바쁠터인데 한번 만나보고싶어 나오라고 했소.》
그가 먼저 말하였다.
별안간 가슴에 품었던 말마디들은 다 달아나고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었다. 겨우 떠오른것이 꼬마상투쟁이라는 전혀 동에 닿지 않는 왕청같은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다.
《예, 만났댔어요. 키가 작은 저 뭐라고 했더라…》
《우리 전령수요. 이름을 오째라고 하는데 집안의 5대째 외아들이요.》
《한데 오째라는건… 다섯째아들이란 말인가요?》
《다섯째라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실은 열번째아들이요. 그사이에 누이들 다섯이 더 있었거던. 그런데 그들모두가 죽었소. 어머니가 고역에 죽은 아이들을 낳지 않으면 기르다가 굶어죽고 병들어죽고… 열번째만에 혼자 살아남긴 했는데 이번에는 부모들이 다 병으로 돌아갔소. …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안의 대가 끊어진다며 그를 일찍 장가들였는데 그는 그것이 싫다고 집에서 도망쳐나와 세해째나 나와 같이 전장을 떠돌고있소.》
미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싸쥐였다. 이제야 이상스럽던 꼬마상투쟁이가 리해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를 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죽지 않소. 몸에 부작이 있거던. 그걸 몸에 차고다니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거요.》
《부작이라니, 그건 어떤거예요?》

《그저 나무패쪽이지. 대추나무로 만든건데 거기에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관가의 낙인을 한 옛날 호패요. 그의 아홉대째 할아버지가 착용했던것인데 그때 자식이 번성했다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그의 몸에 채워주고 절대 떼질 못하게 한다는구만.》

말이 끝나자 두사람은 동시에 소리내여 웃었다. 그것은 이야기자체가 우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웃어도 될만큼 마음이 안정되고 웃어야 할 필요도 느꼈기때문이였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전혀 생각지 않았고 긴요하지도 않은 외딴 소리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해도 돌려세우려 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것으로 하여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보다 재미스럽게 이어지리라는것을 다같이 예감하였기때문이였다. 아닌게아니라 그렇게 되였다.

《우리 오쨰가 비록 키가 작고 나이는 어리지만 령리하고 동작도 빠르며 힘도 세오. 일전에 우리 부대에서 무릎싸움을 했는데 우리 오쨰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적수를 단번에 메쳤소. 그때 부대를 돌아보던 창의대장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왜놈들과도 그렇게 지혜로 싸워야 한다고 칭찬을 했소.》

백산이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린석의 말이 나오자 미영의 눈이 반짝 빛났다.

《창의대장님이요? 대장님은 늘 선봉장님에게만 관심이 있는것 같아요. 말도 자주 하고 또 언제나 보면 그쪽편에만 서거던요. 언제인가 보은에서 만났을 때에도, 정선에서 말을 빼앗았던 때에도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를 두둔해요. 그렇게 하는것이 옳다, 뜻이 있고 대가 세다 하면서. 하여튼 뭔가 잘 보인건 사실이예요.》

《모르겠소. 난 아버지나 창의대장님에게 욕보인 일밖에 한것이 없는데…》

백산이 눈을 껌벅이며 빙긋이 웃었다.

《왜서인지 매번 그렇게 되였소. 그런 때에 만나군 했거던.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소.》

《말씀해주세요. 전라도민란때 몹시 상하셨다 하더니 후에 어떻게 다시 싸움에 나서게 되였어요. 그사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은 아직도 없어요?》

거퍼 들이대는 질문에 백산은 미영을 가까이 마주섰다. 그가 왜 그런것을 묻는지, 대답을 주어야 할것인지 말아야 할것인지 한동안 무표정한 자세로 서있었다. 거기에 무안을 당한 미영이 로송에 기대고 몸을 돌린채 그를 마주보았다.

그것이 백산이 정신을 가다듬고 현실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지금 미영에 대한 고마움과 따뜻한 정으로 가슴을 끓이고있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에게 그런것을 묻지 않았고 물으려고 한 사람도 없었던것이다.

《보은에서 말이요? 그랬소. 그때 나는 몹시 부상을 당했댔소. 전봉준록두장군을 피신시키다가 왜놈의 총에 맞고… 와다나베라고 하는 대위놈이 나를 쐈소.》 전말사연을 띠염띠염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에는 총상의 아픔에 앞서 왜놈을 릉가한 힘과 용맹을 가지고있었음에도 먼저 쓰러져야 했던 괴로움과 비통함이 력력했다.

《그러나 난 죽지 않고 다시 싸움에 나섰소. 왜놈이라면 기어코 결산을 해야 할 몸이기에 싸우지 않을수 없는거요. 바로 그 왜놈들이 나의 아버지도 죽였소, 저 임오년 군란때…》

백산이 눈을 번뜩이며 어딘가 먼 남쪽하늘을 바라보았다. 뼈도 굳기 전에 여기저기를 헤매이며 떠돌이로 산 생활을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하랴.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단 몇마디로 대신했다. 모든것이 왜놈을 비롯한 외세가 판을 치게 만든탓이라고 했다. 그것이 미영에게는 다 리해되지 않고 아름차기는 하였지만 대신 백산을 더 진중하게 대하게 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작정이예요. 계속 떠돌으실터인가요?》

그것이 또 한번 백산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

《말하지 않았소, 왜놈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다음은요. 어쨌든 끝나는 날이 있겠지요?》

《그건 나도 모르겠소, 농사를 짓든 군대에 있든. 실은 군대에 그냥 있고싶으나 한생을 병졸로만 살수 없기에 그렇게는 못할것 같소.》

《그건 왜요. 장수가 되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선봉장을 하다가 관군에 들어가 파총, 천총… 그러다가 나라의 이름있는 장수가 될수 있잖아요?》

《장수? 우리같은 상놈이 언제 장수가 된다고 그러오. 그런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있는거요.》

급기야 미영의 입이 굳어졌다. 그토록 우려하던 말이 터져나오고야 말았던것이다. 량반과 상놈이라는 아무리 넘을래야 넘을수 없는 신분적격차, 그래도 이 선봉장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있지 않을가.… 미영은 바로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싶었다.

《그렇다면 왜 구태여 싸움길을 택하세요. 설사 왜놈들이 쫓겨난다해도 선봉장님께 차례질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껏 나라에서 먹을것을 줬어요, 입을것을 줬어요?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뿐 전에도 말했듯이 가난과 무권리밖에…》

《미영아가씨!》

불시에 백산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입을 지그시 다물고 엄하게 바라보는 눈이 깊이를 알수 없는 밤바다의 설레임처럼 미영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는 아까처럼 다시 나무에 몸을 기댔다.

《아가씨, 나라라는것을 그 어떤 재물이나 권력을 쥐여주는 은인이나 높은데로 뛰여오르기 위한 발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생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가 누구든 나라에 고맙다고 절을 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젖을 먹여준 어머니, 함께 뛰놀던 아이적 동무, 동냥바가지에 죽물을 떠넣어준 산골집녀인, 설한풍 휩쓰는 동지달밤에 쪽문을 열고 잠자리를 마련해준 비부 그리고 이 젊은 놈을 저들의 대장이라고 곰털옷을 만들어준 부대의병들모두가 나라라고 하는 큰집속에 있습니다.

나라를 말할 때 절대 저 왕이나 궁중부중의 권문세가들을 먼저 생각지 마십시오. 나라를 이루는 근본은 백성이며 나라는 백성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은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의 물이며 량반관리들은 그우에 떠다니는 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는 물우를 떠다니며 제노라 할수 있지만 물은 반대로 배를 능히 뒤집어 수장할수 있습니다. 하기에 배는 물없이 살지 못하면서도 항상 물을 무서워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서로가 평등하게 저마다 제힘으로 살아갈 그런 화목하고 행복한 큰집을 바라고있지요.

미영아가씨도 저 월궁속의 옥토끼를 본적이 있겠지요. 얼마나 아름

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이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실천으로 이룩한 미거에 대한 후세의 칭송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상아라는 처녀가 궁중의 불사약을 훔쳐가지고 달나라에 올라가 계수나무밑에서 약절구를 찧다가 옥토끼로 변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절더러 옥토끼가 되라는거예요?》

미영이 부지중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자기 정신이 아니였다. 그로서는 난생처음 듣는 말로서 잘 리해되지 않았고 더구나는 백산의 경지에 올라설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엇이 되라고?…

만나는 그때부터 위축된 감정은 어느덧 순이 솟고 아지를 뻗쳐 이제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아니 인정할수 없게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미영은 자신의 존재를 두고 그를 마주하기가 어렵게 생각되였다.

《후세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저 남성들과 함께 용약 전장에 뛰여들어 이름을 남긴 수많은 녀성들을 언제나 기억하고있습니다. 달속의 옥토끼처럼 아름다운 신선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월색에 취한듯 한 백산의 부드러운 눈빛, 하지만 그속에서 쏟아지는 환희와 열정은 이미 미영을 보다 새로운 세계에로 이끌고도 남음이 있었다.

《저를 선봉부대에 받아주시겠어요? 저도 총을 쏠수 있어요. 받아주지요?》

미영이 높뛰는 가슴과 들끓는 마음을 진정치 못하며 들이대였다. 그는 백산의 말마디들을 음미하기 전에 벌써 그와 함께 의병싸움에 앞장서 달리는 자신을 그려보고있었다.

백산도 그것을 리해하였다. 하기는 지금까지의 열변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설사 그가 량반집딸이고 자기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일이지만 그는 필요한 말을 했다. 그가 누구든 왜놈과의 싸움에 한사람이라도 더 나선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인것이다.

《미영아가씨의 의향에는 무조건 찬성이요. 그러나 우리 부대가 되겠는지 하는것은 나의 권한에 속하지 않소. 우선 아버지의 승낙을 받

아야 할것이구 창의대장님도 몰라선 안될것이요.》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미영은 앞질러 대답하고 작별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무작정 달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눈이 내리고있었다. 주먹만 한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신비한 소식이라도 날라오는듯 눈앞으로 자꾸만 다가왔다. 그것이 방금 백산이 말하던 저 하늘의 옥토끼나 신선이 아닌지. 무형무체의 수많은 옥토끼, 신선들이 끊임없이 눈앞에서 얼른거린다. …
그렇게 하고 린석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너무도 천연하고 엄격하기까지 하였다.
《큰아버지, 아버지에게 명령하세요. 큰아버진 총대장이 아니나요. 난 꼭 선봉부대로 가요.》
미영이 다시 보챘다.
린석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할새가 없었다. 그들앞으로 한무리의 의병들이 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 이상한것은 그중 한사람이 여럿의 부축을 받으며 끌리듯 비칠거리고있는것이였다.
《웬일이냐, 어디가 상했느냐?》
린석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그래도 본인은 대답을 안하고 괴롭게 입술만 깨물고있었다. 대신 옆사람이 대답했다.
《대장님, 이 사람이 방금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라구? 그럼 빨리 집엘 가야지?》
《가질 않겠답니다, 우리가 막 떠미는데도…》
《뭐라고? 아버님이 세상을 뜨셨는데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느꼈는지 그제야 본인이 입을 열었다.
《대장님, 갈수 없습니다. 가선 안됩니다. 방금 싸움을 앞두고… 제천으로 쳐들어갈터인데 저마다 제갈데로 가면 싸움을 누가 합니까. …집에는 동생도 있고 삼촌도 있습니다. 후에 가겠습니다. …》 하고는 다시 걸었다.
행렬이 지나갔다. 린석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동안 그들의 뒤모습

을 지켜보았다. 어쩌면 자기와 꼭같이 아니, 자기보다 더한 상가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는가. 그가 평민이래서, 자기보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모자래서라고 할수 있을가.

《큰아버지, 명령을 주세요. 꼭 그렇게 하시죠?》

그들이 보이지 않자 미영이 다시 보챘다. 앞뒤의 영문을 모르는 그는 자기 생각에만 옴해있다.

《그래, 하겠다. 그렇게 하자.》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우쩍 몸에 힘을 돋구며 큰길로 나섰다.

《가자, 나도 가겠다. 가야만 한다, 제천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튀여나왔다. 미영이 그제야 이상한 기미를 느끼고 그를 쳐다보았다.

린석이 마주보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자기가 대장으로서 해야 할바요, 지켜야 할 도리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던것이다.

11

안승우가 류린석의 어머니병환문제로 춘천에서 보발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것은 저녁무렵이였다. 그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달려오니 아닌게아니라 여러 의병장들이 강당에 모여 의논을 벌리고있었다.

《로모의 병이 심한데 이것저것 론할게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떠나야지요.》

그가 문지방에서부터 소리쳤다. 군수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에서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보다는 그가 곧 류린석의 제자이고 그 어머니와도 남다른 인연속에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그러나 방안의 분위기는 예상외로 쌀쌀하였다. 아무도 그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당자인 류린석이조차 방 한구석에 놓인 화로에 앉아 부저가락만 휘휘 젓고있는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그쯤한 론의는 이미 실컷 하고난 뒤였던것이다. 이

를테면 린석의 반대로 춘천에 가는 문제는 다시 상정시키지 않기로 못박았던것이다.
그 말을 듣고 승우가 린석의 앞에 넙적 엎드렸다.
《창의대장님, 그럴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자식으로서는 부모가 하늘인데 지금 하늘이 무너져가고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다시 밝은 빛을 볼수 없습니다.
또 옛시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 살아계신적에 섬기기 다 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닯다 어이하리/ 평생 고쳐 못할 일이 그뿐인가 하노라〉 …》
《승우, 머리를 들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린석이 화로에서 물러섰다.
《거듭 말하네만 이미 결심이 섰으니 다시 그 문제는 상정시키지 말게. 내가 창의대장으로서 사사일에 마음쓸수 없다는것이야 알지 않나?》
《그것을 어찌 사사일이라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것이 곧 만사의 시작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는것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군수장, 그만두지 못할가?》
《저는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심어주신 5상(삼강오륜)을 항상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그것이 나라를 떠받드는 기초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건대 왕상의 리어(왕상이란 사람이 모친이 겨울에 생선이 먹고싶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얼음을 까고 그우에 누워있었더니 리어 두마리가 튀여나와 어머니에게 대접했다는 고사.)나 맹종의 죽순(맹종이란 사람이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이 먹고싶다는 말을 듣고 눈우에 누워있었더니 밑에서 죽순이 돋아나와 대접했다는 고사.) 그리고 로래자의 색동다리(70살난 로래자란 사람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오색이 현란한 색동다리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로모를 모르신다 하면 그 모든것을 부정하는것으로 되며 솔선 인륜도의의 기틀을 마스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에게 례의범절에 대하여 훈계할수 있으며 싸

움인들 바로 하라고 가르칠수 있겠습니까.》
《승우, 래일 딸 미영이도 전장으로 떠나도록 허락하게. 그것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극히 간청하는것이니 아버지로서 생각이 있을줄 아네.》
승우는 아연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머리를 들어보니 린석이 부릅뜬 눈으로 그를 쏘아보는데 옆에서 복한이며 린영이들이 눈을 끔쩍이며 그대로 수긍하라는 뜻을 해보인다. 주장을 해본댔자 쓸데 없다는 소리다.
하는데 옆에서 주용규와 리춘영이들이 한마디씩 했다.
《미영이 전장에 나가면 사내꼽재기 못지 않게 전공을 세울걸?》
《승우, 딸 하나는 잘 두었어. 웬만한 아들보다 낫지. …》
린석은 그러는 그들을 두고 밖으로 나갔다. 백산을 만나 미영에 대한 문제를 확정하고싶어서였다. 그의 요구대로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의 부대가 있는쪽으로 가는데 마침 백산이 마주오고있었다. 옆에는 그때 보았던 꼬마전령수가 따라섰다.
《마침 대장님을 만나러 가던 길입니다. 의병들이 대장님을 청합니다.》
《의병들이? 무슨 좋은 구경거리라도 마련했나?》
백산을 만나기만 하면 사뭇 기분부터 즐거워지는 린석이다.
《대장님한테 국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왜놈들이 왜 그를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때 조선군사들은 무엇을 하고있었는지 알고싶어합니다.》
《국모 민중전의 죽음이라…》
그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이야기다. 분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다. 하물며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도 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나 백산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의병들은 떠도는 소리만 들었을뿐 구체적인 내막은 알지 못한다는것이였다.
거기에 린석은 기꺼이 응했다. 알려주어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하고 나란히 걷는데 꼬마상투쟁이의 목에 걸린 호패가 눈에

띄웠다. 호패법이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차고다니는것이 이상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가 설명을 했다. 그리고는 제힘껏 도리질을 하며 방금 한 말을 부정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 차고다니기는 하지만… 아니요, 차라리 저는 전장에서 죽겠습니다. 국모까지 왜놈에게 살해당하는 판에 저같은 놈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부터 지켜야지요.》
린석은 그러는 오째의 어깨를 꽉 그러안았다. 매번 느끼군 하는바이지만 평범한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또 새로운 충격을 받군 한다.
보라,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가, 오째도 미영이도 그리고 아까 본 아버지를 잃었다는 그 사나이도… 모두가 세상을 똑바로 볼줄 알고 자기 할바도 알고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여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가 무엇을 주저하며 두려울것이 무엇이랴.
그러는 사이에 백산이 먼저 오째를 부대에 올려보내여 대장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라고 일렀다. 린석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일은 전개되는것이다.
그것이 다시 미영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린석의 기분을 돌려세웠다.
《군수장의 딸 미영이 날 찾아왔더군. 그전에 자네를 만나보았다며?》
그가 의미심장한 눈길을 백산에게 돌렸다.
백산은 이미 그러리라고 알고있었던듯 태연하고 침착한 자세로 대답했다.
《제가 먼저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에게 의병이 되라고 권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말은 없었나?》
《그게 전부입니다. 왜놈과 싸우자는 외에 더 다른 말을 할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했네. 나도 그렇게 말했네. 선봉부대에 들어가라고 말이야. 군수장도 그렇게 알고있네.》

그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골짜기의 밤은 빨리도 찾아온다. 사방은 어둠에 잠기고 여기저기에 화토불이 피여오른다. 그리고는 의병들의 노래소리, 웨침소리들이 엇갈리고 어딘가 먼곳에서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선봉부대로 향하는 린석의 머리속에는 민비에 대한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이미전에 그를 만나보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알고있기때문이였다. …

그가 민비를 만나본것은 지난해 봄, 바로 그때 서상렬을 만나고난 이후이다. 물론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이듬해가 돼서야 익현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것이 저 해빛도 따사롭던 지난봄이였다. 그날 민비의 부름을 받은 린석은 최익현과 함께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으로 해서 왕의 침전으로 쓰는 곤녕전으로 은밀히 들어갔다. 역시 공식접촉이 아니여서 크게 소리칠것도 없이 두사람만 조용히 골목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다.

그들이 당도하였을 때 민비는 곤녕전 아래층란간에 놓인 교의에 앉아있었다. 그 주위에 수십명 궁녀들이 둘러싸여있는데 그들의 알록달록한 차림과 곤녕전의 높은 선자추녀와 단청들, 란간의 무늬장식들이 한데 어울려 눈이 부실 지경이였다.

《중전마마, 소신 최익현 중전을 뵈옵자고 알현하였소이다.》

익현이 말하며 갓채양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그들보다 두어길이나 높은 란간우에서 민비가 목을 삐뚜름하니 빼들고 내려다보았다.

《최대감이 왔나.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더라?》

앞에 앉은 사람과 실오리를 마주잡고 무엇인가 하던 민비는 인차 거기로 시선을 돌렸다.

《나라를 구원할 계책을 상감께 상주해주었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소신과 함께 춘천사람 류린석이 함께 왔습니다.》

《나라를 구원할 일?… 말해보게.》

민비가 린석에게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는 그 어떤 총애의 눈길이나 받은듯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혈기가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그것이 그대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였다.

《중전마마, 지금 왜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주인처럼 날뛰며 행패

하는것을 보고 국민들이 치를 떨며 분격을 금치 못해하고있습니다. 도처에서 놈들에 대한 원한이 솟구쳐오르고 끝까지 싸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는 자기 군대가 없고 싸울 힘이 없어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때 상감께서 한마디 명령만 떨구시면 온 나라 인민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날것입니다. 저자신도 충청도, 경상도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들을 모조리 내쫓을 결심을 하고있습니다. 중전께서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여쭈어서 상감의 동의를 얻어내신다면 실로 나라의 형국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것입니다.》

《의병? 그것으로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는겐가?》

《백번 가능한 일입니다. 상감의 명령 한마디이면 됩니다.》

《흥, 그렇게 해서 자네가 온 나라의 의병총수라도 되여보자는겐가?》

《중전마마, 소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다 하며는 제가 의병을 조직해서 싸울것이지 왜 나를 찾아왔나?》

《소인이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싸우자고 하나 지방에 있는 장관들이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왜놈들에게 붙어서 의병투쟁을 반대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실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저 임진년의 왜란때에는 백성들은 물론 고을의 장관들까지 모두 왜적을 반대하여 싸웠기에 승리할수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국록을 타먹는자들이 앞장서 나라를 팔고있으니 이것들을 그냥 두고서는…》

《자네가 임진년소리를 하기에 한마디 물읍세. 그때에도 왜인들이 대포나 기관총을 메고왔던가? 아마 그때에도 저 미국이나 도이칠란드, 프랑스, 청국, 로씨야 하는것들이 저마다 조선을 먹으려고 기여들었던가 하는것이야?》

민비가 최익현에게 묻듯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어디서 저런 촌무식쟁이를 데리고 왔느냐는듯 얼굴에는 쓴웃음이 어려있었다.

그것이 의기심을 더 분발시켰다.

《소인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많이 들

어와도 몇백, 몇천, 기껏해서 몇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수백만백성이 있습니다. 상감의 명령이 내리기만 하면 온 나라 8도 수백고을의 사또방백들과 백성들이 일시에 일어나 그까짓 대포나 몇만의 군사쯤은 바위로 닭알누르듯 짓뭉갤수 있습니다.》

《최대감, 더 할말이 없나?》

민비는 이미 린석의 말을 듣지 않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아까부터 손가락에 걸린 실을 풀어내느라 거기에 신경을 모으고있었다.

무릎우에는 커다란 비단보자기가 놓여있었다. 앞에는 살색이 류달리 하얗고 몸집도 큰 서양녀자 하나가 마주앉았는데 그 역시 어서 이야기가 끝나기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그 녀자란 다름아닌 로씨야공사 웨베르의 처제 존따크라는 로처녀였다. 그는 지금 민비에게 수놓는 법을 배워주고있는데 벌써 이렇게 궁중에 들어와있는지가 오래다. 형식상 궁중의 고위관리들의 딸들을 위한 수예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보다 더 자주는 서양음식의 료리와 가공, 그 차림을 배워주며 주선도 한다. 바로 그것을 구실로 민비도 만나군 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마주앉아있는 시간만 해도 보통 두세시간이다.

그것이 곧 로씨야공사 웨베르의 작간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조선에서 일본세력을 밀어내고 자기네가 들어앉자면 민비를 틀어쥐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던것이다.

아닌게아니라 민비는 이미 그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있었다. 존따크가 꽃수를 놓는데 오른손, 왼손이 번갈아가며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말그대로 금상첨화의 신비경이 펼쳐지는것이다. 그런데 민비는 오른손 세번째손가락과 왼손 두번째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아 꽃모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마치 곬을 잘못 탄 생각이 비치듯이… (로씨야는 세계의 방대한 지역에 령토가 널려있고 군대만 해도 백만이 넘는다는 나라야. 별의별 인재들이 다 많을터인데 간사하고 교활한 왜놈들하고야 다르지.)

수예를 배우면서도 민비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하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요새 존따크를 더 자주 궁중에 끌어들였고 친로정책을 펴나갈 의사를 웨베르공사에게 전하군 하였다.

그런 민비에게 시골선비의 의병같은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리 없었

다. 오히려 기분만 잡쳐지고 손가락들은 더 자주 실에 걸리군 한다.
《중전마마, 이들은 이미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을의 원들이 임금의 명령이 없다고 반대하기때문에 그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최익현이 민비의 행동에 무안을 느끼며 한마디 했다. 그러나 민비는 그때에도 죤따크와 말을 잘 듣지 않는 두번째, 세번째손가락에 대하여 종알거리고있었다. 린석이 다시 나섰다.
《중전마마, 만약 상감께서 공식적인 명령이나 어지가 힘들면 밀지만이라도 내려보내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백성이자 임금의 백성인데 밀지라고 해서 왜 백성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민비의 화가 동했다. 그는 손가락에 걸렸던 실오리와 함께 뜨개실전부를 홱 뿌려던지고 자세를 돌렸다.
《시끄럽다. 내 그만침 말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겠나. 최대감, 저 사람이야 몰라서 그렇다치고 대감이야 왜 못 알아차리나. 의병으로나 될것 같으면 누가 찾아오기 전에 벌써 상감의 어지가 내려간지 오랬지. 여긴 다 눈감은 사람들만 살고있나?》
《중전마마, 벌써 의병대는 곳곳에 조직되고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그 의병대장들중의 한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나기만 한다면 나라의 형국이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익현이 다시 정색해서 들이댔다. 그러나 민비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싸울수 있으면 싸워보래. 그러다 이기면 좋겠지만 지면 어떻게 한다?》
《중전마마, 그렇기때문에 상감마마의 어지가 필요한것입니다. 몇몇 의병대만으로는 이길수 없기때문에 온 나라가 동시에 일어날수 있게…》
류린석이 다시 나섰다. 그만하면 민비의 마음이 누잣혀지지 않았는가 하는 한가닥의 기대에서였다. 그런데 그때 민비의 자세가 곧추 서더니 서리발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게 누가 없느냐? 내 일이 바쁘다.》
불시에 둥그렇던 두눈이 세모꼴로 변했다. 동시에 덧머리로 얹은 나비수염같은 둥그런 달비와 금은마뇌산호진주의 칠보 그리고 어깨넓이

만큼 뒤머리를 길게 질러간 봉채와 거기에 얹은 빨간 리봉이 량어깨우에서 파들파들 떨렸다. 이어 긴 원삼소매의 오색끝동에서 방금까지 수놓는 천쪼박을 주무르던 봉선화물이 빨갛게 든 손톱을 앞세우고 하얀 손이 독사의 대가리같이 길게 뻗어나와 란간아래를 가리켰다.

그러자 어디에 있었던지 무예별감 둘이 달려나와 최익현에게는 그렇게 못하고 린석의 량팔을 붙잡고 밖으로 떠밀었다. 최익현이 아연해서 무슨 말인가 했으나 민비의 성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최대감, 내가 무슨 상감이라고 나한테 어지를 청하러 다니나? 대감도 항간에서 내가 상감노릇을 한다는 떠도는 말을 듣고 찾아온게 아닌가. 다시는 그런노릇을 하지 말게.》

린석은 눈앞이 아뜩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다는 거기에 분노했으나 마지막으로 걸었던 의병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내렸다는 의식으로 하여 온몸의 기운이 땅속으로 잦아드는듯 했다.

바로 이것이 왕비였던가, 이런 녀자를 국모라고 떠받들며 신성시하였던가.

떠도는 말에는 민비가 일찌기 춘추좌전을 비롯하여 사서륙경을 다 통달하고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읽기만 하면 그대로 통달하는 특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글이라는것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 글자체가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나라와 백성을 편하게 다스리는 내용으로 되여있다는데 읽기는 무엇을 읽고 배우기는 무엇을 배웠다는것인가.

《이제 저 암닭이 반드시 나라를 망칠것입니다. 두고보십시오. …》

궁문을 나서자 린석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언제인가 서상렬이 했던 말이 새삼스레 떠올랐던것이다. 하고는 저녁에 최익현과 마주앉아 서안을 탕탕 두드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민비에게 당한 분노를 터뜨릴수 없었던것이다.

그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하던 최익현도 한마디 했다.

《생각하면 나도 이 골아픈 궁중을 떠나 자네들과 같이 왜놈들을 향해 화살 한대라도 날리고싶네. 자네 생각은 어떤지?》

그 말에는 린석이 펄쩍 놀라 익현의 팔을 붙잡았다.

《대감님, 안됩니다. 궁중에는 대감님이 있어야 합니다. 대감님처럼 대바른 소리를 해서 나라일을 바로잡아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 떠나가버리면 누가 정사를 바로잡아나가겠습니까.》

《자네도 보았지. 여기는 바른소리가 아니라 아첨이나 잘해야 살아나가는데야. 까딱해서 미움깨나 샀다가는 어느 서슬에 목이 날아날지 몰라. …》

이야기는 밤이 새도록 끝날줄을 몰랐다.

이렇게 린석은 그때에도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채 춘천으로 다시 내려오고말았다.

12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간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린석은 걸음을 멈췄다. 반토굴로 된 의병들의 병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였다. 그것은 지심깊이에서 울려나오듯 은은하고 우렁찼다. 어디선가 들은듯 귀에 익었다. 가락은 비록 단조롭고 짧으나 어디론가 힘껏 달려가는듯 한 힘있는 저 소리를 어디서 들었던가.

생각이 났다. 저 보은의 속리산속에서 병자가 부르던 노래, 그에 따라 끊임없이 합창을 하던 행인들, 그 병자인즉은 바로 지금 옆에서 걷고있는 김백산이다. 하다면 저 짧은 가요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있는가.

《…다른것이 아닙니다. 가보세라는 말은 갑오년(1894)의 뜻이고 을미적이라는 말은 을미년(1895)의 뜻이고 병신되면이란 말은 병신년(1896)이란 뜻입니다. 다시말하여 갑오년에 들고일어났던 농민봉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을미년까지 가서 어물거리다가 병신년이 되면 망한다는것입니다. 여기에는 갑오년에 기어이 목적을 성취하고야말리라던 우리 농민군들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있었습니다.》

린석이 묻는 말에 백산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린석의 가슴을 다시금 뜨끔하게 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아직도 갑오농민전쟁때의 그 기분으로 싸우고있지 않는가. 온 나라에 파급되였던 저 전봉준농민봉기때의 정신과 기백으로… 생각을 하니 이제 그 책임을 자기가 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숭엄하게 안겨왔다.

반토굴집앞에서 오째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산기슭을 깎아지은 넓은 병사안에는 수백명 의병들로 꽉 차있었다.

린석이 그들앞에 나섰다. 나라를 위해 총칼을 잡은 이들, 그들중 누가 억지로 오라고 하거나 쫓아서 온 사람은 없다. 오직 나라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마다 달려왔다.

옳다, 말해주어야 한다, 왜놈들이 우리 국모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비록 그가 이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 없고 나라에는 해도 많이 끼쳤으며 린석 일개인으로는 원망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조선사람이였고 한 나라의 국모였다. 그 모든 죄과가 조선사람이, 그것도 국모가 왜적에게 살해되였다는 민족적분노를 대신할수 있는가. 그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내부문제이며 조선사람끼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의병 여러분!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용약 일떠선 의군용사들!

분하고 원통하다. 수천년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졸지에 왜놈의 침입을 당하여 국가존망이 눈앞에 박두했다. 국모가 왜놈에게 살해당하고 국왕이 또한 놈들에게 연금당한 상태가 되였으니 실로 천지개벽이후 일대 괴변이다. 국왕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몸을 앓아야 하고 왕이 몸을 앓으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로 국왕이 오늘처럼 심하게 곤욕을 당한적이 어느때 있었던가. …》

그는 처음부터 격문을 발표할 때처럼 그리고 만사람앞에 나서 시를 읊조릴 때처럼 강렬하게 격조높이 시작하였다. 그만큼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것을 의병들에게 알려주고싶은 욕망이 컸다.

…린석은 만사를 제쳐놓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집안에 묻혀있으면서 글이나 쓰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떠도는 소문은 잠시도 그를 안정치 못하게 하였다.

하루는 서울 북악산의 백년 묵은 여우가 산에서 내려와 대낮에 광화문앞 종로거리로 해서 한강 물속으로 헤엄쳐들어갔다는 소문이 들

려왔다. 다음날은 서울교외의 어느 한 고목이 마른벼락을 맞았는데 그 구새먹은 나무에서 큰 구렝이 한마리가 나와 유유히 경복궁담장을 타고넘어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세상은 떠도는 소문들로 가득찬 곳이다. 하물며 나라가 망조에 든 을미년 그해임에랴.
세상이 소란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한몫 본다. 전에는 이름도 없고 소문도 없던 소경점쟁이, 과부무당들이 비단보료가 깔리고 요강망태기에 타구, 재털이가 실린 금빛은빛의 교군을 타고 이집저집, 이 고을, 저 고을로 불려다니는 판이 되였다. 그 여파를 타고 동네방네에서는 저마다 점을 친다, 굿판을 벌린다, 신수를 본다, 제사를 지낸다, 묘지를 옮긴다 복닥소동이 일었다.
그런 속에서도 린석은 집안에 배겨 글만 썼다. 이루지 못한 뜻을 《의암집》에 남겨 후세에라도 알게 하자는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하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왕비가 왜놈의 손에 죽었다는것이였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역시 떠도는 소문이려니 했던것이다.
왕비가 왜 죽는단 말인가. 그에게 먹을것이 없는가, 호위군사가 없는가, 의원이 없는가, 시비가 없는가.
그러나 거듭거듭 들려오는 소문을 더는 뿌리칠수 없어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싶어서였다. 마침내 거기에서 최익현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서 민비의 죽음이 사실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
청세력을 조선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군사적으로 얼마든지 제압할수 있다고 생각한 왜나라족속들은 다음부터 법적으로 집어삼킬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였다. 그러자면 왕을 그러쥐여야 하는데 그 뒤에는 언제나 쥐여도 잡히지 않고 씹어도 씹히지 않는 민비라는 녀자가 군림해있었다. 그를 없애지 않으면 조선이라는 큰 고기덩이를 먹을수 없다고 생각한 왜나라의 야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궁리를 해왔다.
국제적인 법규나 도의의 원칙은 애초부터 제쳐놓고 모든것이 저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작성되고 꾸며졌다.
원래 놈들은 김홍집을 총리로 하는 내각을 조직할 때부터 박영효란

자를 내부대신으로 박아넣고 그를 통하여 내각전체를 친일화하려고 하였다. 박영효란 김옥균의 갑신정변때 우연히 거기에 끼여들었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후 완전히 친일분자가 되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왜놈식으로 단장하고 스스로 자기를 일본사람이라고 자랑하던자였다. 그런자를 조정에 끌어들여놓고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친일사상을 부식시키게 했고 저들의 정책을 내려먹이려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한편에서는 로씨야공사 웨베르의 맹렬한 활동으로 왕과 왕비, 그 측근들이 많이 로씨야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였다. 바로 그것을 느낀 왜놈들은 민비를 없애치워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것이다.

그의 첫 시도가 박영효를 시켜 한강에 나가 배놀이를 하는 동안에 민비를 감쪽같이 없애치우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계획은 사전에 비밀이 드러나서 실행할수 없게 되고 박영효는 국왕의 명령으로 엄격히 처벌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여 일본으로 도망가고말았다.

일이 그쯤 되였으면 왜놈들도 낯짝을 붉히고 사죄를 하거나 물러갔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애초에 인간이기를 그만둔 왜놈들은 보다 더 음흉하고 야만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먼저 놈들은 오랜 군벌출신이며 칼부림쟁이인 미우라놈을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파견하였다.

이놈은 조선에 온지 벌써 한달만에 수급졸개들을 불러다놓고 민비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닷새가 지난 을미(1895)년 8월 19일(음력) 미우라놈의 직접적인 지시밑에 왜놈들은 저들의 수많은 군대와 경찰, 깡패무리들을 경복궁가까이에 집결시켰다. 한켠으로는 이미 정계에서 밀려나 은거생활을 하던 대원군을 궁중에 끌어들여 이전의 섭정을 다시 하도록 강박하였다. 한것은 그가 실지 정사에 나설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민비를 죽여놓고 그 죄과를 넘겨씌우기 위한 술책에서였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놈들은 다음날 아침 묘시(5시)에 경복궁 남문인 광화문앞으로 일시에 달려들면서 총질을 가하였다. 궁을 지키던 훈련대의 일부 성원들이 맞불질을 하기 시작하여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였는데 놈들은 그 틈을 타서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민비의 침실인 곤녕전으로 달려갔다.

그때 시위련대장이였던 홍계훈은 자정이 훨씬 넘었을 때 자기 명령

없이 훈련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때에야 놈들에게 무슨 흉계가 있다고 짐작한 그는 대원들을 이끌고 성의 동쪽문인 건춘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벌써 수십명의 왜놈들이 지켜서고있었다. 홍계훈은 《우리가 무엇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겠는가. 절대로 저놈들을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놈들을 향해 맞받아나갔다.

마주오던 왜놈장교 하나가 먼저 칼을 빼들자 홍계훈도 같이 칼을 빼들었다. 바로 그 순간 왜놈병졸이 방아쇠를 당겼다. 뒤이어 련속되는 총소리와 함께 홍계훈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렇게 놈들은 무자비하게 사격을 가하여 앞을 막아서는 사람마다 쓸어눕히였다. 이렇게 곤녕전에 기여든 놈들은 민비가 잠들었던 옥호루에 달려들어 《민비를 내놓으라!》고 호통치며 함께 자던 궁녀들의 머리태를 거머쥐고 무작정 창문밖으로 집어던졌다.

밖에서 기다리던 민비를 모르는 놈들은 그가 누구이건 민비라고 짐작되는 녀자이면 무작정 칼로 배와 가슴을 찌르고 허비여 피와 내장이 쏟아져내려 죽게 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란간으로 뛰여오른 궁내부대신 리경식이 두손을 쳐들고 놈들을 가로막아나섰다.

그러나 왜놈들은 이번에도 야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스즈끼라고 하는 왜놈장교 하나가 다른 두놈과 함께 리경식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러댔던것이다. 결국은 그도 들었던 팔을 허공에서 잘리운채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마침내 민비를 찾아낸 놈들은 그의 머리태를 감아쥐고 방바닥에 몌다친 다음 가슴에 뛰여올라 구두발로 쾅쾅 내리밟고 목을 지리눌렀다. 순간에 눈알이 뒤집혀지고 혀가 빼물어지며 사지가 늘어졌다. 그래도 무엇이 부족했는지 놈들은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배와 가슴을 칼로 란도질하고 내장을 허벼냈다. 그것을 끌고 후원의 숲속에 가서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형체마저 없어진 시체를 이번에는 가까운 못속에 집어던지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

이렇게 하여 이 나라의 상징으로 신성시되여오던 왕궁은 두번째로 왜놈들의 침습을 당하고 왕비마저 살해당하는 원한과 치욕의 장소로

되고말았다. 이것은 단순히 왕비가 살해당했다는 중대사건일뿐아니라 조선민족과 국가정부에 대한 무참한 유린이며 교살행위였다.
하기에 다음날 아침 각국 공사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 미우라놈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섰다. 바로 이때라고 생각한 미우라놈은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그것은 민비와 대원군사이의 권력싸움의 결과라느니, 자기 나라 군대는 시위대와 훈련대사이의 충돌때문에 불가피하게 출동했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하고는 뒤가 켕기여 이틀후에 미우라놈을 본국으로 빼돌리고 나머지 48명의 관계자들도 모두 제 나라로 불러다 그 무슨 《재판》놀음끝에 《무죄》를 선포해버리고말았다. 그뿐만아니라 내적으로는 저들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이 《애국심》에서 나온것이며 조선을 도와주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였다고까지 춰주는 놀음을 벌렸다.
바로 이것이 왜놈이라는것이다. 악착하다거나 교활하다거나 파렴치하다거나 하는 그 어떤 말마디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인간이하의 야수성, 저렬성, 무지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짐승의 무리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는것이다. …

이야기가 끝났다. 그러나 방안은 쥐죽은듯 고요했다. 사방에서 고콜불만 활활 타오르는데 린석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빛들은 더욱 빛나고 얼굴들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잠시후 조용하던 방 한가운데서 누군가 불쑥 일어섰다. 하고는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댔다.
《총대장님, 빨리 제천으로 갑시다. 우린 왜 아직도 여기서 꾸물거리고있습니까?》
어딘가 낯이 익고 목소리도 귀에 익었다.
생각이 났다. 아까 낮에 보았던 아버지를 잃은 젊은이였다. 그가 끝내 집에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네들, 다들 들었지요?》
그가 이번에는 의병들을 향하여 좌우로 팔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왜놈들이란 바로 그런 놈들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나라가 있고

서야 나도 있고 부모형제도 있습니다. 저놈들을 쳐부시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왜놈들과 싸웁시다.》

《싸우자, 왜놈들을 쳐부시자!》

《국모의 원쑤를 갚자!》

《결사의 각오를 안고 왜놈들과 싸우자!》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올랐다. 넓은 방안은 순간에 불덩이마냥 왜놈들에 대한 증오의 도가니로 변하였다.

린석도 가슴이 달아올랐다. 자기의 말이 이처럼 사람들의 충격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것이다.

이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서야 무슨 싸움인들 못하겠는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린석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13

골짜기는 이른아침부터 설레였다. 드디여 오늘 전 부대가 제천읍으로 들어가는것이다.

벌써 묘초(5—6시)에 잠을 깬 대부분 의병들이 출동준비에 바빴다. 한켠에서는 밥을 짓고 다른 한켠에서는 행장을 거두고 하느라 누구라없이 바삐 돌아갔다.

류린석은 누구보다 일찍 식사를 마치고 향교 앞마당에 나가 기다렸다. 부대들이 거기로 모이게 된것이다.

군사장 주용규가 오늘도 여전히 융복을 떨쳐입고 삼문앞 층계에 올라 부대들의 움직임을 통솔하였다. 안승우와 리춘영이들은 안뜰에서 제천에 들어가 부대들에 보장할 후방사업에 대하여 의논하고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정(오전 10시)이 다되여올 때까지 선봉장 김백산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부대는 완전준비를 갖추고 남먼저 향교에 와있었다. 알아보니 전령수 오째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무도 그들이 간 곳을 몰랐다. 다만 새벽에 마을로 심부름갔던 오

째가 오지 않아서 백산이 직접 찾아갔는데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것이 저으기 린석을 긴장하게 하였다. 오늘 진군에서 제일 앞장서야 할 선봉장이 어디에 가서 오지 않느냐 하는것이였다.
전 부대가 지금 그를 기다리고있다. 향교앞을 지나간 길로부터 마당 저끝은 물론 키높은 참나무, 느티나무, 쇠스래나무들이 늘어선 나무숲과 그아래 하얀 모래불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련해 깔린 개울녘까지 의병들로 꽉 들어찼다.
지금 그들이 추켜든 무수한 기발과 기치창검들이 아침해빛에 번쩍이고있다. 지루한 시간을 기다려 때없이 둥둥거리는 북소리, 징징거리는 징소리, 뿌웅뿌웅 하는 천아성소리들이 조급하게 출발을 재촉하고있다. 알아본데 의하면 군수 리찬익이가 고을안의 청장년들을 모두 그러모아다 의병들과 맞설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선봉장은 어디에 갔는가. …
어제 린석은 그의 부대에 가서 밤늦도록 민비살해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이 예상외의 반응을 일으켰다. 의병들이 자리를 차고일어나 왜놈들을 모조리 쳐죽이자는 구호를 격조높이 불렀고 당장 서울로 쳐들어가 미우라놈인지 이노우에놈인지를 쳐죽이자고 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전 부대에 퍼져 저렇듯 출발을 보채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백산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린석이 조급한 마음으로 부대앞을 거닐고있을 때 갑자기 한 의병이 달려와 보고하였다.
《창의대장님, 저기에 싸움이 났습니다. 선봉대장님하고 서울패나리들하고… 지금 막 죽일듯이 싸우고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선봉장과 서울패라니…)
피뜩 의심을 하면서 동시에 판단을 했다. 서울패라고 하면 홍정식이네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들이 왜 김백산이와 싸운단 말인가. …
의심을 하면서 그리로 달려갔다. 영문을 알아야 했다. 하면서 불안을 느꼈다. 홍정식에 대하여 그동안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정식은 처음 그를 찾아와 만난 후 드문히 들리군 했다. 주로 저들의 생활조건보장과 의병장이나 의병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문제 그리고 의병투쟁의 전도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것이였다. 그때

마다 린석은 그들이 서울에서 살다가 왔으니 불편이 많으리라는것, 출신이 보통의병들과는 다른 서울량반이라는것, 거기에 자기가 특별히 보아주어야 할 대상이라는것 등을 고려하여 언제나 그들을 편들어주었다. 생활도 그들의 요구대로 따로 마련한 집에서 저들끼리 살게 했다.

그러던 어느날은 저들이 서울에 가서 신식보총을 구하겠다고 해서 보내주었더니 과연 세정이나 되는 총을 가지고왔다. 다음부터는 그들을 푹 믿고 하는대로 내버려두었었다. 그런데 싸움이 났다. …

마을을 꿰질러 산비탈 외딴집까지 달려가던 린석은 한순간 멈춰섰다. 그 의병이 말하던 싸움이 거기서 나고있었던것이다.

몇명의 서울 젊은이들이 백산을 둘러싸고있었다. 그중 홍정식이 긴 칼을 빼들고 백산에게 다가들었다.

《이 상놈의 새끼, 나지도 못한 놈이 량반자를 때려? 대신 죽어봐라.》

시퍼런 칼이 하늘로 번뜩이며 솟아올랐다. 그런데 백산이 어느새 몸을 피하여 자기를 둘러싼 다른 사람의 등뒤에 섰다. 손에는 쥔것이 없지만 어째서인지 도망갈 생각을 안했다. 도리여 홍정식에게 따지듯 들이댔다.

《다시 말한다. 닭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사죄하라. 우리 오째한테두!》

《뭐가 어째? 너까짓 상놈이 누굴 보구…》

정식이 다시 달려들었다. 동시에 너덧명이 또 백산을 둘러싸고 한점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일은 이번에도 다르게 번져졌다. 백산이 한옆으로 비켜서면서 정식을 걷어찼다. 칼이 땅에 떨어지고 정식은 곤두박질을 했다. 이어서 다른 두명도 절을 하듯 백산의 앞에 꼬꾸라졌다. 정식이 칼을 잡으려고 벌름벌름 기여가자 백산이 이번에는 그의 팔을 발로 밟았다.

린석이 다가간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를 본 정식이 사람을 때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백산은 무춤 놀라 자세를 바로했다. 그통에 정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봉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정식이는?》

백산은 말이 없었다. 대신 정식이 고아대며 사설을 늘어놓았다.
《이놈이 우리 사람을 때렸소. 코피가 터지게 말이요. 이 상놈의 새끼가 어따 대고…》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째가 끼여들었다.
《창의대장님, 그런게 아닙니다. 실은 저 서울사람들이 민가의 닭을 잡아가기에 제가 말렸더니 먼저 저를 때렸습니다. …》
그가 설명을 하였다. 그들이 남의 닭을 활로 쏴서 잡아가는것을 보고 못하게 하였더니 쬐끄만게 참견을 한다고 모두매를 들었다는것이였다.
그때 오지 않는 오째를 찾아떠났던 백산이 달려와 그들을 두들겨패주었다. 했더니 이번에는 홍정식이가 칼까지 가지고 달려와 싸움이 벌어졌다는것이였다.
《정식이, 거사를 앞두고 이게 무슨 짓인가. 당장 닭값을 물어주게!》
이야기를 듣고난 린석이 엄하게 소리쳤다.
정식이 어물거리더니 염낭에서 엽전 몇잎을 꺼내 옆사람에게 주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린석이 백산에게 말했다.
《선봉장, 됐네. 앞으로 더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은 그만하세.》 하고 돌아서려 하는데 백산이 말했다.
《대장님, 다된것이 아닙니다. 긴급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두가 돌아섰다. 린석은 물론 뒤따라왔던 춘영이나 승우도 아연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자는겐가?》
《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군률을 어긴 이상 죄상을 조사하고 철저히 그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한순간 모두가 긴장했다. 듣고보니 그럴듯했던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그들도 엄격한 군률에 대하여 말을 많이 했고 의병들에게 그렇게 강조도 했다. 그리하여 류린석자신이 직접 《의병규칙》이란 규정을 만들어 그대로 하기로 만장일치를 보았다. 거기에는 상관의 명령

에 대한 복종체계를 비롯하여 의병들 호상간 문제 의병과 민간인들과의 관계문제 등 여러가지가 밝혀져있다. 나라의 법이 여기에 통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의병규칙》이 나라법이상 우뚝 솟아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한순간이고 분위기는 즉시 백산에 대한 타매로 돌아갔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장 출발을 앞둔 때에 그런 사소한 문제에 매달려 전부대의 행동에 지장을 주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다른 원인도 있다. 한날 평민인 백산이 량반자를 걸고늘어진다는것이였다. 하물며 정식은 이름난 서울량반의 자식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출발을 해야 한다는데로 의지를 모아가고있었다.

마침내는 린석이 자세를 낮추었다.

《선봉장, 내가 그대의 심정을 모르는바가 아니야. 하지만 세상에는 사세부득이한 조건도 없지 않는바이야. 큰일을 생각해야지.》

《저는 바로 그 큰일을 생각해서 주장하는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고을로 향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나타난 허물을 놓고 있을수 있는 결함을 사전에 경계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사태를 수습할수 없습니다. 그가 량반이라고 용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다음으로 넘긴다면 언제한번 규률을 세울수 없으며 결국은 그것으로 의병대가 망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서상렬도 한마디 끼여들었다.

《선봉장의 말이 옳습니다. 법은 만인의 공유물로서 대장 한사람이 좌지우지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두번은 어길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법자체를 걷잡을수 없게 헝클어뜨릴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린석은 이 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대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상렬이까지 그렇게 나오니 생각이 달라졌다. 역시 군률을 제쳐놓고는 의병싸움자체를 생각할수 없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저들을 세워놓고 재판놀음을 벌릴것인가. 지금 리찬익이란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을을 방비하느라 벅적 고아댈터인데 어느 하가에 동헌에 앉아 옳으니그르니 하는 판결놀음이나 하고있겠는가.

하는데 백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장님, 빨리 출발합시다. 그러되 그들만은 여기 남아서 따로 처벌을 받게 합시다. 그들은 다른 의병들과 함께 행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린석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막혔던 물목이라도 터진듯 속이 후련했던것이다.

사실 그도 홍정식이네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당장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는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 백산이 그 방법까지 대주지 않는가.

생각할수록 그가 기특하고 정이 끌리였다. 결국 그의 의견대로 홍정식이하 전원을 향교에 떨구어 차후 지시를 받도록 하고 전부대에 출발명령을 내렸다.

향교앞마당에 모였던 의병부대는 출두를 알리는 천아성의 뚜뚜— 하는 긴 신호와 함께 북과 꽹과리, 새납, 대각, 소라소리들이 어지럽게 날리는 속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소리에 앞서 기발들이 일제히 들리워 전대오가 기의 숲처럼 무수히 설레이였다. 각 부대가 저마다 준비한 주장기, 청도기, 도방기, 금기따위와 함께 전부대적인 청룡기, 백호기, 현무기, 주작기들과 인기(대영장인기), 오방고조(동서남북, 중앙표시), 표미기 등 각색 기발들이 이미 진행해온 훈련에 따라 립기(세우기), 요기(흔들기), 초기(좌우로 흔들기), 점기(앞뒤로 흔들기), 안기(눕히기) 등에 능통한 기세로 일제히 휘날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제일 앞대렬에는 이 고을의 주인인 제천의병대가 서고 다음에는 선봉대, 그뒤로는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에서 온 여러 부대들이 따라서고 맨뒤에는 서상렬의 부대가 후위를 담당하고 섰다.

류린석은 그 힘찬 대오의 맨 앞장에서 나갔다.

바로 무수한 기발들이 날리고 고취대가 굉음을 웨치는 속에 흰 말을 타고 흰 두루마기에 흰 갓신에 반백의 수염을 날리며 힘차게 나갔다. 그 량옆에는 사석과 백산이 나란히 하고 뒤에는 부대들에서 특별히 선발된 무장들이 몇십명 따라섰다.

그때 미영은 출발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고있었다. 구석구석에 정이 들고 인연이 깊이 맺어진 집이였다. 하면서도 자기

를 옴짝 못하게 붙잡고 얽매여둔 집이였다. 그래서 언제든 집을 뛰쳐나가보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군 하였는데 이제 그것이 실현되게 되였다. 물론 그것은 영원한것이 아니며 며칠 아니면 몇달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가 아끼던 양털을 댄 녀자용두루마기에 남바위(휘양)를 두르고 부대를 따라 달리기 시작하였다. 어제 저녁 내리다 만 눈이 수천사람의 발에 밟히고 짓이겨져 길이 미끄러울대로 미끄러웠다. 그는 몇번이나 넘어지며 그냥 달렸다. 그런 속에도 머리속에는 백산이 말하던 불사약을 훔쳐가지고 월궁으로 올라가 옥토끼로 변하였다는 상아라고 하는 처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도 그런 녀자가 될테야. 그래서 남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있겠어. 아니, 그이만 그렇게 보아주면 돼. 아 월궁선녀, 옥토끼, 과연 내가 그렇게 될수 있을가. …)

그는 자기가 언제든 남다른 녀자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봉장은 그렇게 살라고 했다. 특히 왜놈과 싸움에서 력사에 이름을 남기는 녀자가 되라고 했다. 내가 정말 그런 녀자가 될수 있을가.

이렇게 생각하며 무작정 앞으로 달릴 때 백산은 역시 누구보다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고있었다. 바로 큰아버지 류린석대장과 어깨를 겨루며 나란히 하고있는것이다. 또 그옆에는 사석대장이 함께 가는데 지금 그들은 무슨 이야긴가 나누며 유쾌히 웃고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다. 군중에서 울리는 취타악기들의 요란한 굉음이 주위를 진동하고있었던것이다.

향교마을을 떠날 때부터 요란하게 울리던 새납대와 고취대, 피리대들이 읍을 가까이하면서 더욱 기세를 올리였다. 처음에는 느진하닢(아주 느린 노래)으로부터 가웃두닢(보통속도)으로 상승되다가 점차 가웃세닢, 잦은하닢(매우 빠른 속도)으로 비약하며 무엇을 쫓듯 다급하고 기운차게 주변의 산야를 울리였다.

그것은 린석이 생각해낸것이였다. 적아의 력량을 타산하여 애초부터 기세를 올리면 싸움을 하지 않고도 읍으로 들어갈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던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강변까지 나와 의병대와 맞서보겠다고 하던 고을의 군

사들이 멀리에서부터 겁을 먹고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 한번의 접전도 없이 유유히 동헌앞까지 행진해들어갈수 있었다.

그때 군수 리찬익은 동헌으로 쓸어드는 륙방관속들과 아전들 지어 파수군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치며 싸움에로 내몰았지만 케는 이미 글렀다. 세개가 다 활짝 열려진 대문안으로 의병들이 유유히 밀려들고 그 가운데로 류린석이 무장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헌우로 성큼 올라선것이다.

《이게 무엇들이냐, 너희들에게는 나라의 법도 없느냐?》

찬익이 갈팡질팡 소리를 질렀다. 그에 대해 린석이 쓴웃음을 짓고 대꾸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통고한바가 있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우리가 왔다. 나라에 왜적이 들어와있고 임금이 곤욕을 당하고있는 이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법도란 어떤것이냐. 법이란것도 시대에 따라 변하며 그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할 때는 죄가 되지 않으며 곧 새 법으로 된다는것을 모르는가.

만약 당신이 우리의 법을 따르지 않고 계속 방해를 놀면 용서치 않겠소.》

《흥, 어디서 붓대나 쥐고 코물눈물이나 짜던 선비나부랭이들이… 나는 너희들을 당장 쫓아내되 말을 듣지 않으면 관군을 동원하여 없애버리라는 감영의 지시를 받았다. 당장 물러가라!》

《거듭 말하지만 지금 나라가 왜놈에게 먹히우느냐 마느냐 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소. 당장 무기고를 열어 백성들을 무장시키며 창고를 털어 군량미를 보장해야겠소. 집행하시오.》

《무기? 군량? 그것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기에 내놓는단 말이냐. …》

찬익이 악을 썼다. 그때 사석을 비롯한 의병들 한무리가 다시 쓸어들었다. 그중 몇사람이 뜰아래에 멍석을 몇장 깔더니 가지고 들어온 물건들을 그우에 쏟아놓았다.

우불구불하고 꽃무늬가 현란한 책상, 의자에 자기로 만든 왜화로, 꽃병, 차잔, 쟁반 그리고 에짚트의 주단, 브라질의 커피, 미국산 담배, 안경, 수건, 향수 그밖에 어느 나라 물건인지 알수 없는 진귀

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였다. 그것이 끝나자 사석이 뜰우의 찬익을 쏘아보았다.

그 서슬에 기가 죽은 찬익이 황망히 눈을 피하느라 했지만 때는 늦었다. 사석의 군사들이 뛰여올라가 그를 아래로 끌어내렸던것이다.

《이것이 어디서 난 물건들이냐? 이 병 하나의 값이 얼마냐?》

사석이 자기로 된 꽃병 하나를 들고 찬익에게 따졌다.

《사십엔…》

찬익이 눈을 찡긋거리며 대답했다.

한순간 마당이 터지는듯 한 놀라움으로 가득찼다. 우선 그 값이 왜돈으로 불리운데 놀랐고 다음은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놀랐다. 당시 소 한마리값이 15～18엔이였으니 크기가 한뼘 될가말가한 사기쪼박 하나의 값이 소 3마리, 쌀로 환산을 하면 대두 75말값과 맞먹는 셈이다. 그런 물건들이 이놈의 집에 꽉 차있으니 그가 어떤 놈인가 하는것은 가히 알만 하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사석이 다시 들이댔다. 찬익이 이번에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외로 돌렸다. 그 서슬에 옆에 섰던 이전에 사석과 함께 취조를 당하던 철덕군 하나가 달려들어 주먹으로 면상을 한대 쥐여박았다. 뒤따라 수십명 의병들이 일시에 와 하고 달려들어 죽탕이 되도록 때려주었다.

린석의 령으로 겨우 뜯어말린 다음 옥에 가두었다.

《저 찬익이란 사람을 어쨌으면 좋겠나. …

내가 이렇게 묻는것은 그가 임금의 이름으로 군수가 되였던 사람이요 또 당장 군에 정사를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겠기때문이요.》

그가 마루우에 앉은 여러 의병장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주용규가 한마디 하고 김복한이 또 한마디 하자 여러 사람이 들고나왔다. 그를 살려둘뿐아니라 동헌도 내여두어 정사를 보게 하되 곧바로 의병들의 요구를 받아물게 하자는것이였다.

그에 대하여 사석이나 김백산, 서상렬이들은 무조건 사형을 주장하였다. 저런 놈들은 백년을 살아도 나라와 백성은 물론 임금도 생각할줄 모르고 오직 저 하나밖에 모르는 짐승과 같다는것이였다.

그들이 옥신각신하며 주고받는 말을 듣고있던 린석이 교의를 툭툭 두드렸다.

《지금 많은 군수, 현감, 현령들이 리찬익과 같이 왜놈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며 오히려 그들과 손잡고 나라를 파는 역적행위를 하고있소. 이런자들을 먼저 처단하겠다는것은 이미 내가 전국에 보낸 격문에도 명백히 씌여있소. 곧 저놈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것으로써 다른 고을의 수령방백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시오.》

그의 위엄있는 목소리에 모든 의병장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여 응하였다. 그리고 다음날로 찬익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였다.

군안의 수만군중이 그것을 기뻐하며 북과 꽹과리를 들고 거리에 나와 춤을 추었다. 그 기세를 타고 린석은 다시한번 전국에 보내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침범한 일본오랑캐놈들과 싸우기 위하여 제천을 점거하고 오늘 이곳에 군사를 전개하였다.

저 쪽발이 왜놈들은 일찍부터 우리 나라를 침범하고 력대로 우리와 싸워온 불공대천의 원쑤다.

최근에는 저들이 개화한것을 턱대고 오만하게도 군사를 들이밀어 왕궁을 침해하고 국모까지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예로부터 평범한 백성도 부모의 원쑤는 5대를 내려가며 갚는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국모의 원쑤임에랴. 우리는 피를 물고 일어나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움으로써 오늘날의 수치와 분노를 씻을것이며 기어이 복수를 하고야말것이다.

그럼에도 저 군수 리찬익이놈은 왜놈들과 은밀한 련계를 맺고 그들을 도와주었으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여 저 하나의 영달만을 꾀하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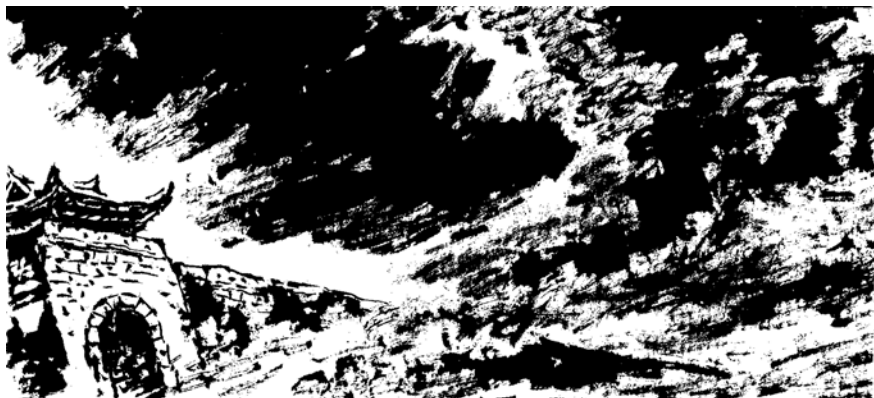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있고 임금과 백성이 다같이 고통을 당하고있는 이때에 저 하나만을 생각하는 저런 놈들은 언제 가도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 없고 나라까지도 서슴없이 팔아버린다.

예로부터 외부의 적을 치려거든 그들을 끌어들이는 내부의 적부터 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의병들과 군내 백성들의 이름으

로 리찬익이란 놈을 단호히 처단하고 이를 세상에 공포하는바이다.

오늘날 왜놈과 싸우지 않고 눈치를 보거나 형세나 관망하는자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 만약 이 격문을 받고서도 왜적과 싸우지 않거나 방해하는자가 있으면 그가 군수이든 관찰사이든 공경재상이든 관계없이 처단하리라는것을 선포한다.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시각 저 하나만 생각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자리는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은 나라를 근심하는 우리 의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정의에 립각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울 우리들의 결의이다.

이에 상하귀천, 남녀로소 재산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 싸울것을 전국에 다시한번 호소한다. …

제 2 장

불타는 성

1

다음날 아침 린석은 해뜨는 시간을 리용하여 망궐례를 조직하였다.

망궐례란 고을의 원들이나 서울에서 오래동안 지방에 내려와있는 관리들이 관아에 차려놓은 궐패를 향하여 매달 초하루날과 보름날에 절을 하는 례식을 말한다. 한것을 설을 며칠 앞둔 때 아닌 때에 망궐례를 조직한것은 이제부터 그들이 동헌을 차지하고 군의 정사를 좌우지하게 되였으니 그들로서 다지는 맹세가 있어야 하고 형식도 갖추어야 하는때문이다. 그 궐패란것이 《궐》자를 새긴 나무패쪽에 불과하지만 그자체가 대궐을 가리키는것이요 또 그가 향하는 방향이 임금이 있는쪽인것만큼 좀 멀기는 하지만 곧 왕을 향하여 인사를 올리는것으로 된다.

…아, 성스러운 밝은 하늘과 더불어 높은 덕과 은혜인자하신 인망으로 이 땅의 모든 신민에게 교화의 혜택을 베풀어주시는 상감마마께

삼가 인사를 올리나이다.
신 류린석과 리춘영을 비롯한 선비유생들과 여러 백성들은 나라가 왜적의 침입을 당하매 그 위급함과 치욕을 금할수 없어 여기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후 놈들과 비밀리 내통하며 나라의 실정을 알려주던 군수 리찬익을 처단하고 고을을 점거하였는바 상감께 정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유를 고하고 놈들을 기어코 이 땅에서 내쫓을 결심을 굳게 다지며 삼가 궐례를 지내는바입니다. …

린석이 앞에서 먼저 궐패를 향하여 글을 외우고 절을 하면 모든 의병장들이 따라하면서 끊임없이 절을 하였다. 이렇게 하고 린석이 정식 동헌을 차지하자 온 고을바닥은 새로운 소문으로 들끓었다. 그가 어떤 정사를 펼것인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줄것인지, 의병싸움은 장차 어떻게 될것인지 하는 각이한 추측과 제나름들의 판단이 고을의 지경을 넘어 순간에 각지로 퍼져나갔다. 그것이 린석이 발표한 격문과 더불어 더 많은 사실들을 과장보충하며 더 빨리 퍼져나갔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의병대가 제천뿐아니라 충주감영까지 차지했으며 장차 서울까지 진공하리라는데로 번져갔다.
그렇다고 그것을 나쁘게 볼것이 없다. 거기에는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념원이 반영되여있기때문이다. 당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왜놈에게 강점당할수 있다는 불안하고 치욕스러운 압박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었던것이다.
소문은 아무래도 좋았다. 린석은 단지 왜놈들과 싸울수만 있으면 그만이였다. 그는 자기가 고을의 원이나 사또라고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었고 또 원해본적도 없었다. 그것은 도의 관찰사가 승인을 해야 하고 중요하게는 왕의 인준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그는 지금 관찰사가 틀고앉은 충주감영을 겨냥하고있다. 거기에 왜놈 《토벌대》대장 이다찌중좌란 놈이 주둔해있고 관찰사 김규식이 있다. 두해전에 어지를 악용하여 의병을 해산시켰던자다.
다음번 목표는 충주다. 거기로 쳐들어가 이다찌놈을 처단하고 김규식이놈도 없애버려야 한다. 왜놈도, 나라를 파는 놈도 다 같은 적이다. 새해전으로 충주성점거에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의병들의 사기도 높고 신심도 확고하다.
그리하여 드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하루는 충주의 감영에서 왔다는 사람이 린석을 찾아왔다. 김규식의 말이라고 전하는데 부대를 당장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관군을 동원하여 짓뭉개버리겠다, 지금 여기에는 일본군 《토벌대》대장 이다찌중좌가 와있다, 그는 너희 의병 같은것은 파리 때려잡듯 없애치울수 있다고 한다, 개별적으로는 너 류린석이도 잘 안다고 한다, 그가 당신을 장삼리사와 같은 시골뜨기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권총으로 이마빡을 쏘아 죽이겠다고 한다, 그가 할일이 없어 이런 시골구석에 와있는것이 아니니 이 말을 지극히 명심해듣고 즉시 자기 명을 시행하라는것이였다.
그것이 린석의 반발심을 더욱 격동시켰다. 그는 자기가 며칠내로 충주로 찾아가겠으니 맞을 준비나 잘해놓으라는 충고를 주어 왔던 사람을 돌려보내고 공격준비를 더욱 다그쳤다.
알아본데 의하면 요즘 김규식은 이다찌놈과 매일 마주앉아 커피와 코코아향료를 마시며 기생놀이를 벌리고있다고 한다. 놈은 이다찌가 선물로 주는 유리잔이나 고뿌, 꽃병따위를 받고는 수십, 수백섬의 식량은 말할것 없고 수달피, 해송자, 필봉, 자초, 인삼, 사향, 안식향과 같은 특산물까지 섬겨바친다고 한다. 명색이 도의 관찰사인 그가 나라와 백성은 등을 져도 왜놈중좌와는 등지고 못살겠다는 자세다.
충주에로, 충주에로! 올해 설은 충주에서 맞자! 이다찌놈은 조선사람의 원쑤, 우리모두의 원쑤이다. 이다찌, 김규식이를 처단하자. …
의병들의 기세는 더욱더 높아졌다. 충주에로 진격할 날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린석이 동헌에 앉아 몇몇 의병장들과 함께 바로 그 일을 의논하는데 파수군이 달려와 춘천에서 사람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춘천에서?…)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쳤다. 춘천에서 왔던 사람을 돌려보낸것이 바로 며칠전이 아니였던가.
아닌게아니라 그가 정신도 가다듬기 전에 대문밖에서부터 곡성이 울리며 누군가 안으로 뛰여들어왔다.
《아이고 나리님, 원통합니다. 어머님께서 끝내 별세하시였습니다.

아이고… 나리도 안계시는데서 내내 나리의 이름만 부르시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그가 그만 뜰아래에 펑덩 엎드리며 곡을 했다. 순간 린석도 갑자기 솟구치는 설음에 가슴이 꽉 메이고 눈앞이 새까매졌다.

어머님이 끝내 가셨구나, 내가 없는데서…

길을 떠날 때만 하여도 이번만 무사해주기를 바랐던 어머니였다. 전번에 사람이 왔을 때에도 이번만 무사해주기를 속으로 빌었던 그였다. 그렇게 며칠만이라도 견디여주면 반드시 큰일을 치고 집으로 돌아갈수 있으리라고 믿었던것이다.

그런데 하늘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피가 끓고 열의에 불타던 심장을 알아주려 하지 않았다. 세상은 왜 그리도 매정한가. …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달려왔다. 의병들이 삼문밖에 일제히 엎드리여 곡을 터뜨렸다. 의병장의 일이자 다름아닌 자기의 일로 아는 그들인것이다.

즉시 의병장들의 모임이 조직되고 거기에서 린석의 출발을 결정했다. 린석은 피물이 진듯 붉어진 그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내가 가면 여기 일은 어쩔텐가. 지금이 어느때라구.》

《그렇다고 가지 않으면 천의에 어긋납니다. 하늘의 뜻을 저바리고 여기에 있는다고 하여 일이 잘될수 없습니다.》

중군 리춘영이 말했다. 군수장 안승우도 가만있지 않았다.

《보십시오. 대장님은 전번에 꼭 가셔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굳게 믿고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을것입니다. 이번에 또 가지 않으면 두번다시 죄를 짓는것으로 됩니다.》

린석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지금은 자기가 자리를 뜰수 없고 떠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무겁게 자리잡고있었다. 더구나는 전번에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고도 집에 가지 않던 선봉부대의 한 젊은이의 모습이 되살아나며 가서는 안된다고 그를 꼭 붙잡고있었다. 반토굴안에서의 그 연설은 또 얼마나 열정적이였던가.

하면서도 다른 한켠으로는 가지 않으면 천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과 그때문에 한생을 죄의식속에 살게 된다는 불안이 무서운 공포심을 몰아왔다.

서로 융합될수 없는 두 생각이 부딪칠 때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는 사이에 안승우가 출발준비가 다 되였다고 알려주었다. 린석이 갈수 없다고, 가서는 안된다고 대답할 때마다 오히려 독촉은 불같이 더 달아올랐다. 그가 보통의병도 부모의 상가에 가지 않는데 대장인 내가 갈수 있느냐고 하자 반대로 평민은 가지 못해도 할수 없지만 대장은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수 더 높이 떴다. 그를 배행할 선두대렬은 먼저 떠났다고 했다.

더 앉아배길수도 없었다. 무작정 잡아떠밀기도 하거니와 그대로 앉아있자니 숨이 막히고 근심만 북받쳐 견딜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내가 가서는 안된다는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을수 없다는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부모를 떠난 영웅호걸이 어디 있겠는가. 하늘이 무너지고보니 숨도 바로 쉬기 힘들다. 그런만큼 내 속히 어머님을 만나보고 돌아와 싸움을 계속할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였다. 승우와 함께 몇십명이 그를 따랐다. 바래주는 대오가 십리에 늘어섰다. …

류린석창의대장이 떠나가자 고을은 갑자기 부모없는 집처럼 허전하고 한산했다. 리춘영이 그사이 모든 일을 맡아하기로 되였으나 역시 그는 중군이였지 대장은 아니였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일체 군사행동을 하지 말것, 규률을 엄수할것, 백성들과 관계를 잘 가질것 등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했다.

그것은 필요하며 엄수해야 할 문제들이였다. 그러나 생각처럼은 되기 힘든 문제였다.

《이 사람이 다시 현감이 된 기분이겠구만. 이제부터 잘 보여야 하겠는데 어떻게 잘 보인다?》

벌써부터 리린영이나 김복한이들이 그와 놀자고 들었다. 복한이 하는 말에 린영이 제꺽 나섰다.

《방법을 내가 대주지. 누구에게 잘 보이자면 우선 목적이 뚜렷해야 해. 세력을 얻자는것이냐, 명예를 얻자는것이냐, 리속을 얻자는것이냐 하는데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하거던.

그다음은 뢰물과 아첨일세. 그렇다고 무턱대고 앞에 나서는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책망하는척 하면서 속으로 칭찬하고 성난척 하면서 호의를 보여야 하고 먼저 의심을 사게 하고 믿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뒤따라야 하네. 이것이 바로 눈치놀음이라는것인데…》

《아, 그 방법 참으로 복잡하고 까다롭다. 진짜 방법은 단 한가지야. 아무리 벗이라 해도 세번 달라고 해서 밀치지 않는 놈 없고 아무리 원쑤라 해도 세번 주어서 친하지 않는 놈 없다고 하지 않나. 그저 이것이면 다야. 고여바치는것이상 없다는것이야.》

《그렇게 할 힘이 없는 놈은 어떻게 한다?》

《방법이 있지. 아래방에서 잘 뵈울바에는 부엌에 가서 곱게 뵈라고 하지 않나. 낮추붙으라는것이야.》

《그럴 힘도 없는자는? 부엌에도 힘이 있어야 붙을게 아닌가?》

《그때에는 옷을 입은채로 물속에 뛰여드는 수지.

돈많은자들은 수레를 타고도 오히려 신이 젖을가봐 바들바들 떨지 않나.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거침없이 물속에 뛰여드네. 한것은 그 옷이 새것이 아니며 또 몸에 아까울것도 없는때문이지.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운것도 두려운것도 없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하는데 그것 또한 락으로 안다네. …》

리춘영이 그들의 말을 들으며 허허 따라 웃다가 뚝 그쳤다. 일변 괘씸한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자기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놀려대자는짓이나 아닌가. 이러다가 군률까지 다 헝클어뜨려놓겠다. …

하는데 대문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몇사람이 동헌안으로 몰려들어왔다. 바라보니 뜻밖에도 제천에 떨구어놓았던 홍정식의 서울패들이였다.

《자네들이 여길 어떻게 올라왔나?》

《대장님의 상가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이라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가 뜰아래서 장한듯이 말했다. 그것이 춘영을 더욱 놀라게 하였다.

《상가소식? 그건 어디서 듣구…》

《다 아는 수가 있답니다. 방금 군수장님까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부조를 좀 했습니다.》

하고는 옆사람에게 말하여 돈꿰미가 든 보자기를 마루우에 올려놓게 하였다.
리춘영이 더욱 놀랐다.
《으응? 자네들이 무슨 돈을 이렇게…》
《약소하지만 군사에 보태쓰십시오. 그리고 군수장님이 말씀하기를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는 말썽이 없이 복무를 잘하라고 하시였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의병에 들자고 찾아온 몸이니 지나간 잘못은 용서하시고 필요한 대목에 긴히 써주십시오.》
춘영이 그들의 모습을 측은히 바라보다가 허허 웃었다.
《마음이 기특하군. 그런데 이런 돈이 있으면서 왜 남의 닭은 활로 쏘아잡았나?》
《노느라고 그랬습니다. 저 닭서리라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백산에게 매를 맞았다는 젊은이가 말해서 모두 소리내여 웃었다. 리해가 되였던것이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도 생겼다.
《자네들한테 무슨 일을 시켰으면 좋겠나. 할만 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게.》
《충주성내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적들의 내정을 렴탐해올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웃었다. 역시 생각이 기특하다 해서였다.
이렇게 그들이 충주로 향할 때 김백산은 서상렬을 찾아갔다. 요즘 선봉대도 그의 부대처럼 꾸리자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많았던것이다. 그런데다 대장까지 가고말아서 급기야 달아올랐던 열이 식고말았다. 그가 언제 오겠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대장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았을가요?》
백산이 물었다. 상렬은 인적이 없는 조용한 거리를 한참이나 말없이 걸었다.
《대장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소. 문제는 대장자신이 결심하는것이지.》
《서대장님은 저에게 군사의 일이란 일도할단(단칼에 베는것)의 방법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싶었지. 하지만 할수 없었네. 의병장들이 거의다 주장을 하는데 나나 자네 한두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였거던. 반대로 우리가 대장의 의사를 따르지 않으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파가 갈리여 종당에는 부대가 망하게 되오.》

리해가 갔다. 결국은 상렬이 부대가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서 하고싶은 말을 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렇다면 린석이 간 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잘했다는것인가 잘못했다는것인가.

그에 대하여 묻는 말에 상렬도 똑바른 대답을 못하고 허허 웃음으로 넘기였다.

《그것까지야 어떻게 알겠소. 그사이 일이 생기면 잘못된것이요 생기지 않으면 잘되였다고 보아야지. …》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지 며칠이 되였다. 그사이 백산은 더 자주 상렬을 찾아갔었다. 그에게 신식군대의 조련법을 배우고 시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위해서였다. 특히 백산은 그가 공주격전시 자기의 군사들을 반변에로 이끌고 농민들과 함께 왜놈과 싸운데 대하여 남달리 존경심을 품고있었다. 그것이 두사람을 더욱 가깝게 하였다.

바로 그날도 백산은 상렬을 만나러 가고있었다. 그런데 리춘영이 사람을 시켜 의논할 일이 있으니 동헌으로 오라는 기별을 보내여왔다. 급히 달려가보니 벌써 의병장들이 모두 모여있었다.

《한가지 급한 일이 있어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름아니라 좀전에 충주관찰사 김규식으로부터 비밀한 봉서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김복한의병장님께 보내온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왜군의 대부대가 제천을 들이칠 계획인데 그때에는 의병이 견디기 힘들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사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의병대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니 차라리 의병이 먼저 충주를 타고앉으라는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것은 김복한의병장님이 봉서를 그대로 읽어주는것으로 알게 하겠습니다.》

리춘영이 여럿을 향해 설명하고 복한이 봉서를 그대로 줄줄 읽어나갔다.

내용은 방금 춘영이 말한 그대로였다. 다만 자기와 약속만 하면 성안에 무사히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

었다.
《부언할것은 제가 김규식관찰사를 잘 알고있다는것입니다. 그와 자주 들놀이도 나갔고 글짓기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한마디로 믿을수 있습니다.》
봉서를 읽고난 복한이 하는 말이였다.
잠시 조용한 가운데 누군가 한마디 했다.
《관찰사는 왜놈과 통하는 역적이 아니요? 전에도 우리를 해산하라고 호령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의병을 돕겠다는거요?》
그러자 이번에는 홍정식이 나섰다. 물망에 오른 봉서를 가지고온 당자가 다름아닌 그였던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관찰사가 저에게 간곡히 한 말이 있습니다. 즉 자기도 처음에는 일본이 개명하여 문명한데가 있으리라고 믿었다는것입니다. 또한 청일전쟁때부터 정부에서 그들을 잘 돌봐줄데 대한 지시가 있어서 가깝게 지내기는 했지만 알고보니 왜인들이란 교활하고 간사하며 믿음이 가지 않는 인간들이라는것입니다. 거기에 의병들을 박산내겠다고 벼르는 꼴이 심상치 않으니 자기는 조선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수 없다는것입니다.》
《중군의 결심이 어떠한지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껏 말이 없던 서상렬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춘영이 당황하여 머뭇거리다가 복한을 돌아보았다. 그가 대답하라는것이였다.
《이미 말한바이지만 나는 관찰사를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이 성공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충주를 타고앉을수 있다는데 대해 모두가 류의해주길 바랍니다.》
《세상에 다투지 않고 얻어지는 성공이 있을수 있습니까. 위험은 항상 안일하게 성공을 바라는데서부터 오는 법입니다.》
서상렬이 근엄한 표정으로 저력있게 자기의 주장을 렬거해나갔다.
《미리 련계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규식으로 말하면 철저한 왜놈의 개로 알려져있는데 어떻게 한장의 종이로 그가 우리와 한편이 되였다고 믿을수 있겠소?》
《서대장은 싫으면 그만두구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겠소. 옛날 고양의 술사(중국 한나라때 고양지방사람)는 세치밖에 안되는 혀를 잘 놀려 70개의 성을 함락시켰다고 하오. 세상에 그런 실례가 허다한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소.》

《그들은 다 한 나라 사람이였고 한 겨레였기때문에 가능하였소. 그러나 우리의 적은 왜놈이요. 세상에 왜놈들처럼 간사하고 교활한 적은 없소.》

예상치 않던 다툼이 벌어졌다. 기상을 보아서는 시작부터 양보를 하지 않을 자세였다.

그때 김백산선봉장이 나섰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여 관찰사의 봉서가 김복한대장님한테 오게 되였는가 하는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겠는데요?》

화제가 다시 홍정식에게 돌아갔다. 이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했던 정식이 다시 끼여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의 집에 갔댔는데… 그전에도 몇번 갔댔지요. 불시에 순라군들이 우릴 잡아갑디다. 그리군 무작정 때리고 족치며 제천에 의병장들이 누구누구가 있는가, 김복한대장도 있지 않는가 따집디다. 우리는 그것이 큰 비밀이 아니기때문에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뭐 잘못된게 있나요? 하더니 다음날 관찰사가 저를 불러 어제 괜히 고생을 했다며 이 봉서를 줍디다. 김복한대장께 전하라구요.》

《안됩니다. 여기엔 작간이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산이 반대하였다.

《우선 그 친구라는 사람의 집부터 믿을수 없습니다. 또 그만 한 담보로 대군을 동원할수도 없습니다.》

《뭐야?! 그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겐가?》

《순라군들이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남의 집에 달려들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인집이 이미 적들과 내통하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홍정식이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그러쥐였다. 그에 대하여 백산은 부릅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렇게 마주보는 두사람의 눈에는 전번 닭서리때의 감정도 함께 어울린 분노가 서려있었다. 그때 김복한이 다시 나섰다. 그들을 다시 싸움에로 몰아가고싶지 않다는 심정이였다.

《좋은 생각이 있수다. 부대를 움직이기 전에 내가 직접 찾아가 관

찰사를 만나보지요.》
《관찰사를? 과연 그가 통할수 있을가?》
《만나보면 알지요. 여하튼 그가 나를 어쩌지는 못할터이니까요.》
춘영이 듣기에도 구미가 당기는 말이였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성공은 못하더라도 관찰사의 본심만이라도 알아온다면 그게 어디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몸을 조심해야 하네. 이왕이면 의병을 몇십명 달고가게. 만약을 생각해서…》
《그에 대해선 조금도 걱정을 마십시오. 그가 나를 군수로까지 내신했던 사람인데 믿어야지요. 만약 이 일이 성공하면 창의대장님께 잘 말씀해주어야 합니다. 이 복한이 혀를 잘 놀려서 된 일이라구 말입니다.》
그는 마치 벌써 일이 결정되기나 한것처럼 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자기 부대에서 가장 믿음직한 다섯명을 선발하여가지고 충주로 떠나갔다. 리춘영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그의 부대 50명 전원을 멀리에서 뒤따라보냈다. 실패하여 추격을 당하는 경우 성밖에서 놈들을 제압하게 하라고 해서였다.
제천에서 충주까지 50리길을 말을 타고 달려간 그는 멀리 성이 바라보이는 산굽이에서 대기하며 먼저 두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밝은 대낮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두어식경이 지나 성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들이 관찰사를 만나보았는데 그가 몹시 반가와하며 오늘 밤 초경에 성문을 열어주도록 하겠으니 선화당으로 오라고 했다는것이였다.
역시 반가운 소식이였다. 날이 어둡기를 초조하게 기다릴수 없어서 성밖의 초라한 객주집에서 우선 한잔 마시며 시간을 끌다가 초경이 되기 바쁘게 성밑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약속대로 성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몇사람이 마주 나왔다.
《가십시다. 지금 관찰사님께서 기다립니다.》
앞선 사람이 말해서 소리없이 뒤따랐다. 그렇지 않아도 그에게는 모든것이 눈에 선했다. 바로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자기가 살던 고장이 아닌가. 선화당 거기에서만도 그는 김규식과 수십번 상종을 했고 몇번은 취중에 춤도 함께 추었다. 저 선화당 높은 대뜰우에서…
그러나 그의 이러한 홍그러움은 선화당 그 넓은 안뜰에 들어서면서

부터 불안에로 이어졌다.

사방에 초불과 초롱들이 휘황하게 빛을 내며 매달려있는데 그것은 전에 없던 일이였다. 있었다면 관찰사가 특별히 연회를 차리거나 공사로 저녁이 늦어질 때 어쩌다 생기는 일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넓은 선화당안뜰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불빛만 휘황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잠시 주저하는데 대문에서 같이 온 사람은 다 떨구고 복한이 한사람만 들어가라고 했다. 어쨌든 관찰사를 만나야 하겠기에 마당을 가로질러 대뜰우로 올라가려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그러잡고 잠간 기다리라고 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관찰사를 만나러 왔다. 놓지 못하겠느냐?》

복한이 격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분합이 열리며 김규식이 나타났다.

《우제(복한의 호), 자네가 왔나. … 얘들아, 그만해라.》

그가 거드름스럽게 걸어나와 마루우에 섰다. 뒤따라 여러 사람들이 쓸어나오는데 다 복한이 알지 못할 사람들이였다.

보다 놀라운 일은 다음에 일어났다. 규식의 옆에서 환한 전지불빛이 쏟아져나오며 복한의 전신을 비쳤던것이다. 그가 손으로 눈을 가리우고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으나 알수가 없었다.

《관찰사님, 이게 무슨 일이요. 왜 나를 죄인취급하는거요?》

복한의 분기가 순간에 살아났다. 그런데 반대로 김규식은 껄껄거리며 재미스럽게 웃었다.

《좀 참으라구. 미안은 하네만 그렇게 하고 잠간 할말이 있네. 뒤를 돌아보라구. 형편을 알만 하잖은가.》

무심결에 고개를 돌렸다.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흠칫 떨렸다. 뒤뿐만아니라 량옆에까지 왜놈병정들이 총을 들고 빙 둘러서있었던 것이다.

이어 마루우에서 우리 말이 아닌 전혀 색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끝나자 서툴기는 하나 조선말이 분명한 다음 목소리가 들렸다.

《듣거라. 이분은 조선주둔 일본군토벌대장 이다찌중좌님이시다.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제천의병대에 대하여 아는대로 다 말하라고 하신다.》

복한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김규식에게 속았다는 그것과 함께 드

디여 왜놈과 마주쳤다는 반발심이 솟구쳤던것이다. 얼핏 떠오른것은 언제인가 린석에게서 들었던 이다찌라는 놈과 이름이 같다는것이였다. 그때 린석을 향해 겨누었다던 총구, 이놈이 바로 그놈이 아닌지…

《우제, 이제부터 자네가 중좌님의 요구대로 응하면 용서는 물론 많은 선물과 함께 가까운 친구로도 될수 있고 그렇지 않다가는 일이 어떻게 되겠는지는 나도 알수 없네. 내가 그대와 모르는 사이도 아닌만큼 어물쩍 넘길수도 없는 일이여서 미리 충고를 하네만 꼭 이분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게.》

《무엇을 말하라는것이냐?》

《다른게 아니구 지금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의병이 일어나는것을 매우 시끄럽게 여기고있다. 그들은 되도록 조선과 싸우지 않고 합방을 하여 조선도 일본과 같은 문명국으로 만들자는것이야.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자꾸 떠들며 소란을 피우니 그들이 뜻대로 일할수 없지 않은가. 나만 해도 그런 일이 우리 도의 경내에서 일어나는것이 시끄러울뿐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일로 되고있거던. 하물며 자네와 같은 사람이 앞장엘 서다니.

류린석이로 말해도 그는 일개 촌선비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에게 세력이 있나, 재산이 있나, 그렇다고 세속에 밝기는 한가, 촌구석에서 붓글이나 쓰던게 무엇을 안다고 일본사람들과 맞서겠다는 거야. 그를 따라다니는 자네는 또 뭐구?》

《의암선생을 욕하지 마시오. 그는 나에게 처음 붓을 들어 글쓰는 법을 배워주었고 세상의 리치를 깨우쳐준 스승이시오.》

《그런 우매한 사람을 스승으로 섬기고있으니 자네도 몽매해질수밖에. 자네는 의병대에 들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죽었어야 해.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의병을 해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면 용서받을수 있어. 내가 봉서에 밝혔던대로 무혈입성을 하겠다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뿐아니라 자네는 큰 상을 받을수 있네.》

《나도 너와 같은 왜놈의 개가 되란 말이냐?》

복한이 여기서 더는 참지 못하고 벼락같이 소리쳤다. 김규식이 잠간 얼떠름했다가 계속했다.

《사람은 세속에 밝아야 해. 아무리 힘있고 재간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세속을 따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고 잘 살수도 없어. 그런 의미에서 자네는 참 우둔하단 말이야.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것도 많은데 세속에는 왜 그리 어둡나?》

《야, 왜놈의 개야, 내가 네놈에게 속은게 분하다. 네놈따위가 감히 누구에게 훈시냐. 당장 그 더러운 개주둥아리를 닥쳐라!》

복한이 분격하여 길길이 뛰였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고 긴장도 했으나 일단 놈의 정체를 안 다음부터는 무서운게 없었다.

《네가 임금의 신임받는 신하로서 평시에는 만사람앞에서 곧잘 충군충의에 대하여 떠들더니 순간에 왜놈의 개로 변했구나. 그게 세속에 밝아서 그렇게 되였다는것이냐?》

이제는 김규식도 참지 못했다. 복한이만 잘 리용하면 의병대의 해산을 용이하게 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던것인데 어림도 없었다.

《무엇이? 이놈, 내가 임금의 신임을 저바렸다구? 저런 고현 놈 보았나?》

《개소리 말아. 너는 임금이 보낸 〈애통소〉를 보지 못했느냐. 개도 설사 자기 주인이 빌어먹는 거지라 할지언정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자기 국모를 죽이고 임금까지 죽이려 하는 저따위 오랑캐놈의 사타구니에 붙어?! 야, 이 천하에 개보다도 못한 놈아.》

옆에서 통역이 하는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이다찌가 김규식에게 뭐라고 했다. 이슥하여 통인아이가 종이장과 붓 하나를 들고 복한의 앞으로 뛰여내려왔다.

《더 여러말 할게 없으니 네가 거기에 써라. 어느날 어느때까지 너의 대장 류린석이라는 놈과 여러 두목들이 여기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말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는 물론 같이 온 다섯놈도 모두 살려줄수 있다.》

규식이 이렇게 말하고 여유라도 주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때에도 복한은 두려움을 몰랐다. 물론 그는 자기뿐아니라 지금 어디엔가 갇혀있을 다섯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건 아니다. 그럼에도 생각은 자기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또 뒤에서 조종해온 김규식과 이다찌놈에 대한 분노로 참을수가 없었다. 그는 통인아이가 내미는 종이장을 버럭 당겨 두손으로 박박 찢어던졌다.

《이다찌놈아, 우리 조선사람이 다 저 규식이와 같을줄 아느냐. 봐

라. 나는 개밑구멍을 핥으면 핥았지 더러운 왜놈과는 입을 맞추지 않는다. 설사 우리 의병대전체가 다 죽을지언정 네놈의 말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것이다.》

하얀 종이장이 눈덩이처럼 흩어졌다가 그의 발밑에 짓이겨졌다.

바로 그 순간 이다찌놈의 허리에서 시뻘건 불빛이 번쩍하더니 그대로 빨래줄처럼 길게 뻗으며 복한에게로 날아갔다. 한번, 두번, 세번…

그러나 복한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소리도 듣지 못했다. 머리속에 떠오른것은 류린석대장이 빨리 와야 하겠는데, 그에게 이다찌놈의 본심을 알려줘야지 하는 막연하고 애매몽롱한 생각뿐이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그와 함께 갈이 왔던 다섯사람들의 시체가 성문밖에 주런이 매달려있었다.

2

린석은 말을 때려몰았다. 바로 며칠전에 눈물을 뿌리며 갔던 길을 오늘 또 눈물속에 되돌아오는것이다. 금방 상가를 당해 상복을 그대로 입고있는데 또 새로운 상가가 났던것이다.

복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살같이 린석에게 날아갔다. 그 소식을 듣자 린석은 참지 못하고 돌아섰다. 무슨 일에나 가림없이 물덤벙술덤벙 나서기를 잘하던 복한이였다. 성미가 급하여 사람들의 웃음도 사고 그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는 그였지만 이제 보면 그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였다. 사람의 흠을 보고 그 장점을 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는 누구에게 꾸밈도 거짓도 모르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였다. 설사 행동이 거칠고 덤비며 말을 망탕 하더라도 조금도 숨김이 없기에 좋았다. 그것이 그대로 복한이였다.

한것을 왜놈들이 죽였다. 저 이다찌란 놈이, 그때 자기에게 권총을 빼들었던 바로 그놈이였다.

(내가 잘못했어. 떠나지 말았어야 했을 부대를 떠난것이 잘못이였어. …)

머리속에는 몇번이고 이런 생각이 고패쳤다. 자기가 있었더라면 결코 복한을 성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을것이였다.
뼈저린 후회가 소식을 받자마자 돌아서게 하였다. 이제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해 리씨가 앞을 막았다.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가 서둘러 문지방을 나서는데 안해가 문밖에 지켜섰다가 하는 말이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어딜 가는지 알고?》
《전장엘 가지 않습니까. 거기엔 제가 할일이 없나요?》
《정신이 나가지 않았나?! 가만히 입을 닫히고있소.》
대번에 욱박질렀다. 그렇게 버릇이 되여온 안해였다. 그만큼 자기말에도 성실했다. 이번 상가때에만 하여도 그는 집안의 대소사를 다 맡아하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곡을 어느 한번도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린석은 어머니의 사망이 그의 잘못때문이라고 푸념을 했다. 역시 녀편네에 대한 멸시와 무시에서 오는 굳어진 버릇이였다.
《당신께선 늘 녀자는 녀필종부와 삼종지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다면 제가 당신이 없는 빈집이나 지키고 앉아 무엇을 하겠습니까. 같이 가서 뒤일을 봐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망신시키지 못해 안달이 났나. 세상에 녀편네를 데리고 전장엘 떠다니는 사내가 어디 있다구. 두번다시 입밖에 내지도 마오.》
이렇게 눌러놓고 떠나온 그였다. 이제와서 보니 그것도 후회가 되였다. 어머니도 남편도 없는 넓고 너렁청한 집에 밤낮으로 혼자 있을 그의 정상이 가긍해보였던것이다. 그것이 또한 복한의 죽음이라는 슬픔우에 또 한차례의 눈물을 쏟게 하는것이였다.
이렇게 그가 제천에 도착하니 기다리고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려 곡을 했다. 상기도 벗지 못한 때에 그가 또 상주가 되여 나타난데 대한 슬픔이였다.
지금 린석은 꺼칠한 베고의적삼에 베두루마기, 베감투, 허리에 휘여감은 왕바같은 굵은 왼새끼, 역시 왼새끼로 엉성하게 얽은 짚신발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런 차림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안되게 된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랴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때에 이르러 린석의 생각은 달라졌다. 그는 동헌에 들어서는 즉시 자기부터 눈물을 거두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일으켰다.
《일어나라구, 일어들… 복수를 해야지. 지금은 눈물이나 쥐여짜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는 군수가 앉던 그 교의에 좌기했다.
《권총을 쏜 놈이 이다찌였다지. 그놈을 기어코 복수해야겠소.》
《성안에 있던 복한의 친구들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도 그의 죽음에 치를 떨고있습니다.》
린석의 물음에 춘영이 대답했다. 린석이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일을 놓고 누구보다 자책이 큰 춘영이였다. 그러나 린석은 그것을 따지지 않았다.
《우제가 장하게 갔네. 그는 우리가 저 봉대에서 다진 맹세를 잊지 않았네. 이제 그 원쑤를 기어이 갚아야 하는것이 우리의 임무일세.》
《알겠소이다-》
린석의 말에 모든 의병장들이 머리를 숙여 대답했다.
복수, 그것은 이미 린석이하 모든 의병장들과 의병들의 가슴에 새겨진 표적으로 되였다. 그날을 을미년이 지나고 병신년이 시작되는 새해의 첫 초사흗날로 정했다.
그날이 다가오기 전 바로 정월초하루날에 눈이 내렸다. 섣달 그믐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함박눈이 새해의 첫아침까지 잠시도 멈출줄 모르고 쉬임없이 쏟아져내렸다.
태백산줄기를 분수령으로 하는 강원도와 충청도지방은 눈이 내리는 량이 많고 내리는 족족 쌓여 겨울을 나는것으로 유명하다. 하여 이곳 사람들은 일단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박우물이나 이웃집까지 새끼줄을 늘였다가 그것을 휘둘러 구멍을 내거나 줄을 따라가며 길을 찾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사이에 눈에 묻히여 마을이 홀딱 없어지고말기때문이다. 특별히 많이 내릴 때는 열다섯자(5～6메터)씩이나 쌓인다. 눈에 묻히지 않는것은 오직 박우물뿐이다. 그래서 꿩이 날아와 자주 우물에 빠지기도 한다. 때로는 노루란 놈이 그속에 빠지거나 소외양간 지어는 남의 집 부엌으로 뛰여드는 때가 있다. 그래서 이지방 사람들은 눈만 오면 노루사냥을 하는데 그때에는 어느 집에서나

노루를 통채로 부엌장마루대에 달아매놓고 겨우내 먹는다. 당장 먹을것이 없으면 꾸어먹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집에서나 달라는대로 베여준다. 그만큼 갚아주기가 쉽기때문이다. 《노루뒤다리 꾸어먹듯 한다》, 《노루뒤다리처럼 생각한다》는 이 지방 속담도 그래서 생겨난것이다.

바로 그러한 날에 김백산은 지휘소로 정한 농가에 엎드려 충주성싸움에 대한 구상을 하고있었다. 류린석대장이 그날 어떻게 해서라도 김규식과 이다찌놈을 잡아 복한대장의 복수를 하자고 선언했던것이다. 어떻게 하면 잡을수 있을가. …

하는데 밖에서 웬놈의 짐승이 꽥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며 오째가 나타났다.

《선봉장님, 한놈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가요?》

오째가 말하였다. 꽥꽥거리는 소리는 그의 어깨에 둘러멘 노루란 놈이 내는 소리였다.

《어떻게라니, 각을 떠서 부대들에 나누어주게.》

《아닙니다. 통채로 군수장님께 보내야 하지 않을가요?》

《군수장이라니, 거긴 왜?》

백산이 의아해하는데 오째는 오히려 새물새물 웃으며 딴전을 피웠다.

《왜라니요. 그가 군수장이니까 그러지요. 그리구 또 미영이 그의 따님이 아닙니까.》

그제서야 짐작이 갔다. 그것이 대뜸 백산의 화를 돋구었다.

《내가 말하지 않던가, 의병들에게 나누어주라고?!》

《그건 따로 사냥을 조직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얼마든지…》

《말을 듣지 않을텐가. 당장 호패를 몰수하겠다.》

한마디에 기가 쑥 들어갔다. 호패를 빼앗는다는것은 곧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는 말없이 물러가고 백산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싸움이 어려울것이다. 왜놈들은 기관총과 신식보총으로 쏘아댈것이고 여차하면 대포를 갖다댈수도 있다. 공주성싸움에서도 바로 그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지금은 눈

까지 와서 정황이 더 어렵게 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에 문이 다시 열리며 오째가 나타났다.
《선봉장님, 새해문안인사가 도착했습니다. 나와서 받아주십시오.》
백산이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하다가 그만 앉은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도착했다는 새해문안인사차가 다름아닌 미영이였던것이다.
키를 넘는 눈속을 헤쳐오느라 길게 입은 솜덧저고리는 물론 치마와 남바위까지 홈빡 눈에 묻혀있었다. 다만 홍조를 띤 얼굴과 먹물을 뿌린듯 유표하게 대조되는 까만 눈만이 그가 알고있는 미영의 모습그대로였다.
손에는 둥그런 쟁반을 싼 보자기가 들려있었다.
《새해문안인사를 드리옵니다. 부디 귀한 몸 건강하시여 나라위한 싸움에 큰 공을 세우기 바라옵니다.》
백산이 미처 어쩔새없이 미영은 보자기를 풀고 커다란 놋잔에 술을 부어 그앞에 내밀었다.
잔에는 넘치는 술, 쟁반에는 옹근 꿩이 한마리, 눈처럼 흰 설기가 몇모 그리고 이 산속에서는 보기 힘든 어물까지 차례로 놓여있다.
백산은 술을 들기도 전에 취한듯 자기를 잃어버렸다.
《미영씨, 이렇게 올바에는 차라리 문안하인이라도 할것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하인이라도 보낼것이지 하는 소리다. 량반집들에서 새해날 아침이면 저저마다 하녀들을 곱게 단장시켜 친정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대신 보낸다는 말을 들은 생각이 나서였다.
그러나 그렇게 한잔 들이키고났을 때 처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때에야 그에게 아무것도 보내준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봉장님,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오째가 다시 나타났다. 어깨에는 아까 그 노루가 얹혀있었다.
《어딜 간단 말인가?》
《인사가 있어야지요. 벌써 선수를 떼웠는데요.》
하고는 다른 말을 할 사이도 없이 눈속으로 사라졌다.
을미년의 마지막날 그리고 새해 병신년을 맞으며 내리는 눈이 무엇인가 희망을 안겨주는것이 아닌가. 국치를 당했던 을미년의 분노를 가

시고 새해에는 분명 무엇인가 달라지는것이 있을상싶다.

여하튼 그해에는 쏟아지는 눈에 열뜬 의병들이 모두 떨쳐나 노루사냥, 토끼사냥, 꿩사냥으로 설을 즐겁게 보냈다. 과세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것)를 잘해야 그해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해에는 무엇인가 달라지는것이 있는것 같다.

계획대로 충주성공격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내린 눈으로 사방은 눈천지로 화했다. 어디를 가도, 어디를 보아도 눈이다. 그러나 의병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충주로 향하는 한길에 모여들었다. 이윽하여 전 대오가 충주로 향할 때 두텁게 쌓인 눈은 수천의 발길에 지심이 울리듯 웅글게 떨었고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그대로 넓은 대로로 활짝 열리군 하였다.

그렇게 제천에서 충주까지 가는동안 누구도 싸움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몰랐다. 그 의병들 매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생각들은 저마다 다를수 있으나 공통된 하나의 심리만은 변함이 없었으니 그것은 나라의 원쑤인 왜놈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특히 이다찌놈과 김규식이놈을 그대로 둘수 없었다.

이러한 복수심은 지금 대오의 앞장에서 말을 타고가는 류린석창의대장의 이름과 더불어 더 확고히 굳어져있었다. 그가 이미전부터 위정척사론의 주창자의 한사람이며 벌써 여러차례에 걸쳐 전국에 격조높은 격문을 날린 반왜반침략의 선각자가 아닌가. 그런 그가 지금 상복을 입고 전장에 나섰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신성화된 인물로 떠받들리기에 충분하다.

세월이 지나면 후대들이 그때 류린석의 부족점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론할수 있다. 그러나 봉건유교교리와 도덕관념의 무제한한 구속과 자신이 평생 신념으로 간직해온 주자가례(봉건적례의범절에 관한 축문 또는 그 규정)의 요구를 박차고 과감히 상복을 입은 몸으로 전장에 뛰여들었다는 그자체만으로도 영웅으로 떠받들리기에 충분했다. 그것이 또한 수천명 의병들의 사기를 돋구어주는 고무적힘으로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설상강행군으로 충주에 도착한 제천의병대는 즉시 성을 포위하고 왜놈들이 가설해놓은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도로들을 차단했다.

린석은 성에서 얼마간 떨어진 한 민가에 지휘소를 정하고 전체 의

병장들을 모이게 했다.

거기에서 먼저 한마디 연설을 했다.

《제장들은 들으라. 마침내 우리는 그렇게 바라던 왜놈들과 첫 싸움을 벌리게 되였다. 지금 저 성안에는 왜놈 〈토벌〉 대장 이다찌놈과 그 졸개들 그리고 왜놈에게 붙어서 나라를 파는 역적 김규식놈이 있다.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는 그대들이 잘 알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놈들을 처단하며 성을 탈환함으로써 우리 겨레는 살아있으며 왜놈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해야 한다. …

오늘은 병신년 새해의 섣달 초사흗이다. 그러나 의기를 든것은 을미년의 저 국모가 살해된 그때이다. 이것을 잊지 말자. 국모의 원쑤를 갚고 국치를 씻자고 일어났던것이다. 여기에는 기어이 원쑤 왜놈을 내쫓고 내 나라를 굳건히 지키자는 많은 뜻이 담겨져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저 뽀족봉에서 다졌던 맹세를 엄숙히 지키여 죽기로써 싸워이겨야 한다. …》

그의 말이 끝나자 여러 의병장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여 다시한번 맹세를 다졌다.

충주성은 충청도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래전부터 그 위세를 자랑하고있는 성이다. 둘레가 3천 650척이요 높이가 8척으로서 그리 크다고는 볼수 없으나 성전체가 정교한 돌로 쌓여있고 허줄한데가 전혀 없어 좀처럼 달라붙기 힘들게 되여있다. 그것을 미리 내탐한 의병대에서는 부대마다 사다리를 수십개씩 준비하여 일제히 성벽에 달라붙게 하였다.

미정(낮 2시)에 창의대지휘소에서 대평소의 높고 긴 신호로 첫 돌격신호를 내렸다. 그러자 각 부대들에서 같은 소리로 화답을 하고 뒤따라 취타악기들이 진동을 하면서 싸움을 고취하였다. 성을 둘러싼 주변의 산야들이 일시에 발칵 뒤집혔다. 의병들이 일시에 와와 소리를 지르며 성에로 육박해갔다. 기발들도 일제히 성을 향하여 기웃하고 달려나갔다.

그 순간 린석은 찌르는듯 한 충격으로 가슴이 달아올랐다. 그토록 벼르고벼르던 왜놈과의 싸움이 마침내 시작된것이다.

이겨야 한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 첫 싸움의 승패에 따라 온 나

라의 의병들도 일어나는가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결정된다. 나라의 총리방에까지 뛰여들어 총을 휘두르던 저 이다찌놈이 어제는 나의 제자이며 문우이기도 한 복한이를 죽이였다. 어떻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내 기어이 침략자를 징벌하여 비명에 먼저 간 혼들을 위로하리라.

린석은 마을앞 등성이에서 되도록 전장가까이로 나가 싸움장면을 주시하였다.

싸움의 승패는 매 의병들이 어떻게 싸우는가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보다는 그것을 지휘하는 장관들에게 많이 달려있다. 그만큼 그는 이미 왜놈과 싸움에 숙달된 서상렬이나 김백산이들과 충분히 토의를 진행하였다.

지금 보건대 일이 뜻대로 되는것 같다. 모든 부대들이 사방에서 거의 같은 속도로 성을 향해 조여들고있다. 그럴수록 공격을 재촉하는 고취대가 기세를 올리고 기발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펄럭인다. 그에 비하여 눈덮인 산야에 외로이 솟은 성은 죽은듯 조용하다. 멀리에서 보면 성은 의병들의 파도에 금방 덮치일듯 납작하게 긴 고리모양으로 누워있다.

의병들이 활 두어바탕거리에까지 접근하였다. 그러자 린석의 마음은 더 긴장해졌다.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의병들은 쏠수가 없고 적들이 쏘기에는 가장 적중한 거리인때문이다. 화승총을 쓸수는 있으나 공격서렬에서는 사용이 불리하다. 화승총 한방을 놓자면 주머니에서 진흙을 꺼내여 이겨서(녹여서) 약통실안에 다져넣고 거기에 화약을 장진한 다음 다시 진흙으로 구멍을 막고 총신강안으로 철알을 한줌 쏟아넣은 다음 진흙속으로 박아넣은 쑥(혹은 취)심지에 부시를 쳐서 불을 달고 그것이 타들어가 화약에 불이 달리기를 기다렸다가야 대방을 조준하는데 그러는 동안이면 보총으로 그를 몇번이나 소멸할수 있는것이다. 의병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약점들이 지금 린석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있는것이다.

바로 그때다. 갑자기 어디선가 철망치로 무엇을 급속히 두드리는듯 따따따따 하는 소리가 들렸다. 린석이하 뒤에 따라선 춘영이나 용규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소린가 했다. 순간이 지나서야 기관총소리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이어 여기저기서 귀청을 째는 보총소리들

이 터져올랐다.

린석은 긴장한 마음으로 성의 제일 남쪽 정면을 맡고있는 백산의 부대를 바라보았다. 첫 사격때에 앞서가던 몇사람이 눈우에 쓰러졌다. 사방으로 눈가루들이 뿌려지고 벌 한가운데 선 나무가지들이 아츠러운 비명을 지르며 가지들을 흩날렸다. 그가운데 백산이 여기저기 뛰여다니며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있었다. 분명 눈우에 엎드리라는것일것이다. 그러나 난생처음 총구앞에 나서보는 많은 의병들은 미친듯 울부짖는 기관총탄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것만 같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뛰였다. 이러한 현상은 백산의 부대뿐아니라 거의 모든 부대들에서 다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잠간, 마침내 대부분 의병들은 눈을 파고들어가 그속에 몸을 피했다. 순간에 다시 하얀 눈뿐인 벌 한가운데로 누군가 한사람이 우뚝 일어섰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알지 못할 소리로 몇마디 웨치더니 이어 화승대를 쳐들고 성을 향해 다가갔다.

《…이 쪽발이 왜놈들아, 무섭지 않다. 네놈들이 뭐길래 내 나라 땅에 들어와서… 모조리 쳐죽이고말테다. 대가리를 내밀지 못하겠느냐…》

땅! 하고 그의 손에서 화승대가 터졌다.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도 작고 외로왔다. 성우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잠시후 조용해졌던 성우에서 또다시 기관총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그는 나아갔다.

《나오라, 이놈들. 모조리 쳐죽이고말테다.… 대가리를 내밀어. 왜 움쩍 못하는게냐, 무섭지…》

바로 그 순간에 울부짖던 기관총탄 하나가 그의 몸에 맞았다. 그와 함께 피가 솟구쳐나오면서 주변의 눈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그때까지도 부상자는 끄떡하지 않고 몇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하다가 하기 싫은 일에 억지로 끌리듯 그 자리에 서서히 쓰러졌다.

그것을 바라보는 린석의 눈에 불이 일었다. 그뿐아니라 눈속에 엎드려 전방을 감시하던 모든 의병들이 분노에 치를 떨었다.

백산이 장총을 뽑아들고 기관총수를 겨누었다. 그때까지 상반신을 드러내놓고 제노라 하고 마음대로 휘갈겨대던 기관총수놈이 단방에 얻어맞고 성아래로 곤두박혔다. 의병들이 만세를 부르며 달려나갔다. 그

러나 그것은 잠간. 또다시 짖어대는 기관총탄에 또 몇명이 쓰러졌다.
백산이 다시 그놈을 쏘았다. 그러나 혼자서는 끊임없이 사수를 갈아대고 위치까지 바꾸어가는 놈들을 당할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에 전부대에 퇴각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였다. 이어서 의병장들은 지휘소에 모이라는 전령이 도착하였다.
명령을 받고 백산이 방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모든 의병장들이 모여있었다. 류린석이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그를 보고 의미있게 눈인사를 보낸 다음 좌중을 향하였다.
《여러 의병장들과 의병들이 모두 잘 싸웠네. 그러나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안될것 같네. 그래서 방략을 좀 달리 하자 하니 잘 알아두었다가 그대로 해야 하겠네.》
먼저 그가 이렇게 말하고난 다음 주용규가 나섰다. 역시 무관다운데가 있는 그는 일체 설명을 피하고 필요한 몇마디만 하였다.
《무모한 희생을 피하고 전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고 하오.
첫째, 모든 의병부대들은 방금 전진했던 계선까지 접근하여 일체 접전을 피하면서 눈으로 흉장만 높이 쌓고 대기하며 고취악대와 기발만 계속 공격자세를 취하여 적들을 긴장시킬것!
둘째, 서상렬의 보총수 서른명을 다섯명씩 여섯조로 나누어 성의 전면에 분산배치하며 그들이 눈전호에 대기하고있다가 기관총이 나타나는데 따라 집중사격을 퍼부어 완전제압할것!
셋째, 김백산선봉부대는 기관총이 제압되는데 따라 쐐기형으로 남먼저 성에 돌입하며 기어코 남문을 열어제낌으로써 전체 부대들의 공격에 돌파구를 열것.
넷째, 대기하고있던 모든 부대들은 성문이 열리는데 따라 일거에 공격을 단행하여 신정(낮 4시)까지 기어이 성을 점령할것!》
그이상 다른 말이 없었다. 의견을 물어보았으나 모두가 좋다고 할뿐 반대의견이 없었다.
부대가 다시 진지를 차지하려고 흩어져갈 때 린석이 백산을 불러세웠다.
《싸움을 잘하라구… 노루고기를 잘 먹었네.》
느닷없이 그가 말했다. 백산은 영문을 알수 없어 멍청히 섰다. 싸

움을 잘하라는 말은 리해할수 있으되 노루고기는 여기에 무슨 상관인가. 이 아닌 때에…

《예, 그것은 제가 아니라…》

그는 얼결에 말을 뗐다가 그만두었다. 그 말을 하자면 오쨰와 함께 미영의 말을 꺼내야 하겠는데 그야말로 아닌 때인것이다.

《알고있네. 하지만 오쨰도 보낼만 하니 보냈지.》

린석이 또 의미있는 말을 하고는 백산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싸움을 잘하라구. 이번 싸움변경도 자네를 보고 힘을 얻어 한 일일세. … 자네가 기관총수놈을 쏴없앴지? 그놈만 잘 제압해도 성은 문제없네. 기어이 성문을 자네가 열어야 해!》

그가 또 의미있게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두번째 공격이 시작되자 백산의 기세는 곱으로 올랐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린석이 왜 싸움을 잘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했는지, 전혀 당치도 않은 때에 노루고기에 대한 말은 왜 꺼냈는지 알수 없었다. 하면서도 곱절 용기를 낸것은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신심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적들은 우리의 고취악대가 고아대는데 따라 거기에 대고 미친듯이 사격을 하였다. 그 틈을 타서 서상렬의 보총수들은 성가까이에 접근하여 든든히 눈전호를 파고 기관총에 대한 조준사격을 할수 있게 되였다. 그에 따라 기관총소리도 점점 뜸해지고 그 틈을 타서 백산의 부대는 성가까이까지 바싹 다가갈수 있었다.

다음부터 조총수들은 물론 궁수들까지 성가퀴를 향해 조준사격을 시작하였다. 수백자루의 조총과 또 그만한 수의 화살이 일시에 성우로 향하자 놈들은 성가퀴밖으로 얼굴도 내밀지 못했다. 그 틈을 타서 수십개의 사다리가 성벽에 걸리고 거기에 의병들이 달라붙었다. 그제서야 대가리를 내민 적들이 총탁과 총창을 휘둘러댔으나 때는 늦었다. 그보다 더 길고 예리한 날창과 칼들이 우죽뿌죽 솟아올라왔던것이다.

그렇게 성우에 남먼저 올라선 백산이 막아서는 놈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발로 차면서 성문쪽으로 접근해갔다. 뒤따라 올라온 오쨰와 다른 의병들이 그의 후위를 담당하며 새로운 전역을 펼쳤다. 왜군들은 점점 쫓기고 밀리우며 뒤여져갔다.

그때 어디선가 한무리의 군사들이 새로 나타났다.

《우리는 감영군이요. 당신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싸움을 거부하고있었소.

김복한나리의 일도 잘 알고있소. 우리를 받아주시오. 왜놈들과 싸우겠소.》

《싸우자, 왜놈들을 치자!》

누가 한마디 하자 그들이 일제히 합세했다.

성문을 지키고있던 왜놈들이 그들을 향해 총질을 했다. 그러자 독이 오른 군사들이 벌떼처럼 소리를 지르며 그리로 달려갔다. 총질을 하던 왜놈군사들이 그들의 손에 맞고 발에 채우며 순간에 쓰러졌다.

백산이 다가가자 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백산이 그들을 하나하나 잡아이끌어주었다. 그리고 이미 빗장마저 벗겨진 성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거기로 의병들이 쓸어들었다. 백산이 《남풍루》라고 쓴 문루에 올라서보니 드넓은 눈판에 널렸던 의병들은 거의나 보이지 않고 성에 달라붙어있었다. 성벽우에서는 벌써 감영군과 의병들이 합세하여 동문인 《녕영루》로 달려가고있었다. 거기에서 왜병들이 총질을 하는데 격분한 군사들이 일시에 돌진하는것이다.

마침내 그곳의 적들도 완전히 구축되고 동문마저 열리였다. 성은 완전히 의병들에 의해 장악되였다. 거리로 사람들이 쓸어나오고 린석이 말우에 높이 올라 성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 만세를 불렀다. 저 사람이 류린석인가. 지금 상복을 입고 말우에 올라앉은 체소한 저 사람이 그렇게도 자주, 그렇게도 격렬한 열정으로 왜놈들을 반대하여 일어나라고 호소하던 사람인가 하고 저저마다 보고싶고 만세를 불러주고싶어하는것이다.

백산도 어느덧 환영군중의 한사람이 되였다. 그를 바라보는 눈에 어째서인지 눈물이 고여나왔다.

왜서일가. 그가 의병장이래서? 아니면 상복을 입은 몸이래서일가…

그것은 아니였다. 원인은 알수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처음 그를 제천의 향교에서 그리고 보은의 속리산속에서 만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그때 그들을 무턱대고 욕했던 일들이 후회된다. 그의 견결한 애국심과 반일정신을 보지 못하고 량반일반에 대한 증오의 감정만을 토했던것이다.

이제는 하나의 마음으로 통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의 한 궤도에 올라섰다. 그러자 그것이 보다 더 가까운 혈육의 관계처럼 그의 마음을 이끌어갔다. 부모가 없는 그에게는 늘 자기를 친자식처럼 이끌어줄 혈육이 그리웠다. 지금의 눈물도 그래서 나는것일가. 아까 느닷없이 싸움을 잘하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것도 자기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서 한 말이 아닐가. 느닷없이 노루고기를 잘 먹었다는것은 무슨 뜻에서 한 말일가.

그의 명령에 더 복종하고싶다. 이제 더 큰 공을 세우라면 목숨이라도 걸고 나서고싶다. 이제라도 그앞에 뛰여나가 나는 이렇게 싸웠노라고 어리광이라도 부리고싶다. 아, 나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때 누군가 갑자기 팔을 부여잡았다. 오쨰였다.

《선봉장님, 그놈들이 달아났대요. 〈토벌〉대장놈과 관찰사놈이 저 공신루(북문)로 해서 방금전에…

이제라도 빨리 추격하면 따라잡을수 있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벌써 사람들속을 헤쳐가고있었다. 왜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는지 알수 없다. 그저 성을 빼앗았다는 거기에만 취해있은것 같다.

그는 얼핏 만난 사람에게서 무작정 말을 빼앗아타고 북문쪽으로 달렸다. 휑하니 열린 성문에는 벌써 아무도 없다. 눈우에 찍힌 무수한 발자국과 수레바퀴자국만 놈들이 방금전에 성을 빠져나갔다는것을 짐작케 했다.

다시 말을 때려몰아 산굽이를 몇개 돌아서자 한무리 사람들이 보였다. 마주치는 저녁해빛에 눈이 부신데 그 사이사이로 몇마리의 말과 마차들이 나타났다사라졌다 했다.

그들사이가 점점 좁혀지자 불시에 총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그를 알아보고 쏘는것이였다.

백산도 총을 찾았다. 그러나 몸에는 총이 없었다. 아까 성에 올라서면서 보총대신에 칼을 들었던것이다. 총소리에 놀란 말이 앞발을 추켜들며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두렴없이 박차를 가했다. 그러자 눈앞에 관찰사 김규식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가 비록 본적은 없었지만 몇명의 관리들과 장교들속에 휩싸인 모습이 틀림없이 그라고 단

정했다.
놀라운것은 그들에 앞서 또 한무리의 도망군들이 내빼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은 왜놈의 무리였다. 싯누런 군복차림에 번쩍거리는 왜칼에 박차에 가죽띠를 두른 색다른 장식이 그것을 짐작케 했다.
옳았다. 행렬이 산굽이를 도는 동안 온몸이 그대로 드러난 이다찌놈이 보였다. 가슴에 누런 줄을 드리운 군복을 입고 류달리 싯누런 견장과 령장이 어깨와 목에 붙은 새까만 코수염쟁이였다.
보다 놀라운것은 그 마차뒤를 따르는 또 다른 마차에서 와다나베대위를 알아본것이였다. 그놈이 마차에 앉아 기관총수놈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총을 쏘아대고있는것이였다.
지금 놈들은 파렴치하게도 관찰사일행을 저들의 방패막이로 뒤따라세우고 그 사이사이를 노리며 자기에게 총탄을 퍼붓고있다. 몸에 총이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있다면 저가운데서 피맺힌 몇놈이라도 잡아제낄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총이 없다. 그럴수록 눈에서는 더 불이 일었다.
마침내 관찰사일행을 따라잡았다. 막아서는 장교놈들을 칼로 뿌리치며 곧바로 김규식에게 달려들었다. 지금도 왜놈의 총알막이나 하며 놈들의 뒤나 따르고있는 너절한 놈. 내 기어코 너를 잡아 김복한대장님의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말이 나란히 하는 순간 번개처럼 몸을 날리며 규식의 말우로 뛰여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그놈의 목을 힘껏 그러안았다. 순간 날아오는 총탄에 말이 곤두박히고 그들은 동시에 눈우로 날아떨어졌다.
백산은 몸에 강한 충격을 받으며 어디론가 곤두박히는 둔탁한 감을 느꼈다. 그 순간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은 김규식을 사로잡았다는 쾌감이였다. 끝내 김복한대장님의 복수를 했다. 저 보은의 속리산속에서 그가 지독히도 모욕을 했던 복한대장님, 그때 무례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
다음은 아무것도 생각할수 없었다. 눈앞이 새까맣게 흐려지고 무수한 별찌들이 어지러이 춤을 추었다. 얼마후 눈을 떴을 때는 자기가 두툼한 눈우에 누워있고 푸르싱싱한 소나무가 흐느적이며 자기 얼굴을 쓰다듬고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이상한것은 아직도 그우에 두툼하게 쌓

인 눈이 피처럼 빨갛게 보이는것이였다. 그것뿐아니라 그가 누운 땅과 산비탈 그리고 바위우에 덮인 눈전부가 모두 새빨간색이였다.

웬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

그는 여전히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러자 눈앞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하늘이 온통 빨간빛으로 물들어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거대하고 장쾌한 모습이였다. 무한대한 하늘이 힘차게 갈아엎은 밭이랑마냥 줄을 지어 아득히 뻗어갔는데 지는해의 노을빛이 그것을 빨갛게 물들이고있었던것이다. 파도를 치며 아득히 뻗어간 이랑들은 어렸을 때 그가 부모들과 밭갈고 씨뿌리던 잊지 못할 고향마을의 자기네 땅으로 이어졌다. 그때 자기 어깨를 두드려주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이렇게 묻는것 같았다.

《자식, 너두 이젠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니. 어디 봐둔 처녀라도 있으면 말해라. 내가 다 봐주지 않으리…》

《아버지, 제가 군공을 세운 다음에요. 오늘도 성문을 제가 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돼요. 우리 대장님은 저에게 싸움을 잘하라고 몇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지금은 그가 나의 아버지나 같애요. 그렇게 정이 가거던요. …》

자기가 그렇게 말한것 같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자기를 본것도 같다. 아, 그 아버지, 지금 어디 있을가…

어디선가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자기를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지. 자기를 찾아 저 밭이랑을 찾아헤매는 아버지 아닌지…

그러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였다. 여러 사람들이 떠들며 자기를 향해 가까이 오고있다. 하다가 불시에 한 목소리가 옆에 와서 멎었다.

《아, 여기에 있습니다. 선봉장님이… 선봉장님!》

오째였다.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달려왔다.

백산은 의식을 차렸다. 그러나 옴짝할수 없었다. 무엇때문엔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흔들어댔다.

《팔을 놓으십시오. 이젠 됐습니다. 관찰사놈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째가 그를 돌아눕혔다. 그때에야 그는 한쪽팔이 저리도록 아프다는것을 느꼈다. 알고보니 그때까지도 김규식이놈을 한팔로 꽉 그러안고있었다.

아까 말우에서 그놈과 함께 날아떨어지던 일이 얼핏 떠올랐다. 그

련즉 성공했구나. 저 왜놈의 개를 이 손으로 붙잡았구나. …

《지금이 어느 시인가?》

그가 물었다. 하늘은 여전히 불타고있었다.

《선봉장님, 유초(5시)입니다. 그러나 성은 신정에 점령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산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잠들듯 다시 눈을 감았다.

3

류린석은 선화당의 높은 대뜰에 좌기했다.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관찰사가 호령하고 《토벌》대장놈이 총질을 해대던 곳이다.

역시 그가 바랐던것은 아니지만 지어진 정황이 그로 하여금 도안의 첫번째 장관으로 되게 한것이다.

《의병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애써 벼르며 기다려오던 충주성을 차지하게 되였소. 우제 김복한의 원한으로 되였던 김규식이도 처단함으로써 우리가 그에 대한 의리를 어느 정도나마 지킬수 있게 되였소.》

린석이 좌우에 주런이 앉아있는 의병장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지금 그들은 충주성점령에 대한 목적을 실천한 기쁨과 락관에 넘쳐 린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우리가 이만한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여러 의병장들과 매 의병들 한사람한사람이 원쑤 왜놈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가지고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가며 싸웠기때문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비록 공적은 없더라도 적들의 첫 사격에 정신까지 잃고서도 놈들의 총구를 맞받아나가며 쪽발이들을 전률케 한 수많은 유명무명의 의병들을 잊을수 없소.》

《잊을수 없습니다. 잊어선 안되지요.》

《후세에 남을수 있게 비문이라도 바로세워주어야 합니다. 집에다 소식도 똑바로 전해주구요.》

린석의 말에 모든 의병장들이 동의해나섰다.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린석이 계속했다.

《아울러 한마디 겸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선봉장 김백산의 장거요. 그는 오늘 남먼저 성우에 올라 대문을 열었고 달아나는 김규식이놈을 기어코 쫓아가 붙잡고야말았소. 한마디로 그는 오늘싸움에서 남다른 군공을 세웠는바 오늘의 승리는 그의 공적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소. 이를 놓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수 없지만 앞으로 나라가 안정되면 김백산선봉장을 무반계렬에 세우고 나라의 당당한 장수로 되게 하자는것을 제의하오.》

여러 사람들이 일시에 찬성을 표시하였다. 앞으로 응당 그렇게 되여야 할뿐아니라 지금도 당당히 무반계렬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것은 나라가 인정해야 하지만 지금 그럴 형편이 못된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네가 나라밖에 있는만큼 자기네 식으로 법을 정하여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저녁에 그는 싸움의 성과를 축하하여 차린 연회석상에 백산과 상렬을 자기 좌우에 나란히 앉혔다. 그렇게 하는데는 그들의 군공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백산을 적극 내세우자는데 있었다.

그가 보건대 지금 백산과 미영은 남다른 사이가 되였다. 그러나 량반과 평백성이라는 계선이 둘사이를 더이상 접근할수 없게 하고있다. 특히는 둘가운데 아버지 승우가 끼여있다. 그가 둘이 좋아하는것을 극구 반대하고있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린석으로 하여금 백산을 더 내세우면서 적어도 서반의 계렬에는 세우고싶은 욕망을 금할수 없게 하는것이다. 백산이야말로 제천의병대의 선봉장으로서 앞으로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것인가.

하면서도 린석은 아직 그 모든것을 터놓지 않고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으면서 보다 큰 목적을 향하여 꿋꿋이 나가고있는것이다.

린석이 선화당에 틀고앉으면서 종전과는 다른 많은 새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그 첫시작이 김규식을 처단하고 그의 시체를 성문밖에 매다는것이였다. 그것은 김복한과 그 동료들에 대한 복수이면서 동시에 왜놈들

과 통하는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일종의 시위요, 통고인것이였다. 아닌게아니라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왜놈들과 한동아리가 되여 나라와 겨레를 배반한 역적을 두고 치를 떨며 자신들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다음은 고을안의 여러 량반들과 유지들, 각종 아전들, 부자들을 만나보거나 취조를 하는것이였다. 그들의 뜻을 참작하여 도의 정사는 어떻게 펴며 병기와 식량은 어떻게 해결하며 앞으로 싸움은 어떻게 할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로 하여 선화당주변은 물론 온 성안이 밤낮으로 설레였다. 각 군현으로도 도의 정사를 알리는 파발들이 부지런히 오르내렸다.

여기에서 그는 전봉준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하삼도 각지에 실시했던 형식을 많이 따랐다. 물론 그때의 집강소같은것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많은것을 백성들의 편의에 복종하려고 하였던만큼 그 비슷한것이 많았다.

그때까지도 전라도농민봉기군의 전주성점령에 대해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같은 도소재지로서 류린석의병대의 충주성점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나라에서도 극비에 붙이고있었다.

그러나 린석을 비롯한 의병장들과 모든 의병들은 그들대로의 자부와 긍지에 넘쳐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들의 힘으로 왜놈들을 내쫓고 성을 차지했다는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였다. 그것은 또한 앞으로 보다 더 큰 싸움을 벌릴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는것으로써 의병들의 사기를 한층 높여주는것이였다.

이것을 아는 린석은 오히려 여느때보다 더 바빴다. 이제 그 기세를 빨리 온 나라에 확대해나가야 했던것이다. 도소재지의 점령이라는 큰 사변을 겪고나서 어떻게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그는 다시 붓을 잡았다. 이 거창한 소식을 전국에 알리고 그들모두가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일어나도록 호소해야 한다.

낮에는 짬이 없고 사색도 집중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남들이 다 잠든 밤에야 서안을 마주앉았다. …

《아, 통분하도다. 변란이 끝이 없구나. 이와 같은 변란이 천만년 과거에 일찌기 있었겠으며 억만년 미래에 또다시 있겠는가.

나라의 형세가 오늘과 같이 위급한 이때에 원쑤를 쳐부시고 나라의 권위를 회복하여 오랑캐들을 몰아내는것으로써 대의를 밝히는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것이 옳은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선대의 임금과 나라에 죄를 짓는 관적이니, 폭도니 하고 욕을 하고있다.

나는 시골의 한 미천한 선비로서 용렬하기 짝이 없으나 나라의 은혜와 덕택을 입고 례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스승과 벗들로부터 옛 전통을 배웠으며 성현들의 교훈에 복종하여왔다. 또 천부의 성품으로 서툴게나마 강개한 성질을 가지고있어 충의와 반역을 크게 가르며 오랑캐들을 물리치는데서는 일찍부터 눈이 밝아서 수수방관하거나 간과해두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 서울의 명문거족들, 고핑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였는데도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으니 이 웬일인가. 당신들의 충의는 응당 남보다 두텁고 권력도 역시 강개할터인데 하필이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사람만 피를 흘리며 애써야 하는가. 나라가 망하는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선수를 써야 하겠기에 보잘것없는 힘이나마 먼저 일으켜 충주성을 점거하고 이 격문을 보낸다.

내가 이미전에도 여러차례 격문을 썼으나 크게 응하는자가 없었다. 다만 이름없는 선비들, 시골량반들, 지방과 군현의 장부들 몇천이 나섰을뿐이다.

오늘 그들과 대사를 도모하고 거듭 쓴다.

서울과 지방의 여러 선비들, 구중궁궐의 권문대신들, 문무백관들, 공농상병에 종사하는 모든 백성들은 수천년 내려오는 우리 선렬들의 뜻을 받들어 8도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그 위력을 확장함으로써 흉악한 왜적들을 쓸어버리고 역적들을 처단하자. 그리하여 우리 강토를 보위하고 나라의 수치를 씻으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례의와 문화를 지켜나가자. 비록 그 모든것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왜놈들의 한 근거지를 소탕하고 그놈의 무리 몇놈씩만 격살한다고 하여도 오랑캐들은 죽음을 면할수 없고 반역자들은 갈곳이 없다는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또한 하늘의 리치를 밝히며 민심을 바로잡는 것으로 되니 후세에도 우리의 면목이 서게 될것이다. 그런즉 성공과

실패, 리해의 득실을 가리지 말고 요컨대 대의를 따라 한결같이 싸워 나가자는것이 바로 린석의 확고한 신념이다.

오늘의 거사는 비록 력량이 약하고 크게 보잘것은 없다고 하겠으나 천지간에 정의를 따르고 기강의 힘에 의거하여 왜적을 격멸함과 동시에 반역자를 규탄하여 사람과 짐승을 갈라놓고저 함에서 한 일이다. 그런즉 김규식이 죽은것은 하늘의 벌을 입은것이지 그 누가 죽인것이 아니다. 왜적들이 조선땅전체를 오랑캐의 나라로 되게 하고 온 나라 백성을 저들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충견 한두마리가 먼저 죽는 것이야 응당하지 않는가. …

나는 우선 조정에 있는 대신들, 삼공륙경으로 불리우는 고굉지신들에게 먼저 통고한다.

당신들은 누구보다 나라의 은혜를 두텁게 입고 높은 작위를 지니였으니 나라가 사변을 당한 지금 마땅히 통분이 넘치는 심정에서 심신을 다 바쳐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오랑캐들이 나라를 강점하고있는 이상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를 악물고서라도 싸워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벼슬이 귀하고 목숨이 아깝겠지만 어찌겠는가.

제 나라, 제 강토가 놈들에게 짓밟히고 수천년 내려온 문화유물이 파괴되는것을 그냥 보고 참기만 하겠는가. 만약 적을 치는 처사를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그자는 적을 도와주는 반역자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 병기가 없다면 홀(고위관리들이 왕앞에서 조회를 받을 때 오른손에 들던 패쪽.)이라도 들고 나서라. 군사가 없다면 당신들의 노복이라도 데리고 나서라. 모든 관리들, 친척친우들이 서로 짜고 힘을 합쳐 위력을 떨치자. 관리로서는 우로부터 맨 아래까지, 지역으로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마지막끝까지 한덩어리를 이루어 깨뜨릴수 없는 견고한 힘으로 뭉친다면 아무리 흉악한 왜적이라 해도 어쩌겠는가.

…

조정의 대신들에게 특별히 할말이 있다.

당신들이 우리 의병을 보고 역적패당이라고 함부로 말하고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왜놈들이 하는 말과 뭐가 다른가.

그놈들의 말을 그대로 외워가며 우리를 적으로 대하니 이것이 애초부터 적이였던 왜놈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과 같은 변고를 당하고서도 의병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례의바른 나라로서 그대로 수치요, 후

세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게 하겠는가. 외적이 쳐들어와도 총 한방, 화살 한첩 던져보지 않고 나라를 내주었다고 비난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놓아두자는것인가. 당신들의 생각을 알수 없다. 의병들에 대해서는 못된 병이나 몸에 난 혹처럼 생각하면서 오랑캐의 벼슬자리를 탐내고 놈들이 시행하는 규례를 좇아 앞을 다투어 따르며 화친을 부르짖고 계책을 토론한다. 역적들의 매국행위에 대해서는 불화를 조성한다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의병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 흠집을 찾아내여 못된 놈이라 꾸짖고 기어코 박멸하려 하고있다. …

슬프다. 이제 의병들마저 맥을 놓고 흩어지고말면 나라의 5백년 왕조가 망하고 수천년 겨레의 혈통이 끊어질것이다. 왕조가 망한다는것은 우리 나라가 오랑캐의 나라로 된다는것이며 혈통이 끊어진다는것은 우리 겨레가 다름아닌 짐승으로 되고만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나라가 오랑캐의것으로 되고 사람이 짐승으로 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알아줄것이며 우리는 누구와 겨레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이제 그 모든것을 생각하니 비통함을 금할수 없다. 피눈물을 뿌리며 전국에 다시 알리노니 각자는 내 몸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내 집보다 겨레를 먼저 생각하며 오랑캐를 쳐부시고 역적들을 처단하라. 그리하여 저놈들을 이 땅에서 내쫓고 천지의 도리가 바로잡히도록 하며 나라의 제도를 회복하자.

이와 같이 할수 있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누가 다시 론하겠는가. 그때에는 하늘도 노함을 그만두고 선렬들도 화를 거둘것이다. 나라에서 그 충정을 알아줄것이고 후대들도 우리를 기쁘게 추억할것이다. 여러분들이 오직 여기에 힘껏 노력하기를 바란다.》

쓰기를 다했을 때에는 벌써 날이 밝아오고있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러다가 그대로 서안우에 쓰러졌다. 풍증으로 손맥이 빠지고 밤새 쭈그리고앉았던 다리에 신경마비가 왔던것이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초불마저 자빠지며 방금까지 써놓은 격문에 불이 달렸다. 넓다란 도포자락에도 불길이 번져갔다.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쓰러져있는데 매캐한 연기냄새에 옆에서 자고있던 춘영이 놀라서 깨여났다. 벌써 몇장이나 불에 타 없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썼다. 그만이 쓸수 있고 그만이 대표할수 있

는 이름이기에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완성이 되였을 때 리춘영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수십통 복사하여 전국에 띄워보냈다.

충주성이 의병들에 의해 점령되였다. 친일분자 김규식이 의병들에게 잡혀죽었다. 장차 서울을 점거하고 왜놈대장과 담판까지 벌리게 된다. …

소문은 군과 군, 도와 도의 지경을 넘어 8도 수백개 고을로 불같이 번져나갔다.

소문만이 아니였다. 전국의 곳곳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난것이다. 남으로는 저 광주와 좌주, 장성, 부산으로부터 북으로는 의주와 벽동, 초산, 삼수, 리원을 포함하여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였다. 원산이나 부산과 같이 일제의 주요거점들에 대한 대담한 공격작전도 시도되였다.

특히 서울주변은 가평, 양평, 리천, 려주, 안성 등지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동남북방향으로 의병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였다. 이러한 기운을 타고 여러 의병들의 련합으로 이루어진 2천여명의 의병들은 남한산성을 점거하고 직접 서울을 위협하였다. 과연 온 나라는 의병들의 활무대로 왜놈들과 대격전을 치를수 있는 무장력으로 준비를 갖추어가고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누구보다 바쁜 사람은 류린석창의대장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면담을 요구했고 서한과 축사를 보내왔으며 원병을 청하였다. 린석은 그 모든것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말로써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선화당대뜰에 의병장들이 다시 모여앉았다. 의병대의 앞으로의 활동을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린석이 말했다. 제천의병대는 전국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의병부대들의 거울로서 응당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충주를 든든히 타고앉아 도를 통제하며 주변의 여러 도들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까운 도들을 지원하여 영향을 확대함으로써 장차 모든 도들을 차지하게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충주를 끝까지 고수하는것이다. 따라서 충주에 사석의 제천의병대, 김백선의 선봉대, 서상렬의 유격

부대를 남겨두어 방어를 맡아하도록 한다. 리직신과 리범직, 리린영의 부대들은 안동과 문경, 원주에 나가 각기 고을들을 차지하고 활동범위를 넓혀나갈것이다. 기타 여러 부대들은 충청도 각지에 나가 활동을 벌릴것인바 적들이 충주에로 기여들지 못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

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물었다. 반대가 없고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서상렬이 한참만에 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창의대장님, 그렇게 할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것은 충주의 고수가 아니라 서울로 쳐들어가는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않던 일이였다. 린석이하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러나 상렬은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확고히 내놓았다.

서울은 왜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본거지일뿐아니라 나라를 파는 역적들과 간신들의 소굴이다. 그 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가도 나라의 근본병집을 고칠수 없다.

지금 서울주변에서는 의병들이 창궐하고 특히는 남한산성을 차지한 의병들이 서울공격준비를 하고있다. 남한산성은 서울과 칠팔십리밖에 떨어져있지 않는 곳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낟알저장고이며 수많은 무기와 화약들이 보관되여있는 곳이다. 이제 우리가 주력을 몰고가 그들과 합세하고 주변의병들까지 힘을 합치면 서울점령은 문제가 아니다. …

몇몇 의병장들이 자세를 바꾸어 그의 의견을 지지해나섰다. 그러나 린석은 힘껏 도리머리를 했다.

《서울은 임금이 있고 정부가 있는 곳이요. 우리가 그곳을 바라고 공격해간다면 그자체가 나라를 반대하고 임금을 배반하는것으로 되오.》

《우리는 서울을 치는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적을 치자는것입니다. 이것이 반역행위로 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들어가는자체가 군사를 동원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도 자연히 군사를 동원할것인데 그렇게 되면 터져나오는 류혈의 사태를 어떻게 막겠소?》

《우리의 적이 왜놈이고 역적들 몇놈뿐인데 왜 류혈을 절대화하는

것입니까. 설사 류혈이 터진다 해도 우리가 총칼을 들고나설 때 그것을 두려워했습니까. 류혈과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 싸움은 있을수조차 없습니다.》

그가 미처 어쩔새없이 거퍼 들이댔다. 린석이 난감한 기색으로 좌중을 둘러보는데 이번에는 백산이까지 나섰다.

《갑오란때에도 전봉준대장님은 애초부터 서울공격을 계획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화의때 농민군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하기때문에 서울을 포기하고 전주까지 내주었습니다. 후에 다시 궐기하였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전봉준록두장군은 처음기세로 서울로 쳐들어가지 못한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겼습니다. 제 생각도 지금의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서 문제가 자못 심각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의병장들은 아직도 린석의 의견을 따르고있었다. 역시 서울공격은 그자체가 위험천만한 반역행위일뿐아니라 력량상으로도 어림없다는것이였다. 그들의 말을 듣고 린석이 다시 말했다.

《경암(서상렬의 호), 다시 생각해보라구. 임금의 신하이며 자식인 우리가 어떻게 임금을 향하여 총칼을 휘두른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임금께서 누구보다 고심이 많다는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는가?》

곱씹듯 거듭되는 그 말속에는 어떻게 하나 상렬을 자기 수중에서 떼내지 않으려는 린석의 갸륵한 뜻도 담겨져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상렬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격조를 높였다.

《임금도 저 하나를 위한 임금이 아니라 만백성을 위한 임금입니다. 어떻게 저 하나를 위하여 나라를 팔며 만백성을 외적에게 떠맡길수 있습니까. 설사 자신은 죽어도 백성은 버리지 말아야 하며 선대임금들앞에 죄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선대임금들이 물려준 조상의 나라를 그 혼자서 좌지우지할수 없습니다.》

그 말에 린석이 깜짝 놀라 중지시키고 엄하게 눈짓을 했다. 임금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저녁에 그를 따로 불러 다시 만났다.

《나는 자네가 나라님에 대하여 함부로 욕하는것을 참을수 없네. 지

금 우리 임금처럼 고심이 많고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어디 있나. 욕을 하기 전에 그를 잘 받들지 못한 자신부터 탓해야지.》

《예로부터 임금이 성스러우면 때맞는 바람이 불고 임금이 몽매하면 때아닌 바람이 분다고 하였습니다. 하다면 지금의 이 역경을 누가 몰아왔습니까. 임금자신이 그 몽매하고 암둔한 민비와 한짝이 되여 외적을 끌어들이고 그자신까지 죽게 하는 환난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력사에는 임금이나 신하의 말 한마디로 나라를 얻고 잃는 일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께서는 왜놈들에게 그처럼 치욕을 당하고서도 왜 말 한마디 바로하지 못합니까. 그런 임금도 임금이라고 싸고돌면서 하고싶은 말도 못해야 합니까. 신하는 바른말로 임금을 충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가도록 어성을 높이고 론조도 확고해지는 상렬이다.

린석이 자기의 충군에 대한 인식으로 그를 리해시켜 함께 있으려고 하였지만 이제 와서는 그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왕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그들을 어느때인가는 충돌에로 이끌어갈수 있다는것이였다. 그것을 깨달은 그는 이미 그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 이제부터 어쩔터인가?》

그가 묻자 상렬이 이미 계획하고있었던듯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터쳐놓았다.

《지금 남한산성에 있는 2천명 의병대의 대장이 박준영이란 사람인데 저도 잘 압니다. 그 부대에 합세하여 기어코 서울공격에 참가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나라의 화근인 섬오랑캐놈들과 역적패당을 말끔히 들어내렵니다.》

그것이 상렬을 놓쳐버린다는 아쉽고도 분한 마음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 그의 말대로 나라의 화근을 가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

《기어코 가겠단 말이지. 성공할수 있겠나?》

그가 이름할수 없는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상렬은 대답대신 무겁게 숙였던 고개를 들며 문득 옛시 한수를 읊었다.

역수 저문 날에 찬바람 무삼일고
격축비가에 장사일거 불부환이라

린석은 놀랐다. 그가 과연 비장한 각오를 하고있다는것을 이제야 새삼스레 깨달았던것이다.

그 시의 내용은 간단하다. 바람이 소슬히 부는 역수의 물이 차다. 원쑤칠 비장한 노래부르며 장사 한번 가면 오지 않으리라. …

《자네가 가고말고 하는건 더 말하지 않겠네. 그러나…》

린석이 역시 어딘가 비분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입을 열었다.

《선봉장만은 데리고가지 말게. 그만은 여기서 떠나서 안될 사람이야. 물론 자네도 꼭 있어야 하겠지만…》

《대장님, 그가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를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그야 본인의 의사에 따를것이지요.》

그가 예상외로 성근히 나왔다. 그것이 린석을 은근히 놀라게 하였다.

평시에 그는 상렬과 백산이 남달리 가깝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번에도 백산이 상렬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만큼 사전의논이라도 있으려니 했는데 백산의 의사에 따를것이라고 한다.

그는 급히 백산의 부대쪽으로 갔다. 하다가 고쳐생각하고 선화당으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마치 정사를 볼 때처럼 교의에 틀고앉아 미영을 불러들였다. 성안에 들어와 창의소성원들에게 식사를 보장하느라 바삐 돌아가는 미영이였다. 그가 잠시후 무릎을 꿇고 린석의 앞에 나타났다.

《큰아버지, 부르시였습니까?》

시작부터 응석섞인 목소리다. 원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자고 우정 대뜰로 부른것인데 이 계집애는 그런것도 가리지 않는것이다. 저도 모르게 부리자고 하던 위엄이 가셔지고 목소리조차 유해졌다.

《너 요새 선봉장을 만나군 하냐?》

《무어라구요? 그건 왜 물으시나요?》

《만나군 하지? 총이랑 배우면서…》

《그야 어쩌다… 언제 짬이나 주어요. 밤낮 부엌에 매여 옴짝도 못해요.》

린석은 그것이 아버지 안승우에 대한 불만인줄 안다. 원래는 선봉대에 가겠다고 하던것을 창의소로 옮기는 조건에서 의병대에 받는것을 승인한 승우였던것이다. 그런데 미영은 지금 그나마도 시간을 내주지 않아 백산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를 원망해서 말하고있는

것이다.

《너 이제 가서 선봉장을 만나보아라. 아니, 이리로 데리고 함께 오너라.》

《네? 그건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달아나겠단다, 너를 버리구. 아니, 너뿐아니라 나두 성두 다 버리고 혼자 내빼겠단다.》

《그게 무슨 말이예요, 가기는 왜? 어디로 간다는거예요?》

《글쎄 말이다. 네가 가서 그를 만나보구 절대 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령이다. 아니, 의병대가 주는 령이야.》

미영의 눈이 대번에 동그래지고 눈섭발이 꼿꼿하게 일어섰다. 놀랍다거나 분하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격분과 증오에 찬 눈길이였다.

린석은 속으로 웃었다. 이제 그의 진실을 느꼈기때문이였다. 《작별이란 말만 들어도 가락지를 집어던지고 손수건을 찢어버리며 등잔을 등지고 바람벽을 마주앉아 눈물을 쥐여짜는것이 진실로 녀자다운것이다.》라고 씌여진 어느 책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지금 미영이 그렇게 하고있으니 그야말로 진정한 애정을 품은 녀자의 마음이 아닌가.

《내 말대로 할수 있겠니?》

그가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였다. 미영이 어느새 뜰아래로 달려내려갔던것이다.

그러나 그때 백산은 부대에 없었다. 상렬을 만나러 그의 부대에 가 있었다. 거기로 미영이 불시에 들어서자 두사람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정말 가겠어요? 성도 사람도 다 버리고…》

《그 말은 어디서 들었소? 갑자기 왜 그러오?》

《갑자기라구요? 흥, 갑자기가 아니문요. 언제 저하고 의논이나 해봤어요? 여길 버리고 간다는 코김이라도 씌였댔나 말예요.》

그제서야 짐작이 간 백산이 미소를 띄웠다.

《미영, 그건 어쩔수 없는 일이요. 더구나 미영아가씨하구는 상관도 없는 일이요.》

《상관이 없다구요? 그럼 가라요, 가. 괜히 이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는… 가라요, 혼자서 가!》

불시에 백산의 가슴을 두손으로 두드리다가 그대로 콱 밀쳤다. 그래도 끄떡없이 서있는것을 보고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언제는 날더러 싸움에 나서라고 선동질을 해놓구선. 마치 같이 싸우기나 할것처럼… 갈테면 가라요. 그러나 그렇게는 못 가요. 나같은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장님과 다진 맹세는 어쩔터예요. 변치 말고 싸우자고 맹세를 쳤죠. 남정들끼리 다진 맹세야 지켜야지요. …》

그가 울다말고 홱 돌아서 따지듯 백산을 쏘아보았다. 백산이 그만 당황하여 할말을 찾지 못하고있는데 촉촉히 물기에 젖은 두눈을 아래로 떨구고 잘근잘근 입술만 깨물던 미영이 저로서도 막연한 말을 건숭 내뱉고는 미처 어쩔새없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창의대장님을 만나보세요. …》

두사람이 마주보다가 허거프게 웃었다.

《아무래도 안되겠구만. 자네는 떨어져야겠네.》

《녀자때문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창의대장님의 당부가 있었다지 않나. 가서 그를 만나보게. …》

이렇게 하여 백산이 린석을 찾아가게 되였다.

바로 린석이 바라던바대로였다. 그가 없이야 성을 어떻게 지켜낼것인가.

그는 백산에게 성을 지키는 싸움에서 더 큰 공을 세울데 대해서와 그렇게 되면 자기가 나라에 보고를 하여 꼭 이름난 장관으로 등용케 하겠다는, 전번에 선화당에서와 같은 말을 곱씹었다.

그것은 린석이 백산에게 베풀수 있는 최대의 믿음이였고 선의였다. 그럼에도 백산에게는 그 말이 남의 꿈속에나 말려든것처럼 멀리에서 희미하게 안겨들었다. 그것을 믿기에는 지나온 그의 생활이 너무도 가혹하고 랭철하게 현실을 가려보게 하기때문이였다. 물론 미영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도 미영에게 끌리는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욕망이 그대로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수백수천년을 두고 형성된 반상의 차이가 그들이 바란다고 하여 일조일석에 실현될수 없고 되였다고 하여도 세상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백산은 그것을 벌써부터 내다보면서도 린석의 말을 전면에서 부정하지 않았고 또 그가 요구한 성에 남는 일도 그대로 동의하고말았다.

이렇게 되여 남한산성으로는 서상렬만이 떠나게 되였다. 그가 이끄는 유격부대가 서문밖까지 꼬리를 길게 남기며 산모퉁이로 사라졌다.

린석을 위시한 의병장들과 의병들이 서문의 망경루에 올라 손을 흔들어주었다. 마침내 그 모습이 사라지자 몸의 한쪽부분이 떨어져나간것처럼 허전하고 헛헛해지는 감정을 금할수 없었다. 돌이키면 상렬은 왜놈과의 싸움이라는 가장 어려운 때에 만났고 또 이제 벌어지게 될 어려운 싸움을 앞에 두고 헤여졌다. 아직은 누가 옳고그른지 알수 없는 길을 저마끔 가고있는것이다. 앞으로 언제 또 어떻게 만나게 되겠는지 그것이 린석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이다.

그러나 그쯤한 작별은 아직 약과였다. 다음날은 다른 의병장들과도 헤여져야 하는것이다.

이제 그들은 저마다 고을을 차지하고 싸움을 벌리며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로정으로 될지, 언제 죽음이 차례지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언제 싸움이란 해본적이나 있었던가. 누가 그들에게 오라고나 한적이 있으며 쌀 한줌, 화살 한첩이라도 안겨주며 잘 싸우라고 축복해준 사람이나 있었던가.

그래서 더더욱 헤여지기 어렵고 아프게도 가슴을 허비는것이다. 성문밖에 운집한 수천명 의병들도 저마다 손잡고 읍을 하며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한다. 린석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둘러싼 의병장들에게 술을 한잔씩 따라주고 시 한수를 읊었다.

> 비멎은 방축에 풀빛도 짙은데
> 그대를 남쪽포구에서 떠나보내며
>   슬픈 노래 부른다
> 저 강물은 언제면 다 마를가
> 해마다 리별의 눈물 강물우에 덧치거늘

저 고려의 유명한 시인 정지상의 시이다. 석별의 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몰라 그렇듯 이름난 시 한수로 대신한것이다.

어느 누가 그 심정을 모를것인가. 자기들을 다 떠나보내면서도 아무것도 줄것이 없는 린석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것이랴. 하여 시 한수로 대신할적에 그 구절구절에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담았으랴.

그것을 안 리린영이네들은 그대로 말우에 뛰여올랐다. 그리고 솟구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린채 저마다 말을 때려몰았다.

4

성은 방어준비로 들끓었다. 모든 의병들이 방어구역을 차지하고 그에 익숙하며 무기에 정통하는것이 급선무였다.

그와 함께 성안의 모든 주민들이 군사를 배우고 싸움에 나설수 있도록 하는것도 중요했다.

이에 린석은 이미전부터 구상하고있던 군중시에 대한 내용을 적어 성안에 반포하였다.

…우리 나라가 왜 흉악한 왜적의 침입을 받게 되였는가.

력사적으로 조선은 언제한번 왜놈들에게 짓밟힌적 없고 싸워서 이기지 못한적이 없다. 다만 최근에 일본이 개명을 하여 일시 강해졌을뿐인데 그렇다고 강한자가 언제나 강한것은 아니고 약한자가 언제나 약한것도 아니다. 또 강자라고 하여 언제나 이기는것이 아니며 약자라고 하여 언제나 지는것도 아니다. …

린석은 이것을 세계사속에서 분석고찰하면서 일본이 서양놈들과 교섭하면서 일시 강해졌는데 결코 오래가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놈들을 물리치자면 반드시 힘을 키워야 한다. 힘을 키워서 오직 내가 강해야 적을 이길수 있으며 강하지 못하면 정신적허탈에 빠져 자신부터 없어지는것이다. 이 정신적허탈을 이겨내야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자면 온 나라에 상무숭병기풍을 세워 상시적으로 무력을 중시하고 군사를 숭상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방도는 있다. 나라안의 모든 사람들은 사농공상의 네가지 업종에 종사하는데 그들모두에게 15살만 되면 의무적으로 군사를 배우게 하는것이다. 즉 필복병어사라고 하여 글하는 사람도 군사를 배우게 하고 필복병어농이라고 하여 농사짓는 사람도 군사를 배우게 하고 필복병어공이라고 하여 쟁인바치에 종사하는 사람도 군사를 배우게 하고 필

복병어상이라고 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도 반드시 군사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군사를 배워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면 천하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며 우리 나라가 세상 누구보다 강한 나라로 될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것이다. 그것인즉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랑하는것인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법과 도덕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것이다. 이 모든 사랑을 하나로 관통하고 만사람의 마음을 합치는것을 관일약이라고 하며 이렇게 뜻이 하나로 뭉치면 쇠도 끊고 돌에도 구멍을 뚫을수 있다. …

후에 린석은 이 글을 보다 체계화하고 론리적으로 완성하여 《의암집》에 싣게 될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면한 성의 방어에 치중하여 주민들을 단합시키는 방향에서 집필을 완성하였다.

그것이 은을 내여 성안의 곳곳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글을 읽고 또 읽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읽어달라고 해서 들었다.

이렇게 성안이 들끓고있는 며칠어간 적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마 저들도 어지간히 혼이 날만큼 준비가 잘 안되는 모양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그중 한사람은 리강년이였다. 전번에 김복한이와 함께 왕의 《애통소》를 가지고왔다가 자기도 의병을 조직한다며 령남으로 내려갔더니 다시 서울로 올라갔던 모양이다.

그가 같이 온 사람을 소개했다.

《랑청(궁중의 하급벼슬)을 지내던 민룡호입니다. 이번에 선생의 격문을 받고 단연 의병에 나설것을 결심하고 나선 길입니다.》

린석은 그와 흔연히 인사를 나누었다. 명색이 궁중관리였다니 반가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괴롭고 분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자기가 격문에서 그렇게도 고위관리들이 싸움에 나설것을 호소했건만 겨우 찾아온다는것이 랑청벼슬 한사람뿐인가 하는때문이였다. 그래서 이 한사람이 더 반갑기도 하였다.

《고맙소, 온 나라가 이렇게 모두 떨쳐나선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소.》

그러는데 문득 그들 두사람이 나란히 서서 린석에게 말하였다.

《최익현대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며칠전 대감께서는 임금님을 만나뵈셨답니다. 그때 전하께서는 류린석대장님의 충주성점거소식을 듣고 못내 감동하면서 〈류린석이란 사람이 왜군을 쫓고 충주를 점령했단 말이지. 그러고보면 과연 나라에 인재가 있구나.〉 라고 하셨답니다.》

《무엇이라구? 임금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였단 말입니까?》

《최대감께서도 몹시 기뻐하시며 싸움을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왜놈들을 충청도나 강원도지방에서 내쫓게 되면 임금께서 더 크게 알아볼 때가 있을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순간 린석의 가슴이 뭉클 저려났다. 왕이 자기를 알아보고 나라에 인재가 있다고까지 평가해주시였으니 신하로서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고맙네, 고마워. 소식을 전해주어서… 이렇게 달려온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는 더 바랄게 없네. 그저 죽기로 싸울 생각뿐이네.》

그가 새로 온 사람들을 힘껏 그러안으며 말했다. 리강년이나 민룡호들도 린석을 뜨겁게 포옹하며 그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떠나갔다.

리강년은 전번에 내려갔던 령남지방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명칭만은 제천반일의병대의 유격부대로 달기로 하였다.

민룡호의 경우는 좀 달랐다. 강릉지방에 나가 독자적인 부대를 따로 조직하기로 한것이다. 한것은 그곳이 거리가 멀고 태백산 험한 산줄기가 가로막혀있어 서로 련계를 맺기가 불리했기때문이였다.

이렇게 그들이 떠나간 다음날이였다. 린석이 선화당에서 창의소성원들과 함께 병기문제를 론하고있는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몇사람이 안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누구인가 눈여겨보던 린석은 깜짝 놀랐다. 들어선 사람이 홍정식을 비롯한 그 서울패였던것이다.

그들은 김복한이 살해된 후 종적없이 사라졌던 사람들이였다. 린석이 춘천에 갔다와서 복한의 죽음을 따질 때 마땅히 처음 김규식의 편지를 가지고온 그들의 죄과부터 론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부대에서 없어진 그들을 두고 죄과를 론할수 없어 그대로 넘겼던것인데 이렇게 제발로 찾아온것이다.

《선생님, 전번의 일을 깊이 사죄합니다. 그 죄를 씻자고 다시 찾

아왔습니다.》
  린석이 분개한 눈으로 쏘아보는데 정식이하 너덧명이 일제히 머리를 땅에 대고 일어설줄 몰랐다. 격분하기는 했으나 다른 방법은 없었다.
  《무슨 일이냐. 그동안 어디에 가있었지?》
  《우제선생님의 사고는 분명 저희들이 잘못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한편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편지를 우리가 가져왔던것은 사실이지만 놈들에게 속았을뿐 작당은 하지 않았으며 또 감영을 찾아간것은 우제선생자신이였지 우리가 보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거론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것 같아서 일시 서울로 몸을 피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왜놈과 싸우겠다고 결의해나섰던 뜻을 저버릴수 없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담보로 약간의 군량과 면포를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장님과 창의소성원들에게… 그저 성의로 마련한것입니다.》
  린석은 여전히 이마를 찌프리고있었다. 분명히 죄가 있어 도망갔던것들인데 제발로 찾아왔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였다. 그때 옆에 앉았던 안승우가 장죽을 마루끝에 털며 한걸음 나앉았다.
  《군량과 면포를 가져왔다는것은 어디 있나?》
  《지금 저 마당에 있습니다. 호남쌀 몇바리하구 고등어, 청어 십여두름 그리구 면직이 열동에 마포가 서른동가량 됩니다.》
  《으흠? 그 괜찮군. 그렇잖아두 창의소식사를 대이는 일이 쉽잖았는데 마침이군.》
  승우가 대번에 흡족하여 웃음을 터쳤다. 그로 하여 긴장했던 분위기가 대번에 활기를 띠였다.
  《그리구 또 그건 뭐라구? 이리 가져와보게!》
  역시 군수장으로서 자기만이 상관할 일이라는것이다.
  홍정식과 같이 온 사람들이 즉시 달려와 마루우에 물건들을 펼쳐놓았다. 매 사람에게 차례지도록 마련한 비단옷감들이였다. 그중 하나는 정식이 승우의 앞으로 따로 밀어놓았다.
  《따님의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전장에 뛰여들었는데 긴하게 써주기 바랍니다.》

초록치마에 분홍저고리감이였다.

이제는 매 사람의 얼굴에 한결같은 미소가 어리였다. 물건들이 값진데도 있지만 누구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선물을 마련한 그 마음에 감동돼서였다. 린석이만은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긴장해있었다. 여기에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나름의 의심때문이였다.

그러는데 홍정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일본사람을 알게 되였는데 그가 신식보총 한자루를 기증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아니라 그를 통하면 많은 무기와 총탄을 구할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총과 총탄을…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장사군입니다. 순수 장사밖에 모릅니다. 지금 같이 왔는데 당장이라도 만나볼수 있습니다.》

린석이 다시금 긴장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성을 지키자면 그런 총이 있었으면 했는데 제발로 굴러왔다니 이것을 믿어야 할것인가, 말아야 할것인가.

미처 결심도 내리기 전에 대문칸에 붙잡혀있던 사람 하나가 벌름거리며 다가왔다. 하고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꼭지달린 도리우찌를 벗어들고 안경알을 번뜩이며 마루우에 대고 수십번을 갑삭갑삭 절을 했다. 순수 왜놈이 분명했다.

《야마무라라고 합니다. 본토로 드나들며 장사를 하는데 물론 오래전에 조선정부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의외에도 류창한 조선말로 엮어댔다.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에 와있어서 조선에 대하여 잘 안다는것, 일본의 조선강점을 반대한다는것, 이번에 충주성싸움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힘껏 돕겠다는것 등을 렬거하면서 자기를 꼭 믿어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하면서 그때까지 어깨에 메고있던 보총 한자루를 벗어내놓았다.

《저의 성의로 기증하는것입니다. 힘이 부족하여 지금은 보잘것없는것을 내놓지만 본전만 내시면 제가 이런 총과 총탄은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습니다.》

그가 내민 보총이 뜰우의 여기저기로 돌다가 린석의 앞까지 왔다. 그러나 린석은 받지 않았다.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에서였다. 이자가

왜 이런 놀음을 하는것일가, 장사군이라면 제 장사나 착실히 할것이지 제놈이 준 총으로 제 족속을 쏘라는것인가. …

이런 의문이 떠오를만 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간사한 왜놈들은 조선침략의 발판이 생길 때마다 쩍하면 《기증》놀음을 벌리군 했던것이다. 저 병자(1876)년의 《강화도조약》체결당시에는 그 무슨 《축하》를 한답시고 두문의 회선문포와 포탄 2천발, 경진(1880)년에는 하나부사놈이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파견되여오며 몇정의 무기를 그리고 임오(1882)년에는 왕세자의 관례식때에 소증기선 1척과 산포두문을 《례물》이란 명목으로 《기증》하였다. 놈들이 그때 무슨 목적에서 그따위 기증놀음을 자주 벌리였는가 하는것은 그후 조선침략과정이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다면 이놈에게도 무슨 작간이 있지 않는가.

《그 총 하나에 값이 얼마인가?》

마침내 린석이 물었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야마무라가 허리를 숙였다.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본국에서 이 총 하나를 만드는데 소 두마리값이 든다고 합니다. 총탄 하나에는 닭이 한마리값이 들구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그 값을 다 받겠습니까. 본전만이면 됩니다. 시가로는 절반값이죠.》

모든 장사군들은 오직 자기가 제일 청렴한체 한다. 그 값이 비싼지 눅은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또 총자체도 쓸것인지 못쓸것인지도 모른다.

문득 김백산의 생각이 떠올랐다.

《가서 선봉장을 불러오게.》

그가 말하자 전령이 총알같이 뛰여나갔다. 잠시후에는 백산이 도착하여 총을 검열하고 쏴보기까지 하였는데 제법 소리가 요란하였다.

《쓸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처럼 새것은 아닙니다.》

백산이 새로 도색을 하여 반들거리는 총을 마루우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소리에 야마무라가 대번에 비굴해졌다.

《그렇지요. 군품이 공장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 이상 새것일리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군영에 알려지는 날에는 저의 목이 뎅

정 합니다.》
《그런데도 무기장사를 한다. 당신네 족속들이야 절 위해서라면 낳아키운 부모도 내다버리지 않소.》
《그건 저, 돈때문이지요. 사람이야 원체 돈의 벌레가 아닙니까. 돈을 버는데야 언제 죽고 사는걸 가릴새가 없지요, 예. 헤헤…》
《흥, 그런데도 본전만 받는다. 거 생긴걸 봐선 그리 좀상스럽지 않구려. 왜놈바지도 바진 바지라는건가.》
《와, 하하…》
순간 선화당을 깨칠듯 한 통쾌한 웃음소리가 대청안을 진감하는데 얼굴이 해쓱해진 야마무라가 속곳 벗기운 얼간이마냥 당황망조해서 돌아가며 연신 굽신댄다.
《에또, 조금씩, 조금씩은 먹습니다. 손해나는 일은 할수 없으니까요.》
백산은 그에 아무 응대도 않고 도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는데 린석이 그를 불러세웠다.
《이 총은 자네가 건사하게. 우리에겐 총 한자루가 귀하거던. 그리고 자네가 정식이네랑 총에 대한 교섭을 맡아하게. 당장 얼마나 필요하겠나?》
《많을수록 좋겠지만 당장 총을 쏠수 있는 사람은 사오십명 됩니다. 그에 따른 총탄도 있어야 하구요.》
린석이 안승우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만한 자금이 있느냐 하는것이였다.
승우가 눈을 껌벅이며 속구구를 했다. 사실 최근에 도안의 적지 않은 부호들과 량반관료들한테서 원금이 들어오고 빼앗아낸것도 있어서 일정하게 마련된 자금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총과 바꾸자면 얼마나 되겠는지 타산이 잘 서지 않아 한참이나 꿈지락거리였다.
《한 이삼십정어치나 되겠는지. 탄약에 대해선 더 알수 없습니다.》
《서른정을 구하도록 하게, 그것도 최단기간에.》
린석이 결론을 내렸다. 다음의 일은 전부 백산에게 맡겨진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것은 그때부터 알려졌다. 우선 싸움이 일기 전 단 며칠어간에 무기를 해결한다는것자체부터 어려웠고 돈을 언제 주고받느냐 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았다. 총자

체가 절대적인 통제품으로서 충주까지 무사히 도착시키는것이 간단치 않을것이다. 저쪽에서는 돈을 가지고와야 총을 빼내올수 있다고 하는데 백산이쪽에서는 총이 도착해야 돈을 내놓겠다고 했다. 론의끝에 홍정식이네 패들이 반값이라도 가지고가야 흥정할수 있다고 하여 승우가 동의했는데 백산은 그것마저 부정했다.

《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데 자네가 왜 막아나서는가. 당장 싸움이 터질 판에 이게 무슨 꼴인가?》

야마무라가 킁킁 코웃음을 치는데 화가 난 홍정식이네들이 돌아앉아 술만 마시는것을 보고 승우가 백산에게 들이댔다.

그러나 백산의 자세는 여전히 배포유했다.

《저는 그 왜놈을 믿을수 없습니다. 총을 가져온 다음에 봅시다.》

《싸움이 끝나고 우리가 다 망한 다음에? 왜놈도 사람나름이지 그야말로 돈밖에 모르는 장사군이 아닌가. 돈을 위해서 사지판을 넘나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진실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총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돈구멍이 있다는것을 아는 이상에는 참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 생각을 주장한다.

승우는 린석을 찾아갔다.

《대장님은 왜 이 일을 선봉장 한사람에게만 맡기는것입니까. 나는 그의 오만한 행위에 끌려다니며 돈을 내놓고 안 내놓고 하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들가운데 그만큼 총을 아는 사람이 없지 않나?》

《이것은 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이지요. 홍정식이네들이 우리를 믿고 다시 찾아왔고 그만큼 성의를 보였는데 이제 그들을 차버려야 합니까. 왜인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밖의 다른 말은 할게 없나?》

《상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인차 오만하고 방자해져서 쓰지 못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의병대에 상하의 분별도 례의범절도 다 없어지고말것입니다.》

《규률에 복종하게. 그건 다 차후에 론해야 할 일들이네.》

린석이 대답하고 씽하니 그를 피해갔다. 그 이상 말을 번지면 백산과 미영의 문제가 터져나올것인데 린석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요

즘 그들이 더 자주 만나 총을 배운다, 제식동작을 익힌다 하는 말들이 있다. 이제 승우가 그것을 걸고들자고 할것인데 그냥 틀고앉아 그 지청구를 받아주고싶지 않았던것이다. …

휘영청 달밝은 밤이다. 쟁반같은 커다란 달이 높다란 나무가지에 걸려 어스름숲속을 내려다보고있다. 충주교외의 달천강가이다.

나무그림자속에서 백산이 나왔다.

《이젠 일어나오. 그만하면 됐소.》

강녘의 밋밋한 잔디밭우에 미영이 엎드려있다. 무거운 짐에 눌리웠는지 아니면 쏟아지는 달빛에 시달렸는지 한동안 옴짝을 안했다. 백산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백산은 그가 아니라 옆에 던진듯 놓여있는 총을 잡았다. 그것을 본 미영이 발끈하여 일어섰다.

《좀 일으켜주면 안돼요, 온몸을 땀으로 적셔놓구선?》

《제힘으로 일어나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도 쏠수 없소.》

《언제쯤 쏘게 돼요? 한번 쏴보자요.》

《아직 안되오. 훈련을 더 해야 하오. 조준훈련이랑… 그건 낮에 해야 하는거요.》

《낮에요? 그럼 하자요.》

백산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먼저 걸었다.

이렇게 저녁마다 총을 배우는 미영이다. 오늘은 달이 밝아서 오래동안 더 힘들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낮에까지 하자고 한다. 그것은 백산에게 불가능한노릇이다. 가뜩이나 일감이 많아 콩튀듯 해야 하는 대낮에 그만 붙들고있을수 없지 않는가.

《그건 안되오. 난 그렇게 할수 없소.》

《그럼 난 할수 있어요? 어느 녀자도 나처럼은 하지 않잖아요?》

백산은 말문이 막혔다. 아닌게아니라 지금 어느 녀자도 그처럼 신식총을 배우겠다고 나선 녀자는 없는것이다. 하지만 백산은 그를 도와줄수 없다. 혹 다른 녀자라면 몰라도 미영에게만은 그렇게 할수 없다. 글쎄 밤에라면 몰라도…

《선봉장님, 뒤를 돌아보세요. 달이 우릴 따라와요.》

미영이 그의 생각을 흔들어깨웠다.

《그건 그렇게 보일뿐 따라오는게 아니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지꿏게 다그어대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달도 말을 하나?… 이젠 그만해도 미영의 심정을 알만 하오. 내 인차 쏘게 해주지. 그렇지 않아도 미영아가씬 총을 쏴보지 않았소, 갑오년의 그 여름날에. 그때문에 난 량반집 규수를 놀려댄 망종으로 지금까지 지탄받는 사람이 되였소.》
《들어보라요, 저 달이 뭐라고 하나.
〈아가씨도 고루한 량반님네들의 틀박힌 계률이나 도덕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사는 녀성이 되십시오. 바로 저 월궁속의 옥토끼처럼 자기 뜻대로 산것으로 이름을 빛내이고 영원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신선이 되십시오. …〉
뭐 월궁선녀가 그리 간단히 되는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되라고 충동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순간 백산은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그제서야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백히 리해되였던것이다. 그야말로 이 세상 어느 녀자도 생각 못한 전설속의 선녀, 저 월궁의 옥토끼가 되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사실 그 말은 백산이 우연히 그가 왜놈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기를 바라서 한 말이였다. 한것을 그 이상 새겨듣고 지금세월에서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상상밖의 일을 하자고 한다.
그러나 백산에게는 그 이상 그를 도와줄수 없다.
《미영아가씨, 실은 내가 그때 해보았던 말이요. 아가씨도 이런 말을 알지. 〈산골아이거든 풋공을 차라.〉 세상이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주었소.》
《속에 없는 말을 하면 죄가 되여요. 선봉장님은 자기의 옳은것을 제가 몰라줄가 속이 답답한 모양이지요?》
백산은 다시금 굳어졌다. 그때에 했던 말로 다시금 자기를 걸고드는것이다.
하다면 내가 옳은것을 그가 몰라줄가 저어라도 했단 말인가. …
하는데 미영이 앞장서며 계속하였다.
《요즘 저는 선봉장님이 아버지때문에 고심이 많다는걸 알아요. 저의 아버진 천성이 소심하고 조심하는게 많아요. 선봉장님이 리해해주세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소. 고집스럽고 례의범절도 지킬줄 모르거던.》

《그럼 됐군요. 그 이상은 론하지 말자요.》

미영이 유쾌한 소리로 웃으며 백산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선봉장님은 제가 왜 다른 녀자들이 하지 않는 의병대를 따라다니는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야 미영이 말하지 않았소, 월궁선녀가 되려 한다구. 싸움에서 이름만 떨치면 될수 있소.》

《그것이 근본이라고 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원인도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미영은 남바위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유쾌히 웃었다. 백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덤덤히 웃으며 생각을 굴리였다.

집들은 앞으로 흐르는 개울물을 따라 구불구불 뻗어가고있었다. 그것들은 밝은 저녁달빛에 거무틱틱하면서도 희끄무레한 륜곽을 선명히 드러내고있었다. 대부분이 동기와와 조선기와 초이영을 얹었는데 그에 따라 집들의 크기와 높이가 서로 달랐다. 그아래 오른켠으로는 방금 그들이 건너선 개울이 아직도 얼어붙은 얼음과 녹지 않는 눈, 번뜩이는 물로 하여 한결 훤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눈여겨볼 때뿐 조금만 시야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왜냐 하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달빛그림자속에서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백산은 보았다. 그앞에서는 늘 웃었고 웃으며 말했다. 지금 입고있는 남복도 밤에만 남몰래 입군 하는것인데 어째서인지 백산에게는 매양 입고다니던것처럼 생각되였다. 그처럼 몸에 잘 어울렸다. 요컨대 미영의 모든것은 그에게 잘 어울렸고 늘 그랬던것처럼 생각되였다.

《글쎄, 아까두 말했지만 왜놈과 싸우자는것이겠지…》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개가 컹컹 짖어댔다. 깜짝 놀란 미영이 백산의 반대쪽으로 몸을 숨겼다.

《역시 몰라요. 저는 신녀성이 되자는거예요.》

《신녀성! 그건 어떻게 하는거요?》

《음? 그것도 거기서 튕겨주구선?》

《말해주오. 나도 모르겠소.》
《바로 저와 같은 못난이죠. 남들이 안하는 총을 배우고 밤도와 산보도 하고. 그러자니 생각도 많아야죠. 아버지의 부족점을 대신하여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속도 커야 하고…》 하다가 얼핏 백산을 바라보았다. 그를 선망하는것인지 타매하는것인지 류달리 큰 눈동자가 그를 한동안 응시했다.
《요즘 신녀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시집을 가서 양장을 하고 양료리점에 드나드는것으로 알고있지요, 그러다가 어떤 안경쟁이한테 시집을 가고. 그런데 어때요, 저의 생각과는 판판 다르지요?》
이제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리해가 갔다. 그가 말하는 개화나 신녀성이란 순전히 양놈들이나 본따고 그들이 하는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시대의 한가운데 뛰여들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각자가 되겠다는것이다. 이를테면 그가 의병에 뛰여든것이나 거기에서 남들이 안하는 군사훈련을 하는것자체가 모두 거기에 기인되는것이다.
그것이 백산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얼마나 사려깊고 행동 또한 대담한가. 모든 녀성들이 다 이만큼만 된다면 나라가 얼마나 빨리 개명하고 왜놈 또한 얼마나 빨리 내쫓게 될것인가.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웬 사람들이 따라오고있었다.
그들은 멈춰섰다. 공연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피할 곳도 없었다. 한쪽은 담장들이 잇대이고 한쪽은 개울이였다.
《음. 좋았군, 좋았어. 이게 개명이라는겐가…》
마침내 그들이 따라왔다. 모두 취한 모양들이다.
백산은 그들이 정식의 서울패들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음, 이게 누구야. 선봉장 아니야? 이건 또 미영아가씨구. 이럴수가 있나. …》
《깨가 맞지 않는다. 둥그런 단지에 세모난 뚜껑처럼… 그야 안되지.》
《비켜요.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물러가라요!》
미영이 앞에 나섰다. 조금전 개를 보고 놀라던 그답지 않게 백산을 막아선것이다.
《알겠소. 우린 물러가겠소. 하지만 이거야 용서할수 없지, 하면 안

되지 않구…》

그들은 물러갔다. 그들 두사람만 어둠속에 멍청히 서있었다.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든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영이 당돌하게 나섰다.

《가자요. 그들이 아무런댔자 소용없어요. 제가 다 막아서겠어요.》 했으나 일은 예상외로 번져갔다. 승우의 주장으로 그들이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한것과 백산을 무기거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한것이였다.

그리하여 부대가 아끼며 힘들게 모았던 수많은 군자금이 야마무라의 손에 쥐여져 서울로 올라가게 되였다. 바로 그날에 서울에서는 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왜병 세개 중대가 수많은 관군을 앞세우고 충주로 떠났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5

왜군의 충주성에 대한 첫 공격은 포사격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다찌중좌가 새《토벌》부대를 이끌고와서 마침내 행동을 개시한것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류달리 쾌청하고 해빛이 밝았다. 봄을 재촉하는 온기와 향기가 어디서나 풍기고있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은 싸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있으면서도 생의 본능적요구로부터 장거리로, 교외로, 이웃들로 부산스레 움직이고있었다. 력사에는 이렇다하게 남길 아무런 특이한 사변도 없는 평범한 날이였다.

포탄은 성의 남쪽 십리도 채 못되는 남산의 포진지에서 날아왔다.

충주는 남으로 성의 진산이라고 일컫는 대림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마산과 청룡산, 장미산, 북쪽으로는 심정산, 개천산, 동쪽으로는 금봉산, 오동산 등 크고작은 산들이 연해 솟은 산중의 도시이다. 동쪽으로 40리 떨어진 월악산에서는 한강의 첫 물줄기가 시작되기도 한다. 이것은 충주가 외부와 멀리 떨어진 고립무원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만큼 공격자에게는 유리하고 방어자에게는 불리하다.

바로 이것을 타산한 이다찌는 저들의 유리한 지형조건과 우세한 무기를 리용하여 단숨에 성을 탈환할 기세를 보이였다.

반면에 외부적지원은 거의나 없고 병기도 미약한 의병들은 자기들의 용기만 믿고 성에 굳게 엎드려 적들이 공격해오기만 기다렸다.

바로 그때 머리우에서 무엇인가 째지는듯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벽우에 있거나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일제히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지심을 흔드는 꽝 하는 폭음이 들려왔다. 그때까지도 포소리를 처음 듣는 대부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첫 포탄은 성의 한쪽변두리에서 터졌다. 다음에는 옆에서 그리고 또 다음에는 좌우로 엇갈리더니 시의 중심으로 옮겨왔다. 그러자 성안은 거창한 폭음과 불기둥, 타래연기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아우성으로 들끓기 시작하였다. 그런 경우를 예상하여 어떻게 행동하라고 의병은 물론 주민들에게까지 거듭거듭 설명했지만 난생에 처음 보고 당하는 폭음앞에서 누구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쪽에서 놀라 뛰면 그쪽에서 또 폭음이 터지고 무수한 흙기둥과 먼지를 들씌웠다.

포탄의 작렬과 함께 집이 통채로 내려앉는가 했는데 잠간사이에 거대한 화염으로 변했다. 시뻘건 불기둥이 번쩍하더니 타래연기를 휘끌어올리였다. 처음에는 한두집,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집들이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다.

포탄들은 점차 자리를 옮기며 시장을 들부시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짐을 거두지 못한 장사군들의 머리우로 쉬익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련이어 포탄이 터졌다. 줄이라도 맞춘듯 갈지자모양으로 엇갈려 떨어지는 포탄들은 땅우의 모든것을 짓부실듯 차례로 시장마당을 누비였다. 등에 지고 머리에 인 장사물건들, 추위를 막으려 쳐놓았던 풍막들, 깔고앉았던 자리들이 사람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다. 도처에 상품들이 널리고 피와 살점들이 휘뿌려졌다.

아침에 선화당에서 의병장들과 함께 당면한 방어대책을 론하던 류린석은 첫 포성과 함께 밖으로 뛰여나갔다. 성안이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끓고있었다. 벌써 타래진 연기가 날아오고있었다. 그속을 뚫고 달리며 린석은 혼란이 주로 녀자들과 아이들때문에 일어나고있다는것

을 알았다. 그들을 빨리 성밖으로 빼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문루에서 중군 리춘영과 군사장 주용규가 그를 맞이했다.
《어떻게 됐나. 놈들이 공격해오나?》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병들은?》
《성을 차지하고있는데 아직은…》
가까운데서 포탄이 터지며 성가퀴를 후려갈겼다. 거기에 놀란 의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아래로 뛰여내려왔다. 그때 주용규가 허리에 찼던 칼을 빼들고 한달음에 달려와 금방 파편에 줘맞은 성가퀴에 우뚝 섰다.
금시 포탄이 날아올상싶은데 시뻘건 융복자락이 기치마냥 펄럭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나이의 영용한 기상인가 뢰성이 울린다.
《의병들, 우리가 죽을 곳은 여기밖에 다른 곳은 없다. 죽음이 두려워 내 나라의 살점과도 같은 이 성을 섬오랑캐에게 내주겠는가.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거늘 사생결단의 의지로 왜놈을 쳐죽이자.》
《와.》하는 함성속에 창검을 높이 들어 호응한 의병들이 배로 커진 담력과 용기로 성을 지켜섰다.
그 모습을 감복속에 지켜보던 린석이 춘영에게 물었다.
《녀자들과 아이들은 성밖으로 내보내야 하겠소. 사람을 낼수 없겠소?》
《선봉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동원합시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백산의 선봉부대를 전투에 진입시키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즉시 돌아섰다.
그때까지 백산은 부대와 함께 창의대장의 예비대로 신별관앞마당에 대기하고있었다. 놈들의 주공방향과 전투의 긴박성에 따라 부대가 투입될것이였다.
그는 완전무장을 갖춘 부대의 앞에 서서 오락가락하고있었다. 어깨에는 항시 떨어지지 않는 보총이 굳건히 지워져있었다. 드디여 결전의 시각이 왔다. 이때를 기다려 얼마나 많은 날들과 피땀을 바치여왔던가. 이제 싸움이 터지면 의병들모두가 성난 호랑이처럼 달려나갈것이다.
그러나 싸움은 전혀 예견치 않게 진행되였다. 부대는 예비대로 떨

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속에나 그려보던 포탄이란것이 날아와 주변에 떨어지는것이다.

지심을 흔드는 거창한 폭음과 함께 땅이 우르르 떨었다. 놀란 의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저기로 피신하느라 경황들이 없었다.

그러나 백산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나온 싸움경험이 포탄이 터질 때에는 오히려 한자리에 지켜앉는것이 더 유리하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시 슬금슬금 모여왔다. 결국 그들은 달아나자고 해서가 아니라 당황하여 갈피를 잡지 못했던것이다. 선봉부대는 포사격이 다 지날 때까지 신별관앞 늘어진 버드나무숲아래에 까딱없이 앉아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미영이 나타났다.

《선봉장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있어요.》

그가 발을 동동 구르며 하소를 했다. 다시는 백산과 만나지 말기로 된 미영이였다.

《비키시오. 여기는 전장이요.》

《도와달라잖아요. 저 시장거리에 숱한 사람들이 죽어가고있어요.》

《물러가라는데. 우린 그런데 눈팔새가 없소.》

《그렇게도 인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거예요?》

《싸움은 인정으로 하는게 아니요. 인정에 무르면 눈물밖에 쥐여짤게 없소.》

《뭐라구요? 흥, 정있는 사람의 마음은 바위보다 굳다고 했어요.》

《군령이 없이는 설사 죽는대도 난 이 자리를 뜰수 없단 말이요. 이 이상 더 요구하면 누구든 용서치 않겠소.》

그 서슬에 야속한 눈빛으로 대항하던 미영이 어쩔수 없는듯 발길을 돌려 달려갔다.

린석이 거기에 도착한것은 바로 그무렵이였다. 그는 방금까지도 포탄이 작렬하던 자리에 끄떡없이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그들을 보자 마음이 든든했다.

《군사를 동원하여 아이들과 녀자들을 성밖으로 내보내야 하겠소.

시체들도 거두고… 싸움이 일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하겠소.》
그가 설명했다. 좀전에 미영이 와서 했던 부탁이다. 그러나 그는 지체없이 부대를 출동하여 주민구역들로 갈라보내고 자기는 장거리로 달려갔다. 그 넓은 시장마당에 벌써 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여기저기 쓰러진 시체들과 떨어져나간 살점들, 피자욱들이 사방에 널려져있었다.
《개새끼들, 야만의 종자들…》
의병들이 분노에 치를 떨며 시체들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때 장마당 한모퉁이에 사람들이 나타났다. 몇명의 로인들과 녀자들이였다.
《무슨 사람들이요? 빨리 피하시오.》
백산이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피하는것이 아니라 마주 달려와 저마다 시체를 거두는것이였다. 문득 그속에서 미영의 모습도 보였다.
질적한 피자욱이 확연한 들것채가 그의 손에 들려있었다.
《왜 왔어요, 그렇게도 매정한 사람이?》
미영이 백산을 보자 팩 하고 내쏘았다.
《성밖으로 피하시오. 이건 대장님의 명령이요.》
《마음에 없는 일을 하려면 저나 가라요.》
미영이 이렇게 말하며 다른 녀자와 함께 들것을 들고 시장밖으로 사라졌다.
백산은 뒤따랐다.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는데 의병들이 그들을 성밖으로 몰아가고있었다. 벌써 한무리 사람들이 북문쪽에 모여있었다. 그 무리는 더욱더 커졌다.
그때였다. 멀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영이 달려갔다. 그는 성문을 열려고 하는 파수군을 막아서 열지 못하게 하고는 재빨리 문루로 향하는 계단으로 뛰여올랐다.
《여러분, 아주먼네들, 가지 맙시다. 가선 안돼요.》
서로 아우성치며 성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미영을 바라보았다.
백산도 보았다. 머리에 썼던 수건을 한껏 뒤로 제끼고 하늘거리는 머리칼을 바람에 날리는 그의 얼굴은 홍조로 물들어있었다. 모여선 군중을 둘러보는 그 눈동자에서는 마주 비치는 해빛이 섬광처럼 번쩍이며 빛을 뿌리고있었다.

《여러분네들, 이제 곧 싸움이 터집니다. 왜놈들이 쳐들어옵니다. 남정들이 왜놈들과 싸우는데 녀자들만 달아나겠습니까. 함께 싸웁시다. 우리도 성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우리도 함께 싸우자요.》

《싸우자요. 성을 내줘선 안돼요.》

처음의 놀랍고 당황했던 기분에 여기까지 밀려왔던 녀성들이 다시 와 하고 돌아섰다. 밀려가는 녀인들의 뒤를 따라선 미영이 백산의 앞을 지나갔다. 그러나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것이 백산의 가슴을 짜릿하게 자극했다. 그가 생각을 잘했다. 어디서 그런 궁냥과 용기가 생겨났을가.

그에 대한 믿음이 또다시 자라올랐다. 하면서도 그를 가까이 할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찌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다시 부대가 신별관앞마당에 집결했다.

포사격이 멎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정적이 새로운 류혈의 격전을 몰아오며 웅웅 소리치고있었다.

그때 이다찌중좌는 남산의 우거진 소나무숲속에 올라 망원경으로 성안을 살피고있었다.

거기에서는 충주성이 거대한 고리처럼 둥그렇고 넙적하게 내려다보인다. 더구나 망원경의 시야에서는 포탄 하나하나의 작렬과정과 그에 맞아 사람이 죽고 집들이 불타는 모습을 코앞에서처럼 볼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무기장사군으로 가장한 야마무라를 통하여 성안의 형편을 손금보듯 알고있다. 지금 그가 바라는것은 포사격에 놀란 사람들이 성밖으로 달아나거나 흰기를 들고 항복을 해오는것이였다. 이것은 그가 죽으나사나 해야만 할 일이였다.

얼마전에 스스로 《토벌대》대장이 되여 충주로 내려왔다가 며칠만에 쫓겨 서울로 올라간 그가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소에지마소장으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게 된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자체가 조선강점의 일선에서 일대 공훈을 세울것을 한생의 꿈으로 간직해온 이다찌에게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포사격을 퍼부어도 성안에서는 이렇다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수십채의 건물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었으나 어느쪽으로도 도망치는 사람 하나 없었다.

악이 오른 그는 오후부터 군사들을 풀어 돌격에로 내몰았다. 포사격으로 그만큼 놀래웠으니 총격전만 벌리면 쉽게 성을 탈환하리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앞장에는 공주격전때부터 줄곧 자기와 동행한 와다나베대위를 내세웠다. 그 역시 출병당시부터 조선에서 군공을 세워 군부에로의 출세를 크게 노리는자였다. 그는 충주성을 탈환하고 류린석만 잡으면 당장 좌급으로 승진시켜줄것을 약속받았다.

류린석으로 말하면 두해전에도 의병을 조직했던적이 있었던바 특히 민비가 죽은 후에는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의병을 일으킨 무시할수 없는 인물이였다. 지금 그의 호소와 제천에 이은 충주성점령으로 온 조선땅이 터진 벌둥지처럼 들끓고있다. 이제 그들이 린석을 중심으로 뭉치기만 하면 그때에는 일본군 몇만이 아니라 몇십만이 출동하여도 조선점령의 꿈은 실현할수가 없다.

바로 이것을 알기에 일본공사나 조선주둔군 사령관은 물론 본국에서까지 조선의 반일의병들을 《폭도》라고 락인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할것을 명령했고 그 주모자를 잡는데 신경을 썼다.

바로 그 행운이 와다나베에게 차례졌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조선출병을 커다란 영광으로, 저들의 출세의 길을 닦는 발판으로 여기고 저마다 출병의 열망에 떠있는 수많은 일본남아들을 타고누를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와다나베가 좀더 일찌기 출세할수 있는 기회는 그전에도 있었다. 갑오년란리때 전봉준을 추격하여 론산까지 갔을 때이다. 그때 그는 전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록두장군을 자기 손으로 꼭 잡는다고 생각했다. 한것을 갑자기 나타난 어떤 총각놈의 유인에 걸려 놓치고말았다.

충주성을 빼앗기고 달아날 때 그 총각을 다시 보았다. 말을 타고 자기를 지꿎게 따라오던 놈이 바로 그 총각이였다. 기관총을 쏘아대며 그때 못한 분풀이를 하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했다. 어째서인지 그를 다시 마주서니 겁이 앞서고 손이 떨리였던것이다.

지금 그 총각놈이 저 성안에 있을것이다. 생각을 하니 호기심도 나고 두렵기도 하였다. 사나이의 기상으로는 맞서고도 싶으나 이기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이 따른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이기지 못했

다는 그뿐만아니라 너같은 놈은 아무리 믿어도 구실을 못하는 쓸모없는 놈으로 규정될것이 두려운것이다. 그것은 곧 조선전선에서 무훈을 세우고 출세의 길에 올라 대본영의 장성급벼슬자리를 넘보는 그에게 치명적타격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도 여느때 없는 악심과 지꿎은 야심을 가지고 병졸들을 《도쯔께끼》에로 내몰았다.

공격전의 앞선에는 조선군사들이 구식총통을 퉁퉁거리며 나아갔다. 그뒤로 왜군들이 신식보총과 기관총을 휘두르며 유유히 따라섰다.

그때 의병들은 이미전에 벌써 안정을 하고 성벽에 바싹 붙어 놈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둥그렇게 굽어간 성벽을 따라 무수한 기발들이 펄럭이고 창검들이 번쩍이고있었다.

린석은 남풍루에서 놈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격명령을 준비하고있었다. 옆에서는 주용규가 화승총 한바탕, 활 한바탕거리를 계산하며 때를 기다리고있다.

생각을 하면 속이 탄다. 놈들이 쏘아대는 총탄이 성벽을 때리고 귀전을 아츠럽게 스치며 날아가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쏠수가 없는것이다.

의병들은 성우에 납작 엎드리거나 성가퀴에 숨어 머리조차 내밀지 못하고있다. 바라는것은 오직 놈들이 바싹 다가들기를 기다리는것뿐이다. 그때 화승총으로 일제히 한방씩 쏘고 물러나면 뒤에서 대기하던 화승총수들이 나와 쏘고 하는 방법으로 응전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다가드는 놈들은 활로 쏘고 그래도 성벽에 붙는 놈들은 창칼로 해대야 한다.

마침내 놈들이 사거리안에 들어섰다. 린석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북소리가 터지고 취타악기들이 진동을 했다. 그와 함께 화승총들이 일제히 불을 토했다. 순간에 성벽우에는 젖빛의 화약연기가 자욱히 서리였다.

놈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그러나 아무리 쏘고 또 쏘아도 대부분 무리는 죽지 않을뿐아니라 성밑으로 바싹바싹 다가왔다.

리춘영은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중군으로서 지금 그는 성의 기본방어구역인 남쪽을 맡고있는것이다.

그는 평생 싸움이라는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수백수천의

흉적들이 성밑으로 달려들고있다. 바로 자기를 죽이자고 하는것이다.
팔다리가 떨렸다. 가슴이 옥죄였다. 그런데 그는 의병들을 호령하고 명령하며 앞장에 서야 한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수 없다. 입을 열면 목소리부터 떨렸다. 평시에는 만사람앞에 나서도 장히 거드름스러웠고 위풍이 있었다. 문을 나서기만 하면 전후배 사령을 수십명씩 단 교군이 따르고 길라장이들이 륙모방망이를 휘두르며 앞에 섰다. 가는 곳마다에서 문무관리들이 엎드려 머리를 숙였고 산해진미와 주지육림으로 맞이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후두둑 하는 기관총의 련발사격이 성가퀴를 때리며 돌가루를 하얗게 날리고 도탄된 탄알이 아래도리를 맴돌았다. 동시에 귀부리를 스치는 탄알이 팽 소리를 치며 어디론가로 날아갔다.
춘영은 정신이 아찔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기가 분명 총탄에 맞은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바로 그 순간 누구인가 자기를 욕하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일어서라구, 그렇게 겁이 나면 집구석에서 녀편네 엉치나 두드릴 노릇이지.》
그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반대로 저쪽 성우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 활은 뭣하는것이야. 저놈들을 겨냥하구 자꾸 쏘란 말이야. 네가 죽이지 못하면 그놈이 널 죽여…》
그제서야 목소리의 임자가 주용규라는것을 알았다. 그가 성우에 우뚝 서서 의병들사이를 오가고있는데 겁도 없는 모양이다. 저 시뻘겋고 거무틱틱한 융복차림이 그에게 용감성을 부여해주었는가.
춘영은 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끈이 끊어진 갓이 저아래로 굴러가 있었다. 그는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 불안에 쫓기며 급히 달려가 갓모를 썼다. 누가 또 그것마저 지켜본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공포심에서 온것이였다. 그때에는 누구도 그에게 낯을 돌리지 않고 모두가 싸움에만 집중하고있었다.
《앞렬 조총수들, 심지에 불, 목표 조준… 쐇!》
누군가 힘차게 소리쳤다. 여기저기서 부시깃이 번쩍거리고 쑥심지 타는 냄새가 풍겼다. 이어서 땅땅 하는 조총들의 울부짖음, 짙은 화

약내…
그래도 놈들은 계속 다가왔다. 이제는 궁노수들이 앞장섰다. 활줄을 힘껏 당긴다. 놈들이 무리로 쓰러진다. 뒤로 도망친다.
그때 성우에서 하늘을 가르는 소령소리가 들렸다.
《왜놈들을 겨누고 쏘라. 조총수, 궁노수모두 뒤에 선 왜놈들을 향하여 일제사격!》
류린석이였다. 그가 지금 성가퀴사이로 몸을 우뚝 세우고 가까이에 다가든 왜놈들을 굽어보며 소리치고있었다.
그제서야 의도를 알아차린 의병들이 관군의 뒤에서 고함만 지르며 어물거리고있는 왜병들을 향하여 일제히 조총탄과 화살을 날렸다. 그러자 왜병들속에서 혼란이 일었다. 신통히 저들만 향해 철알과 화살들이 쏟아져내리는데 질겁하여 내빼기 시작한것이다. 거기에 대고 더 맹렬한 사격이 가해졌다.
마침내 적들은 쫓겨갔다. 성에는 붙어보지도 못하고 무리죽음만 남긴채 물러간것이다.
오후에 놈들은 다시한번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아까보다 더 멀리에서부터 쫓겨가고말았다.
해가 질무렵 황혼이 깃든 성우를 바라보는 린석의 마음은 흐뭇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게 생각되던 싸움이 승리로 끝난것이다.
싸우면 이긴다는 신심이 넘쳤다. 그 기세를 안고 의병들이 서로 붙안으며 만세를 부른다.
남풍루에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리춘영, 주용규, 안승우, 김백산, 사석이들과 그리고 세상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여러 의병장들과 그 부하들이였다. 그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던 린석은 붓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여 즉석에서 시 한수를 썼다.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고 할 사이도 없었지만 붓은 종이에 닿자마자 일필휘지로 달렸다.

사나이 칼잡고 성우에 올라서니
이 몸의 고귀함이 비로소 알리누나
한초리 붓끝으로 세상을 론할적엔
나라의 태평함이 저절론가 했더니

나서라 싸움에 왜적이 쳐온다
국운의 흥망이 이 몸에 달렸거니
풍월의 귀함도 그다음에 론할 일
나라가 없고서야 세상은 무엇하리

내 비록 력전끝에 피를 묻고 쓰러져도
나라위한 싸움에 공을 남겨 전하리라

한사람한사람 차례로 돌아가다가 춘영의 앞으로 왔다. 그는 시를 붙잡고 읊다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들어볼 소리가 있겠나?》
린석이 묻자 춘영이 놀란듯 눈을 떴다.
《꼭 저를 두고 쓴것 같습니다.》
《중군을 두고 쓰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문을 몰랐다. 그러나 춘영만은 싸움중에 비굴했던 자기를 두고 깊은 자책에 잠겼다. 다시는 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
그날 저녁 성안으로 다른 기쁜 소식이 전해왔다. 령남과 관동, 충청도 각지에 나간 사람들한테서 파발이 도착했던것이다. 그에 의하면 리강년, 리직신, 리범직들은 나라의 운명에는 안중이 없이 일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던 역적의 무리들을 처단하고 각기 고을들을 차지하였다. 한편 리린영은 문경고을을 들이쳤는데 이기지 못한 대신 리화령(문경고개)을 차지하고 령남지방에로의 모든 통행을 장악하게 되였다.
그밖에 제천반일의병대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와 전라도, 경기도 각 지방들에서 의병들이 크게 들고일어나 제천반일의병대의 활동에 적극 호응하였다.
소식을 들은 린석은 더욱 기쁨을 금할수 없어 의병장들앞에서 말했다.
사람이 자수자강해야 잘살수 있고 립신양명도 할수 있다는것은 세상에 통하는 자명한 리치이다.

나라도 같다. 스스로 힘을 키우고 자체로 강해지지 않으면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을뿐아니라 오늘과 같이 왜적의 침입을 당하는 수치와 곤욕의 길밖에 없다.

그런데 나라의 힘을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들 매 사람, 여기에 앉은 각자들이다.

우리가 들고일어나니 강원도, 경상도가 호응하고 경기, 황해, 전라, 평안도가 뒤따라 일어났다. 나자신 평생 싸움이라고는 해보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전장에 나서니 새 뜻이 용솟고 감회도 새롭다. 자신을 알게 되고 왜적을 알게 되고 싸움도 알게 되니 이 얼마나 좋은가.

제장들, 모든 의병들은 어제까지는 비록 붓대를 잡은 선비였거나 보탑을 잡은 농부였거나를 막론하고 자수자강의 립장에서 싸움에 더욱 전력하자, 정의의 싸움에 립각하여 일신의 안전과 리익만 생각하고 몸을 내대지 않는것은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것이다.

모두가 오늘의 성전에 한몸바치는것으로 후손만대에 이름을 날리고 뒤세대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자. …

그의 힘있는 호소에 여러 의병장들이 일제히 머리숙여 화답하였다.

《예잇, 잘 알았습니다. 기어이 대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6

그날 아침 주용규는 수저를 들다가 갑자기 터지는 포탄소리에 밖으로 뛰여나갔다. 해가 방금 동산머리에 솟아 성안을 들이비칠 때였다.

그것은 너무도 일찍 시작된 싸움이였다. 첫날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물러갔던 놈들이 며칠사이에 력량을 보충해가지고 새로 걸어오는 싸움이였다. 역시 이다찌가 작전하고 지휘하고있었다.

그전까지만 하여도 그는 몇문의 포만 가지고도 충주성쯤은 문제가 없다고 타산하였다. 조선의 장삼리사들이 그것도 의병이라고 하는 하잘나위조차 없는것들이 언제 포탄맛을 보았겠는가 하고 제딴에는 있

는 힘껏 포화력을 들씌웠는데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완전한 한개 포중대의 화력을 요구하여 증강배치하였던것이다.

한순간 포소리를 가늠하며 방향을 판정하던 주용규는 제가 앞장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벌써 의병들은 서로 찾고부르며 성쪽으로 달려가고있었다.

용규도 달렸다. 군사장으로서의 그는 싸움의 승패가 많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만큼 누구보다 싸움에 앞장서며 용감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옛날에는 량군이 접전에 앞서 장수들의 서전이라는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날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에는 그 서전이라는것이 없는 대신 장수들의 용감성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즉 돌격전의 맨 앞장에 서야 하는것이다.

주용규가 이런 생각을 하며 성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때에 포탄들이 면바로 성벽들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용규가 몰랐던것이였다. 첫날 싸움때는 포탄들이 주로 성안의 건물들에 날아들었는데 오늘은 성벽을 향해 날아드는것이였다.

모르는것은 그것뿐이 아니였다. 첫날에는 겨우 몇문밖에 안되던 포가 오늘은 그 몇배로 늘어났으며 그것도 주로 성벽을 노리고 집중사격을 퍼붓는다는것을 몰랐다. 그뿐만아니라 류린석이하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그것을 모르고있었다.

보다 치명적인것은 놈들의 포탄이 성벽을 목표로 날아올 때 벌써 그 의도를 포착하고 대책을 해야 하겠으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한것이다.

그리하여 련속 날아오는 포탄들이 성벽을 흔들고 무거운 성돌과 흙먼지를 들씌울 때까지 의병들은 꿈쩍도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있었다. 그렇게 할것을 요구했던것이다.

얼마 못 가서 포탄의 작렬에 의병들이 통채로 하늘에 날아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어떤데서는 직탄에 맞아 사람의 형체마저도 없어졌다. 그럼에도 용규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전과 같이 웨쳤다.

《꼼짝말고 엎드려있어. 포탄이 터질 때는 뛰지 말고 엎드려있어야 한다는걸 모르는가. …》

한참만에야 그는 포탄들이 갈지자모양을 하면서도 일자식으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머리속에 린석의 생각이 피뜩 떠올랐다. 그가 지금 포탄들이 이동하는 방향에 나가있다는것이였다.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포탄들은 그보다 더 빨리 앞서나갔다. 하다가도 급진적으로 멈춰서 바로 그의 발치가까이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는 몇번이나 포탄의 폭풍에 날려 몇자씩 나가곤두박히기도 하였다. 하다가 눈을 떠보니 린석이 몇십걸음밖에서 의병들에게 뭐라고 소리치는것이 보였다. 포탄이 이제 저 곳, 린석의 바로 옆에 떨어질것이다. 그때에는 저 성가퀴가 날아날것이고 그 자리에는 큰 함지박만한 구뎅이가 생겨날것이다. 그때에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용규는 이것저것 바재일 사이도 없이 비호처럼 몸을 날렸다.

《창의대장님, 위험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때를 같이하여 용규는 몸을 미처 가누지 못하고 우뚝 서있는 린석을 향해 비호처럼 날아가 성안쪽 경사지로 떠밀었다.

그때 그는 무엇인가가 둔탁하게 뒤잔등을 때리는 아픔을 느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했다. 그렇게 생각했을뿐 다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하늘땅이 자꾸 딩굴고 어디론가 흘러가는듯한 느낌뿐이였다.

그가 정신을 차린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흔들어깨우는 속에서였다. 그가운데 겨우 린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용규, 군사장, 이 어찌된 일이냐. 정신차려라. …》

목소리가 째진듯 갈리였다. 흐릿한 영상속에도 린석의 모습이 안겨왔다.

《창의대장님, 무사했군요. 성을 꼭… 저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을 끝맺지 못한채 목이 옆으로 떨어졌다. 바로 린석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믿지 않고 거듭거듭 그 이름을 불렀다. 그

러나 대답이 없다. 두번다시 눈을 뜨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린석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적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미 적진만 바라보고있을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여기저기 성들이 무너지고 의병들이 쓰러진것이였다. 포탄에 맞아 희생되였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성안으로 실려가고있다.
(이게 웬일인가. 왜 이런 경우를 예견하지 못하였는가. …)
그는 가슴을 치며 통탄했다. 응당 예견을 하고 대책을 취했어야 할것인데 하지 못했다.
원인을 따지면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근본은 새시대의 싸움에 대비할 준비가 되지 못한데 있다. 주용규가 그랬고 자기가 그랬다.
그는 전장에서의 리탈은 곧 패전을 의미한다는 기존의 리론에만 매달려 그토록 포탄이 터지는 속에서도 누구도 성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을 군률에 대한 엄격한 요구와 강의성만으로 평가해야 하겠는가.
《남쪽을 맡았던 의병의 삼분의 하나가 희생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배비변경을 하지 않으면 방어가 곤난합니다.》
리춘영이 보고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번의 포사격에 그만한 사상자를 내다니 이런 실책이 어디 있는가.
가슴이 터지는듯 아팠다. 주용규의 죽음은 피할수 없는것이였다. 자기도 죽어야 했다. 그가 비록 나대신 죽기는 했으나 어쩔수 없는 죽음이였다.
생각을 하니 자연 기대가 김백산에게 돌아갔다.
즉시 사람을 띄워 부대가 도착하도록 명령했다.
잠간사이에 선봉대가 도착하였다. 아직 한명도 피해를 입지 않은 그의 부대를 바라보니 마음부터 든든해졌다.
《이 시각부터 남쪽방어를 선봉장이 책임지고 맡아야 하겠네. 주용규군사장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라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부대가 성에 전개되였다.
백산이 즉시 초(100명단위)와 기(30명단위), 대(10명단위), 오(5명단위)로 나누어 각기 분담구역을 배정하였던것이다.
급한것은 성벽을 빨리 보수하는것이였다. 각기 자기 구역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게 하면서 저부터 제일 심하게 파괴된 구역에 붙어 돌들을 쌓아나갔다. 그를 따라 모든 의병들이 성밖으로 뛰여내려 무너진 돌들을 하나하나 다시 쌓았다.

그리하여 놈들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너진 성벽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쌓을수 있었다. 비록 놈들의 포사격이 집요하긴 했지만 명중률이 높지 못하고 성자체가 견고하여 파괴된 구간이 얼마 많지 않았던것이다.

마침내 놈들의 공격이 시작되였다. 그때에도 백산은 미리 준비를 잘 하고있다가 먼저 화승총으로 집중사격을 안겼다. 백여정의 화승총들이 먼저 일선에서 한방씩 날리면 뒤따라 이선에 섰던 총수들이 앞에 나서 연방 갈기였다. 그들이 한번씩 나서 총을 쏠 때면 말그대로 하늘에서 철의 소나기가 쏟아지듯 하였다. 이번에도 관군을 앞세우고 뒤에서 따라오던 왜놈들속에서 대혼란이 일었다.

수십, 수백발의 철환들이 몸을 피할수 없게 무리로 쏟아져내리는데 그것도 신통히 저들만을 골라쏘기때문이였다.

그날 이다찌나 와다나베는 보다 강력한 포사격으로 성이 적지 않게 파괴되고 희생자도 많은만큼 어제보다 저항도 약하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생각과 달랐다. 저들이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성은 이미 다 보수되고 예견치 않았던 화승총의 일제사격이 진행되였다. 단번에 수십명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뜻밖의 영문에 어리둥절해있는데 또다시 철의 우박이 쏟아져내렸다.

깜짝 놀란 와다나베는 급히 퇴각명령을 내렸다.

그뒤를 따라 또다시 철환들이 날아왔다.

약이 오른 이다찌놈은 화승총사거리에서 벗어나 성에 대한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기관총과 보총탄들이 성벽을 향해 미친듯이 짖어댔다. 그러나 그때에는 의병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 넓은 구간의 성벽에 머리 하나 내미는자가 없었다. 그것이 더 악에 받쳐 맹렬한 사격을 들이댔으나 그럴수록 성은 쥐죽은듯 조용하기만 하였다.

이렇게 온종일 공격을 했으나 헛물만 켜고 돌아섰다. 다음날도 결과는 같았다.

악이 오른 놈들은 다음부터 전술을 바꾸었다.

병력을 더 많이 들이미는 한편 관군을 먼저 돌격대로 내몰고 저들은 멀리에서 엄호사격만 하는것이였다.
성우에서 놈들을 살펴보던 백산은 속이 탔다. 관군은 부진부진 다가오는데 의병들은 성가퀴밖으로 머리도 내밀수 없는것이다. 그나마 화승총을 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선사람들을 죽이는 놀음이 되고만다. 왜놈들은 저 멀리에 두고 제사람끼리 싸워야 한다.
총, 총이 있어야 한다. 다문 몇정의 보총이라도 있어서 저 멀리에서 짖어대는 기관총을 어떻게나 박산내야 한다. 바로 이 성을 점령할 때 서상렬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그의 부대에도 몇정의 보총이 있기는 하지만 총탄이 없다. 이미 다 써버린것이다.
그때 오째가 다가왔다. 일전에 홍정식이네 론하던 총과 총탄이 도착했는지 알아보자는것이였다. 그의 말대로 되였으면 벌써 그것이 도착했어야 했다.
백산은 믿지 않았다. 하면서도 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창의소로 달려갔다. 마침 대문칸에서 밖으로 나오던 안승우와 마주쳤다. 백산은 무춤 멈춰섰다가 자세를 바로했다.
《군수장님, 서울에서 소식이 없습니까? 저, 총이 안되면 총탄만이라도…》
그가 말끝을 흐렸다. 그가 누구앞에서든 이렇게 주저해보기는 처음이다.
《왜, 믿지 않는다더니 이제와선 생각나나?》승우가 그를 차겁게 바라보고나서 말했다. 하고는 무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대답을 못하는 백산을 동정하듯 다음말을 이었다.
《소식이 왔소. 하루이틀사이에 도착할것이요.》
백산은 무겁게 몸을 돌렸다. 따지고들면 그가 승우앞에 그렇듯 무안하고 죄스럽게 서있을 근거가 없다. 어쨌든 방어전이 진행되는 이날까지 아직 한정의 총도, 한알의 탄알도 도착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에 대하여 백산이 큰소리로 대답할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아니, 할수 없었다. 그가 곧 자기 상관이며 량반인 까닭이다.
보다 더 중요한 리유가 있다. 그것인즉 승우가 바로 미영의 아버지이기때문이다. 그야말로 자기를 미영과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총

을 거래하는 일에서조차 완전히 손을 떼게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성에 돌아오니 벌써 관군들은 성벽에 붙었다. 다행히도 사격명령이 없어서 서로 총질들은 하지 않았는데 대신 심한 욕설들만 주고받고있었다.
《이 폭도놈들아, 너희들이 누구의 밥을 먹고 살았기에 함부로 손에 무기를 잡고 나라를 배반하느냐. 당장 성문을 열고 나와 투항하라.》
이런 소리가 올라오면 보다 더 험한 소리가 성벽에 몰켜선 관군들의 머리우로 쏟아진다.
《이 산수털벙거지녀석들아, 네놈들의 그 벙거지를 나라를 지키라고 씌워주었지 왜놈의 개노릇이나 하라고 씌워준줄 아느냐. 제사람의 손에 죽지 않겠으면 돌아서서 왜놈들에게 총탄을 날려라. 그때엔 살려주겠다.》
놀라운 일이다. 총부리를 맞대고 저렇듯 쌍욕을 퍼부으면서도 서로 총질은 하나도 하지 않으니 여기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 분명히 한겨레끼리 싸우며 피를 흘리기 싫다는 공통된 감정일것이다.
그것이 백산의 힘을 돋구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할 사이없이 성가퀴사이로 불쑥 나섰다.
《관군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한겨레요.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왜놈과 싸우자고 일어났지 우리 사람끼리 싸우자고 일어난 의병이 아니요. 이제 우리가 들고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오랑캐의 나라로 되든가 오랑캐의 족속에 짓밟혀 개노릇을 하는수밖에 다른 길이 없소.
형제들, 대답해보시오. 어느 길을 택하는것이 옳겠는가. 왜놈의 총알받이로 동족을 겨누겠는가 아니면 돌아서 총부리를 왜놈에게 돌리겠는가. …》
그러자 기관총탄이 성벽을 후두둑 때리며 무수히 날아왔다. 관군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렸다. 그뒤로 왜군들의 《도쯔께끼》가 시작되였다. 순간에 왜군과 관군이 뒤섞여 혼잡탕이 되고 그것이 곧 성벽에 대한 공격에로 이어졌다.
길다란 사다리들이 여기저기 솟아오르며 왜군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었다. 일단 싸움에 붙으면 이기고야만다는 제놈들식의 악착성, 야수성이 발현된것이다.

그러나 놈들은 오산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단병접전이야말로 의병들의 장점이요 바라던 싸움이였던것이다. 먼저 기다란 창대로 기여오르는 놈들을 찌르고 칼로 베고 활로 쏘았다. 순간에 성벽은 놈들의 비명과 아우성으로 변했다.

약이 오른 놈들은 일단 성에서 물러갔다가 다시 공격을 해왔다. 그럴수록 의병들은 더 용기를 내여 놈들을 요정내군 하였다.

현대전과 구식싸움방법이 뒤섞였다고 할수 있는 충주성싸움은 량측이 다 자기의 특기를 살린 싸움이라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왜군이 극도의 피동에 빠지고 많은 살상자가 나게 된것은 의병들의 전술에 걸려든때문이였다. 즉 어차피 성벽에 붙지 않을수 없었는데 그때에는 어떤 현대전의 방법도 통하지 않는것이다.

다른 리유도 있다. 선봉대가 새로 투입된데다가 그를 책임진 김백산이 싸움에 앞장설뿐아니라 림기응변의 전술로 능숙한 지휘를 보장했다는것이다. 대부분 의병장들이 간고했던 그날 원시적인 도창무기로 대포와 기관총에 맞서 그토록 당당하게 성을 지켜낼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를 김백산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여기에는 그의 용감성이나 능란한 지휘와 함께 평민으로서 그가 늘 의병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고난과 시련을 함께 했다는 의미가 중요하게 포함된다.

이렇게 하여 그날 싸움은 여느때없이 간고하고 치렬했지만 전과는 그만큼 컸다.

다음날 이다찌는 더 많은 병력을 들이밀었다. 다음날 또 다음날에도 치렬한 공방전은 계속되였다. 이러는 속에 성안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였다. 화약과 화살이 떨어져가는것이였다. 창과 칼도 무한정 오래 쓸수 없고 그것만으로 싸울수도 없는것이다.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것인가…

백산은 요즘 자주 이런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한창 생각에 잠겨있을 때 마을쪽에서 한무리의 녀성들이 나타났다. 머리와 치마폭에 돌을 이고 싸안은 녀성들이였다.

《이 돌을 가지고 왜놈들을 쳐주세요. 뒤에는 녀자들과 아이들이 있어요. 놈들을 절대 성안에 들여놓지 마세요.》

녀인들이 떠들며 웨치며 하는 소리였다. 의병들이 그것을 성아래로

힘껏 던졌다. 악을 쓰며 성우로 대가리를 들이밀던 놈들이 우지끈 돌탕에 맞고 아래로 곤두박질을 했다.
《자요, 이것도 받아요!》
문득 들리는 소리에 백산은 고개를 돌렸다. 미영이 돌을 담은 치마폭을 싸잡고 자기를 쳐다보고있었다.
《미영씨도 왔소? 여긴 위험하오.》
미소가 어렸던 얼굴이 한순간 굳어지며 홱 돌아섰다. 자기를 몰라준다는데 대한 힐책인것이다. 하기야 백산이 왜 그것을 모른단 말인가.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기때문이다. 즉 군수장 안승우와의 상하관계가 무난히 유지될수 있는것이다.
그러거나말거나 미영은 요즘 성수가 났다. 의병들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뛰고있는것이다.
때로는 밥짓는 일에, 때로는 쌀과 부식물을 끌어들이는 일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부상자들을 돌보는 일에 간단없이 뛰고돌면서 참견을 하고있는것이다. 어느새 그는 녀자들이 하는 일을 모두 맡아 주관하는 총책으로 되였다. 매사를 그가 그러쥐고 움직이게 된것이다.
그렇게 뛰고 또 뛰는 머리속에는 언제나 선봉장 백산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지금 싸움의 가장 어려운 남쪽을 맡고있는 그가 매일매일 거두고있는 전과는 그대로 의병대의 전과로 되고있다. …
미영은 오늘도 화살마저 떨어진 전장으로 녀성들을 추동하여갔다. 전장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그의 모습을 보고싶었던것이다. 그이가 싸움에서 이기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도와주고싶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전공을 이룩하고 이름도 길이길이 날리였으면…
미영은 그것을 믿고있다. 눈으로 보고있다. 이쪽저쪽 싸움의 가장 어려운 곳으로 비호처럼 날아다니는 날랜 동작,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은 힘찬 군령, 새된 휘파람소리로 하늘을 가르는 번개같은 칼부림, 그때마다 목이 째지게 터져나오는 왜놈의 비명…
《선봉장님, 장해요. 더 힘껏 싸워주세요!》
어느새 그는 또 백산에게 끌리여갔다. 그리고 자기를 몰라주는것 같은 야속함에 이를 옹다물고 섰다. 쏘아보듯 까딱 움직이지 않는 눈동자…
포탄구뎅이를 뛰여넘어 저쪽전장으로 달려가던 백산이 문득 그앞에

멈춰섰다. 그대로 스쳐지날수 없는 눈길이 그를 붙잡았던것이다.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이마에 검댕이가 묻었소. 어서 닦소.》

백산이 피묻은 칼을 뒤로 가져가며 겨우 한마디 했다. 그밖에 무슨 말도 할수 없었다.

《그게 그렇게 걱정스러워요?》

역시 예견치 않았던 대답이였다.

왜 그랬는지는 미영도 알수 없었다. 곧 후회가 되였다.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한참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에야 생각이 났다. 언제부터 하고싶던 말이다.

《부디 군공을 세우세요, 끝까지 몸성해서…》

정작 맞대놓고 말하자니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끝을 못 맺고 《호》하고 긴 한숨을 내쉬던 미영은 다시 홱 돌아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7

류린석은 방 한구석으로 밀어놓았던 교의를 가져다 앉고 여러 의병장들을 둘러보았다.

선화당 넓은 방안에는 창의소성원들과 함께 성안의 의병장들전원이 모여앉았다.

며칠사이에 형세가 급변하였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을 빼앗을수 없다는것을 타산한 이다찌가 봉쇄작전으로 넘어갔던것이다. 성문과 함께 일체 외부로 통하는 길들이 차단되고 련계도 가질수 없게 되였다. 이렇듯 급변한 형세가 어떤 후과를 미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만큼 류린석이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긴장되여있었다.

무엇보다 식량난이 들이닥칠것이다. 좁은 성안에 본래의 주민보다 더 많은 의병들이 장기주둔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조만간 식량이 떨어

지리라는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일이였다. 성안에 있던 남창, 북창의 식량은 이미 의병대와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주어 남은 것이 없다. 있다면 성에서 삼십리 떨어진 가흥창에 수만석의 쌀이 있는데 거기에는 왜놈수비대가 철통같은 방어를 하고있어 바라볼것이 못된다.

식량 못지 않은 또 다른 난관이 다가오고있다.

화약과 화살이 떨어져가고 다른 병쟁기들도 점점 못쓰게 되여가고 있는것이다.

특히 화약이 모자란다. 그래도 지금까지 적들과 얼마간 떨어진 거리에서 접전을 할수 있었던것은 전수 조총의 힘이였다. 그런데 화약이 떨어져 조총마저 쏠수 없게 되면 순수 도창무기로만 적과 맞서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병접전에 한한것이지 대포나 기관총에 맞설것은 못된다. 이제 창이나 칼마저 못쓰게 되면 그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말하자고 하는것은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성을 끝까지 지켜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요. 난관으로 말하면 그밖에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소. 말들을 해보시오, 이제부터 성을 어떻게 지키며 또 얼마를 견지할수 있을것인지?》

류린석이 여느때없이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사람들은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린석이 이런 투로 말하기는 이것이 처음이였던것이다.

아닌게아니라 방 한구석에서 누군가의 불만기어린 소리가 툭 튀여나왔다.

《성을 끝까지 지킬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을 어떻게 지키구 얼마를 견지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또 무슨 말이구요?》

평시에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잘 나타나지 않던 의병장이다. 부대의 의병도 얼마 되지 않는다.

《형편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말했소. 문제는 앞으로 보다 험해질수 있다는데 있소. 이를테면 성이 무너진다든가 우리 내부에 나약한 사람이 나서 싸움을 두려워한다면 그때는…》

《창의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를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며칠 타고앉아 형세나 보자고 피를 흘렸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전국의 의병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싸움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가 충주를 버리고 물러나거나 놈들에게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그들이 실망하고 역시 물러날수 있습니다. 끝까지 타고앉아 전국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린석의 말 한마디에 여러 의병장들이 벅적 떠들며 들고일어났다.

린석은 지긋이 입을 다물었다. 눈에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차있었다. 바로 그것이였다. 그들이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서 한 말이였다.

《고맙소, 이젠 나부터도 힘이 나오. 모두 그러리라고 믿었소. 나는 지난 며칠어간에 주용규군사장의 장한 죽음이나 김백산선봉장의 용감한 싸움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더 굳히였소. 반드시 이길것이요.》

《옳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겨야 합니다. 성을 내줘선 안됩니다.》

이번에도 또 여럿이 합창을 했다.

린석은 교의에서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가까이에 마주앉은 안승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보다싶이 의병들의 사기는 이렇소. 문제는 식량과 무기인데 두가지 일이 군수장에게 많이 달려있소. 무슨 방법이 없겠소?》

묻고는 여전히 시선을 떼지 않았다. 대답을 바라는것이였다.

그것은 린석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의도적인 목적이라고도 할수 있다. 말하자면 조성된 정황에 맞게 승우네가 더 힘껏 노력해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자는것이였다.

결코 그동안 군수장인 그가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는것은 아니였다. 그렇지 않아도 승우는 수천명 의병은 물론 성안의 주민들을 먹고살리는 일에 밤낮이 따로 없었다. 그럼에도 아직 일을 크게 펴지 못하여 줌안에 쥐고있는 쌀 얼마, 몇푼 안되는 돈을 나누는데만 급급해있는것 같아서 하는 말이였다.

한동안 말이 없던 승우가 넌지시 한마디 던졌다.

《식량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래? 군수장한테 무슨 방도라도 있소?》

린석이 크게 놀라며 반문했다. 그것은 기대를 하면서도 바라지는 않았던 대답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밤낮 일에 몰리여 피골이 상접한 자세로 린석의 앞에 나서군 하던 승우였던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도 천연스레 같은 대답을 했다.

《책임집니다. 우리가 성에서 싸우는 한에는 먹도록 해야지요.》

역시 드물게 하는 말이 값이 있다고 린석은 그 말을 믿었다. 그만큼 지금까지 일을 착실히 해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것은 승우의 욕망뿐이지 끝까지 그렇게 담보할수 있겠는지는 그자신도 모르고있었다. 앞으로 성을 얼마나 더 견지하며 그런 경우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겠는지는 승우뿐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있었다. 하면서도 대답을 한것은 그가 남모르게 차고있는 며칠분의 예비와 지금 추진하고있는 친일부호들의 집을 털어내여 또 며칠분의 예비를 마련하려고 하는것이 전부였다. 그를 위하여 이전 감영의 리방이나 호방, 례방과 같은 관속들은 물론 의병대의 주먹센 군사들이 다수 동원되고있다.

다음 병기에 대한 의논이 벌어졌을 때는 사석이 나섰다. 그가 철덕을 새로 쌓고 쇠를 녹여 창과 칼을 만들어내거나 수리하여 화승총의 철알을 만들겠다는것이였다. 역시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였다.

그러나 조총을 쏘는데는 철알만 있어서는 안된다. 화약이 있어야 하는데 쇠부리공들은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

자연히 시선이 백산에게 돌아갔다. 거기에 갑오란리때는 물론 강원도의 사냥군들이 자체로 화약을 만들어쓰던 경험자들이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조차 그것을 만드는 원료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즉 쇠를 녹이려면 파쇠가 있어야 하고 화약을 만들려면 오랜 집들에 쌓인 먼지나 변소, 오물장, 집주변의 묵은 흙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그것들이란 곧 망초의 원료인데 망초가 화약의 원료인것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만큼 누구도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김백산이 나섰다.

《그것도 할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백산에게 돌아갔다. 그렇지 않아도 싸움의 중하가 그에게 많이 실려있는 지금이다. 그런데 제가 또 어떻게 하겠다는것인가?

《녀자들과 로인분들을 동원하면 됩니다. 집들에서 파쇠와 함께 흙먼지, 오래된 흙들을 모으는 일인데 이것은 로인들과 아녀자들도 할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선동하여 맡아할만 한 적임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처 말을 뱉어놓은 백산은 문득 자기를 후회하였다. 자기를 향해 피끗 고개를 돌리는 승우를 보았던것이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것이 아니였다. 해서는 안될 말이였다. 방금 안승우가 가장 어려운 과업을 맡아안았는데 그의 딸에게까지 그것도 본인이 아닌 자기가 나서 책임을 씌우려 하지 않았는가.

그때 린석이 무릎을 치며 큰소리로 웃었다.

《그참 명안이군. 미영이 그 일을 할수 있지. 그한테 맡기세.》

린석이 여전히 웃음을 금치 못하며 승우를 바라보았다.

그때까지 백산을 못마땅히 쳐다보던 승우가 고개를 숙였다. 대장의 요구가 그러니 할수 없다는 자세였다.

모임이 끝나자 린석이 춘영과 승우만 따로 남게 하였다. 방금전과는 전혀 다른 심중한 자세였다.

《한가지 더 긴하게 론할것이 있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군사장이 없는 문제일세. 주용규를 떠나보낸 우리 가슴이 아픈것은 말할것 없지만 그 자리를 메꾸어야 하는것도 어쩔수 없는 일이네.

내가 그를 대신할 사람을 내정하고는 있지만 그대들도 생각이 없지 않을터이니 안을 내놓아보게.》

두사람은 대답이 없이 덤덤히 앉아있기만 했다. 좀 뜻밖의 일이기도 한데다 그런 일에는 대장의 결심이면 된다는 믿음에서였다.

그것을 짐작한 린석이 곧바로 생각을 터쳤다.

《나는 군사장의 후임으로 선봉장 김백산이를 제기하네.》

순간 두사람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얼결에 마주보고는 약속이나 한것처럼 린석의 앞에 엎드렸다.

《대장님, 이것은 심중한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둘이가 거의 같은 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린석에게 대하던 태도와는 딴판이였다.

린석이 그러는 그들을 못마땅히 바라보며 턱을 매만졌다.

《말을 해보게, 리유가 무엇인가?》
《대장님, 김백산이는 저희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에게는 저에게 맡는 푼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일을 맡기면 교만방자해져서 쓰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도 아래웃사람을 몰라보고 마음대로 놀아나는데 군사장까지 시켰다가 무슨 일을 칠지 알수 없습니다.》
리춘영은 그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군령이란 대쪽같이 쭉쭉 내려먹어야 하는것인데 그가 군사장이 되면 우선 그부터 량반선비의 병장들한테 호령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받아물기 힘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글러서도 아니고 군령이 엄하지 못해서도 아니며 오직 굳어진 법이 그렇기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옛법이 그렇다 하기로써니 그에게는 군공이 있고 또 그만큼 호령할만 한 능력이 있지 않는가. 지금에는 그를 대신할만 한 사람이 우리 부대에 없네.》
《옛 성현들도 군공에 따라 벼슬을 줄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설사 오늘날에는 그 말이 통하지 않을지라도 줄기와 가지에는 순서가 있는것입니다. 가지가 줄기를 좌우지할수 없듯 상민이 량반을 호령할수 없습니다. 란시라고 하여 내려오는 옛법을 무시하고 상하의 격차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로 세상을 떠받드는 기틀을 허물어버리는것과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자네들이 용규를 대신할 사람을 내놓게. 그렇지 않아도 애초에 내가 자네들이 먼저 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린석도 어느 정도 격해졌다. 그들의 뜻하는바를 몰라서가 아니였다. 아울러 자신도 상하관계나 반상의 도의를 몰라보는데 대하여서는 참지 못하는 성미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더구나 싸움의 승패를 판가리해야 할 준엄한 전장에서는 모든것이 용서되며 뒤로 미루어진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또는 이러한 속에서 참말로 량반다운 량반도 생겨난다고 믿고있었다.
그러는데 승우가 또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대장님은 선봉장을 너무 믿고 그만 내세우려 하고있습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한쪽 말만 들으면 편견이 생기고 한사람에게만 일

을 맡기면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백산으로 말하면 선봉장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이상 책임을 맡기면 실책을 범하기 쉽고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꼭 참작해주기 바랍니다.》

리춘영도 그에 공감이라는듯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그것이 린석을 더욱 격하게 하였다. 물론 린석이 자신도 량반인 이상 그들의 심정을 리해하지 못하는것이 아니다. 그만큼 그도 백산을 무반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만큼 그사이에는 또 피치 못할 간극이 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그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는것이다.

거기에는 그들로서의 타산이 있다. 미영을 백산에게서 떼내자는것이다. 하다면 린석이 이것마저도 양보해야 하겠는가. 나라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저부터 한몸바쳐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딸 하나의 문제를 놓고 이렇듯 바재이며 타산을 앞세워야 옳단 말인가.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그러쥐였다. 그리고 무슨 불호령을 내릴것인가를 생각하며 부릅뜬 눈으로 쏘아보고있는데 닫겼던 대문이 벌컥 열리며 사기가 등등하고 활기에 넘친 몇사람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린석은 급히 자리를 차고 대뜰우로 나섰다. 들어선 사람이 뜻밖에도 홍정식과 늘 그곁에 묻어다니는 서울패거리였던것이다. 지금 린석이 놀라는것은 그들의 어깨우에 신식보총들이 주런이 메워져있는때문이였다.

《대장님, 가져왔습니다. 다섯정입니다.》

홍정식이 그것들을 장한듯이 마루우에 올려놓았다. 그옆에 전번에 보았던 야마무라가 연신 고개를 까딱이며 안경알을 번뜩이고있었다.

《그예 오고야말았군. 수고가 많았네.》

《총이란 다른 물건과 달라서 구하기가 힘들고 구해놓으면 또 나르기가 헐치 않아서 기간이 오래 갔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야마무라씨가 이번에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가 아니면 총도 총이려니와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겁니다.

이 고리짝안에다 총을 감춰가지고 오는것도 다 저 야마무라씨가 고안해낸겁니다.

장사물계에 도통한 야마무라씨가 역시 다르긴 다릅니다.》

홍정식이 버들가지로 특별히 길고 크게 만든 고리짝을 가리키며 열성적으로 설명했다. 그안에는 아직도 비단필을 비롯한 진귀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데 야마무라는 그것마저도 의병대에 다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하였다.

안승우가 그것들을 번져가며 값을 타산해보았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천쪼박이 아니라 총에 가있었다. 그만큼 생각도 깊었던것이다.

《나머지 총은 어떻게 한다는건가. 탄알은 또 어떻게 하구?》

그가 야마무라에게 물었다. 그때까지 제자랑에만 열중했던 야마무라가 갑자기 저자세를 취하며 얼굴에 살웃음을 띠였다.

《예, 다 준비되고있습니다. 경성(서울)에도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는 다만 여기에 당장 무엇이 얼마나 필요하겠는지를 알아보자고 왔습니다.》

《그야 그대가 이미 다 알고 가지 않았었나?》

《그렇긴 하지만 총 하나하나, 탄알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단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바로 그래서 필요한 값을 지불하는게 아닌가.》

이번에는 옆에서 지켜보던 류린석이 엄한 소리로 한마디 했다. 급기야 야마무라의 얼굴이 시꺼멓게 굳어졌다. 어딘가 급소를 찔리웠든가 아니면 반대로 불만이 솟구친 모양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홍정식이 다시 나섰다.

《대장님, 그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총 한자루한자루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알지 못하기때문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지판에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자꾸들 이러시면 누가 이 위험천만한 일을 맡아하겠습니까.》

《가서 김백산선봉장을 불러오게.》

린석이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불시에 누군가를 향해 소리쳤다. 홍정식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린석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과 같이 급한 때에 얼마 되지도 않는 총을 갖다놓고 아무리 귀맛좋은 말을 많이 한댔자 소용이 있는가. 자연히 머리가 백산이쪽으로 돌게 된것이다.

과연 잠시후에 백산이 도착했다. 그는 들어서자바람으로 뜰안의 광경을 짐작하고는 곧바로 마루우에 놓인 총부터 집어들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어 격발기도 분해하고 방아쇠도 당겨보고 하더니 그대로 마루우에 던져놓았다.

《탄알은 가져온것이 없습니까?》

그가 린석에게 물었다.

자연히 시선이 야마무라에게 돌아갔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에 대해 물은것이 없고 야마무라역시 똑바로 대답한것이 없었던것이다.

야마무라의 자세가 급전직하의 저자세로 변하였다. 방금까지 안경알을 번뜩이며 고자세를 취하던 그가 허리를 굽히고 해죽거리기 시작하였다.

《예, 그에 대해선 이미 말씀드린바 지금도 수소문을 하고있습니다. 역시 위험한 물건이라 손에 넣기가… 헤헤, 그러나 문제없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다 되였을것입니다. 이제라도 경성에 가면…》

하다가 그는 입을 딱 벌린채 그대로 굳어지고말았다. 김백산이 불시에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거머쥐였던것이다.

《요 쥐새끼같은 놈, 뭐가 어떻게 되였다구? 똑바로 말해, 네놈이 여길 왜 나타났어?》

《이거 왜 이러는겁니까. 하, 이러면 이거…》

야마무라가 멱살을 잡힌채 공중에 매달려 허우적거렸다. 그러자 홍정식이네 패들과 안승우네들이 달려들어 백산을 겨우 뜯어말렸다. 거기에 더 화가 돋힌듯 백산은 야마무라를 다시 허궁 들어 마당 한복판에 집어던졌다.

《대장님, 총은 하나도 쓸것이 없습니다. 두개는 격침이 부러지고 두개는 격발기가 고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성, 조문이 맞지 않아 조준사격을 전혀 할수 없는것입니다. 나는 저놈이 성안에 자주 드나드는것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홍정식이네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무엇이라구? 네가 또 우리를 의심하는거야. 총을 알면 얼마나 알아서?》

《쓰지 못하는건 사실이요.》

그가 대답하고 주머니에서 총알을 한알 꺼내여 보총에 장탄하며 대

답했다. 그가 최후에 쓰려고 건사했던 몇알 안되는 총탄들중의 하나였다.

그가 총신을 하늘로 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철컥 하는 격발기소리뿐 총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홍정식이네들의 입이 굳어졌다. 그중 하나가 다른 총을 집어주며 쏴보라고 했으나 백산은 랭랭하게 도리머리를 했다.

《이미 말한바와 같습니다. 하나도 쓸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릴 믿지 못하겠다는거야. 이거야말로 랭수에 뼈뜯기울 노릇이군. 저 야마무라씨도 총내속이 저런줄은 몰랐단 말이야. 상놈이 뭘 좀 알면 알았지 감히 어디서 야료야.》

《거기선 왜놈을 얼만침이나 알아서 그리 역성이요.》

홍정식이네들이 왁작 떠들었다.

한편 땅에 넘어졌던 야마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승우에게 달려들며 야단을 부렸다.

《나를 이렇게 하자고 무기계약에 끌어들였는가.

당신네 조선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지한가. 저놈이 당장 사죄를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기거래에서 손을 뗄뿐아니라 그 값도 돌려주지 않겠다. 저놈이 내앞에서 사죄를 하고 선봉장자리에서 물러나게 해…》

제법 큰소리까지 나왔다. 거기에 홍정식이네들까지 합쳐서 기세가 사뭇 등등해졌다. 안승우가 당황한것은 물론 리춘영이마저도 어쩔줄을 몰라 량쪽의 눈치만 살피게 되였다.

《저들을 다 감영밖으로 내보내게.》

그때까지 말이 없던 류린석이 한마디 하고 대뜰우로 올라섰다. 교의에 앉아서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고있는 뜰아래사람들에게 다시한번 웨쳤다.

《정히 말을 듣지 않을텐가. 여봐라!》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때까지 쓰지 않고있던 설렁줄을 찾았다. 설렁줄 한번 흔드는 소리에는 대뜰우의 량반들도 솜털이 오싹하고 상투끝이 쭈빗해진다고 할만큼 감사의 불호령이 떨어지는것이 상례이다. 그만큼 군노사령들이 쓸어들어 이놈저놈 가릴새없이 마구 짓부시는 판인것이다. 홍정식이네는 물론 김백산이까지 대문밖으로 몰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렇게 하고도 린석이 교의에 앉아 눈을 꾹 감고 옴짝없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리춘영과 안승우들도 밖으로 나가고말았다.
그때로부터 얼마간 지나서 다시 들어왔을 때에야 린석이 겨우 입을 열었다.
《야마무라인가 하는 놈이 뭐라던가?》
리춘영과 안승우가 무릎을 꿇고앉아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대장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백산이 무조건 사죄를 하고 선봉장직에서 떼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린석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춘영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야마무라가 한마디 더 보탠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말할 겨를이 없어 하지 못했는데 이제 관군과 왜군이 힘을 합쳐 대공격해올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군부대신과 내부대신들이 왜군과 합의를 본것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큰 싸움이 벌어질것인데… 야마무라는 자기가 이다찌중좌와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제가 나서 사전합의를 보아주겠답니다. 저, 싸움을 어렵지 않게 친다든지 아니면 손실이라도…》
《중군장, 가서 김백산이를 불러오게. 내 그 사람을 군사장으로 임명하자고 하네. 우리들가운데 그만한 사람이 다시 없네, 그만한 사람이…》
오래동안 말이 없던 린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때까지도 자기 생각들에만 빠져있던 춘영과 승우들은 아연했다. 지금처럼 문제가 복잡해진 때 그것도 당장 큰 싸움을 앞두고 새 작전을 펼쳐야 할 때 김백산이를 굳이 군사장으로 임명하자고 다시 들고나오는것이다. 그러나 아까보다 더 엄격해진 린석의 모습을 보고는 말을 하지 못했다.
백산이 다시 그앞에 나타났다.
《이리 올라오게.》
그가 뜰아래 선것을 보고 린석이 불렀다.
백산이 주저하며 대뜰우에 올라와 무릎을 꿇고앉자 린석이 말했다.
《자네가 오늘 잘하였네. 왜놈의 종자앞에서는 다 그만큼 해야 해. 설사 그놈이 진심이든 가짜이든 무기를 가져오지 않은 이상에는 용서

할수가 없네. 그런즉 이제부터 자네를 우리 의병대의 군사장으로 임명하니 즉시 임무에 착수하기 바라네.》

리춘영과 안승우는 여전히 침묵으로 저들의 주장을 고집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머리를 숙이고있던 백산이 번쩍 상반신을 일으켰다.

《대장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절대 그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되고 안되고 하는것이야 내가 알아서 할바이고 지금 당장은 군사장이 없으니 누구든 맡아서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시키는대로 하게.》

역시 막무가내였다. 그만큼 린석으로서는 생각이 많았고 결심도 확고했다.

그러나 백산은 그보다 더 완고하게 나왔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뜰아래로 내려서더니 처음의 그 자세로 허리를 굽혔다.

《창의대장님, 제가 할수 없다는것은 그 일이 마음에 없거나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일단 맡아서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일을 망칠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몸에 닿는 푼수가 있는것입니다. 푼수에 닿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망치게 되는것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량반선비의병장들에게 호령할수 없다는것이야 불보듯 명백하지 않습니까. 또 호령한들 그들이 저의 뜻대로 받아물기 어렵다는것도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력대로 이 나라에는 상놈들이 량반을 호령한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은 시국이 란시가 아닌가. 란시에는 란시의 시국에 따르는것이야.》

《대장님, 아무리 시국이 그렇다 해도 혼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럿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기필코 망치고말 일을 순간의 명예나 직분을 바라고 맡아나서는것은 그자체가 벌써 시국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결심을 굳이 변경시켜 매사에 일이 되도록 조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렵니다.》

백산은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돌아서 문밖으로 사라졌다.

8

그것은 린석으로서도 전혀 뜻밖이였다. 백산이 자기의 요구에 그렇게까지 나올줄을 몰랐던것이다. 아니, 자기가 그렇듯 무시를 당할줄 몰랐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그것이 은연중 린석을 분하게 하였다. 그래도 자기는 언제나 백산을 위하자고 했고 그를 켠들어 힘도 안겨주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그를 불러다 군사장의 임무를 맡아하도록 설복을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끝내는 린석이 이기지 못하고 대신 후에 춘천에서 의병대를 이끌고 온 리필희에게 군사장의 직책을 맡겼다. 역시 린석과 잘 아는 사람이였다.

반대로 홍정식이네들과는 일정한 타협조로 나갔다. 우선 아직까지는 야마무라를 완전히 의심할수 없는데다 많은 군자금이 그의 손에 들어가있는 관계로 날자를 끌면서라도 값을 받아야 했기때문이였다. 야마무라도 인격무시요 무슨 보상이요 하면서 며칠 떠들다가 린석이 내놓는 타협안에 못이기는척 하며 물러서고말았다.

그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 린석은 최익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임금의 《애통소》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관군이 왜놈들과 합쳐 의병들을 친다는것이 웬말인가. 또 거기에 나라의 한다하는 대신들이 합세하고있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소리인가. 최대감께서 이런 때 나서시여 나라일을 바로잡아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였다. 그러느라니 또 며칠밤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듯 의병대안에서 떠도는 기분을 미영은 시시각각 느끼고있었다. 특히는 아버지와 김백산사이에 있은 일은 미세한 소식조차도 놓치지 않고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것이 미영으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참을수 없는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홍정식이 떠나간 날 미영은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찾아들어갔다.

《아버진 선봉장님이 군사장으로 되는것을 반대하셨다지요. 왜 그이라면 한사코 반대하시는겁니까?》

서안에 마주앉아있던 안승우가 맞갖지 않은 자세로 붓대를 집어던졌다.

《그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반대한거다.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알겠니? 세상의 리치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기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란 누구들이예요. 선봉대의 의병들은 다 그이가 좋다구들 해요.》

《의병들은 뭐라고 해도 의병장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왜 그런가하면 세상의 리치가 그렇게 돼먹었기때문이다.》

시작부터 오가는 말투들이 곱지 않았다. 이것이 요새 그들사이에 오가는 일반적말투이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켠에서 보면 딸 미영이 김백산에게 여전히 붙어돌아가는것이 싫었고 끝까지 반대할 심산이였다. 하기에 그는 전보다 더 자주 미영을 만났고 백산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그를 유도하려 하였다. 그것을 모를리 없는 미영은 여전히 그 반대로 나갔다. 억지로 가깝게 했다고는 할수 없지만 백산에게 끌리는 마음만은 마다하지 않았다.

그가 주장하는 신녀성의 자세라고 할가 어쨌든 억지로 아버지의 구속에 매일수는 없었다.

《아버지, 제가 알기에 란시에는 천명의 문장지재보다 한명의 힘쓰는 무사가 낫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진실로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우리 의병대의 공적이 과연 누구의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상전래의 법도는 어쩔수 없는거다. 나라에는 란리가 항상 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끝이 나면 그만이야. 그때에는 량반, 상놈이 다시 있게 되고 따라서 상하귀천도 자연히 갈라지게 되는것이다. 그만큼 학문이라는것이 시종여일 귀하게 취급되는것도 어쩔수 없다는것이야.》

《그렇다면 아버지, 란리가 끝나는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을 끝내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끝을 낸다는것입니까. … 그런즉 아버지는 상사람들을 적당히 얼려서 란리를 끝내게 하고 다시 천시를 하겠다는것

입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량반들의 세상살이지론이십니까?》
《네가 상놈들을 따라다니더니 어른들앞에 함부로 고집쓰고 말대답질하는 버릇을 배웠구나. 내가 그들을 상놈이라고 욕하는것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처럼 네가 부모도 어른도 몰라보도록 시키기때문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량반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평생 량반의 이름을 외우며 해놓은것이 무엇이며 얻은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체면과 명예만 생각하고 글하는 사람만 제일이라고 절대시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남들은 기선을 타고 대포를 쏘고 총탄을 날리며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하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들과 함께 왜적을 쳐야 할것인데 아직도 량반, 상놈을 따지며 신분만 가르려 하니 나라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기에 이즈음 항간에서는 량반을 가리켜 빛좋은 개살구, 허울좋은 하늘타리(한자로 천왕성, 즉 별의 이름으로 신성화되였으나 실은 보잘나위없다는 뜻)라는 날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네가 아직도 량반을 욕할테냐?》
《좋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시니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평생 진창길을 헤매이는 상놈이 될지언정 허세나 거짓으로 남을 깔보는 량반이 되지는 않으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봉장님과 같은 평백성들을 존경하며 더 따르고싶습니다.》
《네가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겠으면 김백산이한테 가라. 그러되 이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을 하든가 이 먹물이라도 뿌려주고 가라. 그냥은 못 간다.》
하면서 서안우의 문방구들을 와락 집어던졌다.
그 서슬에 새까만 먹물이 종이우에는 물론 승우의 손등과 긴 팔소매까지 사방으로 튕겨났다.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솟구쳐나왔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마지막선고일수 있다는 예감이 날카로운 창끝처럼 가슴을 찔렀던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제 자기가 굽어들기만 하면 영영 그에 매여들고만다는 고집이 불쑥 솟구치기도 했다. 그것이 어쩔수없이 자기로 되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아닐수 있

으며 잊으려 한들 잊을수 있겠는가.
《아버지, 아버지…》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다. 그러나 가슴이 꽉 메이고 입이 굳어져 그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정으로 차고넘쳤으나 걸음을 돌려 밖으로 튀여나왔다.
정신없이 달렸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려가는데 누군가 문득 앞을 막아섰다.
《미영씨, 어딜 가오. 왜… 무슨 일이 있었소?》
뜻밖에도 김백산이였다. 무엇을 알고 우정 그러기라도 한듯 면바로 마주섰다.
순간 미영은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격정에 가슴을 들먹였다. 남자란 무엇인가. 이런 때 녀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의지가 되여주는 기둥이 아닌가. 미영은 아무리 고대광실에, 노비전답에, 금의옥식에 음풍영월로 한생을 지낼지라도 제힘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찬성할수 없다. 그는 자립을 원하며 자유를 바란다. 그것은 의지와 믿음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 의지와 믿음은 무더운 여름날 함뿍 땀을 낸 달리기선수가 설레이는 바다를 향해 뛰여들듯, 그 일렁이는 물속에서 마음껏 장구를 치며 뛰여놀듯 그렇게 넓고 시원하고 든든한 사나이의 품이였다.
지금 미영은 그 바다를 보고있다. 눈앞에 두고있다. 하면서도 그렇게는 마음대로 못하는것이 또한 녀자의 마음이다. 미영의 처지이다.
《왜… 어딜 가는 길이예요?》
생각과는 전혀 같지 않은 소리가 튀여나왔다.
《의논할 일이 있어서 미영씨한테 가던 길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소?》
《의논이요? 무슨… 저하고 무슨 의논할게 있다고 그러세요?》
《난 눈물을 좋아하지 않소. 그런데 자꾸 울고있으니 말을 할수 있어야지?》
《울긴 누가 울어요. 어서 말하라요.》
미영이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말하였다.
《울지 않았다, 정말인지 어디 볼가.》
백산이 말한 그대로 할상 고개를 외로 숙여 미영의 얼굴을 올려다

본다.
《어마나.》미영이 기겁한듯 돌아섰다가 호방스럽게 웃고있는 백산의 잔등을 종주먹으로 때린다.
그리고 제잡담 부끄러운듯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백산이 헌헌히 웃으며 뒤따른다.
성벽우이다. 치렬했던 전장에 고요가 깃들고 봄빛이 흐르고있다. 훈훈한 향기를 실은 봄바람이 성벽우로 날아든다. 사방 어디서나 아지랑이가 아물거리고있다. 성벽아래 그들과 좀 떨어진 둔덕우에 포탄에 뿌리가 통채로 들리운 수양버들 한그루가 곤두박혀있는데 놀라웁게도 그 곱슬곱슬한 가지마다에 버들강아지가 가득 매달렸다. 눈여겨보면 거기 파헤쳐진 흙더미와 마른 나무가지밑에도 새파란 풀들이 가득 내돋고있다. 바로 그속에서 솟아나는듯 아니면 어딘가 멀리에서 실려오는듯 아지랑이가 끊임없이 춤을 추고있다. 어차피 봄은 오고야말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고야마는것이 봄인것이다. 사방은 끝없는 정적에 잠겼다.
《지금의 이 고요는 보다 어려운 싸움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요. 우린 그 싸움준비를 해야 하오. 그래서 미영씨에게 하는 말인데…》
하는데 미영이 그의 말을 앞질렀다.
《알고있어요. 녀자들과 로인들, 아이들이 해야 할 일 말이지요? 철알이랑 화약 같은것을 만드는 일 말예요?》
어떻게 키돋움을 해서라도 백산에게 지고싶지 않은것이 미영의 마음이다.
과연 백산의 눈이 둥그래지게 되였다.
《그런걸 난 괜히 만사람앞에서 선수를 쓰느라 했지. 마치 제사람이나 되는것처럼…》
《그것도 알고있어요. 그럼 뭐래요?》
하고는 또다시 솟구치는 눈물에 웃고름을 가져갔다.
《선봉장님, 용서하세요. 아버지대신 제가 사죄를 해요. 선봉장님이 군사장이 되는것을 아버지가 반대했다는것을 저는 알고있어요. 매번 이렇게 대신 사죄를 해야 하는 이 마음까지 합쳐 용서하세요.》
《눈물이 싫다고 하니 게정을 부리는가. 또 억지로 눈물을 만들어 쏟치는군.》

미영이 또다시 우는 모습을 놀랍게 지켜보던 백산이 이번에는 큰소리로 웃었다.

《미영씨,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반대한거요. 나한테는 군사장이 아니라 선봉장이 적당한 직무이기때문에…》

백산이 설명을 했다. 물론 그것은 그가 린석의 앞에서 했던 우격다짐의 주장이 아니였다. 전장에서 기어코 공을 세우겠다는 자기 식의 주장이였다. 그것이 또한 백산에 대한 믿음으로 미영을 고무하였다. 남다른 직무도 벼슬도 바라지 않고 원쑤칠 일념으로만 자기를 불태우고있는 백산이 미덥고 고맙게만 보이는것이다. 마침내 그는 눈물을 씻고 백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꼭 공을 이룩하세요.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전공을 세운 애국명장들처럼 후세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한 사람은 없을거예요.》

《그 말이 옳을수도 있소. 하지만 미영씨, 난 그들처럼 이름을 날릴만 한 장수가 되지 못하오.》

《이런 시를 알아요? 옛적에 한 이름난 시인이 쓴것인데…》

《난 시를 모르오.》

《들어보세요.》

봄빛과도 같은 따뜻한 정으로 한껏 충만된 은은한 목소리가 시조를 타고 사나이의 억센 가슴에 메아리친다.

도리화는 말이 없는데 나비는 날고
오동은 고요한데 봉황은 깃 들였네
무정한 초목도 정을 끄는데
하물며 다정한 사람에 있어서랴

읊기가 끝났다. 했으나 누구도 말이 없었다. 정면으로 마주친 눈빛들은 이글이글 불타고있었으나 그것을 그 어떤 말로도, 힘으로도 표현할수가 없었다. 김백산은 더구나 몸가짐조차 어찌할줄 몰라 눈만 껌벅이다가 겨우 한마디 했다.

《미영씨, 나는 정말 시를 모르오. 듣고도…》

《시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싸움에서만은 언제나 용감하세요.》

미영도 물러서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성문루에 모여왔던 선봉부대

의병들이 달려나왔다.
미영은 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새 의병들이 그를 둘러쌌다.
《미영아가씨, 아가씨가 시와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지요. 우리 의병들의 기세를 돋구어주기 위해서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네들, 우리 미영아가씨가 우리를 방문해주신것을 축하해서 한판 벌립시다!》
미영이 어느새 그들에게 이끌리여 루대안에 들어섰다. 그러자 곧 북과 장고, 꽹과리, 새납, 퉁소, 아쟁, 반향과 같은 악기들이 일시에 일어나며 귀청을 돋군다. 동시에 머리에 흰 수건, 붉은 수건을 쓴 사람, 남녀의 울긋불긋 탈을 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와 겅둥겅둥 춤을 추며 풍진을 일군다.
어느새 미영이 그 한가운데로 몰려들었다. 저저마다 그에게 다가와 함께 춤을 출것을 요구했다.
미영은 춤을 출줄 몰랐다. 춤만은 추어본적이 없었다.
그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백산이 눈에 띄였다. 그가 주먹을 틀어쥐고 두팔을 힘차게 휘두르며 춤을 추고있었다. 둥, 둥, 둥 북소리에 맞추어 이리저리 뛰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기세를 올리고있다. 거기에 맞추어 수많은 의병들이 함께 휩쓸렸다. 그들이 한번 발을 구르고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지심이 울리고 하늘이 동하는듯 했다.
미영도 끼여들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조심조심 움직이다가 저도 모르게 솟구치는 힘에 끌리여 마음껏 팔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절로 춤동작이 떠오르며 몸이 나긋나긋해졌다.
거기에 맞추어 북소리는 더 우렁차지고 꽹과리는 더욱 자지러지게 요동을 했다. 어느새 녀자들도 수많이 끼여들어 춤판은 더 흥성거렸다. 루대뿐아니라 성의 좌우의 넓은 공지가 그대로 춤판으로 변했다. 의병들의 생활과 기세가 그대로 펼쳐져보이는 활무대로 되였다.
그속에서 미영은 마음껏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다. 얼마나 멋진 생활인가. 랑만은 또한 얼마나 높고 정서는 얼마나 깊은가. 저 량반님네들의 고루한 음풍영월이나 주색잡기에는 비교도 할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생활이다.

미영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앞으로도 이들과 더 가깝게 지내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류린석도 루대에 올라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껏 웃었다. 오래간만에 만시름을 잊고 느껴보는 웃음이였다. 그것이 또한 지나간 생활을 돌이키며 새로운 결심을 다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였다. 여느때에는 그들이 있는지 별로 관심조차 돌리지 않던 그였다. 그저 싸움을 위한 머리수로나 생각했지 이렇듯 넘치는 생활이 싸움을 이기게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역시 저 백산이와 같이 이름도 지위도 명예도 없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였다. 그래서 생각이 더 굳어지는것이였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믿고 싸움을 더 잘해나가리라고. …

린석이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있을 때 서울에 있는 최익현은 궁중에 들어가 임금앞에 몸을 깊이 숙이고 그의 어명을 기다리고있었다. 홍정식을 통해 린석의 편지를 받고 다시 왕의 접견을 청했던것이다.

지금 왕은 발목을 덮는 자지색도포에 익선관을 쓰고 호상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은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이따금 호상의 팔걸이에 얹힌 두손을 교대로 다독일뿐 그렇게 정력을 기울여 힘들게 상주한데 대하여서는 들은듯만듯 아무 반응이 없다. 민비를 잃은 다음부터 더욱더 소심하고 침울해져서 좀처럼 만나보기 힘들어진 왕이다.

…지난해 말 전하께서 《애통소》를 내려보낸 후 전국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강도 왜적들과 싸움을 벌리고있습니다.

지금 의병들이 일어난것을 보면 충정도 제천에서 대장 류린석이 첫 반기를 들고 충주성을 타고앉은 후 전국에 격문을 거듭 보내여 함께 봉기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서울의 박준영, 강원도의 민룡호, 전라도의 기우만, 평안도의 조상학 등 해서, 관북 어디서나 의병들이 들끓고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지방들에서 고을의 장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군사를 동원하여 왜병들과 함께 의병들을 치는 놀라운 사태가 빚어지고있습니다. 바로 왜놈들때문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여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는 임금의 주

위에서 충심으로 전하를 받든다고 하는 대신들까지 그에 합세하여 애써 경군을 파견하고있으니 실로 용서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군사들이 전하께서도 전번에 가상가상하다고 평가하신바가 있는 류린석의병대를 향하여 대포와 기관총으로 사격하고있습니다. 왜놈의 군대라면 몰라라 어떻게 왜놈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제 나라 군사들을 쏠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경군의 출동을 이제라도 중지시키며 그런 명령을 내린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라옵니다. …

최익현이 힘들게 올렸던 상주문내용이다.

그런데 왕은 대답이 없다. 마흔이 지난 나이에도 아이적 젖살인듯 희멀끔하고 유들유들한 량볼의 살이 무엇이 못마땅한듯 이따금 꿈틀꿈틀할뿐이다.

익현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감으로 느끼며 여전히 호상앞에 엎드려있다. 그가 지금 노리는것은 군부대신 조희연이와 법부대신 서광범이다. 그들의 명령에 의하여 지금 새로 경군이 보충되여 충청도로 떠나게 되는것인데 최익현은 비록 같은 급의 벼슬에 있다고 하지만 공부대신으로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가로막을수 없다.

톡, 톡, 톡, 톡… 또다시 팔걸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왕이 어린 나이에 이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생겨난 버릇이다.

아직 왕이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한강변에 나가 연띄우기를 하다가 뜻밖에 들이닥친 보련에 올라 룡상에 앉게 된 그때부터 노상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 불안속에 살아온 그인것이다.

즉위 30년 가까운 세월 력사에 전고없던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그와 함께 흘러갔다. 근년에만 하여도 얼마나 중대한 사건들이 터졌고 얼마나 비참한 사건들이 빚어졌던가. 그럼에도 돌이키면 왕이랍시고 그가 결심하고 처리한 일이란 별반 없다.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대원군(리하응)이 섭정을 한다고 하면서 백사를 좌지우지하였고 10년이 지나서부터는 《친정》을 요구하는 민비의 앙탈에 못이겨 민씨일파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였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천성이 조용하고 마음이 굳지 못한 그는 이여의 다른 문제들도 자기 주견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형세의 추이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가지 실례만 들어도 한때는 김옥균의 개화사상을 지지하여 정변에 찬성을 했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상 정변이 터진 다음에는 형세가 불리해지자 민비가 요구하는데로 거처를 거듭 옮김으로써 결국은 정변을 3일천하로 만들어버리게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왕궁을 지켜준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결정적순간에 꼬리를 사린 왜놈군대의 배신행위가 근본적인 작용을 했다고 할수 있다.

박영효에 대해서도 그렇다. 한때 김옥균의 갑신정변에 우연히 끼여들었던 그는 일본에 망명한 후 10년만에 완전히 왜놈의 개로 전락된 자였다. 한것을 그가 전왕 철종의 사위라는것과 자기 잘못을 깨닫고 조국이 그리워 다시 찾아왔으니 제발 받아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믿고 내부대신으로까지 등용하였다. 그때 수많은 문무관리들이 박영효가 왜놈의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올 때부터 조선의 성씨와 이름을 완전히 왜말로만 지껄이는것을 보고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하다가 그가 왜놈의 밀정노릇을 하면서 내각자체를 친일로 돌려세우고 나중에는 민비까지 암살할 음모를 꾸미였다는것을 알고야 체포령을 내리게 하는 소동을 피웠다.

물론 그것은 개별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한것이고 중대한 국사도 자기의 굳건한 대를 가지고 주견있게 처리하지 못한것이 많다. 그때마다 그는 나라사정이 어쩔수 없었다는것을 구실로 삼군 했다.

갑오년의 왕궁점령때만 하여도 그는 일본에 철저히 책임을 묻고 이 나라에서 축출했어야 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군주로서 응당 해야 할 책임적인 일이였으며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 그는 왜놈공사와 만난 자리에서 조선과 일본이 호상 도우며 영원히 협조하자는 왕청같은 소리를 해서 세상을 놀래웠다.

갑오년의 마지막나날에는 어전회의에까지 끼여들어 저들의 《20개조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력으로 문초하겠다.》고 을러메는 이노우에공사놈의 요구에 굴복하여 그대로 동의하고말았다.

그리하여 수많은 문무관리들이 힘들게 조직하고 만난을 이겨내며 추진하여오던 자주적인 근대개혁이 파탄되고 군국기무처자체까지 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다른것은 말고라도 민비살해와 같은 사실을 놓고서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 일을 놓고서는 왕자신이 누구보다 강경하고 굳세게 나왔어야 했다. 그의 일생에서 민비는 좋았든 나빴든 수십년을 같이 살아왔고 왕세자까지 낳아준 안해였고 일국의 국모가 아니였던가. 그렇게 놓고볼 때 왜놈은 자기 일개인의 원쑤이며 살인마인 동시에 온 나라 국민의 원쑤였다.

그런데 왜 온 나라에 호령하여 왜놈들에게 철추를 내릴 단호하고 대담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가. 아울러 지금과 같이 힘들게 일어난 저 의병들을 더 불러일으켜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가.

최익현이 왕앞에서 그 모든 말을 다 할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말은 했다. 이제 왕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가슴을 조이다못해 온몸이 졸아드는듯 하는데 마침내 왕이 눈을 떴다. 그 희멀건 량볼이 움씰움씰했다.

《최대감이 의병에 대하여 건의한것이 이번이 두번째지. 아니, 민중전에게 했던것까지 합치면 세번째라고 할수 있지.》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즉 왕이 알고는 있었다는 소리다. 알고도 그토록 말이 없은것을 보면 이미 부정하고있었다는 말이 아닌가.

익현은 다시한번 정신을 가다듬었다.

《전하, 이미 말씀드린바이지만 지금 전국의 도처에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는바 이들만 잘 발동하여도 그까짓 왜놈 몇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친일을 주장하는 몇몇 관리들과 지방관들이 의병을 두려워하며 〈란적〉치부를 함으로써 스스로 원쑤가 되여 싸우고있습니다.》

《궁내부에서 군사를 동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하, 벌써 그 일이 시작된지는 오랩니다. 군부대신 조희연과 법부대신 서광범이들인바 그들이야말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동족상잔을 몰아오는 만고의 역적들입니다.》

마침내 익현이 그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찍어가며 이실직고를 했다.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고 벼려오던 이름들이다.

그 말을 듣자 왕은 자기 말고 또 누가 들은 사람이 없는가 살피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만큼 두사람의 이름이 두려웠던것이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일제가 조작한 친일내각의 특등주구들로서 궁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속속들이 왜놈들에게 고해바치는 장본인들인것이다. 여기서는 왕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지 못

하는것이 왕의 처지이다.

《최대감, 그대도 알고있지. 우리가 대국이라고 칭해온 청국이 하루아침에 일본에 녹아나는것을. 한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싸운단 말인가. 그것도 관군도 못되는 의병들이…》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하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귀중한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 신민들은 국모의 죽음을 두고 그토록 슬퍼하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있는데 하물며 국부이신 전하께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전번에 전하께서 〈애통소〉를 내려보내시여 온 나라가 들썩하고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만 령을 내리시면 저따위 섬오랑캐쯤은 도처에서 미친개 때려잡듯 할수 있습니다.

자고로 이 나라 백성들은 의협심이 높고 충군충의열의가 강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결같이 인정하는것입니다.》

《과인의 말 한마디에 과연 그렇게 나설수 있을가?》

《임금의 말이라면 죽어도 피하지 않는것이 이 나라 백성들일지언데 그것을 법도로 규정해놓으면 더 엄격하고 세부화된 명령으로 통하게 될것입니다. 가령 어느 고을 사또가 의병들에게 화살을 내주지 않았다면 그 화살 몇대가 비록 큰것은 아니지만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의미에서 대역죄로 보고 엄하게 다스리면 무조건 따를것입니다. 반대로 왜놈들과 싸워 목을 하나 따거나 소총 하나라도 빼앗은자들에게는 상을 크게 주고 표창을 하여 적극 내세워줄것입니다.

예로부터 상은 하늘의 명령이요 벌은 하늘의 징계라고 했은즉 이렇게 상벌관계만 명백히 해주어도 만백성이 임금의 명령에 한결같이 호응해나설것입니다.》

왕은 다시 눈을 감았다. 최익현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시 음미를 해보면 의병이란 말만 들어도 보잘것 없고 무기력한 존재로만 보인다. 그 의병들이라고 해야 기껏 농사나 짓던 농사군들이거나 선비들인데 그들인즉 잘 먹여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와짝 떠들며 들고일어나기를 잘하는 철없는 아이들과도 같다.

하물며 그들에게 무기를 쥐여주었다가 저 갑오년 그때처럼 서울로 진격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저도 모르게 엄습해오는 생각에 몸이 떨렸다.

그렇다. 그에게는 부러운것없이 필요한 모든것이 다 있다. 한 나라

의 임금이라는 이름뒤에는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조건은 물론 대를 이어 옥좌를 물려줄 조건까지 다 갖추어져있다.
녀자가 없는가. 그것도 아니다. 민비가 죽은 후 신하들이 왕에게는 왕비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미부터 가깝게 지내던 상궁 엄씨를 맞아들였던것이다.
이것은 태조께서 이미 오래전에 가문에 세워준 특전이며 특혜이다. 이 궁전(경복궁)을 지을 때 태조께서는 이미 그 터전을 다져놓았다. 그때 궁전의 지경을 다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던가.

으아 지경이로다
이 집 짓고나면 력대로 성주나서
백성 다스리며 국가는 태평하리
으아 지경이로다
삼천리 방방곡곡 백성들아
우리 성주나서 국태안민하리니
으아 지경이로다

그래서 궁전의 이름도 《대아》라는 시의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부르면 군자는 만년동안 큰복을 누리리》의 마지막 두 글자를 따서《경복궁》이라고 지었다. 한것을 이제 나의 대에 와서 끊어버리고 큰복은커녕 비명횡사를 해야 한단 말인가. …
이렇듯 그의 온 정신은 자신의 운명에만 가있었고 꿈은 부귀영달속만 헤매고있었다. 그런 판에 의병이란 웬말이며 싸움이란 왜 자꾸 고집하는가.
그러는데 최익현이 계속하였다.
《전하, 개국이래 지금처럼 복잡다난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하로 하여금 선대의 어느 임금보다 일심전력하고 근검성실하여 나라일에 성적을 올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옛날에도 임금이 성실하면 때맞은 바람이 불고 임금이 몽매하면 때아닌 바람이 분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이제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비분강개하여 일어선다면 지금의 난국은 결코 타개 못할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군사를 급히 일궈세워 나라의 근본을 공고히 하는것인데 지금 당장 그럴 형

편이 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미 일어난 의병을 잘 일떠세우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책으로 됩니다.》

또다시 의병이다. 이제 더는 모르쇠를 할수가 없게 되였다.

《대감, 나는 백성들을 무모하게 왜인들의 총구앞으로 떠밀고싶지 않소. 그렇지 않아 갑오년에도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또 그렇게는 못하겠소.》

《전하께서는 진실로 백성들을 걱정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왕업의 존망을 념려하는것입니까.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오른 이때를 당하여 백성들은 생사를 무릅쓰고 싸우자 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리도 우유부단하십니까.》

마침내 익현도 참지 못했다. 창칼이라도 들이대듯 곧바로 왕의 아픈 곳을 찔렀다.

왕은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했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자기앞에 이런 투로 말한 사람이 없다.

《전하께서는 빨리 강경과단한 결심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로잡을 대책을 세움으로써 선대임금들과 조상들의 종묘사직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는 임금 한 사람의 국가가 아니며 따라서 임금 혼자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유부단하게 근심만 하면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나라가 왜놈의 손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침내 왕은 팔걸이에서 손을 뗐다. 다시한번 주변에 누가 없는가 둘러보고는 익현의 앞으로 몸을 숙였다.

《충주성을 차지하고 격문을 전국에 날린 사람이 누구라구 했던가?》

《이미전에도 전하께서 평하신바가 있는 의암 류린석으로서 저와 함께 의병문제로 민중전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

익현이 재빨리 설명을 했다. 왕은 그제서야 생각이 난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시골선비로서는 큰일을 했다는 스스로 느끼게 되는 감동이였다. 그럼에도 역시 의병이라는데는 믿음이 안 간다.

《일개 유생으로서는 괜찮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병과 같은 싸움에 나서게 되였소?》

《그는 한때 신과 함께 리항로의 〈위정척사론〉에 심취되여 열렬한 신봉자가 되였는데 지금은 그가 대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충군사상과 함께 〈척양척왜〉정신도 강하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전하께 감히 청컨대 신은 그를 전국의 의병총대장으로 임명하고 온 나라를 지휘케 했으면 합니다.》

《무엇이라구? 그에게 전국의 의병대를…》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이름난 시는 장수들속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글하는 사람들이 싸움도 잘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군사를 모르는 그에게 전국을 떠맡길수야 없지 않소?》

《전하, 사람은 날 때부터 귀하고 천하고 유명하고 무명하거나가 규정되여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하께서 명분과 지위, 등급을 주어서야 그것이 규정됩니다. 문제는 전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누구에게 믿음을 주는가 하는것인데 지금형편에서는 먼저 생각을 하고 앞서가는 사람을 따르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류린석에게 8도의병총대장이라는 지위와 명분만 주신다면 그 이름만 가지고도 린석은 곧 시대의 명장으로, 영웅으로 떠받들리울것이며 전국이 따라일떠설것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에서 제일 큰 재난중의 재난은 인재를 제때에 적절한 곳에 골라쓰는 길이 막히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시대에 가서 인재를 빌려다쓸수 없는 조건에서 우선 그에게 믿음을 주고 적절한 지위에 등용만 해주어도 오늘의 곽재우나 고경명이가 될수 있습니다.》

왕은 다시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역시 익현으로서는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등받이에 몸을 기대자 저절로 감겨드는 눈을 내리깔며 왕은 생각했다.

(왜인들이라고 무턱대고 남의 나라를 타고앉겠는가. 그들에게도 저들의 국법이 있고 나라들사이에도 약속된 국제법이라는것이 있지 않는가. …)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빠질 구멍수만 찾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생겨난다. 설사 왜인들이 사납고 조폭하다고는 해도 그들이 아니면 또

다른 놈들이 기여들겠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느라면 또 그만큼 가슴아픈 재앙을 보게 될것이다. 우리가 남들처럼 빨리 개명을 하자고 해도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고 가슴아픈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지 말고 화친을 하는것이 옳다.

그는 바로 이런 생각으로 며칠전에 솔선 틀었던 상투를 잘라버리고 머리를 깎은 다음 전국에 단발령을 내려보냈다. 그것이 위생에도 좋고 활동에도 편리하니 모두 자기 본을 따르라는것이다. 이를테면 빨리 개명을 하자는것이다.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나 있는지…)

한때 나라에서는 왜인들이 그렇게 많이 밀려와 장사를 하는데도 관세라는것을 몰라 몇해동안이나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왕이 정치를 몰라 그랬다고 하며 자기에게 냅다 몰아댔다.

그보다 더 참지 못할 웃음거리가 있다. 언제인가 례부의 한 관리가 외국공사관에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오래동안 나오지 않았다. 또 얼마를 기다려서야 나왔는데 이런 일이라구야, 온몸이 벌거벗은것처럼 반라체차림이였던것이다. 그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정구를 좋아해서 한 경기를 마저 끝내느라고 늦어졌다고 사죄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가관이였다.

《원, 정구를 그렇게 좋아하시면 하인이라도 시켜서 할것이지 그 몸차림을 하고 몸소 하시다니…》라고 했다는것이다.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례부관리들의 무식한 행동을 놓고 왕 자기 탓이라고 욕했다는것이다.

그렇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치고 자기와 관계되지 않는것이 없다. 왕 한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신하들에게 허물로 되지 않지만 신하들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곧 왕의 허물로 되여 그 문책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하물며 저 의병과 같은 온 나라에 관계되는 일에서랴. 왜놈들은 반드시 의병들의 봉기를 자기에게 따질것이며 책임을 묻자고 할것이다. 그때에 생기게 될 화단과 불행을 최익현이란 사람이 알기나 하는가. 아니, 꿈에조차 생각지 않을것이다.

《최대감, 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류린석이란 사람이 가상한데가 있소. 전번에도 말했지만 충군충의나 애국충정을 놓고 말해도 누

가 따를 사람이 없소. 과인이 대감의 청을 익히 참작하여 긴히 쓰도록 하겠소.》

마침내 왕이 말했다. 최익현으로 하여금 더이상 바랄것이 없게 하는 최대의 대답이였다.

익현은 그에 대해 감지덕지해하면서 돈수재배를 하고 호상에서 물러나왔다. 린석의 8도의병총대장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도 크게 의심치 않았다.

어쨌든 임금과 대신사이에 한 약속이 아닌가.

(그러나…)

익현이 나가자 왕은 다시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생각하였다. 일이 약속대로 될수 있을가. …

그의 머리속에는 일본이라는 조폭하고 야수적인 나라가 어느 순간에 벼락을 때릴지 모르는 장마철의 구름장처럼 떠돌고있었다. 그것들이 한번 지랄발광을 하는 날에는 이 나라에 또 어떤 환난이 들이닥칠지 알수가 없는것이다.

반면에 한켠으로는 로씨야라는 나라가 구름너머 해별처럼 눈앞에 얼른거리기도 했다. 세계의 넓은 지역에 방대한 령토와 인구, 군대를 가지고있는 나라, 이미 민중전에 의하여 그 토대가 닦아지기도 한데다 또 그의 죽음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로씨야쪽으로 쏠리고있다. 이미 그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도 거듭 담보해온 나라다. 만약 왜인들이 지금처럼 시끄럽게 내정에 간섭하고 오만하게 나온다면 그때에는 완전히 로씨야쪽으로 돌아서고말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가득차있는 왕이였기에 익현이 그처럼 있는 힘을 다해 설명을 하고 간청을 한 의병에 대한 문제는 그에게 시끄럽고 괴로운 짐으로밖에 지워지지 않았다.

9

…그대의 당부대로 다시 임금을 만나보았다. 그이께서는 전번에 이

어 이번에 다시 그대를 충군충의심이 강하고 애국충정이 높은 사람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그대에게 이제 어떤 중임이 하사될지 알수 없다.

성을 끝까지 지키라. 이번에 군부와 내부 두 대신에 대한 론의도 있었으나 당장은 경군을 파견하지 않을것이다. 임금께서 그들의 이름을 찍어가며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해당한 대책이 따를것이다.

이번 기회에 보다 큰 전과를 세워 전국의 의병들을 크게 고무하길 바란다. …

익현은 린석에게 쓴 편지를 큰소리로 읽어주었다. 그것을 찬찬히 밀봉하여 정식에게 넘겨주는 얼굴에는 자기 의무를 성실히 리행했다는 만족이 어려있었다.

《의암이 근심하지 않게 되도록 빨리 전달하게. 요는 성을 끝까지 견지하는것이야.》

《잘 알았습니다. 오늘중으로라도 떠날수 있습니다.》

홍정식이 씩씩한 소리로 대답하고 물러나왔다.

이제는 빨리 충주로 떠나는 일만 남았다. 그토록 중대한 소식을 어찌 하룬들 지체할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당장은 떠날수가 없었다. 야마무라와 무기거래문제가 아직도 미결로 남아있었던것이다.

그것이 요즘 홍정식에게는 큰 골치거리로 되고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말만 듣고 모든것이 뜻대로 될것 같아서 무조건 응했는데 지내보니 어느 하나도 되는것이 없었다. 특히 이번에 충주까지 갔다와서는 야마무라에 대한 신망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가 비록 김백산이나 류린석의 앞에서는 야마무라를 옹호하는척 하였으나 돌아오는 길에서는 노상 그에 대한 불만과 질책으로 일관되여있었다. 그에 대하여 야마무라는 원래부터 자기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며 위험한 일이기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것, 이번 길에는 반드시 결속을 보자고 약속을 하였다.

이제 정식은 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이번에 또 충주까지 헛걸음을 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홍정식은 출발에 앞서 함께 가게 되여있는 두명의 동료와 함께 야마무라를 찾아갔다. 그런데 아닌게아니라 야마무라가 매우 난처한 안색을 지으며 자기도 지금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는중인데 소식이 없어 안타깝다고 중언부언하였다. 그것

이 정식을 더 참을수 없게 하였다.
《야마무라씨, 정말 이럴내기요? 우리에겐 더 기다릴 시간이 없소. 당신도 충주의 형편을 잘 알지 않소?》
《될듯 하면서도 안되는게, 또 안될듯 하다가 되는게 장사일이지요. 며칠만 좀더…
다문 하루이틀만이라도 기다려보시지요. 예?》
《정 안되면 돈이라도 되돌려달라고 하시오. 우린 오늘중으로 충주로 떠나야 하오.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가야 한단 말이요.》
《중요한 소식이라니, 그게 무언데?… 하루만 더 기다려주지 않겠소?》
《안되오. 이건 충주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요. 오늘 아니, 이제 당장이라도 떠나야 하오.》
《그렇다, 당장 말이지?…》
야마무라는 눈을 까박까박하며 생각을 굴리더니 정식이네들을 이끌었다.
《좋네, 그럼 내가 돈을 찾아오지. 그동안은 좀 기다려주어야 하겠네. 저 양료리집으로 가세.》
그들이 자주 다니던 서양음식점이였다. 거기서 야마무라가 술과 몇가지 음식을 청하여놓고 자기는 돈을 찾으러 간다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생각보다는 훨씬 앞당겨 야마무라가 나타났다. 가슴에는 돈봉투라고 하는 보자기같은것이 불룩하니 나왔는데 그것이 몹시 소중한듯 자주 그쪽에 대고 손을 들이밀었다 꺼냈다 했다.
《아쉽지만 할수 없지요. 전량을 돌려줍니다, 한푼도 굵지 않게… 난 신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체면을 지켜서 내가 충주로 가 직접 돌려주자고 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함께 동행하는것이 신변안전이나 이모저모에서 유리할겁니다.》
야마무라가 아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다는듯 혀꼬부라진 소리를 거듭 내뱉았다. 홍정식이 시간이 촉박하여 몇번이나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야마무라는 술을 또 청하며 그들을 주저앉혔다.
그렇게 두어식경이 지났을 때다. 갑자기 문밖에서 요란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왜놈헌병들이 들이닥쳤다. 놈들은 다짜고짜 정식이네 식탁에 들이닥쳐 무슨 증명서같은것을 요구하더니 식당밖으로 끌어내갔

다. 야마무라가 이게 무슨짓들이냐고 왜말로 항의하자 한 헌병놈이 그의 등을 총탁으로 내려치며 네놈이 조선놈들과 내통하며 우리 총을 팔아먹었지, 조선놈들을 시켜 제국군대를 쏘게 해?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하여 그들은 조선주둔 일본군헌병대에 붙잡힌 몸이 되였고 최익현이 써준 편지도 그대로 압수되고말았다.

그것을 알길 없는 충주성에서는 이제나저제나 서울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루이틀 기다리고있었다. 요새는 어째서인지 왜놈들이 성에 대한 공격을 거의나 해오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놈들이 크게 잡도리를 하고 맹공격해오리라는것만은 의심할바 없었다.

그만큼 성에서도 바빴다. 이미 토의된대로 성보수를 하루빨리 끝내고 무기제작과 수리에 달라붙었다. 사석의 부대에서는 쇠부리터를 새로 꾸리고 쇠를 녹이기 시작했으며 백산의 부대에서는 되도록 큰 가마를 여러개 걸어놓고 망초를 졸이고 말리고 하는 일판을 벌려놓았다. 그보다 앞서 미영의 녀성부대에서는 수십명씩 패를 지어 쇠붙이나 화약재들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분주히 뛰여다녔다. 그들이 먼저 뛰지 않고서는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될수 없는것이다.

이 모든것을 조직하고 돌아보는 린석은 그때마다 짜릿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분기와 애수에 불안을 느끼군 하였다. 성을 지키자고 저렇듯 뛰고 또 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장한가.

그러나 이대로는 오래 갈수 없다. 성은 포위되여있고 뒤따라 인차 공격이 시작될것이다. 그때에는 얼마나 더 견디여내겠는지 알수 없다. 방도는 최익현대감에게 편지를 보낸바대로 놈들의 증원군이 더 보충되지 않는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지 소식이 없다. 왜 없는가. 최대감이 왕을 만나지 못했는가, 아니면 부결을 당했는가, 혹은 정식에게 보낸 편지가 제대로 가닿지 못했는가. …

린석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안정을 못하고 성벽우를 오락가락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갑자기 성우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 남문이 와락 열리며 말탄 의병들이 벌 한가운데로 내달렸다. 린석이 영문을 몰라 의병들에게 물었으나 누구 하나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신 의병들이 달려가는 곳을 바라보니 왜병들

이 달라붙어 웬 녀자 한명을 붙잡아가고있는것이 보였다. 의병들이 달려가자 놈들은 더 빨리 뛰였다. 곧 접전이 붙었다. 녀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를 빼앗기 위한 싸움이였다.

마침내 말탄 의병들이 창칼부림으로 놈들을 소멸하고 그 녀자를 말에 태워가지고 무사히 되돌아왔다. 역시 김백산을 위시한 선봉대원들이였다.

그런데 보다 놀라운 일은 다음에 일어났다. 그들이 구원해왔다는 녀자가 다름아닌 린석의 처 리씨였던것이다. 그가 하얗게 질식된 얼굴로 사람들에게 부축되여 린석의 앞에 나타났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린석은 멍하니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흰 머리수건에 역시 흰 무명치마저고리를 길게 해입은 리씨가 질식된 얼굴로 린석을 마주보다가 그대로 땅우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새 옥체만강하셨나이까?》

그렇게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것을 미영이 다가가 일으켜세웠다.

《큰아버진 뭐예요. 빨리!》

터무니가 없었다. 이 로친네가 어떻게 되여 여기에 나타났을가. 춘천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보낼것이지 제가 무엇때문에 예까지 왔단 말인가?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는 그를 보고 승우가 리씨를 객사로 안내했다. 거기에 방을 하나 내여 둘이 함께 류숙케 하자는것이였다.

얼마후 린석이 뒤따라가서야 영문을 알수 있었다. 리씨가 영문도 모르고 성문을 향해 다가오는데 성을 포위하고있던 놈들이 먼저 그를 보고 무작정 저들의 진지로 끌고갔다는것이였다.

성우에서도 멀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밝은 미영이가 무엇인가 짐작되는것이 있어 소리치자 백산이 십여기의 기군을 달고 번개처럼 놈들을 앞질렀다. 순간을 놓치면 모든것이 허사로 끝날 그 시각 백산이네들은 필사의 각오로 놈들과 창격전을 벌려 끝내 그 녀자를 구원해왔다.

그런데 그가 다름아닌 류린석의 부인일줄이야.

…백산이나 미영이들이 아니였더라면 어찌될번 했는가.

린석은 생각할수록 등골이 섬찍해지고 손에 땀이 그러쥐였다. 그것

이 리씨에 대한 분기가 더욱 솟구치게 하였다.

《혼맹이 나갔지. 정신구멍이 쏙 빠지지 않았어? 여기가 어디라구. 전장이 뭐 아낙네들의 들놀이터인줄 알았어?》

린석이 듣고나서도 참지 못해 거듭거듭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끼여들었다.

《큰아버지,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놀라신 큰어머님께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돼. 녀편네들이란 아무리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거던. 집에서부터 내가 뭐라고 했나. 절대 딴 생각 말고 집이나 잘 보라구…》

《야, 큰아버지, 그러시지 말라는데…》

《미영아, 그만해라. 내가 잘못했다. 오며는 온다 하구 기별이라도 먼저 했어야 할걸. 큰아버지도 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리씨가 흩어진 머리를 바로잡으며 공손히 대답했다. 그것이 린석의 노기를 어느 정도 누잦혀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놓을수 없었다.

《여러말할것없이 당신은 당장 춘천으로 돌아가오. 내가 사람을 붙여주겠소.》

그러는데 리씨가 퍼더버리고 앉았던 자세를 바로하며 무릎을 꿇었다.

《안 가겠습니다. 아니, 못 갑니다. 죽어도… 저에게 맞갖은 일감을 주십시오.》

《으응? 당신에게 무슨 일감을 달라는거요?》

린석은 부지중 중얼거렸다. 그로서는 너무 뜻밖의 일이였던것이다. 전장에서는 녀자들이 할일이 없다고 전에도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리씨는 그에 관계없이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소첩이 비록 우매해도 나라가 있고서야 집도 있다신 말씀의 뜻만은 새겨안고있습니다.

전 단지 남정네 시중을 들자는게 아니라 나라위한 싸움에 적으나마 전력을 다하고싶을뿐입니다. 그래야 나리도 모두에게 떳떳하고 천금같은 그 말씀 빛이 날게 아니겠습니까.

옛말에도 부부는 인륜의 으뜸이요, 만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전 당

신께 시집온 소녀적에는 철이 없어 글공부하는 당신을 돌봐드리지 못했고 그후 〈위정척사〉를 하실 때는 집안일에 눌리워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라위한 싸움에 한몸 바치자고 나서시였는데 또 도와드리지 못한다면 제가 무슨 안해이고 이 나라 녀인이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첩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됩니다.

사람의 일시빈천은 천생만인의 필수지책이요, 가장을 위하여 한몸을 표박함은 녀자의 떳떳한 도리라고 하였는데 이제 저에게 두려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큰뜻 품고나선 당신의 곁에 잠시라도 같이 있으며 몸을 돌봐줄수 있다면 첩으로서 너무도 응당하며 당연한 도리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소리를 치지 않았다. 칠수 없었다.

안해가 그런 투로 말해본적이 없었다는데만 문제가 있지 않았다. 말속에 담긴 뜻이 깊고 감동적이여서 할말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리춘영과 안승우들이 들어왔다. 춘영이 먼저 벌어진 사태를 짐작하고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부인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아마 부인님도 나라위한 싸움에 남녀로소를 가리지 말라고 한 대장님의 호소에 따른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또 안승우가 재치있게 맞장구를 쳤다.

《옳습니다. 이제 부인님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장님이 제 집에서는 이 말을 하고 여럿앞에서는 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될터인데요. 이를테면 국사에 앞서 사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된단 말입니다.》

《뭐, 내가 국사에 앞서 사사를 내세워?…》

린석은 그 말을 한번 더 외워보고 소리내여 웃었다. 음미를 해보니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히 리씨의 모습이 새롭게 안겨왔다.

무엇이 저리도 웅심깊고 가슴뜨거운 정을 지니게 하는것일가. 어찌하여 녀자들은 사나이들에 대하여 그렇게도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순정으로 한생을 바치는것일가.

생각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무엇이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살고싶어지는것이다. 안해에 대하여, 의병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이튿날 새벽 린석은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을 깨였다.

잠귀밝은 리씨가 먼저 알아보고 중군 리춘영이 그를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선봉장도 같이 왔다가 금방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있는것 같다고 했다.

린석은 급히 선화당으로 나갔다. 아닌게아니라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넓은 선화당 뜰안에 때아닌 초불이 환하게 켜져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서성거리고있었다. 보다 놀라운것은 대뜰우에 십여자루의 보총과 함께 탄약상자까지 몇개 쌓여있는것이였다.

《으흠? 이게 어디서 난것들인가?》

《선봉대사람들이 어제 밤 적진을 습격하고 빼앗아온것들입니다.》

리춘영이 대답했다. 놀라서 둘러보니 김백산이하 10여명의 대원들이 나란히 렬을 맞춰 서있었다.

《어제 밤? 그런즉 자네들이 밤사냥을 했단 말인가?》

하고는 덥석 달려가 백산을 그러안았다. 다른 의병들에게도 인사를 했다.

《이 사람들이 큰일을 했구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였나?》

《우리 선봉장님이 생각해냈습니다. 실은 어제 낮 부인님을 구원하러 적진까지 쳐들어갔다가 떠오른 생각이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적들은 보잘것 없습니다. 먼저 치면 이길수 있습니다.》

한 의병대원이 의기양양해서 말하였다. 여럿이 그에 함께 응했다. 나중에 백산이 송구한 자세로 두손을 마주잡고 뜨적뜨적 몇마디 했다.

《다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래동안 성안에 갇혀있다나니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정황도 불리해지기때문에… 한번 시험해본것입니다. 그러고나니 우리가 먼저 공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린석의 생각을 또 한번 흔들어놓았다.

놈들과 싸우는데는 그런 전법도 있으며 해볼만 한 싸움이라는것이였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되였다. …

그리하여 다음부터는 더 자주 야간습격전투가 조직되였다. 여기에는 김백산부대뿐아니라 다른 여러 부대들에서 선발된 인원이나

혹은 부대별로 저마다 작전을 벌려 진행하는 여러가지 싸움법이 적용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도 오래는 계속할수 없었다.
놈들이 밤마다 철통같은 경비진을 치는가 하면 야간무력을 급격히 강화하였다가 습격조가 나타나면 무자비한 집중사격을 가하였기때문이였다. 그로 하여 의병대쪽에서도 적지 않은 사상자들이 났다.
그렇게 긴장한 나날이 흘러가던 어느날 린석이 선화당에서 사람들과 차후 일을 의논하고 앉았는데 오쨰가 급히 뛰여들어오며 선봉장이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뜻밖의 일이 생겼으니 대장이 직접 나와 정황을 처리하라는것이였다.
린석이 급히 남풍루에 올라가니 백산이 성아래의 누구와 큰소리로 욕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그를 보자 정황을 설명했다.
《저놈들이 담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우리와 의논할 일이 있으니 대표가 나오라는것입니다.》
린석은 란간으로 다가갔다. 아닌게아니라 성에서 얼마간 떨어진 거리에 말을 타고 총대끝에 흰기를 단 장교 하나가 몇놈의 군졸을 달고와서 큰소리로 떠들어대고있었다.
《이것은 너희들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만약 담판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결심하겠다.》
《무엇을 응하라는 말이냐?》
우리쪽에서 의병들이 따지였다.
그러자 장교놈이 멀리 저들의 뒤쪽을 가리켰다.
《저길 보라. 홍정식이를 알지? 그것들이 지금 우리쪽에 와있다. 무기장사를 하던 야마무라와 함께 붙잡혔다. 담판에 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죽여버리겠다.》
모두의 시선이 거기로 향했다. 그제서야 그들은 몇십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쪽을 향하여 모여있는것을 보았다.
순간 린석은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저려오는것을 느꼈다. 홍정식이야말로 그가 기다리고기다리던 사람이였던것이다. 바로 얼마전에 최익현에게 성의 운명과 관련한 문제를 건의하여 편지로 써보냈던것이다. 또 그에게는 총에 대한 거래도 총화지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지워져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여 적들에게 붙잡혔는가, 주었던 임

무는 어떻게 되였는가, 이제 담판에 나서면 적들이 어떤 요구를 제기해올것이며 그에 어떻게 응해나설것인가 하는 의혹들이 동시에 안겨들었다.
그러나 린석으로서는 어느 하나도 질정할수가 없었다. 이런 정황이 그에게는 난생처음이였던것이다. 우선 누구를 대표로 내보낼것인가 하는것부터가 중요하였다.
론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역시 그만한 중임을 맡아 처리할만 한 자신이 없는데로부터 오는 소심성들에서였다.
그때 중군 리춘영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밖에는…》
《으응? 자네가… 저것들이 풍월이나 읊자고 하지는 않을것인데?》
린석이 부지중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해버린 말이 그대로 적중한데 놀랐다. 과연 지금이 어느때인가. 성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가야 할 때이다. 그에 비하여 춘영은 너무도 연약하고 선비답다. 대신할 사람이 없겠는가 둘러보았다. 안승우가 자기도 생각이 있었는듯 바라보다가 풍월소리에 기가 죽어 몸을 옴츠렸다.
문득 백산이 눈에 띄웠다. 그가 차렷자세로 몸을 꼿꼿이 세우고 그를 쳐다보고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끌리였다.
《선봉장, 생각이 어떤가?》
《제가 될수 있다면 맞서보겠습니다.》
속이 시원하리만큼 대답이 성근하게 나왔다.
《고맙네. 그대가 나가게. 이제부터 성의 운명을 그대에게 맡긴셈이네. 정황이 어떻게 생기든 자네의 결심대로 자재자량하게.》
린석이 와락 두어깨를 두드리며 힘주어 말하였다.
백산도 믿음에 보답하는 자세로 몸을 곧추 폈다.
《있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이윽고 말을 타고 성문을 빠져나갔다. 역시 말을 탄 의병들이 량쪽에서 몇명씩 따랐다.
담판장에는 놈들이 이미 나와있었다. 량쪽진지의 중간지점이였다. 량켠이 모두가 총을 메였다.

《너는 누구인가?》

말탄 왜놈장교가 물었다.

백산은 그가 와다나베대위놈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저 갑오년 그때 론산에서 화승총을 겨누고 똑바로 쳐다보았던 바로 그놈이였다. 성을 빼앗을 때 마차우에서 기관총을 쏴대던 놈도 바로 이놈이였다.

《선봉장 김백산이다. 너는 누구냐?》

《선봉장? 그런가. 나는 대위 와다나베다. 네가 꽤나 싸움을 잘한다지?》

《용건을 말하라. 무엇때문에 담판을 요구하는가?》

《선봉장, 우린 너희 형편을 잘 알고있다. 대장 류린석이나 중군 리춘영이, 군수장 안승우, 또 새로 난 군사장 리필희란 사람도.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성안에는 식량도 탄약도 다 떨어졌지. 우리와 계속 싸워볼 작정인가?》

《우리는 싸움을 요구하고있다. 너희들것을 빼앗아오지 않았는가?》

《새다리의 피를 보고 큰 자랑처럼 생각하는가. 우리에겐 그따위 말고도 무기가 얼마든지 많다.》

《더 가져다놓으라. 우리가 또 빼앗아오겠다.》

《무엇이 어째? 건방진 자식…》

와다나베가 말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손부터 권총집에 가져갔다. 거의 같은 순간에 백산은 옆에서 칼을 빼여들었다. 일순간에 적아는 다치면 터질듯 한 긴장상태로 눈과 눈의 대결에 진입했다.

주인과 강도와의 대결, 처음에는 오만하다가도 비굴하게 눈길을 먼저 떨구는것이 강도의 취약성이다.

와다나베는 속이 뒤틀렸지만 권총을 도로 집안에 밀어넣었다. 대신 눈에는 노기가 더 번뜩이였는데 보매 그도 자기를 알아본것이 분명하였다. 하면서도 속심은 터놓지 않고 중얼거렸다.

《긴말을 하지 않고 이다찌중좌님의 명령을 전달하겠다. 우리는 홍정식이네를 너희들이 중히 여기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우리는 그들의 무기거래의 비밀과 그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있다. 우리 군법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총살감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성을

내놓기만 하면 그들을 모두 살려줄뿐아니라 군자금도 모두 돌려주겠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모두 쏴죽이겠다. 결심을 말하라.》

이번에는 백산이 아연해졌다. 성을 내놓다니, 어떻게 차지한 성이기에 세사람의 생명과 바꾼단 말인가, 바로 그 세사람이야말로 성을 빼앗는데 피 한방울 바친것 없고 오히려 방해만 놓지 않았는가, 그들보다 더 귀하고 아까운 사람들이 이 성때문에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하다가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렇다고 하여 저 홍정식이네들을 죽여야 한단 말인가. 역시 류린석대장이나 안승우군수장에게는 다같이 귀중한 인물들이다. 물론 자기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 좋지 않다는것때문에 더구나 그들을 제물로 바칠수 없지 않는가. 평시에 의가 좋지 않았다 하여 자기네 사람이 왜놈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라고 내버려둘수 없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저들이 어떻게 잡히게 되였는가?》

백산이 물었다. 와다나베는 그것이 깨고소한듯 히죽 웃었다.

《너희네 조선족들이 우리 황국신민의 지혜를 따를수 있는가.》

《내가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

와다나베는 백산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그것만은 승인한다는듯 뒤쪽에 대고 손짓을 했다. 이윽하여 포승줄에 묶이운 세사람이 함께 끌려왔다.

백산은 말에서 내렸다. 놈들에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한 흔적이 력연한 세 얼굴이 비장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어떻게 붙잡히게 되였소?》

《잘못했소. 우리가 최대감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야마무라를 찾아갔는데 그놈이 무기값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홍정식이 재빨리 설명을 했다. 그러나 백산은 벌써 그들의 생각을 앞질렀다.

《야마무라가 고자질을 했지? 그놈이 틀림없소.》

《체포될 때에는 함께 있었는데 그다음엔 모르겠소. 왜놈종자를 믿은 우리가 못난것들이지. 죽어 마땅하오만 원통하기 그지없소.》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당신들을 살리자면 저 성을 내놓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하오.》

《우릴 제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주시오. 아니, 선봉장님이 우리 목을 베주고 가오. 저 왜놈의 손에는 죽지 않겠소. 절대로 그렇게는 못 죽겠소.》

순간 백산은 가슴을 찌르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를 죽인다고 칼을 빼들었던 정식이다. 또 얼마전에는 왜놈도 사람마다 다르다며 야마무라에게 환상을 가졌던 그다. 그러던 그가 지금 자기를 쏴달라고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오직 그가 같은 조선사람이기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피줄을 타고나며 일단 타고난 다음에는 제 마음에 드는데 따라 변경하지도 골라잡지도 못한다. 곧 영원히 하나로 되여야만 하는것이다.

《최대감의 봉서는 어떻게 되였는가?》

《빼앗겼소. 그러나 내용은 알고있소.》

《그에 대해서 꼭 듣게 되길 바라오.》

백산은 이렇게 말하고 바람처럼 말우에 뛰여올랐다.

《와다나베, 래일 이맘때 다시 만나자. 그때 대답을 주겠다.》

《무엇이? 우린 기다릴수 없다. 이다찌중좌님은 참지 못하는 성미시다.》

《참으라고 하라. 그렇게 덤비다가는 성 하나를 공짜로 얻는 기회를 놓칠수 있다. 저들의 목숨을 당신들이 쥐고있는데 바쁠것이 있는가?》

《네놈들이 밤에 또 기습하려고 하는가?》

《저것들은 이미 우리를 배반했다. 봉서도 빼앗기고 비밀도 다 루설했다. 그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 다만 나는 우리 대장님의 동의를 얻자고 할뿐이다.》

《좋다. 명심할것은 너희들이 또 무모하게 도발을 걸어 헛된 죽음을 말라는것이다. 우리는 필요하면 성을 무자비하게 폭파하고 일시에 점거할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사람이 죽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의병들이라고 하여 왜 다 나쁜 사람이겠는가. 그에 대해서는 나도 이다찌중좌님께 충분히 납득시키겠다.》

백산은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렇게 하고 성에 되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질벅하니 젖어있었다.

린석 이하 모든 의병장들이 그를 뜨겁게 맞이했다. 그때까지 가

슴을 조이며 기다리던 린석은 성문밖까지 마중나와 백산을 뜨겁게 포옹했다.

《수골 했네. 그래 저것들이 뭐라고 하던가?》

백산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것이 아니였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앞에 놓여있었다.

《정식이 그녀석이 끝내 그 모양이 되였단 말이지. 최대감의 편지까지 빼앗기구?》

린석이 듣고나서 격분하여 소리쳤다.

《편지가 어떤 내용이였는지 알기는 했대?》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편지가 놈들에게 들어간 이상 해당한 대책을 다 취했을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들을 구원하는것과 함께 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급합니다.》

《그것들을 구원한다구? 흥, 무엇때문에? 그들보다 더 값진 사람들이 이 성을 위해 죽었는데 이제 내놓아? 하물며 의병대의 군자금까지 고해바친 그것들이 아닌가.》

린석이 성이 나서 고아대자 옆에 섰던 의병장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것들은 이미전부터 왜놈들과 내통하던 밀정이 틀림없소. 내버려둡시다.》

《제천에서 선봉장에게 칼을 빼들 때부터 그들은 의병대의 적이였소. 성하구 바꾸다니, 어방도 없지.》

의병장들이 떠들수록 안승우나 리춘영이들만은 얼굴을 수긋하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때 김백산이 나섰다.

《여러분네들의 말씀을 리해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려고 할 때 정식군은 저에게 자기들을 쏴달라고 하였습니다. 죽어도 저 더러운 왜놈에게가 아니라 조선사람의 손에서 죽겠다는것이였습니다. … 사람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나올수 있는것은 오직 한겨레, 같은 조선사람의 피줄을 타고난때문입니다. 우린 어떻게 하나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제가 구태여 하루밤이라는 시간을 얻어낸것도 바로 그때문이였습니다.》

좌중의 분위기가 일시에 달라졌다. 그들 역시 모두가 한겨레이며 모두에게 하나의 피줄이 통하고있음을 느낀 모양이였다. 류린석마저도 지금 몸에 흐르고있는 피가 그와 한줄기로 이어져있는듯 백산을 이윽토록 쳐다보았다.

《또 밤사냥을 하자는것인가? 하지만 놈들도 그쯤한 예견은 하고도 남음이 있을터인데?》

어느새 기분이 누잦혀진 린석이 물었다. 역시 어쩔수없이 그에게로 향해가는 믿음이였다.

《물론 종전처럼 부분적으로, 산발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부대가 일거에 총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둠속에서 총을 쏘지 못하는 왜놈들에 비하여 도창무기로 단병접전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의병대에게 백번 유리한 방법입니다.》

《히야, 그것 참 멋진 전법이군. 그걸 왜 이제야 내놓나?》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될수 있습니다.》

백산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의병장들이 찬성해나섰다. 참으로 대담하고 기발한 생각이라는것이였다.

린석의 경우도 다를바 없었다. 전부대가 일시에 야간공격을 한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도 신기했지만 왜놈들에게는 상상밖의 일일것이다. 벌써부터 신심이 넘쳤다.

과연 그날 밤 공격전투가 조직되였다. 김백산을 대장으로 하는 의병대의 기본력량이 놈들의 진지를 멀리 에돌아 은밀히 기동하였다. 그사이 일부 부대들은 앞쪽에서 말을 타고 좌우로 달리기도 하고 조총도 쏘아대며 소란을 피웠다. 그때마다 놈들은 어방대고 보총이며 기관총을 쏘아대며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다.

바로 이것을 노린 의병대는 새벽녘이 되자 일시에 놈들의 병영으로 달려들었다. 그때에야 곤죽이 되도록 잠에 들었던 놈들은 벼락처럼 달려들어 창칼을 휘둘러대는 의병들에게 죽탕이 되도록 얻어맞았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동안 외지에 나와 싸움에 시달릴대로 시달렸던 왜병들은 이렇다하게 총도 몇방 못 쏴보고 허우적거리다가 뒈져갔다. 그런 속에 홍정식이네들을 빼내오기 위한 기습조는 예상보다 훨씬 쉽게 손끝 하나 다친데 없이 무사히 전원을 데리고 성으로 돌아왔다. 다른 전과도 예상외로 컸다. 그것이 린석으로 하여금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듯 기분을 들띄워주었다. 보라, 싸우면 이길수 있다, 저놈들이 다시는 의병대를 얕보지 못할것이다, 적어도 한동안은 성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할것이다. …

그러나 린석은 결코 들떠있지만 않았다. 그날 정식이네들이 불려올 시각 그는 전에없이 선화당안팎에 많은 의병들을 배치하고 자신은 잘 앉지 않던 대뜰우 관찰사의 교의에 틀고앉았다.

그들이 대문가에 나타나자 린석의 눈살이 대뜸 곧추 서고 많지 않은 수염이 자개풍을 일듯 움씰거렸다.

《괘씸한 놈들, 어디에 갔댔느냐?》

고개를 수긋하고 들이대는 소리가 땅속에서 울리듯 웅글었다. 대답을 못하고 어물거리는 사이에 형의가 하나씩 차례지고 바줄이 몸에 감기고 형리들의 매때릴 준비가 완성되였다.

린석의 목소리가 더 웅글어갔다.

《왜 대답이 없느냐. 어디에 갔댔어?》

《저, 적진에… 속히워서 붙잡혀갔댔습니다.》

《무슨 말을 했지? 놈들에게 우리 실정을 다 고자질했겠다?》

《특별히 말한것은 없습니다. 그들도 이미 다 알고있었습니다. 다만 최익현대감이 보낸…》

《편지를 빼앗겼지? 저런 괘씸한 놈 보았나. 네가 그 편지내용을 알고있느냐?》

《대감께서 봉인하시기 전에 그것을 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촌각이 급하다고 하면서도…》

그가 편지내용을 이야기했다. 그것이 린석을 더 격분하게 하였다.

《그런즉 전하께서 하신 말씀도, 최대감이 두 대신에 대하여 전하께 상주하신 내용도 다 왜놈들의 손에 들어갔단 말이지? 저런 쳐죽일 놈들…》

린석이 참지 못하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는데 그대로 칼이라도 잡히면 당장 목을 칠 기상이였다.

하다가 아무것도 보이는것이 없자 다시 피대를 돋구었다.

《너의 죄과로 말하면 이미전에 처형해야 할것이였지만 부친 홍재우의 이름을 보아서 용서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효과가 없게 되였다. 네가 왜놈과 친하여 스스로 화를 청한것이니 하늘이 만들

어준 화는 피할수 있어도 자기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는것이다. 할말이 있느냐?》

세사람이 한꺼번에 머리를 조아렸다.

린석이 이번에는 옆에 앉은 안승우와 리춘영에게 고개를 돌렸다.

《중군은 이의가 없는가? 군수장은?…》

역시 대답을 못했다. 이것은 그들을 사형하는데 찬성한다는것이다. 그들로서는 할말이 없게 된것이다. 이로써 홍정식이네들의 운명은 결정된것이나 다름없게 되였다.

바로 그때 대뜰 한끝에 앉았던 백산이 무릎을 꿇고 상체를 들었다.

《창의대장님, 감히 제의를 하는바 다시한번 생각을 깊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들이 과오를 범한것은 사실이지만 노기를 푸시고 한번만 용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용서? 저것들한테는 이미 용서도 몇번이나 해주었는데 또 무슨 용서인가?》

《대장님, 우리가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올 때에야 이미 용서를 해주어서 한 일인데 이제 구태여 죽일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것은 이제 기회를 주어서 죄과를 씻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린석은 지그시 입을 다물었다. 역시 일리가 있는 말이였다.

원래 처음 그의 생각도 정식이네들을 사형에까지 처하자는것이 아니였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에 왕이 했다는 말도 있고 대신들에 대한 의논도 있었다 하는데 그 모든것이 왜놈들의 손에 들어갔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당장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것 같았다. 그래서 불호령도 내린것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선봉장이 사정을 한다. 그야말로 정식이네들과 옹이 맺힌 앙앙불락의 사이가 아니였던가.

《왜놈의 위험성에 대해서야 선봉장이 이미 루차 경고한바가 아니였던가?》

린석이 다시 소리쳤다. 그때에는 이미 백산이 아니라 정식을 바라보고있었다.

정식이 그 소리에 놀라 머리를 굽혀 인정했다. 가슴이 터지지만 할수 없었다. 백산에 대해서만도 그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그런데 지금은 벌써 몇번째나 구원을 받는다.

《좋다. 너희들의 소원을 말해보라.》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은것은 사실입니다. 왜놈의 종자를 사람으로 믿고 왜놈도 사람나름이라고 생각한것이 첫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놈들의 가짜총 몇자루에 속아 숱한 군자금을 들이민것이 둘째 잘못입니다. 이번에 서울을 떠나올 때 최대감께서는 편지를 빨리 전달하라고 하면서 그 중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없애버려야 하겠는데 그만 놈들에게 빼앗겼으니 그것이 셋째 잘못입니다. 이 모든것을 합치면 당장 목을 벨 죄당참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며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방금 선봉장님이 말한바처럼 한번만 기회를 주어 용서를 해준다면 기어이 야마무라놈을 복수하고 돈도 찾은 다음 다시 와서 벌을 받겠습니다.》
《벌을 받겠다구?》 린석이 되받아외우고 허허 소리내여웃었다.
《네가 진실로 잘못을 깨닫고 복수까지 한다면 칭찬을 받아야지 벌을 받을게 있느냐. 다만 그것이 헛맹세이거나 눈가림으로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말일것 같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될것이다.
예로부터 부모의 령은 거역해도 나라를 파는 역적은 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너는 부모의 령도 거역했고 나라를 파는 죄까지도 저질렀다. 그렇지만 이제 너를 놓아주려고 하는것은 오직 너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자고 해서이다. 이 말뜻을 알수 있겠느냐?》
《가슴에 새겨두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물러들 가라.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찾지 않을테다.》
말이 끝나자 홍정식이네들은 뜰우에뿐만아니라 좌우에 늘어선 의병들을 향하여 거듭 인사를 하며 밖으로 사라져갔다.

10

《이제야 오십니까. 안색이 퍽 좋지 않습니다.》
린석이 방에 들어서자 리씨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말하였

다. 지금 그들이 들어있는 객사의 한 구석방이였다.

《뭘 마실게 없나? 속이 타서 그러니 한잔 가져오라구.》

린석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리씨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는데 리씨가 아래목자리에서 하얀 단지를 끌어내였다.

《여기 있습니다. 술을 드시기 전에 이것부터 맛 좀 보시우.》

《그게 무언데?》

《십전대보탕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이제부터 몇달 잡숴보시우.》

《십전대보탕? 로친이 정신나갔나, 여기가 어디라구? 그런걸 할 짬이 있으면 나가서 의병들 도울 일이나 하라구.》

어느새 옛 버릇이 되살아났다. 그렇지 않아도 전장에서 뻐젓이 부부살림을 하고있는것이 죄스럽고 쑥스러워 사람들 보기가 무안한 린석이다.

그러나 리씨는 태연자약이다. 그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김이 문문 나는 단지에서 탕약을 공기에 담아 입앞에 갖다대였다.

《의병대장을 돕는 일은 의병대를 돕는 일이 아니우? 그렇지 않아두 군수장이랑 중군장이랑은 대장님이 앓아눕지 않게 잘 돌봐드리라구 신신당부합디다. 자, 어서 맛보시우. 한끼에 한공기씩 하루에 세번은 마셔야 합니다.》

《로친이 웬일이야. 제법 훈시까지 하는군?》

《령감이 벌써 환갑나이입니다. 그런데 신상에 병이 생기여 몸이 붓고 걷지를 못하면 되겠소? 그런 꼴로 의병들앞에 나서기 좋소. 왜놈들이 보면 또 뭐라고 하겠소?》

린석은 다시한번 놀랐다. 그는 다리가 자주 붓고 그때문에 걷기 불편한 때가 많았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다. 말할 겨를이 없었고 말한댔자 쓸데가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안해가 언제 알고 말을 걸어오는것이다.

《내가 다리를 몹시 절던가?》

《다리만 절면 좋게요. 얼굴을 노상 찡긋하고 성을 자주 내군 해요.》

《내가 그렇단 말이요?》

《그렇잖으문. 자, 어서 드시우.》

마침내 공기가 입술에 와닿았다. 그렇게 마셔서인지 맛이 좋았다. 씁쓸하면서도 달고 향기로왔다.

약치고 단약 없고 병치고 기분좋은 병 없다고 했지만 오늘은 약도 달고 기분도 좋았다. 하면서도 말만은 전혀 딴소리를 했다.

《에에, 약맛 쓰다. 이런걸 해주자고 예까지 따라왔나?》

《그렇잖으문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허허, 이것 보아라. 나한테 딴 녀자가 없는줄 아나? 그만한 약 달여줄 녀자야 얼마든지 있지.》

《알구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백인들 못 구하겠소? 하지만 나만한 녀자는 다시 없을걸요. 내가 옛말 한마디 할게 들어보시리까?》

리씨가 약을 따르다말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소리내여 웃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당신처럼 병도 있고 첩도 하나 달고있는 량반이 한사람 살고있었대요. 그 량반이 병을 고치자고 본처에게 약을 달이게 했는데 매번 그 량이 같지 않더랍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첩에게 약을 주면서 달이라고 했더니 아닌게아니라 번마다 량이 꼭같더라지요. 그것이 하도 신기하고 사랑스러워서 몰래 문구멍을 내고 훔쳐보았더니 글쎄… 이것 보라요. 그 녀자가 량이 많으면 쏟아내고 적으면 물을 붓고해서 꼭같이 맞춰놓더랍니다. 첩이란것은 다 그래요.》

리씨가 말을 해서 이번에는 린석도 허허 따라웃었다. 그 말에 의미심장한데가 있었던것이다. 린석이 첩을 두지 않아서 그게 어떤것인지는 다 모를지라도 리씨의 진심만은 뜨겁게 안겨왔다. 그것이 가슴을 흥그럽게 하면서 시라도 한수 지어보고싶은 생각이 들게 했다.

요즘의 전국만 보아도 그럴만하다. 놈들이 련속 얻어맞으면서도 잠잠한것을 보면 역시 힘이 딸리는 모양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싸움은 단순히 병기나 기술의 우세로만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이것을 의병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여기 충주뿐아니라 전국의 의병들에게 알려주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밤도와 썼다.

의병들에게

마음과 힘 다하는것 오직 우리 도리일세

병기가 좋고나쁨 그다음에 론할거지
애국정성 지극한가 다만 못내 근심되고
형세의 강약으로 어렵다 하지 말라

례의로 전통이은 이름높은 우리 조선
기만만 일삼는 저따위 섬오랑캐

흥망과 성쇠를 하늘에만 기탁하랴
사람이 제 할일을 힘껏 해야 하느니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가지고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읽게 하였더니 모두 좋다고 하였다. 즉시 여러통 복사하여 부대들에 나누어주고 다른 의병대들에도 보내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났을 때 중군 리춘영이 문득 제기하였다.

《알아본데 의하면 전번 야간공격전투이후 놈들은 포위를 풀고 지금 달천에 집결되여있다고 합니다. 특히 〈토벌대〉대장 이다찌놈은 그날 달천으로 도망하여 서울에 원병을 요구하고는 소식을 기다리며 온탕치료로 시간을 보내고있답니다. 이번에 그놈을 요정내자고 합니다.》

린석은 묵묵히 듣고있었다. 그것은 그도 이미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그런데 먼저 그곳을 치자는데는 새로운 의도가 깔려있었다. 이를테면 공격에로 나가겠다는것이다.

사실 공격에 대한 론의는 그때까지도 없지 않은것이 아니였다. 따지고들면 서상렬이 떠나간 다음에도 암암리에 론의가 계속되고있었다. 김백산이 그랬고 사석이 그랬다. 특히 그들은 충주 30리밖에 있는 가흥을 치자고 몇번이나 제기해왔다. 그곳 한강나루터에 서울로 실어가는 식량이 수만석이나 쌓여있다는것이였다.

듣기에 귀맛이 당기는노릇이였다. 몇차례 론의도 있었다. 문제는 방어냐, 공격이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번져지지 않았다. 린석이 반대했던것이다. 본질은 공격에로 나가자는것인데 그자체가 위험천만한노릇이기때문이였다. 쌀 몇섬을 위해 여차하다가는 충주성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

기때문이였다. 그래서 공격에 대한 문제가 더 론의되지 않고있었는데 이번에 춘영이 달천에 대한 공격문제를 제기한것이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것은 우선 저 이다찌놈이 〈토벌〉의 괴수이고 개별적으로는 우리 대장님의 적수이기때문입니다. 바로 그놈을 요정내는것이 놈들의 기수를 꺾어버리고 사기를 저락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기때문입니다.

다른 한가지 리유는 전시에 오래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전술적으로 불리하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도 한때 반대했던것인데 이제는 형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에만 의지하고있습니다. 새도 오래동안 한 나무에 앉아있으면 살에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공격에로 나갑시다. 전번 야간습격전투때처럼 대담하게 나가면 이길수 있습니다.》

그의 열렬한 호소가 만사람의 찬동을 자아냈다.

다만 한두사람이 그렇게 해서 력량을 분산시켰다가 성이 갑자기 불의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인차 수그러들었다.

그리하여 달천에 대한 공격문제가 일단 락착이 되였다. 그러나 그 공격을 누가 맡아하겠는가 하는데서는 보다 론의가 심각해졌다. 중군장 리춘영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주장한때문이였다.

그것은 류린석에게도 뜻밖이였다. 그러다가 춘영이 잘못되면 어찌겠는가 하는 두려움부터 앞섰다.

싸움이란 그런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필승을 기하기 힘든것이 싸움인데 설사 이기는 싸움에서조차 누가 살고죽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춘영은 중군장인데 비하여 전투경험이 적다. 그를 저 사지판으로 선뜻 떠나보낼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춘영은 지꿏게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을 했다. 결국 그 문제는 락착을 짓지 못한채 모임을 마치고말았다.

후에 린석이 춘영을 따로 만났다. 그가 왜 기어코 주장을 하는지 알고싶어서였다.

춘영은 교사에게서 질문을 받는 교생처럼 고개를 수긋하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

《요사이 저에게 생각되는것이 많습니다. 싸움은 저 김백산과 같은

평백성들이 많이 하는데 나는 중군장으로서 하는 일없이 자리만 지키고있자니 그것이 가슴에 걸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중군장이 싸움에 앞장서라는 법이야 없지 않나. 더구나 자네는 싸움을 혼자서 맡아 지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리유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왜놈들이 포사격을 할 때 그 소리에 놀라 전률하였던적이 있습니다. …》 그가 언제인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되새기고나서 계속하였다.

《저는 그때 일을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병이며 중군장인가 하는 수치감에 늘 얼굴을 붉히군 합니다. 남에게 요구하고 호령하기 전에 자기부터 떳떳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 수치를 씻자고 합니다.》

그것이 린석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춘영의 손을 잡고 한손으로는 어깨를 힘껏 두드려주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 고맙네. 나도 더 말리지 않겠네. 하지만 몸만은 주의해야 해. 중군장이라는것을 잊지 말라구. …》

이렇게 되여 리춘영이 달천싸움의 지휘자로 나서게 되였다.

린석이 그의 지휘능력과 전투경험이 부족한것을 고려하여 각 의병대들에서 우수한 싸움군들을 선발하여주었다. 특히 백산의 선봉대 성원들이 많이 보충되였다. 도합 사오백에 달하는 큰 부대였다.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성문밖까지 따라나가 떠나는 그를 바래주었다. 그때 어쩐지 전번에 의병장들과 작별할 때 부른 《대동강》시가 떠올랐으나 부르지 않았다. 공연히 춘영의 마음을 들쑤셔놓아 심란해지지 않게 하자고 해서였다.

이렇게 성을 떠나간 리춘영은 부대를 이끌고 달천을 에돌러 숲속길로 접어들었다.

달천이란것은 충주성을 한옆으로 끼고도는 한강의 크지 않은 지류인데 거기에서 10리쯤 상거한 농촌마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충주성에서 얻어맞고 쫓겨난 왜군들이 바로 이 달천방향으로 후퇴를 하여 휴식을 하면서 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바로 이것을 내탐한 리춘영은 숲속길로 에돌아 놈들이 마음놓고 휴식하고있는 마을을 대낮에 들이쳤다. 한참 점심을 먹고 식곤에 취해

강변에 나와 휴식하고있던 왜병들이 숲속에서 갑자기 튀여나오며 만세를 웨치는 의병들의 기세에 혼비백산이 되였다. 번개처럼 달려들어 찌르고 베고 휘둘러대는 창칼의 공격에 왜병들은 미처 정신차릴새도 없이 죽거나 부상당하였다.

의병대는 순간에 기대했던 이상의 전과를 거두었다. 이것이 의병들의 사기를 몇배로 올려주었다.

춘영은 첫 싸움에서 거둔 전과를 즉시 린석에게 보고하는 전령을 띄워보내고 그길로 놈들의 기지에 대한 련속적인 공격에로 나아갔다.

달천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왜놈의 군사기지는 새로 꾸린 보루가 있고 무기고와 탄약창고까지 있는 중요거점이다.

그만큼 그곳을 차지하는 문제는 적아의 세력을 변경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이다.

하기에 춘영은 전부대에 급보로 달릴것을 명령하였으며 목적지에 다달아서는 즉시 포위를 형성하고 곧바로 공격에로 넘어갔다.

그때까지 놈들은 가시철조망을 둘러친 안에서 찍소리 않고있었다. 그에 반하여 의병대는 사방에서 취타악기를 울리고 기발을 날리며 보루가까이로 접근해갔다.

바로 그 시각 이다찌중좌는 보루의 높은 루대우에서 의병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있었다. 이미 전화련락으로 저들이 녹아난 정형을 보고받고 증원부대가 돌격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다찌는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을 알리 없는 리춘영은 놈들이 영문을 알아차리기 전에 선손을 써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무작정 돌격명령을 내린것이다. 무한정 고요한 적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득 가시철조망이 앞에 길게 가로막혔다. 그때까지 가시철조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의병들이 그 시끄럽고 보잘것없는 가시들에 걸리여 옷이 찢기고 살갗이 벗겨져 허둥거렸다.

이다찌의 사격명령은 바로 그때 떨어졌다. 귀청을 째는 기관총, 보총들의 일제사격소리가 갑자기 산야를 울리였다. 이미 철조망을 넘어갔거나 가시철조망에 걸려 허우적거리던 의병들 수십명이 단꺼번에 쓰러졌다. 총탄들은 바로 머리우에 보이는 높은 보루의 시꺼먼 총구들과 번뜩이는 유리창마다에서 비오듯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당황해난 의병들이 뒤로 돌아섰다. 그것을 보고 달려오던 춘영이 소리쳤다.

《물러서지 말라. 원쑤에게 짓밟힌 사랑하는 강토가 보이지 않는가. 의기를 잃지 말고 용감하게 나가자.》

도망치던 사람들이 주춤했다. 바로 그때 바늘로 누비듯 기관총탄이 땅을 훑으며 날아왔다. 또 몇명이 쓰러졌다. 저쪽에서 몇명의 의병들이 일어서 다시 공격을 시도했으나 역시 철조망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춘영은 속이 탔다. 바로 눈에 빤히 보이는 저 건물안에 왜놈이 있고 그속에 이다찌놈이 있다.

한것을 몇십걸음 앞에 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앞으로! 모두 일어나 앞으로… 머리를 들라!》

그는 계속 소리쳤다. 그러나 많은 의병들이 이미 쓰러졌거나 뒤선에서 어물거리고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징소리가 울렸다. 퇴각을 알리는 소리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누가 징을 치는가, 누가 후퇴하라는 명령을 주었는가.

그러는 사이에 징소리를 들은 의병들이 무리를 지어 아래로 달려가고있었다. 춘영도 뒤를 따랐다.

숲이 무성한 골짜기에 의병들이 모여있었다. 춘영이 그 한가운데로 뛰여들었다.

《누가 징을 때렸는가, 누가?》

누군가 둥그런 징을 번쩍이며 앞에 나섰다. 대번에 선봉부대사람이라는것이 알렸다.

《왜 쳤는가, 누가 치라고 했는가? 겁쟁이자식…》

《중군장님, 이런 때 적의 총탄을 맞받아나가는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중군장님께서 명령을 내리지 않기때문에 의논끝에 제가 때렸습니다.》

《의논이라구? 군사에서는 의논이 아니라 명령제야. 대장의 명령없이 저들끼리 마음대로 하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기자면 이제라도 적정부터 잘 료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세워야 필승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시를 하자고 날 따라왔는가. 너희 선봉장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싸움에서는 용감성이 첫째이며 죽음도 두렵없이 맞받아 나가는 바위같은 의지만이 필승을 담보할수 있다. …》

소리를 지르고 이미 맨 앞선에서 전사한 몇몇 의병들의 용감성을 지적하였다. 모두가 그들처럼만 앞으로 나갔더라면 이미 보루는 점령되였을것이라는것이였다.

그것이 그들에게 재공격에 대한 의욕에로 떠밀었다. 그것은 방법상 첫번째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대로의 반복이였다. 다만 수적우세를 믿고 사방에서 일시에 공격을 하는것이였다.

왜군들은 이번에도 든든히 둘러친 철조망과 세멘트로 다져진 보루안에서 기관총과 보총으로 여유작작히 맞섰다. 결국 두번째 공격도 몇명의 사망자만 더 냈을뿐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제서야 교훈을 찾은 춘영은 밤도와 의병들과 의논을 벌렸다. 일면적인 포위공격만 할것이 아니라 집중공격과 유인전술의 배합 그리고 의병들이 가지고있는 보총과 조총, 창칼의 능동적인 활용과 같은것이였다. 하면서도 춘영이 주장하고있는 용감성에 대한 문제만은 첫자리에서 내놓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해도 뜨기 전에 또다시 공격이 시작되였다. 의병들은 처음 동쪽에서 공격할듯 북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서쪽으로부터 공격을 단행하였다. 급해난 놈들이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공격을 집중하자 이번에는 동쪽에서 총탄과 화살이 날아들어갔다.

이렇게 놈들을 혼란에 빠뜨린 의병들은 마침내 한쪽으로 돌파구를 열었다. 철조망마저 다 끊어놓고 보루에로 육박해들어간것이다.

춘영도 뒤따랐다. 보루가 눈앞에 있다. 바로 몇십걸음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일수 있다.

그안에 지금 이다찌놈이 갈팡질팡하며 졸병들에게 사격을 독촉하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몇순간 이제 저 문짝을 들부시고 몇층계 계단만 뛰여오르면…

하는데 갑자기 뒤쪽 어디에서 총탄이 날아오며 벽체를 때렸다. 한알, 두알… 뽕뽕 귀뿌리를 울리며 날아온 총알이 바로 눈앞에서 콩크리트벽체를 허비여내는 앙칼진 소리를 내며 하얀 돌가루먼지를 휘뿌린다. 도탄된 탄알이 바로 춘영의 앞에서 달리던 의병의 아래도리를

후려쳤다. 그가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춘영은 돌아섰다. 바로 의병들이 돌입하고있는 저쪽등성이우에 왜군들이 새까맣게 몰켜서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놈들이 어디서, 어떻게 알고 이 아침에 나타났을가. …)

그러나 그 이상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영문을 알아차리기 전에 무엇인가 가슴을 탁 때리는 둔중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았던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다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기분이 나쁘며 뭐가 뭔지 알수 없는 몽롱한 의식뿐이였다. 이다찌가 들어있을 보루의 둥그런 탑이 빙그르 돌더니 새까만 모습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할수 없었다. 얼마간 지나서야 그는 누군가 자꾸 흔들어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다. 여전히 하늘땅이 빙글빙글 도는 가운데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하나 나타났다. 어제 징을 치던 선봉대원이 눈물이 그렁해서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누가 날 쐈는가. 어느 놈이…》

춘영이 가까스로 물었다.

《왜놈들이… 뒤에 나타난 증원부대놈들이였습니다.》

《증원? 그놈들이 어디서… 새벽에 나타났는가?》

《놈들은 전화로 련락을 주고받으며… 새로 대책을 취하고있었습니다.》

《전화? 그래, 선봉장이 그런게 있다고 했었지?》

묻기는 했으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것을 알 힘도 시간도 없었다. 머리속에는 이다찌놈을 잡지 못했다는 분하고 죄스러운 생각만 집요하게 되풀이되였다.

나는 고을 현감이였고 지금은 제천반일의병대의 중군이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있다, 내가 비겁하면 온 나라 의병들이 다 겁쟁이가 된다, 그런데 나는 그때 비겁하게도 포소리에 놀라 넘어졌댔다, 분명 본 사람이 있을것이다, 나 모르게 손가락질도 했을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하다가 깜박 흐려지는 의식속에 선봉대원의 손을 잡았다.

《그놈을, 이다찌놈을 꼭 잡아바쳐야 하네. 창의대장님께 그놈을…》

그다음은 무엇인가 더 말하고싶었으나 생각이 나지 않았고 힘도 없었다. 끝내는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찾는듯 안타깝게 몸을 뒤채이다가 그대로 굳어지고말았다. 의병들이 목메여 소리쳐부르고 흔들어 깨웠으나 모든것이 허사였다.

시신이 그대로 린석의 앞에 가닿았다.

그것은 린석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였다. 어제 달천전투소식을 듣고 그리도 기뻐했던 린석이였다. 그 기세로만 나가면 다음전투도 문제없으리라고 믿었던 그였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시체로 돌아왔다.

《우삼아, 네가 웬일이냐. 어제방금 심신이 펄펄해서 떠나가던 네가 이렇게 졸지에 죽어서 나타난단 말이냐, 녀석아…》

린석은 그를 붙잡고 목놓아울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전장으로 절대 보내지 않으려 했던 린석이였다. 끝까지 보내지 말았어야 했을것이였다.

한것을 그 마음이 하도 기특하고 끼끗하여 허락했었다. 누구도 몰래 가졌던 마음속의 비겁성을 씻겠다고, 이다찌놈을 잡아바치는것으로 량심에 꺼렸던 잘못을 보상하겠다는 진정에 감동하여 떠나보냈었다.

그는 한개 고을의 사또로서 서울의 웬만한 고관 못지 않게 호의호식할수 있었다. 하지만 왜놈들이 제땅에 쳐들어온것을 보고 참을수 없어서 그리고 함께 공부를 했고 배워준 선생과 학우들의 의리를 잊을수 없어 단연 현감의 벼슬을 박차고 의병에 뛰여들었다. 그 싸움에서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그가 몰랐던가. 알면서도 굳이 고행길을 택한것은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때문이였다. 나라가 없으면 부모처자는 물론 친구와 사제지간의 의리도 관직도 필요없다는것을 선견지명으로 깨달았기때문이였다.

바로 그것을 놓고 린석은 목놓아울었다. 승우도 울었다. 그들뿐아니라 그를 알고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만큼 그의 죽음이 부대에 준 충격이 컸던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린석이하 많은 사람들은 춘영의 죽음을 놓고 깊은 교훈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무엇보다 시대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세월은 바야흐로 문명개화라는 새시대를 맞이하고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은 구태의연한 유교성리학에 매달리면서 마치 옛것에 새것이 있는것처럼 법고창신의 정신만을 절대시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자기와 싸우고있는 적수가 어떤 놈인지조차 잘 몰랐고 그에 대응할 방책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있었다. 하기에 춘영은 해밝은 대낮에 기발을 날리고 북과 나팔을 울리며 적진으로 돌진해가는것이 이미 지나간 낡은 싸움방법이라는것을 몰랐다. 상대가 신식무기로 무장한 적이라면 그에 따른 보다 기동적인 통신수단도 가지고있으리라고 타산해야 하겠으나 그런걸 생각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거기에 춘영이 나는 무관이 아니며 싸움방법을 잘 몰랐기때문에 할수 없었노라고 변명을 하겠는가. 아니, 반대로 몰랐기때문에 군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싸움방법도 더 터득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못했다. 그것이 기필코 그를 죽음에로 몰아간것이다.

11

선화당 넓은 안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었다.

리춘영을 장례지내고 처음으로 의병장들이 모여앉은 자리다.

류린석 역시 교의에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춘영을 떠나보내고난 지금 자기 한쪽팔이 떨어져나간듯 헛헛하고 괴로운 감정을 도저히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벌써 얼마나 많은 아까운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떨어져나갔는가. 김복한이, 주용규, 리춘영… 그에게는 너무도 가깝고 친근하던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까운 사람들이 떠나갔다 하더라도 싸움은 싸움이다. 싸우자 하면 사람이 있어야 한다. 춘영을 대신할 새 중군이 나와야 한다.

《나는 새 중군장으로 하사 안승우를 임명하오. 이의가 있으면 말들 해보시오.》

마침내 린석이 입을 열었다.

조용하다. 숨소리조차 꺼진듯 누구 하나 까딱하는 사람이 없다. 모

두 그것이 옳고 응당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던것이다.
그러나 당자인 승우만이 놀라움에 머리를 번쩍 들고 린석을 쳐다보았다.
《대장님, 그게 무슨… 제가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하라는것입니까?》
그가 중얼거렸다. 너무 뜻밖의 일인때문이였다.
그러나 린석은 여전히 한자세로 앉아 그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겠소. 모든 의병장들과 창의소성원들은 새 중군장의 명령에 절대복종할것이며 그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할것이요. …》
그것으로 모임은 끝났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갔으나 승우만은 그 자리에 남았다.
《대장님은 어찌하여 아무 의논도 없이 저를 중군의 지위에 올려놓는것입니까?》
승우가 물었다.
린석은 오래동안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말고 할만 한 사람이 있으면 내놓아보게. 누굴 시킬텐가, 리필희? 김백산이를 시킬가? 필희는 이제 새로 군사장의 직무를 맡았으니 안되고 백산이를 시키면 자네가 반대할것이지?》
하고 바라보는데 과연 승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역시 그를 좋게 보지 않는 내심이 드러난것이다.
린석이 참작을 한것은 바로 그것이였다. 많은 면에서 백산이 중군으로서 적합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다. 이미 론의되였던바대로 량반이 아닌 그가 유생의병장들을 호령할수 없기때문이다. 우선 늘 코를 맞대고 살아야 할 안승우가 반대할것이다. 보다는 본인이 싫다고 할것이다.
반대로 승우는 군사를 기본으로 하는 의병대의 부대장급으로는 적합치 않다. 사실 그는 어느모로 보아도 무사다운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린석이 그를 중군으로 앉힌것은 오직 그가 자기와 가까운 사이이기때문이다. 이제는 주위에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기에게 누구보다 충실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린석은 바로 그것을 믿었다. 그를 더 가까이에 두고 의사소통을 깊이있게 할수 있지 않겠는가.
누구도 다 그러했지만 군사는 이제라도 배우면 될것이다.
이렇게 승우를 중군의 지위에 올려놓고 군수장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을 채워넣었다.
그러는 사이에 성안으로 불리한 소식들이 날아들었다. 문경고개를 지키던 리린영이 놈들에게 견디지 못하고 왜놈에게 쫓기여 소백산 깊은 골안으로 들어가 종적을 감추었다는것이였다. 유격장으로 한때 이름을 날리던 리강년도 부상을 당하고 어느 산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있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이렇다할 소식이 없다. 전례에 따르면 응당 소식이 와닿아야 한다. 최익현의 편지가 왜놈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다면 응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던 어느날 린석이 답답한 마음으로 몇사람과 함께 선화당 대뜰에 앉아있는데 뜻밖에도 홍정식이 나타났다. 바로 며칠전에 이 마당에서 쫓아냈던 그가 다시 나타난것이다.
《창의대장님, 사변입니다. 임금님께서 로씨야공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셨답니다. 지금 온 서울장안이 그 소문으로 떠들썩합니다.》
정식이 뜰아래에 서서 더러 흥분도 하고 주저도 하면서 이야기하였다.
《무엇이 어떻게 되였다구? 임금께서 거기는 왜?… 너는 그따위 소식이나 전하자고 여기 다시 나타났느냐?》
《정말입니다. 이것은 큰 사변입니다. 나라의 임금님이 남의 나라공사관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이것을 놓고 〈아관파천〉이라고 한다던지. 하여튼 그에 대한 비난이 비발치듯 합니다.》
《피난이라구? 그것은 왜…》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만 아마 왜놈들이 이번에는 임금님을 노리는 모양인지 신변상안전이 위태로운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너 그게 정확한 소리냐? 누구한테 그따위 소리를 듣구 예까지 날라왔어? 저런 고현 놈 같으니라구.》
마침내 린석이 격하였다. 저런 주대없는 놈이니 왜놈장사군한테까

지 녹아난다는 속심이 깔린 소리였다. 하물며 나라님에 대한 사건임에랴. 하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임금을 모독중상한것으로 참수죄에 걸릴수 있다. 아니,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길 바라서였다.

아닌게아니라 정식이 대답을 못했다. 린석의 성난 모습을 보고서야 눈을 껌벅거리며 자기가 그만 격한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서다나니 알아볼것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노라고 구구히 설명했다.

《네가 최대감어른을 만나봤느냐? 그의 편지를 잃었으니 응당 그부터 만나봤어야지?》

하는데 정식은 또 대답을 못했다. 역시 아관파천에 대한 소식만 듣고 급급히 떠나다나니 미처 생각을 못했던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린석은 지필묵을 갖추어 최익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정식의 말만 듣고서는 사실을 똑바로 알수 없었고 안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결심할수 없었던것이다.

《너 이길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거라. 편지를 최대감님께 전하고 답을 받아와. 네가 말한 임금님의 아관파천도 그렇고 전번 편지에 대한 사실도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 들었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소리쳐묻고 손에 편지를 쥐여주었다.

그런데 정식은 편지를 받아들고 무엇을 주저하듯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린석이 웬일인가 해서 지켜보는데 정식이 조심히 입을 열었다.

《창의대장님, 선봉장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선봉장? 그는 왜…》

《할말이 있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가는 길에 들릴것이지 여기에 꼭 불러오랄것은 무엇이냐?》

《창의대장님앞에서 보여드리고싶은것이 있습니다.》

린석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러나 방금 그에게 무리한 요구도 한데다 무엇을 보여주자는것인지 호기심도 없지 않아서 백산을 데려오게 하였다.

과연 조금 지나서 백산이 나타났다. 그가 뜰아래로 다가서자 정식은 백산의 팔을 잡아 자기옆에 세워놓고 린석에게 돌아섰다.

《창의대장님, 제가 언제부터 생각하고있으면서 실행을 못했는데 이제 하자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선봉장님을 저의 형님으로 삼겠습니다. 허락해주십시오.》
백산은 물론 린석이까지 깜짝 놀랐다. 량반자가 평민을 형님으로 섬기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너무도 뜻밖의 일에 두사람이 다 말을 못하고 입만 벌리고있는데 방금 허락을 해달라고 하던 정식이 그것도 잊은듯 그대로 백산의 앞에 넙적 엎드렸다.
《선봉장님,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선봉장님을 친형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백산이 당황하여 정식과 린석을 번갈아바라보며 어쩔줄 몰라하였다.
《이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서 일어나게.》
《허락해주십시오. 형님은 저를 몇번이나 죽음에서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전번에는 창황중에 제가 도망가듯 물러갔댔지만 오늘은 그냥 갈수 없습니다.》
《어서 일어나라구. 대장님앞에서 이러면 어쩌자구…》
백산이 여전히 어쩔줄 몰라하는데 대뜰우에서 린석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영문을 알아차리고 즉시 공감을 표시한것이다.
《정식이, 생각을 잘했다. 이제야 너도 사람이 되여가는가부다.》
린석이 호방스럽게 말하며 수염을 내리쓸었다.
곧 사람을 불러 주안상을 내오게 하고는 두사람을 대뜰로 불러올렸다.
《형제를 맺으려면 맨입으로야 되나. 주고받는 약조가 있어야지.》
하면서 정식이더러 술을 따르게 했다. 그가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백산에게 내밀었다. 백산이 그것을 받을수 없어 린석에게 떠밀었으나 그는 힘껏 도리질을 하였다. 동생이 주는 술이니 먼저 받으라는것이였다.
이로써 형제가 맺어진셈이였다. 그러고나니 백산도 가슴이 뜨끔했다. 전혀 예기치도 짐작도 못했던 일이 꿈같이 맺어졌던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백산은 잊지 않고 자기 할 말을 정확히 찾아했다.
《형제가 되고말고하는것은 그 어떤 약조나 의무감으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지금으로서는 나라가 위급한 때이니만큼 나라를 지

키는 일에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자연히 형제간의 우의가 맺어지리라고 생각하네.》

거기에 정식이 또 한번 엎드려 절을 하는것으로 화답을 했다.

그 모습을 보는 린석은 다시한번 큰소리로 웃었다. 비록 그가 웃기는 했지만 마음속깊이에서는 뜨거운것이 소용돌이치고있었다.

그것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상상도 할수 없던 일이였다. 이 세상 그 어느때 어디에서 량반자가 상놈을 형님으로 개여올리며 큰절까지 올린적이 있었던가. 아마도 여느 사람들이 보았다면 깜짝 놀라기 전에 애초에 믿지부터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세상이 두사람을 그토록 가깝게 만들어주었던것이다. 과연 반상의 차이이니, 상하의 등급이니 하는따위의 계률이 깨질 때가 되였다.

린석이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놀랍고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괴로운것은 자기가 그들을 꽤 이끌수 있을가 하는때문이였다. 그가 매번 체험하고 느끼는바이지만 그는 언제나 백산이와 같이 평범하고 수수한 보통사람들에게서 충격을 받아안군 했다. 이렇다할 이름도 없고 뛰여난 경력도 없으며 그렇다고 남다른 지위조차 가지고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린석의 가슴을 울리며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고있는것이다. 분발하자. 보다 더 근검하게, 성실하게 싸움에 헌신하자.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있었다. …

이렇게 충주를 떠난 정식은 다음날로 서울에 가닿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진 체면과 지위를 다시 찾자고 해서였다. 도착하는 즉시 최익현과 마주섰을 때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전번에 그가 보냈던 편지를 왜놈들의 손에 들어가게 한 책임을 물을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린석의 편지를 받고 읽어보던 익현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뿐아니라 편지를 몇번은 읽고도 남을 정도로 오래동안 시선을 거기에 못박고 움직이지 않았다.

대감께서 왜 저러는가,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그 잃어진 편지때문에 노해서 저러지 않는가. …

그러나 그때 최익현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있었다. 지어 편지에 씌여진 글줄조차 잘 들어오지 않았다.

《…전번에 대감께서 상감님을 만나뵈웁고 썼다는 편지가 도중에 왜놈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수 없어 다시금 붓을 들었습니다. 그때 전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대감께서는 무슨 소식을 적어보냈던지, 그리고 그 일로 하여 대감님의 신상에 화가 미치지나 않았는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던중 오늘은 또 뜻밖에도 왕이 아관파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수 없고 그렇다 하며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본데 의하면 왜군과 관군이 점점 더 충주로 모여들고있습니다. 대감께서 관군을 돌려 왜놈과 싸우게 하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되였는지 또 임금께서 전국의 의병을 불러일으킬 방책을 세워주시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되였는지 그 모든것을 이 시골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

린석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것이 다 물거품이 되였다. 어느 하나도 익현으로서는 똑바른 대답을 줄수 없다. 하물며 잃어진 편지쯤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랴.

지금 익현의 고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자기로서는 린석에게 아무 대답도 줄수 없다는것이다.

그랬다. 그때 왕을 만나고난 익현은 그래도 제딴에 큰일을 했다는 기쁨과 기대에 넘쳐있었다. 이제 임금의 어지로 린석이 8도의병총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전국의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리라는 희열이였다. 린석이 그만한 일은 맡아수행하리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런데 소식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가도 이제쯤 내리셔야 할 어지가 내리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왕은 익현과 만나 한 말과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사실 그 나날에 최익현은 많은것을 모르고있었다. 왕이 자기에게 속에 없는 거짓말을 했으며 만난자체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있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오직 그의 열정적이고 사리정연한 론리에 마주앉기는 했고 듣기도 했지만 생각은 전혀 딴데 가있었다. 총체적으로는 왜인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것이였다. 그것들이 이제 또 자기에

게 손을 뻗치지 않을것인가 하는…

그것은 이미 민비가 살아있을 때부터 생겨난 의식이기도 하였다. 민비가 지꿎게 그를 설복했던것이다.

일본은 비록 크지 않은 섬나라이기는 하지만 근간에 서방나라들과 교섭하고 통상을 하여 문명을 이룩하였다. 그들이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전라도민란을 손쉽게 진압하고 대국이라 자칭하던 청국을 파리때려잡듯 메치는것을 보라, 그것들이 조선이라고 가만두겠는가.

조선은 령토에서나 인구수에서나 크지 못한 나라다. 작은 나라가 나라로서 존재해있자면 의지할데가 있어야 한다. 그 의지할데가 어디인가.

로씨야다. 로씨야는 방대한 령토가 뻗쳐있고 강대한 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제 동북지방에서 그들이 일본과 대결할것인데 그때에는 일본이 불피코 패할것이다.

그때 가서 로씨야가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해주면 다른 나라들도 아니할수 없을것이다. 그러자면 미리부터 로씨야와 사업을 잘해야 한다.…

민비가 그를 위해 작으나크나 일은 해놓았다. 결국 그가 죽은것도 일본을 밀어내고 로씨야에 붙은데 있다. 이제 그 죽음을 헛되이 할것인가.

아닌게아니라 민비의 죽음으로 로씨야는 큰 덕을 보았다. 그가 죽음으로 하여 그전까지는 그래도 일본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환상을 가지고있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대고 로씨야쪽으로 돌아섰던것이다. 그리하여 궁중에는 강력한 친로세력이 형성되였다.

로씨야공사 웨베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궁중의 친로세력을 리용하여 왕을 자기네 공사관으로 유인할 흉계를 꾸민것이다. 왕을 쥔다는것은 그대로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를 쥐는것이나 같은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춘생문사건때 미국에 조선을 떼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던 웨베르였다.

춘생문사건이란 민비살해이후 미국공사 알렌, 언더우드, 아펜실러 등 현지조선침략의 하수인들이 미국인 덴니가 훈련시킨 시위대를 사촉하여 왕궁을 점령하고 국왕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미제의 상투적인 국가전복음모였다. 미제의 이러한 음모는 거사가 집행되던 당일날 궁중의 량심적인 관리들과 경각성높은 시위대병사들에 의하여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서 도중에 중단되고말았다. 그것이 경복궁의 동북쪽 문인 춘생문에서 벌어졌다고 하여 《춘생문사건》이라고 하는데 생각만 하여도 오싹 소름이 끼칠 정도로 후회가 되는 웨베르였다.

로씨야가 무엇때문에 그들에게 선코를 떼운단 말인가. 미국은 대양건너 멀리에 있는 나라요, 일본은 바다 한가운데 처박힌 섬나라다. 하물며 장차 그들과 세계제패를 위한 싸움을 벌려야 할 로씨야가 아닌가.

그후부터 웨베르는 고종을 끌어당기기 위한 맹활동을 벌렸다. 때마침 사처에 의병이 터졌다. 그는 우선 《공사관호위》라는 구실로 인천에 있던 해병들가운데서 150명을 서울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궁중의 친로세력들을 리용하여 왕과 왕세자에게 자기 의사를 부단히 강요하였다. 그들이 자기네 공사관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신변안전을 절대적으로 담보할뿐아니라 독립국가의 존엄은 물론 군주로서의 실권을 보장해준다는것이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2월 11일 새벽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을 때 왕은 문앞에 갖다댄 큰가마에 슬며시 들어앉았다. 그가 드문히 타군하던 보련이 아니라 새로 꾸미기는 했지만 일반궁녀나 공주들이 타는 덩이다.

그것이 왕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왕이 보련이 아닌 궁녀의 가마를 타다니… 눈물이 났다. 아니,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기 처지가 너무도 가련했다.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것이다.

그것은 민비가 살해된 이후부터 줄곧 느껴온 불안이였다. 그를 죽여놓고도 이렇다하게 큰 저항을 받아보지 않은 일본은 다음부터 줄곧 왕을 노리고있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때라도 손을 대겠다는 자세였다.

왕이 그것을 모를리 없다. 그렇다고 이미 로씨야쪽으로 기울어진 형세를 되돌릴수 없고 더구나는 자기 안해를 죽인 왜놈들과 손을 잡을수 없었다. 싸우자고 해도 싸울수 없다. 그럴 힘이 없는것이다. 전번에 최익현이 의병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그것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병이란 무지한 농군들의 란동으로밖에 리해가 되지 않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가마에 앉은것이다. 아무래도 그중 믿을데가 로씨야

밖에 없다고 생각돼서였다.

밝은 낮에는 갈수가 없다. 알기만 하면 궁중의 대소관리들이 뛰여나오고 거리의 백성들이 길목을 막아설것이기때문이다.

이제는 형체를 가려볼만큼 날이 밝았다. 그때 소리없이 가마가 들리며 활짝 열려진 영추문으로 빠져나갔다. 아무도 관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궁문을 지키던 파수군들조차 별로 눈을 팔지 않았다. 궁녀가 새벽녘에 궁밖으로 나가는것이야 응당히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 가마안에 임금이 타고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 지어 그안에는 왕뿐아니라 새로 왕비로 된 이전의 상궁 엄씨 그리고 왕세자 리척까지도 타고있었으나 그 역시 알지 못했다.

바로 그렇게 빠져나간 궁녀의 가마가 한때 세상을 그토록 소란케 한 아관파천의 단행자로 지탄되게 될줄 누가 알았으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비겁하다고 해야 할지, 한나라의 최고집권자가 궁녀의 가마를 타고 몰래 제 궁실을 버리고 자국주재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거사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거행되였다. …

최익현이 아관파천소식을 들은것은 바로 그날 아침이였다. 충격적인 소식에 격한 그는 그길로 의정부청사로 달려갔다. 김홍집총리를 만나 자세한 소식을 듣자는것이였다. 그가 한 나라의 대신일진대 임금이 없어진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홍집은 청사에 없었다. 어제 밤 숙직을 서고 집에 들어갔다는것이였다. 하는수없이 초헌을 돌려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집에 도착하니 그 부인과 딸이 마주 달려나오며 눈물부터 쏟아붓는것이다.

《대감나리, 이 일을 어쩌면 좋소. 그 어른이 임금께서 부르신다며 아라사공사관으로 가셨다오. 글쎄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제 입으로 말하면서 말짱히 새옷을 갈아입고 나가셨소. …》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로씨야공사관으로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구?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갔다구?…

다시 걸음을 돌렸다. 로씨야공사관이 있는 대정동으로 걸음을 빨리, 빨리…

그제야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저 친로파놈들이 기어이 우리를 떠밀

어냈구나 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저들끼리 새 정부를 세웠단 말이지, 벌써 친로파정부가 세워졌단 말이지. 그러니 김홍집령상이 위급하다. 그야말로 친일친로를 다 반대한 사람이 아닌가.

정부의 요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친청, 친일, 친로 하면서 저마다 제가 의지할데만 찾던 때다. 그런 속에서도 제힘으로 나라를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 국권을 세워보자고 애쓴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홍집이다. 그는 벌써 젊은 시절에 이름있는 관리로 지목되여 내우외환이 거듭되는 때에 많이 외교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왕의 총애를 얻었다. 한창나이때 그는 벌써 좌의정, 우의정, 판중추부사의 관직을 다 지니고 쉰두살에는 벌써 내각총리, 군국기무처총재를 겸임하며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밀고나갔다.

최익현이 그를 특별히 존중하는것은 내심 변함없이 간직하고있는 반일사상이다. 그는 왜놈들이 《내정개혁》안을 강요할 때에도 내각회의에서 떳떳하게 《오늘 상하가 원쑤갚을 생각을 잊지 말아야만 비로소 왜적의 침입을 막고 오늘의 난국에서 벗어나 나라의 존엄을 지켜낼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며칠전에는 정부군의 의병대《토벌》을 반대하여 군부대신 조희연과 대판 언쟁을 벌렸다.

군부대신이면 응당 총리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겠으나 희연은 군사에 관한 일은 일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땅땅 맞선것이다. 그로 하여 홍집은 더더욱 일본사람들의 눈에 나게 되였는데 외형상 숙어드는체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항상 일본을 따라앞서야 한다는 지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위태한 지경에 처했다. 아까운 사람을 빨리 구원해야 한다. …

익현이 이런 생각을 하며 초헌을 내몰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다. 벌써 일이 다 끝난 뒤였던것이다. …

그날 로씨야공사관에 들어가 친로파세력들로 정부구성을 발표한 왕은 즉시 나머지 세력들을 불렀다. 전직에는 정부의 요직에 있었으나 현직에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친일분자들이였다.

조희연, 유길준, 장박… 그런 사람들속에 섞이여 김홍집도 함께 가고있었다. 모두가 그곳에 가면 죽을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사람들이였다. 외딴 곳에 가서 조직된 《정부》가 본궁에 남아있는 권세있는 기

존세력들의 반발을 받으리라는 뻔한 사실앞에서 속수무책하고있을리는 만무한것이다.

호위군사들에 둘러싸여가던 무리속에서 갑자기 쉬쉬하는 소리가 났다. 일본공사관이 나타났던것이다. 분주한 눈빛들이 오고갔다. 그 안으로 뛰여들기만 하면 살수 있는것이다. 무리의 앞장에 섰던 홍집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아닌게아니라 잠시후 갑자기 와와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치고 받고하는 소동이 일었다. 그러는 속에 여라문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본공사관안으로 뛰여들었다.

그러나 홍집은 태연히 걸었다. 죽어도 친일분자가 되여 왜놈의 품으로는 기여들지 않겠다는 자세였다. 그러나 세력권쟁탈을 노린 싸움은 용서를 몰랐다. 새 정부의 친로파세력들은 이미 짜진 각본에 따라 어느 한 길목에 괴한들을 매복시켰다가 김홍집을 철퇴로 쳐서 까죽이는 악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의 진상이였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명백히 조선을 쟁탈하기 위한 로일간의 각축전의 직접적산물로서 왜적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로씨야세력에 의존하여 무엇인가를 해결해보려는 조선정부의 사대망상증과 부패무능의 발로였다.

그날 김홍집의 사망에 대한 소식까지 듣고난 익현은 너무도 터무니가 없고 억이 막히여 온 하루를 허겁지겁 걸었다. 어디 가서 똑바로 물을 사람도 없고 대답을 찾을데도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말은 했지만 홍정식에게 그 이상 할말은 없다. 뭐라고 하겠는가. 한 나라의 임금이란 사람이 저 모양을 하고 돌아가는데 린석이 너는 계속 싸우라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지금 한창 나래를 편 싸움을 그만두라고 하겠는가. 거기에 일전에 했던 임금의 약속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다가 정식이 다음날 다시 충주로 떠난다고 할 때에야 불시에 그를 붙잡고 말했다.

《의암더러 싸움을 중단하지 말라게. 조만간에는 나도 내려가겠네. 이런 판에 서울에 앉아 한탄만 하고있느라니 차라리 나도 한명의 의병이 되여 적진을 향해 화살 한첩이라도 날리는것이 나으리. …》

그렇게 정식은 떠났다. 너무도 자주 다닌 길이여서 이제는 먼길도

아니지만 오늘은 별스레 마음이 무거웠다. 반갑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간다는 불쾌감에서 오는것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의병대에 빚진 몸인 그가 이따위 소식이나 들고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말을 때려모는데 오솔길 깊은 숲속에서 사람들 몇이 불쑥 앞을 막아섰다.

두사람인데 어깨에는 제법 신식총까지 멨다.

《어델 가? 너 서울사는 량반자가 분명하지?》

제법 호령인데 서울량반쯤은 우습게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식은 무섭지 않았다. 얼핏 보아도 그들이 강도가 아니라 의병이라는것을 알았던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요즘 어느 누가 대낮에 뻐젓이 저런 총을 메고 길거리에 나선단 말인가.

《길비켜라. 난 바쁜 사람이다. 이길로 충주성까지 가야 한단 말이야.》

《충주성? 거긴 왜…》

《내가 바로 류린석창의대장의 부하인데 서울에 파발왔다 가는 길이다. 너희들 왕이 아라사공사관으로 피난간것 알아?》

했으나 그들은 거기에 관계없이 다시 물었다.

《충주에서 왔으면 너 서대장을 아니? 서상렬대장님 말이다. 우리가 바로 그한테서 왔다.》

이번에는 정식이 놀랐다. 서상렬이라면 그도 모르지 않거니와 한번 만나고싶은 생각까지 드는것이다. 제천에서 백산과 싸움이 났을 때 자기를 군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던것이다. 한것이 벌써 오래전일처럼 생각되며 가까이에 있다면 인사라도 하고싶은 생각이 드는것이다. 하여 말에서 내리자고 하는데 한사람이 그의 엉뎅이를 툭툭 치며 그냥 가자고 하였다.

마침 자기들도 충주로 가는 길이라며 같이 가자는것이였다. 이를테면 자기들도 서상렬이 파견한 파발이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길동무가 되여 충주까지 몇백리길을 어렵지 않게 갈수 있게 되였다. …

최익현이 보낸 왕의 아관파천에 대한 소식은 실로 린석에게서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것은 린석이 지금껏 왕을 향해 다져온 모든 충군충의심을 한꺼번에 뒤집게 하는것이였다.

린석이 알기에 임금은 하늘이고 곧 나라이다.

임금이 나라를 세우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가. 그래서 나라를 말할 때 그것은 곧 임금의 나라라고 하는것이다.

반대로 임금은 곧 백성의 어버이고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다고 한다.

린석은 그 두가지가 다 맞는다고 생각해왔다.

요컨대 임금은 머리이고 신하와 백성은 팔다리로서 신체에 비하면 한몸인것이다. 참으로 신통한 비유이다. 그런데 지금 머리가 신체를 버리고 홀로 달아났다. 그러니 머리는 무엇이 되고 신체는 무엇이 되겠는가.

《하기에 서상렬대장님은 그런 임금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차라리 임금까지 반대해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전번에 주장하던 서울공격의 계속인것입니다.》

파발온 사람이 설명했다. 왕의 아관파천소식을 먼저 알고 보내온것이다.

지금 남한산성에는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다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서울공격을 단행하기 힘들기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치자는것일뿐이다. 거기에서 참모의 역할을 하는 서상렬의 주장이다. 그것은 자기가 아직도 제창하고있는 제천반일의병대라는 의미에서 무랍없이 토론을 붙인데도 있지만 무엇보다 류린석이 제일 힘있고 이름있는 의병대를 이끌고있기때문이다. 그가 서울공격에 참가하는것과 함께 다시 한번 격문을 날리기만 하면 과연 서울공격이 용이하게 되리라는 타산을 세운것이다.

그 말을 듣고나니 린석은 또다시 가슴이 미여지는듯 했다.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달아나고 백성은 임금을 반대하여 칼을 빼여들겠다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아서라, 안된다, 절대 안된다, 설사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만은 그렇게 할수 없다.

《서대장한테 가서 이르게, 나는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구… 내가 주장하는것은 왜놈과 싸우자 하는것일뿐이지 제 임금을 반대하자는것이 아닐세. 서대장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네, 절대…》

린석이 진저리를 치듯 두손을 내흔들었다. 그러한 립장은 안승우나

리필희들도 다를바 없었다.

그때 옆에 앉았던 김백산이 한마디 끼여들었다.

《대장님, 서대장의 요구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요. 그도 근본은 왜놈을 목적한것이지 임금을 목적한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예상치 않던 일이였다. 물론 상렬이 떠날 때 그런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날자도 많이 흘렀다. 그사이 피어린 싸움도 함께 겪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선봉장, 서대장이 여기 편지에도 그렇게 썼고 파발도 분명히 발설을 했는데 그들이 왕을 노리지 않았다는것은 무슨 말인가.》

안승우였다. 새로 중군이 되여 일을 시작하는데 그 마디마디가 서리발처럼 찼다.

그에 못지 않게 백산의 대답도 차거웠다.

《지금 나라에 임금이 없다고 하는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저들과 운명을 같이할 임금을 요구하지 저만 살겠다고 백성을 저바리고 도망가는 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현 놈 봤나. 나라에 임금님이 안계신다구? 그래, 이 나라에 다른 임금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그는 벌써 임금이 아니며 그런 임금은 열, 백이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무엄하다. 너같은 상놈이 감히 국사를 론하고 나라님을 걸고들다니. 어디에 대고 감히… 싸움이나 좀 한다고 얼러추어줬더니 바로 이렇게 오만해졌소. 무거불측하고 불학무식한 이놈…》

《나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이미 국사에 참여하고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서 나라가 편히 될수 있다면 이제라도 죽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기때문에 안타까워 하는 소리입니다.》

《우국충정에도 엄연히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거늘 푼수넘친 소린 매미울음소리 한가지야.》

《그러니 중군장님은 나라위한 마음까지도 반상의 차이로 그 크고 작음이 규제된다는것입니까?》

무릎우에 놓인 주먹에서 우드득소리가 났다.

꾹 다문 입에 량볼이 터져나갈듯 움씰움씰하기도 했다. 당장 무슨 벼락이라도 일어날듯 한 그 순간 린석이 갑자기 서안을 탕 내리쳤다.

《이게 무슨짓들이냐. 당장 입들을 다물지 못할가?…》

하고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해서 입들은 다물게 했지만 그 이상은 자기도 어쩔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싸움도 일수 있다는 예감이 가뜩이나 복잡한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쓸데없는 입씨름을 말라구. 우리야 왜놈들과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우자고 모여왔나.》

하고는 가장 대범한체 웃었다. 마음의 상처에 바르는 약이야 웃음이상 있는가.

그러나 그에 응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 하나 따라웃지 않는다.

그것을 보는 린석의 가슴에 눈물이 솟았다. 아니, 피가 고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히 승우나 백산이 다툼을 해서가 아니다. 왕의 아관파천으로 하여 도저히 풀수 없는 응어리가 진때문이다.

바로 그 일로 하여 최익현대감이 모지름을 쓰고있고 서상렬은 분개하고있으며 자기는 갈피를 잡지 못해 안달아하고있다. 승우와 백산의 충돌도 그래서 시작이 된것이다.

아아, 상감마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정 상감의 아관파천은 무엇을 뜻한것이며 언제까지나 계속될것입니까, 빨리 환궁을 하셔서 이 나라의 신민을 돌보시며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

그날 밤 린석은 한잠도 들지 못하고 초가락을 주무르며 지새였다.

12

전번에도 그랬던것처럼 이번에도 왜군의 성에 대한 재공격은 포사격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것은 이다찌가 성밖에서 한차례 얻어맞고 이어 달천에서 계속되는 타격을 받은데 대한 이른바 보복전이였다. 그만큼 포화력을 비롯한 공격력량이 강화된데다가 성가까이에 붙어서

직접조준사격을 가했다.

그 첫 대상이 성벽이였다. 갑자기 지심을 울리는 포성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여기저기 솟아올랐다. 시꺼먼 흙먼지와 함께 성벽을 이루고있던 거대한 바위들이 하늘높이 치솟아올랐다가 마른 벼락처럼 사방에서 후둑후둑 떨어졌다.

그래도 성은 한동안 그따위 포탄쯤은 문제가 없다는듯 끄떡없이 서있었다. 그때까지 남풍루에서 형세를 관망하던 린석과 몇몇 의병장들은 시작부터 다른 놈들의 잡도리에 불안을 느꼈다. 김백산은 그때에 벌써 놈들의 기도를 알아차리고 의병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그사이 포탄들은 점점 목표를 이동하면서 남풍루가까이로 접근해왔다. 저 고구려의 국원성때부터 천수백년을 내려오며 여기 태백산, 소백산자드락에 터를 닦고 경기, 강원, 경상, 전라 등 여러 도들과 린접하면서 충청도의 위용을 자랑하던 성벽이 점차 벌레먹은 잎처럼 숭숭해지더니 몇군데가 뭉청 끊어져나갔다.

마침내 포탄이 남풍루에 닿았다. 몇개의 포탄이 거의 동시에 문루를 때렸다. 그래도 문루는 끄떡없이 서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포탄 하나가 문루의 배부른 기둥을 면바로 맞혔다. 그때에도 문루는 괜찮다는듯 그냥 서있었다. 그러나 잠시후 지붕이 움씰움씰하면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지붕을 이루고있던 오색이 령롱한 선자추녀와 산미, 소로, 주두들이 우드득거리며 갈라지다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와 함께 용마루가 한순간 수평으로 납작해지더니 통채로 바닥에 내려앉았다. 기와장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타래진 연기와 먼지가 성안팎으로 기염을 토하며 흩어졌다.

아래에서 문을 지키고있던 의병들이 가슴을 치며 밖으로 쓸어나왔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눈에 익고 몸에 버릇된 문루가 없어지자 성은 순간에 낡아빠진 려염집울바자처럼 초라해지고말았다. 아직은 그것도 약과였다. 남풍루가 없어지는데 재미를 느낀 놈들은 돌아가며 문루들부터 까부시기 시작하였다.

잠시후에는 동문과 북문의 문루들이 차례로 넘어지면서 불길에 휩싸이였다. 성의 위용을 자랑하던 문루들이 내려앉은 성은 갓을 벗기운듯 퍽 왜소해보였다.

그 모든것을 지켜보는 린석 이하 모든 의병장들과 의병들은 가슴에 피가 끓었다.

포사격이 멎자 의병들은 즉시 성보수에 달라붙었다. 포사격의 중지는 곧 놈들의 공격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였다. 아닌게아니라 벌써 멀리에 놈들의 공격서렬이 나타났다.

이미 지휘처를 잃은 린석은 자주 백산의 선봉대에 나와 그들과 함께 돌을 나르고 흙도 팠다.

그런데 백산이 어느새 남풍루가 있던 그 자리에 돌로 작은 성을 쌓아 지휘처로 정했다. 안승우가 그보다 좀 떨어진 뒤쪽에 새로 정했다고 가자고 했으나 린석은 듣지 않았다.

마침내 싸움이 터졌다. 왜놈들은 이번에도 조선인관군을 앞세우고 뒤에서 보총과 기관총을 휘두르며 돌진해왔다. 그에 대비하여 의병들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성가퀴와 포탄구뎅이 그리고 새로 올려쌓은 성돌들에 의지하여 놈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아직은 어느쪽에서도 사격을 하지 않았다. 의병대에서는 활 한바탕거리까지라도 바싹 끌어당기자는것이고 왜놈들켠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가까이 접근하자고 하는것이 목적인것이다.

통나무처럼 뭉툭한 총통과 보총을 뒤섞어든 관군과 지방군, 그뒤에 싯누런 군복에 신식보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왜군들이 무리를 지어 부득부득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의병들의 눈에는 불이 일고 몸에는 피가 솟았다. 어쩌면 저리도 악착하고 가증스러운가.

남의 나라를 제땅처럼 짓밟고 남의 사람을 제놈들의 총알받이로 앞세우고도 뻔뻔스럽게 큰소리로 호령하는 저놈들…

무조건 이겨야 한다,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저놈이 나를 죽인다, 내뒤에 있는 부모처자, 형제자매들까지 모두 죽일것이다, 피로써 온몸을 다 바쳐 기어코 이겨야 한다.

마침내 놈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누군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전번에처럼 조선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총부리를 돌려대라는것이다. 그러나 대오는 그냥 전진하고있다. 돌아서기만 하면 시꺼먼 총구가 겨누고있는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확연해진 그 공포에 질린 낯짝과 서로 희떱게 수작들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의병들의 몸에는 진땀이 흘렀다. 여전히 사격구령이 내리지 않는것이다.

그렇게 이제나저제나 기다릴 때 마침내 사격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린석이 직접 높이 달아맨 북에 대고 방망이를 휘둘러댔다.
그러자 남쪽의 전 성벽면에서 일제히 화살이 날아가고 조총에 불이 달렸다. 핑,핑 하는 화살에 이어 땅, 땅 하는 조총탄알들이 비발치듯 성아래로 쏟아져내렸다. 삽시에 놈들속에서 혼란이 일고 공격서렬은 수라장이 되였다. 더구나 뒤에서 오만하게 놀아대던 왜군들이 무리져쓰러지며 갈팡질팡 헤맸다. 공격의 화살이 왜놈들에게 집중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수습되였다. 뒤에다 기관총을 걸어놓고 사격을 가하기 시작한것이다. 다수의 보총수들도 그렇게 했다. 기타 대부분 왜병들은 조선인관군속에 뒤섞여 《도쯔께끼》를 부르며 돌격해왔다.
린석은 속이 탔다. 그렇게 되는 경우 사격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웨치는 소리가 들렸다.
《활로 왜놈들만 겨누고 쏘라―》
김백산이였다. 그가 성우에 우뚝 서서 앞을 가리키며 웨치고있는것이였다.
다음부터 화살이 왜놈들만 향해 날아갔다. 몇정 안되는 보총수들은 멀리에서 짖어대는 기관총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그로 하여 기관총은 자주 멎고 왜군들은 사기가 저락되였다. 거기에 맥이 빠진 놈들은 그대로 물러가고말았다.
그것은 아직 싸움의 시작일뿐이였다. 다음부터 놈들은 더 집요하게 포사격을 가하고 력량도 곱절 강화하여 련속 공격을 가해왔다. 그통에 이제는 성벽도 형체만 남고 많은 인명손실도 났다. 그러나 의병들은 성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놈들은 여느때없이 증강된 무력으로 성을 공격해왔다. 성의 전면에 걸쳐 새까맣게 산개대형을 지어 일시에 달려들었다. 그에 대처하여 의병대측에서도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였다. 녀성들과 아이들, 로인들까지 싸움에 투입하였다. 이제는 사다리가 없이도 오를수 있는 성벽을 타고 놈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었다. 의병들이 다 찢어진 의복에 맨살을 드러내고 부러진 창과 칼을 들고 놈들과 맞섰다.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총이며 사다리며 칼이며 머리며 하는것을 가리지 않고 내려찍고 찔렀다. 거기에 녀성들과 아이들이 날라오는 돌이며 철편이며

뜨거운 물이며 하는것을 마구 퍼부었다. 그속에서 린석은 미영과 리씨도 보았다. 미영이 함지에다 돌을 하나가득 이어다주면서 뭐라고 하면 백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서 그것을 의병들에게 넘겨주군 하는것이다.

리씨도 미영과 함께 붙어다니다가 이따금 자기를 살펴보군 한다.

그러나 린석은 그를 못 본체 했다. 아니, 할새가 없었다. 이제는 그도 일개의 병졸이 되여 싸움에 나선것이다. 전장을 굽어보다가 형세가 급한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처음에는 어쩔줄 몰라 당황하다가 성우로 기여오르는 놈을 향해 칼을 힘껏 내리쳤다. 면바로 놈을 내리쳤다는 쾌감과 함께 자기도 한몫 했다는 탄성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누가 알아봐주었으면 하는 기대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두지 못했다. 아니, 그럴 경황조차 없었다.

저저마다 악악 하며 성아래로 정신을 파는것이다.

가까이에서는 김백산이 량손에 검을 거머쥐고 청산의 호랑이처럼 서슬푸른 기상을 펼치고있다. 그가 한번 검을 쳐들고 공중에 빛발을 날릴 때마다 악악 하는 왜놈의 비명이 터져오르고야만다.

남풍루가 있던 저쪽너머에서는 리필희가 싸우고있다. 그옆에는 안승우가 붙어있는데 그는 지금 장창으로 왜놈 하나를 찔러메치고 그것을 뽑지 못해 안깐힘을 쓰고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린석의 몸에 또 한번 힘이 솟구쳤다. 다시 검을 틀어쥐고 성아래로 향했다.

어느새 갓이 벗어지고 망건이 달아났다. 언제나 몸에 길게 늘어져 흐느적거리며 위풍을 자랑하던 도포의 팔소매도 떨어져나가고 옷매무시를 갖추어주던 술띠도 간곳이 없다.

그렇게 싸웠다. 모두가 한마음 왜놈을 족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웠다. 결국 그날도 왜놈들은 성을 빼앗지 못한채 물러나고말았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결과는 같았다.

그러나 그때에 이르러 린석의 생각은 달라졌다.

성안에 병기와 식량이 다되여간다는 무거운 중압감이 엄습해오고있는것이였다. 물론 그사이 더러 싸움으로 보충도 하고 자체로 만들기도 하였지만 지금처럼 하루소요량이 엄청나고서는 도저히 당할 길이

없는것이다.

해지는 저녁 린석은 홀로 성을 거닐었다. 힘겨운 하루싸움을 겪고 난 저녁이면 낮에는 몰랐던 온갖 상념들이 되살아나는것이다.

이대로 성을 며칠이나 더 견디여낼것인가. 최익현대감은 성을 견디여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한 말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거니는데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인가 돌아보는데 한사람이 말에서 곤두박히듯 땅에 떨어지며 곧바로 린석의 앞에 엎드렸다.

《최익현대감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편지입니다.》

그가 품에서 봉서 하나를 꺼내여 내밀었다.

《최대감께서? 무슨 일로…》

《읽어보십시오. 다 씌여있을것입니다.》

봉투를 뜯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이 흐려지고 턱수염이 푸들푸들 떨렸다. 통털어서 몇자도 안되는 글이였다.

《대군이 간다. 성을 내주고 속히 철수하라. 왕이 〈애통소〉를 취소하고 일체 의병을 해산하며 듣지 않으면 각처의 군대들로 하여금 그대들을 공격케 하였다. 나도 더는 도울 힘이 없음을 알린다.》

밑도 끝도 과정도 없이 결과만 완벽한 편지였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엊그제까지는 싸움을 계속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푸른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인듯 영문을 알수 없었다.

의병장들이 모여왔다. 모두가 분개했다. 《애통소》를 내려보낸지가 아직 두달도 못되였는데 그것을 취소하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왜병들이 아직 사처에 널려있고 공세는 더 강화되는데 그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이 의병들만 해산하라고 하니 그놈들은 어떻게 하며 의병들은 또 어떻게 하라는것인가.

린석은 드디여 서울길을 결심했다.

…왜놈들이 한사코 이 성과 해보는데는 창의대장님을 노린데도 있다. 그런데도 당자가 나선다는거야 섶을 쥐고 불속에 뛰여드는게 아닌가. 설혹 일이 되여 빠져나간대도 무사히 다시 들어올수 있는가. 이런 때 의병장이 성을 뜨는건 싸움도 싸움이지만 의병대의 생사와 관련한 중대사다. 모두가 결단코 막았으나 린석은 끝내 몇몇의 호위속에 성을 빠져나갔다.

죽기내기로 달려 서울에 당도하니 최익현이 외딴 사랑방에 누워있다가 방에 들어서는 린석을 멍청히 바라보는데 그것은 전에 없던 일이였다.

린석이 역시 문앞에서 잠간 읍만 하고 여전히 누워있는 익현의 옆에 앉았는데 맞고 맞이하는 모습이 잠간 소풍하러 갔다 들어오는 광경이였다.

《자네가 어째 왔나?》

익현이 여전히 누운 자세로 물었다. 린석도 무릎을 꿇기는 하였으나 하는 대답이 천연스러웠다.

《잠간 물어볼 일이 있어 왔소이다. 먼길에 소인인들 일이 없어 왔겠소이까?》

《내가 도울 길이 없다고 편지에 쓰지 않았나. 그런데두 막 올라와?》

《대신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소이까. 우리의 명줄은 애오라지 대감어른께 달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익현이 늙은이답지 않게 벌떡 일어나앉으며 팔을 홰홰 내둘렀다.

《이놈 봐라, 내가 당장 죽게 되였는데 자네의 명줄이 내게 달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덤비는것을 보니 분명 설긴 설었구나.》 하고는 무엇이 없나 방안을 둘러보다가 서안우에 놓인 종이장을 그에게 홱 밀어던졌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보라고 하지 않나.》

익현이 꽥 소리치다가 생각난듯 한손을 들었다.

《아니, 영문을 알긴 알아야겠군. 그게 임금께 올리는 내 상소문인데 벌써 올라갔어. 일인즉 나를 포함한 1,2품 관리들을 의병투쟁을 그만두도록 설복하기 위한 선유사로 파견하는것을 반대하여 올리는것이야.》

그제서야 익현이 어느 정도 진정을 하고 본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린석이 꿈에도 하지 못했고 할수도 없었던 전혀 생뚱같은 이야기였다. …

로씨야공사관으로 《파천》을 한 왕은 그로써 신변의 안전과 왕실

의 안녕이 담보되였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리고 로씨야의 세력에 의지하여 이제부터라도 외교적방법으로 일제놈들의 조선침략기도를 저지파탄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면 문제시되는것이 첫째로 의병이였다. 외교적교섭을 하자면 먼저 그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있는 의병들부터 돌려세워야 했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불과 두달전에 내려보냈던 《애통소》를 취소한다는 것과 함께 일체 의병대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려보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새로 조직된 정부의 외부대신 리완용의 훈시와 전국 각지에 선유사를 파견할데 대한 지시를 내려보낸것이다.

선유사들가운데서도 왕이 제일선참으로 꼽은 사람이 최익현이다. 그가 궁중에서 영향력도 있는데다 의병투쟁을 제일선참으로 강력하게 주장했기때문이였다.

바로 그것이 최익현의 불만을 샀다. 정책에서 아무런 주견도 없고 이랬다저랬다 하기를 잘하는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임금이였던가 하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상소문을 썼다. 지금 린석이 읽고있는것이 그 초안이다. 거기에서 익현은 먼저 왕의 우유부단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비판하고 자기는 선유사의 직무를 맡아할수 없다는 립장을 단호히 밝혔다.

그 첫째 리유가 임금의 지시문에 역적들은 이미 처단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역적들이 처단되였단 말인가, 지금 의병들은 왜적을 치자고 일어났는데 역적이란 말이 여기에 어떻게 해당되는가, 우선 말의 리치에서 그들과 맞지 않으니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 집행할수 없다.

둘째 리유는 지금은 만국이 서로 화친하고 믿음과 의리를 같이할 때라고 한다, 그런데 저 왜적들은 정의를 생각지 않고 음모하고 공모하면서 여러해동안 이 나라에서 변고만 일으키고있다, 신이 듣건대 각국이 화친을 맺는데는 이른바 공정한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법에 과연 남의 나라 임금을 위협하고 국모를 살해해도 된다는 조문이 있는가.

지금 여러 고을들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왜적을 치지 않으면 원쑤를

갚을수 없다고 하는것이 바로 그때문이다. 바로 이렇듯 정정당당한 리유를 가지고 론증을 한다면 신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한단 말인가.…

최익현은 바로 이러한 론거를 가지고 자기는 선유사노릇을 할수 없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벌써 세번째 상소문이다. 한번은 저 대원군의 서원탄압때, 한번은 《강화도조약》체결때. 그때마다 그는 상소문때문에 귀양을 가야하는 쓰디쓴 맛을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또 썼다. 어떻게 의병투쟁만이라도 살려 왜놈들의 침입을 막아보자는것이였다. …

전후사를 다 듣고난 린석은 그만에야 익현의 앞에 넙적 엎드려 절을 하였다.

《대감어른, 잘못했소이다. 제가 그런줄도 모르고 예까지 올라와 화풀이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익현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려치며 버럭 화를 냈다.

《그게 어쨌다는겐가. 상소를 하든 진언을 하든 집행될것은 하나도 없는데야. 이 몸은 물고를 당하든 귀양을 가든 하겠지만 장차 나라의 존망은 어찌한단 말이냐.》

저녁에 주안상이 들어와서는 그 이야기가 더 심화되여 전개되였다. 주되는 내용이 왕의 《아관파천》과 그를 둘러싼 형국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금 급한것은 빨리 왕이 환궁을 하여 신하들을 만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사처에서 인민들과 관리들이 왕의 환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발치듯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왕은 《경운궁과 경복궁의 수리》와 《며칠내로 돌아가겠다.》는 식의 구구한 변명만 대고있다. 거기에 조선왕을 끼고 급격히 남하작전을 벌리는 짜리로씨야와 그에 대비한 일본의 본격적인 전쟁준비…

듣고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만간에 이 나라가 또 대국들의 전쟁판으로 되고말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세치아이도 짐작할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왕이란 사람은 남의 나라 공사관에 깊숙이 숨어들어 돌아올념을 않고 그 어떤 외교적방법만을 운운하고있단 말인가.

《대감님, 이것이 진실로 우리 임금이십니까. 아직도 그를 나라님

으로 섬겨야 합니까?》
  불시에 린석이 부르짖었다. 언제 한번도 린석이 왕에 대하여 그렇게 해본적이 없던 일이였다.
  《이것이, 이것이… 온 나라 신민은 죽든살든, 나라가 외적에게 침입을 당하든말든, 백성들이야 그들과 싸우든말든 상관없이 저 혼자만 편안히 숨어가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받들어야 합니까?》
  그 불같이 뜨겁고 살같이 예리한 린석의 호소에 익현이 와락 달려들어 어깨를 그러안았다. 그리고 둥그런 이마에 지끈 불이 일도록 마주대고 오래도록 문대졌다. 두사람의 눈에서 다같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였다. 이제부터 그들이 가장 공경해마지 않으며 무조건 숭배해온 저 임금이 나의 임금이 아니며 내가 섬길바가 아니라는것을 인식하게 된것이다. 이를테면 지금껏 그들이 믿고 의지해온 정신적지주를 잃어버린것이다. 그 막막하고 헛헛한 정신적허탈을 무엇으로 보충할것인가.
  《아니, 아직은 그것도 다가 아니야, 다가. …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말을 할수 없다는데 있어. 말을 하면 죄가 되거던.》
  익현이 더더욱 린석을 끄당기며 말하였다.
  《하지만 언제인가는 임금이 〈말을 하는자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네는 몰라. 그것은 겉치레로 하는 말이고 예로부터 〈말하는자 너는 죽어야 한다.〉고 했어. 내가 이제 그렇게 되여야 해. …》
  대화는 끊어지고 다시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발심, 배신의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더더욱 떨어질수 없게 하였다.
  그렇게 얼마를 더 마주하고있다가야 그들은 머리를 들었다.
  《대감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침내 린석이 물었다. 그때에는 익현도 어렵지 않게 대꾸했다.
  《내가 이미 말했지. 편지에도 썼구. 대군이 갈것인데 성을 내놓고 곧 철수하라구…》
  《하지만 어떻게 저만치 펼쳤던 나래를 거두고 물러설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네. 래일 당장 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

를판에 의병대가 다 뭔가. 명백한것은 누구도 믿지 말라는것이야. 이 세상 누구도 믿을것이 없어. 오직 자기 힘만 믿고 자재자량하라구. 제 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익현으로서도 그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로써 명줄처럼 믿고 매달리며 싸움을 벌렸던 줄이 끊어져버린것이다.

다음날 아침 린석은 구슬프고 허전한 마음으로 서울을 떠났다. 익현이 깨끗하고 가뜬하게 차린 새하얀 창옷에 흰 수염발을 날리며 대문밖에서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것이 린석이 최익현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였다. 물론 그것이 마지막으로 될줄은 아직 몰랐다. 다만 그는 그처럼 학식있고 도고하며 인망이 높던 최익현이 어떻게 하여 저렇듯 체소한 로인의 모습으로 변하였을가 하는 의혹만 품었을뿐이였다.

그러나 그것만이 최익현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였다. 그때로부터 10년세월이 지난 1905년 이 나라에 《을사5조약》의 날조로 망국의 비운이 드리우자 그는 일흔살 나이에 정계를 박차고 단연 반일의병투쟁에 뛰여들었다. 전라북도의 례천, 태인, 순창, 담양의 넓은 지방에서 왜놈들을 마음껏 족치며 호랑이같은 자기 기질을 마음껏 떨치기도 하였다. 끝내는 왜놈들에게 붙잡혀 쯔시마까지 끌려가기는 했으나 놈들의 온갖 기만과 회유고문도 뿌리치고 주는 옷도 입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며 순국하는것으로 조선민족의 절개와 지조를 끝까지 지키였다.

그것을 알길 없는 린석은 끝없이 갈마드는 괴로움과 절망에 빠져 허적이며 말을 때려몰았다.

이제 더는 바라볼것도 의지할데도 없다는 생각에 가끔 말을 멈추고 멍청히 먼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하다가는 끝내 말에서 떨어져 풀숲을 딩굴며 소리쳐울었다.

아, 조선아. 너는 장차 어디로 갈것이냐. 제 나라의 임금조차 없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 나는 이제부터 어디에 의지하여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흩어진 머리를 쥐여뜯고 백년로송에 몸을 들이받으며 안타까이 부르짖었으나 어디서도 대답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죽고싶었다. 당장 죽자고 아찔한 벼랑끝에 다가서기도 하였다. 죽고나면 모든것이 깨끗할것이 아닌가. 허탈, 절망, 기약없는 생명은 죽은 목숨이나 같지 않는가. …

그때 문득 두고온 성 생각이 났다. 충주성이다. 거기서는 오늘도 싸움이 일고있을것이다. 함께 피를 다물고 왜놈들과의 결사전에 나섰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있는지.

그것이 그를 다시 말에 오르게 하였다. 이를 악물고 말을 때려몰게 하였다. 저녁무렵이 되여 멀리에서 바라보니 성이 불타고있었다. 온 성이 하나의 커다란 불뭉치가 되여 기염을 토하고있었다. 간신히 포위를 뚫고 당도하니 고색창연했던 선화당과 객사를 비롯한 관청들, 창고들, 항간의 려염집들이 모두 불타고있다.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누가 누군지 알아볼수가 없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불에 탄 옷, 흩어진 머리칼, 시뻘겋게 입은 상처, 불에 끄슬린 연기로 하여 모두 딴 사람이 되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어떻게…》

그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놈들이 총공격을 해왔습니다. 이틀동안… 그러나 우린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듣고보니 승우의 목소리다. 다 흩어진 상투바람에 웃동조차 입은것이 없는 몸이다.

(아, 승우 자네가 이런 사람이였던가. 그러면 그렇겠지. 자네라고 매번 조용하고 새침해있을라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였다. 하나처럼 불덩이같이 뜨겁고 강렬해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할수가 없다. 아니, 그 반대로 하여야 한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말을 해야만 한다.

《이제 더 많은 대군이 밀려올거요. 성을 내주고 철수해야 하겠소. 이제 당장…》

말이 끝나기 전에 여기저기서 항변이 튀여나왔다.

《대장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까지 지켜온 성을 왜 내준단 말입니까?》

《그게 누구의 명입니까. 나라에서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다. 누구도 시킨 사람은 없다. 최익현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강요는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것은 린석 혼자의 결심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무모한 희생을 피하고 제천으로 되돌아가자는것이다.
《싸움에서는 때로 후퇴하는 때가 있는것이요.》
고요가 깃들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그들도 린석을 기둥처럼 믿는것이 다 그 말고 더는 의지할데가 없는것이다.
《나는 그네들이 마지막 한사람까지 싸울것이며 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리라는것을 알고있소. 그러나 보다 큰 싸움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소.》
말을 마치고 어둠속을 더듬었다. 김백산을 찾는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하나 하재도 그의 동의를 얻는것이 버릇처럼 굳어졌다.
말이 없다. 그가 머리를 수긋하고 무언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있는것이다.
그날 밤 의병대는 성을 빠져나왔다. 또다시 싸움으로 북문을 열어제끼고 조용히 성을 떠나는것이다. 그렇게 성을 내주는 의병들의 눈에는 살점을 뜯기우는 고통과 괴로움이 어려있다. 이 성과 함께 얼마나 사연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던가. …
린석이 먼저 문밖에 나와 대오를 점검할 때 마지막으로 리씨와 미영이 다가왔다. 리씨가 말없이 린석의 아래우를 훑어보더니 품에서 무엇인가 꺼내여 앞으로 내밀었다.
십전대보탕이다. 그 향기롭고 씁쓸한 냄새가 날아들자 순간에 굳어졌던 몸이 풀리였다.
《원 로친두, 이게 뭐라고 이런데서까지…》
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울었다. 이것이 내 조국이고 겨레이며 피줄이 아닌가. …
이렇게 성을 빠져나온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느면서 또다시 피어린 격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느라니 충주에서 제천까지 50리길을 사흘이나 걸리여서 도착하였다.

제 3 장

초목도 분노한다

1

제천은 그들에게서 낯선 고장이 아니며 처음 차지한 땅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은 첫 반일의병대의 발족을 선포하였고 그 고고성도 터치였다. 그리하여 부대의 이름도 제천반일의병대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린석에게는 그 모든것이 못마땅하였다. 힘껏 나래를 펴고 충주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좁은 제천으로 되돌아왔다는 자체가 그로 하여금 답답하고 불안한감을 자아내게 했던것이다.

아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의병싸움을 어떻게 더 전개하겠는가 하는 의혹이 지꽃게 그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있는것이다. 나라에서는 이미 의병싸움을 금지시킨데다 제천이란 좁은 골안에 들이박혔으니 이제 더 날개를 펼칠데가 어디인가. 역시 만사가 생각과는 같지 않은것이다.

하여 그는 동헌의 대뜰우를 성난 범처럼 왔다갔다 하였다. 이 역시

저 충주감영의 대뜰보다 좁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곳이다. 어떻게 하면 싸움을 더 크게 벌릴수 있을가. 어떻게 해야 저 왜놈들에게 더 섬멸적인 타격을 안겨줄수 있을가.

이것은 그가 천만번 곱씹은 끝에 해낸 생각이다. 왕이 저 혼자 피난을 가건말건, 나라에서 싸움을 금하라 하건말건 왜적이야 왜적이 아닌가. 그놈들이 내 나라, 내 땅에 와서 살인과 략탈, 도살을 비롯한 갖은 악행을 다하고있는데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옳은가.

그것은 또한 모든 의병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애초부터 그들이 누가 오라고 해서 왔고 싸우라고 해서 싸웠던가. 오히려 저 군수니 감사니 하는것들이 그토록 막아나서는것도 기어코 나서 저만큼 의기를 떨치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다만 형세가 달라진 조건에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싸우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다.

《대장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없습니다. 그러나 형세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기 제천은 시골로서도 한쪽 구석이고 지역도 협착하여 대부대가 한곳에 오래 머물러있을 곳이 못됩니다. 따라서 각 부대들은 처음 조직되였던 본지역으로 돌아가 그곳을 차지하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우가 머리를 수긋하고앉아 마루우를 왔다갔다 하는 린석을 쳐다보지 않은채 말하였다.

그 첫마디가 중요하였다. 그는 중군장이면서 동시에 이곳 제천에서 첫 의병을 일으켰던 당자이다.

그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큰것이다.

《저의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이곳 형편이 오래 있을수 없는데다 바야흐로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본고장으로 돌아가 농사도 하면서 싸움에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른 의병장이 또 한마디 하였다.

린석은 걸음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뜻밖에 튀여나온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 등 각이한 모양새로 자기를 주시하고있다.

그것은 린석이 예견치 않던 일이였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의병들은 충주에서 있었던 가지가지의 무훈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차지했던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싸울수 있다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바로 거기에 신심을 가지고 린석도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의병장들과 함께 앞으로의 싸움방도를 더 깊이있게 토론하자는것이였다.

그런데 중군장 안승우가 이렇게 나올것은 무엇인가. 그의 한마디가 전군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나 한 말인가.

그때 그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튀여나왔다. 바로 자기를 대신하듯 김백산이 하는 말이였다.

《중군장님, 이제 부대들을 돌려보내는것은 의병대자체를 해산하는것과 같습니다. 제천을 고수해야 합니다.》

《나도 그쯤은 알고있소. 제천은 내가 고수하겠소. 그러나 전부대가 오래동안 제천바닥에만 늘어붙어있으면 망하는 수요. 먹을것, 입을것도 없는데다 놈들의 공격목표로 될수 있소. 따라서 각 의병대가 넓은 지역으로 나간다면 그만큼 활동에도 유리하고 놈들의 집중공격목표에서도 벗어날수 있소. 이것은 선봉장이 주장했던바도 아니요?》

《지금 각 고을에는 의병대를 해산할데 대한 왕의 명령이 내려가있고 곧 선유사들까지 도착할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각 의병대들은 력량이 약하고 의병장들의 지휘능력도 높지 못합니다. 각개격파될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창의대장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서로 의지하면서 력량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먹여살리겠소? 좁은 골안에서 싸움은 누구와 하며 력량은 어떻게 확대한다는거요?》

《꼭 제천읍바닥만 생각할것이 아닙니다. 방어에 유리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유격활동을 벌리면서 범위를 확대해나가면 될수 있습니다. …》

린석은 교의에 앉아 그들의 오가는 말을 유심히 듣고있었다. 얼핏 보면 저마다 거기에 맞는 그럴듯한 타당성이 있는듯 하다. 그러나 량자간의 주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안승우의 견으로 볼 때 그것은 제천이나 고수하면서 자기에게 편리하게 하겠다는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싸움을 포기하겠다는것과 같다고 할수 있다. 자기이외의 다른

부대들은 다 무시해버리는때문이다. 전체를 버리고 유독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거나 다를바 없지 않은가.

반대로 백산이쪽에서 보면 그는 의병대 전반을 보고 달라진 형국을 충분히 참작한것으로서 끝까지 싸움을 계속할 립장을 표명한것이다.

그것이 린석에게 힘이 되였다. 누구에게 묻고 의지할데가 없어진 지금에는 의병대자체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수밖에 도리가 없다.

《다들 들으라. 형세가 어떻게 달라졌든 한번 마음먹고 빼들었던 칼을 걷어넣을수는 없다. 정의의 싸움을 계속 벌려나가는것은 이 땅 남아들의 변함없는 기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저기 뾰족봉에 올라 하늘에 대고 맹세도 한바이다. 이에 창의대장인 나는 제천반일의병대를 끝까지 고수하고 그 력량을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심하였다. …》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놈들의 공격으로부터 제천을 고수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석을 의병장으로 하는 의병대가 충주에서부터 오는 학고개를 맡을것이다. 전부대가 그곳에 나가 방어를 담당하면서 멀지 않은 목미고개에서 창칼과 철알을 비롯한 병기도 만들어낸다.

서북쪽으로 통하는 구학산고개는 군사장 리필희가 자기 의병대와 함께 현지에 나가 담당할것이다. 구학산고개는 서울에서부터 적들이 직접 들이닥칠수 있는 곳이므로 군사장에게 특별히 맡기는것이다.

김백산의 선봉부대는 제천읍에 본거지를 두고 화약을 만드는 한편 기본전투부대는 유격활동으로 부대에 필요한 식량을 보장할것이다. 특히는 전투준비가 완료되는데 따라 적들의 주요군사기지이고 병참기지인 가흥공격을 계획할것이다. …

이로써 전투분담이 끝났다. 이를테면 류린석의 결심이 그대로 내려진것이다.

그에 대하여 일부 반신반의하면서 부대가 흩어져갈것을 주장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호응해나섰다.

안승우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모임이 끝났을 때 불쑥 그가 한마디 꺼냈다.

《홍정식이네를 서울로 보냈으면 합니다. 야마무라놈한테 돈을 찾아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뜻밖이였다. 지금과 같이 형세가 변하고 자리도 잡히지 않

은 복잡한 때에 그것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

《자금이 딸립니다. 식량을 비롯해서 제천바닥에서는 나올데가 없습니다. 그 돈을 꼭 찾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린석이 백산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한것은 정식과 그의 패거리들이 지금 백산의 선봉부대에 들어있기 때문이였다. 백산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들도 응하여 소속되게 된 것이다.

《제 생각엔 지금 보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건 왜?》

《위험합니다. 왜놈들이 정식이네들을 놓쳐버리고 야마무라에 대한 경비를 강화할수 있습니다. 복수가 두려워서 야마무라부터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린석은 대답을 안했다.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때 안승우가 찌르듯 백산을 쳐다보며 말했다.

《선봉장은 어째서 내가 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선 코코에 막아서는 거요. 자네가 중군인가?》

백산은 입을 다물었다. 내가 언제 그랬던가 하는 의혹이 그를 잠시 얼떠름하게 했던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런것 같았다. 정식에 대한 말이 날 때마다 자기가 반대해나섰던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였다. 야마무라에게 돈을 주었다가 전량을 떼우지 않았던가. 결국은 오늘 일도 그 연장선우에서 보아야 한다. 교활한 저 야마무라에 비하여 정식이네들은 너무도 단순하다. 그만큼 단련도 적으니 경계해야 할것이 많은것이다.

린석도 바로 그 시점에서 생각을 굴렸다. 이제 그들을 서울로 보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겠는가. 그때에는 다시 수습할수도 없다.

《안되겠네. 당분간은 보내지 말자구.》

린석이 말해서 일단락 결속이 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승우는 그 자리에 남았다.

《대장님은 왜 번마다 선봉장의 말만 듣고 제 말은 그르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자고 저에게 중군의 임무를 맡겼습니까?》

그가 대번에 들이댔다. 언제인가도 그렇게 말한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단도직입이 아니였다.

이제는 린석도 에두를수 없었다.

《그야 선봉장이 옳으니 옳다는것이지.》

《무엇이 옳다는것입니까. 물론 선봉장의 켠에 서면 그 말이 옳을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장님은 제 립장에 한번이라도 서보았습니까.

나는 홍정식과 함께 야마무라한테 돈을 떼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지금이야 그 돈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면 막 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것 같아 앞에 나설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몇달을 먹고 쓰고살수 있는 돈을 떼웠는데 왜 말을 안하겠습니까. 대장님은 저의 이런 립장에 한번이나 서보았습니까?》

리해가 되였다. 그에 대하여 량심의 가책을 느끼는것도 응당하다. 그러나 그때문에 중군의 직무를 수행 못하거나 사람들앞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리해할수 없다.

《그게 전부인가?》

《아니, 또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선봉장이 옳을수도 있습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상민이지 량반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선봉장이고 싸움을 잘한다 하여도 량반의 지위에는 올라설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장님은 그 모든것을 무시하고 오직 전공이나 임무수행에 따라 사람을 평가함으로써 인륜도의를 페절시키고 조상전래의 절조를 깨뜨리고있습니다. 대장님은 일찌기 저희들에게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것처럼 사람도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런 이상에는 〈상지하우불가이(웃사람이 현명하고 아래사람이 우둔한것은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를 뼈에 절도록 가르쳤는데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것입니까.

설사 선생님이 부정한다고 하여도 옛 성현들이 만들어놓은 대의명분은 누구도 깨뜨릴수 없고 다시 돌려세울수 없습니다.》

린석은 말없이 그앞을 거닐었다. 그의 말이 세차게 가슴을 때렸던것이다.

옳다. 지금까지 그는 그 모든것에 대하여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그 절조를 깨뜨리며 하나하나 부정해나가고있다. 반상의 계률뿐아니라 왕에 대해서도 그렇다. 왕도 나라와 백성을 위하지 않는 한에야 무엇에 필요한가.

놀라운것은 린석이 한생을 익혀온 모든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고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의 머리속에는 반상이나 상하의 등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공이나 업적에 의하여 사람들을 갈라보는것이 버릇처럼 굳어져가고있다.

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내가 변했다는것이 아닌가.

(아니, 나는 변하지 않았다. 변한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다.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밖에서 혼자 자유로울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미영과 김백산이 가까워지는것을 바랄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장님도 동조하지 말며 이 아버지의 심중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대장님이 과연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린석은 여전히 자기 세계에 잠겨있었다.

《내버려두라구. 그들도 저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시켜서 하는노릇이야. 세상이 달라져가고있단 말이야.》

그렇게 그루에 못을 박듯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고는 훌쩍 그 자리를 떴다.

2

승우도 자기 성격을 누르고 대세의 흐름에 따르자고 했다. 그러나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다.

어느날 한낮 승우가 집을 나서는데 모퉁이길에 함지며 버치 같은것을 한입씩 머리에 인 녀인들이 나타났다. 무슨 일때문인지 머리에 한

껏 입을 인 그들도 참을수 없어 저마다 입을 싸쥐고 웃고있었다.
그속에서 승우는 자기 딸 미영도 보았다. 그만은 별로 크게 웃지 않다가 승우를 보자 곧바로 다가왔다.
《아버지, 벌써 화약을 만들어냈어요. 인차 그것을 시험해본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만큼 쌓아놓고 터쳤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저렇게들 웃는답니다.》
《머리에 인건 뭐냐?》
《망초예요. 화약을 만드는데 쓰는건데 온 읍거리 녀자들이 떨쳐나섰어요.》
《네가 여기 와서두 그 일을 맡아하냐?》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있지 않아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란 누구냐? 선봉장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네, 맞아요. 모두 그이를 용타고 칭찬해요.》
《너 그걸 갖다두고 내 방으로 와라, 이제 곧.》
승우가 말하고 돌아섰다.
그가 말하는 《내 방》이란 그가 필희와 함께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정상적으로 되자면 외지에 나온 아버지와 딸이 함께 있어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다. 미영이 노상 선봉대의 취사장에 나가있는것이다.
마침내 미영이 왔다. 그는 방안에 들어서도록 아무 말이 없다가 겨우 웃목에 쪼그리고앉았다.
《아버지, 왔어요.》
한다는 소리가 그게 다다. 괘씸한 년, 내가 선봉장이라면 그렇게 했을터인가.
《됐다. 내가 하자는 말은 다른게 아니구 네가 이제부터 집에 가서 가사를 돌보라는것이다. 어미없는 집에 응당히 누구든 주인이 있어야지?》
승우가 눈을 부릅뜨며 그를 쏘아보았다. 그러자 미영은 우습다는듯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아버지, 집엔 벌써 갔댔어요. 딴 걱정 말아요.》
《집에서 기별이 왔다. 벌써 봄이야. 좀 있으면 밭도 갈고 씨도 뿌

려야 해. 일이 좀 많으냐?》
《글쎄 걱정말라니까요. 제가 다 말해보냈어요. 다신 그런 기별 말라구요.》
《기별을 말라구? 그래 말을 않으면 종것들이 일을 제대로 할것 같으냐?》
《언제는 종들이 일했지 우리가 했어요? 다 제대로 할거예요.》
《안돼. 이제 집에 돌아가거라, 당장!》
했건만 미영은 아까처럼 또 입에 손을 가져갔다.
《됐어요. 아버지, 더 하실 말씀이 없어요?》
천만뜻밖에도 그냥 일어설 자세다. 그것이 승우를 더 격분케 했다.
《어딜 가려구, 또 선봉대냐?》
《아버지, 그렇게 격하지 마세요. 그이한텐 녀자의 방조가 필요해요.》
《필요하면 필요했지 하필 네가 필요할건 뭐냐. 제천고을에 너밖에는 다른 녀자가 없다더냐?》
불시에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때까지는 노상 웃으며 리해하려고 애쓴 그 얼굴에 참을수 없는 노기가 어리였다.
《아버지, 빙빙 에두르지 마시고 곧바로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낳은 이 딸이 무엇이라고 자꾸 에두르십니까?》
《나는 네가 그 상놈과 가깝게 지내는것을 참을수 없다. 빙빙 에두른다구? 에두르기는 왜 에둘러. 그래 네가 그 녀석과 친해서 나중에 얻을것이 무엇이냐. 대대로 우리 안씨가문은 크게 명문가는 아니였어도 천하지는 않았다. 력대로 유생량반의 체면은 지켜왔어. 그런데 네가 그를 우리 집안에 끌어들인다면 이 집은 상놈의 집이 되고 너도나도 상놈이 되고말것이다. 나는 일찌기 죽어 없어지면 또 별일이지만 네가 낳은 자식들도 다 상놈이 되고말것이다. 나는 나의 대에 와서 너에게 상놈의 피줄을 이어줄수가 없다. 나도 길거리에서 빌어먹을지언정 상놈의 집에 얹혀사는 장인노릇은 할수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너무 과하게 높이 세우지 마십시오. 사실 아버지에게 량반이라는 허울과 몇십년 더 오래 산 나이를 떼여놓으면 무엇을 볼것이 있

습니까. 한평생 익히신 학문이니 례의니 도덕이니 하는 자질구레한 범절로 얻은것은 무엇이며 해놓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남들보다 총탄을 먼저 만들어냈습니까, 각처로 쓸어드는 외적들을 막기나 했습니까.》

《나는 제천에서 누구보다 먼저 의병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호소도 했다. 제천반일의병대란 이름이 날리게 된것도 바로 그때문이야!》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량반유생이라는 체면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싸움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는 비록 의병을 일으켰고 그 대장의 한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봉건도덕이라고 하는 가혹한 례의범절과 구속으로 싸울수 있는 사람도 싸우지 못하게 하고 도와줄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게 하면서 스스로 싸움을 실패에로 몰아가고있습니다.》

《나는 네가 그를 내 집에 끌어들이는것을 반대하지 싸우는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거듭 말하지만 그에겐 녀자의 방조가 필요합니다. 그는 한생 부모가 없이 자랐고 녀자의 도움은 더구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를 도와주는것이 싸움을 잘하게 하는것입니다.》

《녀자는 너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당장 관계를 끊어라.》

《아버지, 도와주는것 하고 가까이하는것 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론하지 마십시오.》

《남녀가 필요이상 가깝게 지내는것은 결국 한길로 가는것이다. 남녀7세부동석이란 말이 괜히 생겼는줄 아느냐?》

《하지만 저는 그를 돕지 않을수 없습니다.》

《녀자의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녀자의 몸은 일체 부모의 승인하에서만 움직일수 있다.)라고 했다. 그만큼 네 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다치지 못한다.》

그러나 미영은 그 마지막말을 듣지 못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뛰여나갔던것이다.

그것이 승우를 더 격하게 하였다. 이미 그의 마음이 백산에게 빠져버렸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것이 생각을 백산에게로 돌아가게 하였다. 녀자들의 마음이 동하고 동하지 않는것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린 일이다. 그만큼 남자를 신칙하던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데 동헌으로 나오라는 기별이 왔다. 가보니 린석이 심중한 낯으로 봉서 한장을 내놓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물으니 대답대신 앞에 앉은 사람을 가리켰다. 서울에서 내려온 경차관이라는것이였다.

이번에 선유사로 임명된 정1품의 장기렴이란 대감이 써준것인데 그 대감이 지금 충주까지 내려와있다고 했다.

승우는 다급히 글줄을 더듬어내려갔다.

《고시문》

겉봉에 이렇게 쓰고 안에 장문의 내용이 전개되여있었다.

《금 2월 18일 본관은 임금의 명령으로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일대에서 의병대를 해산시킬데 대한 중임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임금께서 비밀한 지시를 내려 의병을 장려했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라의 실권을 쥐고있는자들에게서 협박의 구실이 되고 그때문에 임금이 더더욱 문책을 당할뿐아니라 환궁의 날을 기약할수 없게 되였다.

당신들이 의병을 일으킨것은 국왕이 권력을 되찾고 임금의 치욕을 씻으며 왜를 토벌하여 원쑤를 갚자고 하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임금이 외따로 떨어져 정사를 바로 볼수 없고 호령이 통하지 못하여 그 뜻을 펼수 없게 되였으니 한심한 일이다. 그런즉 임금의 뜻을 받들어 무기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것이 그네들의 충성을 다하는것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편성중인 서울친위대와 강화친위대를 파견하여 기필코 그대들을 토벌하게 될것이니 깊이 생각하고 속히 대책하도록 할것이다. …》

《장기렴대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적대책을 취하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있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예까지 와서 대장에게 문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승우가 다 읽기를 기다렸다가 과연 서울사람답게 말쑥하게 차려입

은 경차관이란 사람이 말했다.
그것이 방금 편지를 읽고난 승우를 긴장하게 했다.
《상감의 심중이 리해됩니다.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국사를 돌보려니 상하에 간극이 막히여 뜻이 통하지 않을것이고 마음대로 산책을 할것인가 조석끼니인들 입맛 당기는대로 할것인가. …》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지금 임금의 통제에서 벗어난 신하들이 제멋대로 나라재산을 훔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가 하면 저마다 양국놈들과 붙어돌아가며 리속차릴 내기를 합니다. 말그대로 아비어미없는 집에 도적까지 뛰여든셈이지요.》
《그참, 야단은 야단이군. 그런 때일수록 신하들이 마음을 합쳐 임금을 따라야 할터인데…》
승우가 다음말을 받아넘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탕 소리가 나며 서안이 우들찍 떨렸다. 린석이 손으로 그것을 내리쳤던것이다.
《중군, 무슨 말을 하는거요?》
그가 소리를 치며 승우를 쏘아보고는 맞은쪽 사람에게 돌아섰다.
《경차관, 가서 장대감에게 그대로 전하시오. 우리는 절대로 의병투쟁을 중단하지 않을것이라고 말이요.》
경차관이란 사람이 승우와 같이 놀랐다가 곧 얼굴에 웃음을 짓고 린석을 향했다.
《의암선생, 이렇게 되면 참 곤난합니다. 우선 그자체가 임금의 명에 대한 거역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렴대감께서도 그대로 물러서지 않을것입니다. 후사를 생각하셔야지요.》
《생각하고있소. 오직 왜놈과 싸우는것뿐이요.》
린석이 단도직입으로 잘라맸다. 아마 그에 대해서는 승우가 오기 전에도 말이 있은듯 더는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경차관이란 사람도 그냥 돌아가고말았다. 그가 떠나갈 때 학고개에서부터 배행하고 왔던 사석에게 린석이 말했다.
《이제 장기렴이란 사람이 찾아올수 있소. 그때에는 절대로 우리 경내에 들여놓지 말고 기다리게 한 다음 나에게 알리시오. 내가 마주 나가겠소.》
사석이 알았다고 대답하고 경차관을 따라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우가 놀라서 물었다.

《대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장기렴이 노하면 꽉 군사를…》

《중군, 우린 의병이요. 애초부터 왜놈과 싸우자고 일어났던 사람들이란 말이요. 왜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가?》

《이것은 제가 아니라 임금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대장께서 자꾸 이러시면…》

《우리 임금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우리가 한생 찾아헤매이던 그 임금이 과연 이 땅우에 있기나 한가?…》

이렇게 부르짖는 그의 눈에서는 마치 시퍼런 불이라도 이는듯 했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연 련락이 왔다. 장기렴이 린석을 만나러 왔는데 사석이 그를 학고개에 붙들어두고 사람을 보냈던것이다.

린석은 곧 말우에 뛰여올랐다. 이렇다할 수종자도 없이 학고개까지 30리길을 단숨에 달려갔다. 그때까지 격분하고 못마땅한 자세로 기다리고있던 장기렴이 뚱뚱한 배를 내밀고 린석을 아니꼽게 쏘아보고있었다.

《그대가 류린석인가. 린석이 무엇하는 사람이기에 나라의 일등대신도 이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가. 여기는 조선땅이 아닌가?》

《의병들이 차지한 땅이요. 의병이 살아있는 한 의병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발자국도 들어설수 없소. 그 후과를 나도 책임질수 없기때문에 더구나 들여놓을수 없는거요.》

린석이 학고개마루의 그 넓은 등판에서 장기렴과 똑바로 마주서서 말하였다.

그것이 장기렴을 더욱 격분하게 하였다.

《흠, 이것 보아라. 이놈, 그건 내가 아니라 상감께서 내리신 명이다. 네놈이 감히 상감의 명을 거역해?》

《상감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에 진실로 만백성을 위하고 백성이 따르는 임금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왜적이 무서워 남의 나라 공사관에 숨어가있는것도 임금인가?》

《숨어가있다구? 그것은 신변안전상 부득이하여 잠시잠간 몸을 피하신거다. 따지고들면 그것도 너희들때문이야. 내가 서신에도 썼듯이 상감께서 환궁을 못하시고 좁은 남의 나라 공사관에서 불편하신 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것이 다 너희들 의병들때문이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시오. 편지에 쓴 나라에서 실권을 쥔자들이란 누구들인가. 왜놈들이지? 그 왜놈들이 두렵고 무서워 환궁을 못한단 말인가?》

《그게 바로 네놈들때문이란 말이다. 너희들이 중간에서 퉁탕거리며 소란을 피우기때문에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그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것이 무엇이 있소. 만백성의 힘을 믿지 않고 무시하면서 〈외교적〉으로 해서 이 나라에 몰아온것이 무엇이 있나 말이요. 저 임오년의 군란이나 갑신년의 정변때 청국군, 왜군을 끌어들이고 갑오년에 또 청군과 왜군을 끌어들여 이 나라를 청일군의 싸움마당으로 만들어놓고 후에는 왕궁을 습격당하고 국모를 죽이다못해 이제는 임금까지도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야 하는 비극을 초래한것밖에 더 있는가?》

《으흠? 이놈 보아라. 어따대고 큰소리야?》

장기렴이 듣다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좌우에 대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따라왔던 군사들이 일제히 총칼을 비껴들고 린석에게 달려들 태세를 취하였다. 그러자 이쪽에서도 의병들이 왁 쓸어나갈듯 공격자세를 취하였다.

극도의 긴장한 순간이 지나자 장기렴이 먼저 숙어들었다.

《너는 벌써 나라의 대신에게 창칼을 비껴든 죄로 법에 걸려들었다. 내 말을 고분히 따를테냐 말테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았다. 격문에도 여러차례 썼듯이 나라의 대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과 같은 아첨군, 협잡군들이 옥좌의 주위를 맴돌며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입을 막다못해 이제는 손발까지 옴짝 못하게 묶어놓았다. 이제 그 책임을 무엇으로 어떻게 질터이냐?》

《무엇이라구? 이놈이…》

《방법은 내가 대줄테다. 이제라도 빨리 돌아가 임금을 의병의 편으로 돌려세우는것이다. 임금께서 의병의 힘을 믿고 의병을 발동하여 왜놈들과 싸우게 한다면 반드시 그 빛을 보게 될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이 촌선비놈이 무엇을 안다구. 상감께선 바로 너희놈들때문에 주야로 근심하시는데 의병을 일으키라구 방법을 대줘?…》

어이가 없다는듯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내여 웃고는 다시 린석을 향해 정색해서 말했다.

《너 이놈, 내가 명백히 말한다. 이제부터 당장 의병을 그만두라. 너뿐아니라 너의 휘하에 있는 각지 의병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후과가 따를것이니 내 말을 지극히 명심하여 들으라.》

그러나 이번에도 린석은 조금도 지지 않고 그를 앞질렀다.

《지금 나라의 운명은 당신들 대신들에게 달려있다. 곧 의병들의 힘을 믿고 임금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임금의 곁에 붙어 그의 비위만 맞추며 돌아간다면 나라는 기필코 망할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장기렴이 듣다말고 터무니가 없다는 식으로 손만 홰홰 내저었다. 그에 대하여 린석이 《만약 왜놈과 싸우려 하지는 않고 돌아다니며 의병투쟁을 그만둘것이나 설유한다면 내 기어코 의병을 보내여 당신은 물론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부터 죽이겠소.》라고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에 올라 고개를 내려왔다.

3

리씨가 약탕관을 준비하고있는 앞에 미영이 마주앉았다.

《큰어머니, 남자들은 다 그런가요. 왜 그리 뚝해요. 꼭 성난 사람처럼…》

리씨는 일을 하다말고 미영을 마주보았다.

《내니 아니. 나두 한평생 한 남자밖에 섬겨보지 못했으니 알수가 있어야지.》

《아니, 다 그런것 같지는 않아요. 큰아버지만 해도 그 사람하고는 같지 않지 않아요.》

《그 사람이란 누구? 선봉장 말이냐?》

《선봉장인지 망두석인지 그 뚝쟁이 있지 않아요. 음, 어쩌면 그리두 속이 빼빼 말랐을가.》

《왜, 널 보구 좋아하지 않던?》

《좋아는커녕 한번 웃기라도 했으면. 노상있지요 이렇게 하고 눈만 희뜩희뜩 좌우를 둘러보며 다니거던요. 원, 어디서…》

미영이 고개를 숙이고 좌우로 큰 눈을 굴리며 살피는 모양을 흉내내며 소리내여 웃었다. 그 모양이 하도 신통하여 리씨도 따라웃었다.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사내들은 제가 마음에 있어하는 녀자앞에서는 우정 말도 안하고 희뜩이며 잘난척 한다더라.》

《잘난척이요? 아이구, 제가 뭐가 잘난게 있다구. 꼴두 보기 싫은데.》

《네가 그 총각한테 아예 반했구나. 하긴 그런 남자면 반할만도 하지. 나같애두 한창나이라면 꼬리를 붙들고 따라다니겠다.》

《큰어머니적에도 그랬나요? 녀자가 먼저 남자를 따라다녀도 돼요?》

《에구, 무슨 소릴. 우리적에야 머릴 들구 남자얼굴을 쳐다나 봤니? 문밖에 한발자국을 나가재두 장옷을 쓰구 땅이나 겨우 보이게 눈을 내놓고 살얼음장 건느듯 조심조심 걸어야 했다.》

《하긴 지금도 그래요. 녀자들이 말이나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더구나 량반집 딸년들은… 난 왜 량반집 규수로 태여났는지 몰라요.》

《왜 량반집 딸이 어쨌니?》

《량반집에서는 그것이 더하거던요. 우리 집만 보아도 아버진 저를 옴짝 못하게 하잖아요.》

《미영아, 너 선봉장이 마음에 있어 그러지?》

문득 리씨가 물었다. 제 생각에만 옴했던 미영은 대답대신 큰 눈만

껌벅이였다.
《나두 그걸 안다. 큰아버지두 알고있구. 하면서도 그걸 풀지 못해 근심이구나. 우리끼리 말을 하고 네 아버지에게 의논을 건네보아두 어디 뜻대로 되냐?》
그때에도 미영은 대답을 안했다. 역시 알고있고 그 이상도 짐작하고있는 미영이였던것이다.
하다가 문득 리씨에게 물었다.
《큰어머니, 한집안의 일이 되고 안되는것이 누구에게 달렸나요. 남자인가요, 녀자인가요?》
《그건 왜? 거야 사람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른데 한마디로 말할수 있겠니.》
《그래두 때에 따라 녀자들에게 달렸다 해도 틀리진 않지요?》
《녀자? 글쎄 모르겠다. 난 평생 한 남자의 뒤바라지나 해주다 말았으니…》
《그게 녀자들의 의무이고 직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큰아버님이 유생의 거두가 되고 의병장이 된것이죠. 말하자면 큰어머님의 공로로 큰아버지도 큰 인물이 된거예요.》
《그럴가? 글쎄 그렇게 보면 그런것 같기도 하구.》
《큰어머닌 자신을 장히 여기세요. 이제 큰아버지가 더 큰 인물이 되면 큰어머님을 막 업고다닐거예요.》
미영이 이렇게 말해서 방안에는 활짝 웃음이 피여났다. 평생 남편에게 짓눌리워 살면서 그저 못난이라고만 생각했던 자기가 갑자기 큰사람이나 된듯 눈물이 찔끔 솟아올라왔다.
《큰어머니, 저의 이 말은 절대 뜬소리가 아니예요. 옛날 고구려때 있은 평강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요. 그 공주는 왕의 딸이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집을 뛰쳐나가 거지총각한테 시집을 갔어요. 지금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가 거지요 바보요 하던 남편 온달을 유명한 장수로 만들었거던요.
큰어머니, 나도 평강공주와 같은 녀자가 될수 없을가요?》
미영의 이야기를 그저 재미나게 듣고만 있던 리씨가 그만 몸을 흠칫 떨었다. 그가 바로 자기에게 그렇게 들이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

던것이다.
《글쎄 너라고 왜 그만 한 녀자가 못되겠니. 그래서 남자마다 다 장수가 되고 영웅이 되면 좋은게지, 나라두 흥하구. …》
《고마워요, 큰어머니.》
미영이 리씨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말하였다.
《큰어머닌 언제나 내 편이지요?》
《녀자가 녀자편이지 달리 되겠니. 하지만 언제든 아버질 잊어선 안된다. 너에겐 아버지이상 가까운 피줄이 없다.》
《알아요. 피줄은 제가 마음에 드는대로 골라잡을수 없다는것도, 그리고 아버지가 불쌍도 해요. 제가 없으면 아버지가 무엇이 되겠나요.》
그들은 더 힘껏 그러안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앞에 무엇이 펼쳐질것인지를 상상해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는 알수 없어도 가슴울렁이는 기쁨과 환희에 찬것이기를 바라며.

3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아직도 높은 산기슭과 골짜기들에는 흰눈이 듬성듬성한데 양지쪽 해바른데는 벌써 봄풀이 새파랗다. 길거리는 눈석이물로 어디 가나 질척거렸다.
바로 그런 날 김백산은 읍거리로 나섰다. 해야 할 많은 일감들이 그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요즘 의병들속에서는 류린석대장이 장기렵인가 하는 선유사를 만났던 이야기로 떠들썩해졌다. 그가 기렵이란 사람에게 호령하며 의병들의 위세를 돋구었다는 자체가 그들의 의기를 한껏 북돋아준것이였다. 이것은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졌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반드시 닥치게 될 싸움준비를 서둘러야 하는것이다. 하여 백산이 오금에서 비파소리가 나도록 뛰여다니지만 언제나 모자라는것이 식량과 무기이다. 그것만 있다면 언제까지도 싸울수 있다.
생각을 하며 걷는데 누군가 앞을 막아섰다. 좁은 외통길에 마른 땅을 짚고선 하얀 갖신이다. 그우로 역시 하얀 버선과 초록치마, 빨간 저고리고름…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는 자기를 향해 똑바로 마주선 미영을 보았

다. 그가 길을 비켜줄 생각은 않고 두발을 딱 붙이고 서있는것이다.
《어쩌면 그리도 못 본체 하세요?》
《아니, 난 정말 못 보았소.》
백산이 엉겁결에 대답했다. 미영에게는 그것이 성난 사람의 대답처럼 들렸다.
《무슨 근심이 그리도 많아요. 제가 알아맞혀보라요?》
《근심? 무슨 근심 말이요?》
《난 다 알아요. 선봉장님이야 늘 싸움근심에 살잖아요. 싸우자니 화약이 있어야 하고 화약을 만들자니 염초를 만들 감사리가 있어야 하고…》
《신통하구만. 그걸 어떻게 다 알고있소?》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치는지 알지요. 그걸 알면 제가 어떻게 알아맞혔는지도 알수 있어요.》
《미영이 점쟁이라면 그것도 어디 있는지 알아맞혀야지?》
《알고있어요. 대드릴가요?》
《정말이요? 그럼 내 미영을 업고 춤을 추지.》
《좋아요. 몇백년 묵은 절간, 수십년동안 비여있는거면 되지요?》
《정말이요. 그런게 어디 있소?》
《있어요. 가는 길도 알아요.》
《그럼 가야지, 이제 당장!》
의외에도 미영은 고개를 홱 돌리며 돌아섰다. 그렇게 쉽게 내놓을것이 아니라는것이다.
《하지만 전 지금 바빠요.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이 봐요. 혹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좀 오래전 일이 돼서 그래요.》
《저녁에는 갈수 있소? 내가 꼭 같이 가겠소.》
《정말이예요? 하지만 길이 멀다거나 험하다거나 무섭다거나 하면 안되여요.》
《그건 절대 념려마오. 길잡이만 바로 하면 말이요.》
저녁무렵이다. 일찍부터 동산에 달이 솟아올랐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읍거리를 빠져나왔다. 미영은 늘 입고다니던 덧저고리에 남바위를 쓰고 손에는 자그마한 보자기를 들었

다. 백산은 미영의 당부로 그 멋들어진 곰털저고리를 입었다.
《얼마나 머오?》
읍거리를 벗어났을 때 백산이 물었다. 미영은 그보다 한발 앞서며 요리조리 어둠속을 잘도 빠졌다.
《따라오라요. 뭐나 먼저 알면 재미없어요.》
산속으로 접어들자 나무들이 우중충 우거지고 우죽뿌죽한 바위들이 사방에서 다가들었다.
달빛은 어느새 없어지고 사방에 어둠만 가득찼다.
얼마 못 가서는 큰길도 사라지고 검은 실오리마냥 가는 길이 끊임없이 골짜기로 이어졌다. 그 좁은 길과 군데군데 보이는 흰눈을 헤치며 미영은 끊임없이 앞으로 갔다. 자그마한 몸을 곧추 세우고 타발타발 걷는 모습이 온갖 신기한 재주를 다 부린다는 옛말속의 요정같았다. 자기는 그 요정에 이끌리여 환상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아이처럼 생각되였다.
《미영이, 이 길이 맞긴 맞소? 어떻게 이런데를 다 오게 되였소?》
마침내 백산이 물었다. 미영은 상긋이 웃으며 맑은 목소리로 자초지종 설명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해전에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의원이 날 보고 무슨무슨 약초를 구해오라고 하더군요. 그게 몇가지나 되였는데 당장 급하기는 해서 종과 함께 떠났댔어요. 그런데 그만 산속에서 서로 헤여져 길까지 잃고말았댔어요. 산은 깊고 나무가 무성해서 어디가 어딘지 한발자국도 앞을 내다볼수 없더군요. 무작정 산꼭대기로 올라가니 절간이 보이질 않겠어요. 가까스로 찾아가보니 빈 절간인데 벌써 날이 어두웠어요. 할수없이 그곳에서 밤을 새우게 됐지요. 밤이 깊자 사방에서 짐승들이 울부짖고 바람은 불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평생 잊을수 없어요. …》
미영은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기라도 한듯 오싹 몸을 떨며 나무에 몸을 기대기까지 하였다.
《듣고보니 미영이는 아버지에 대한 정이 지극했었구만. 효성된 마음이 없고서야 그밤을 어떻게 견디여냈겠어.》
《그럼 지금은 정이 떠졌다는건가요?》

백산이 무심결에 한 말을 자자구구 새겨본듯 미영이 두눈이 올롱해서 묻는다.

《아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요. 보건대 요새 아버지와 사이가 그닥 좋은것 같지 않아서… 지레짐작 했다면 용서하오.》

백산은 대범하게 말하느라 했지만 처녀의 가슴속에는 그것이 엉킨 실오리처럼 말려들었다. 버들잎처럼 휘여든 눈섭밑에서 키돋움을 하듯 간단없이 오르내리던 눈이 살풋이 내려감겼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그는 말하지 않았다. 오직 생기를 잃고 시든듯 감겨진 눈과 잠든 아이의 숨결처럼 가늘게 들리는 호흡소리를 통하여 그가 지금 분개하고있다는것을 륙감으로 느꼈다. 그것은 자신과 미영사이에 놓인 아버지라는 장벽과 아울러 그로부터 더더욱 굳어지는 신분적차이에 대한 원망이였으며 아울러 이것도저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앞에서조차 분별없이 말을 내뱉는 백산에 대한 분노였다. 과연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불효하였던가요, 설사 그렇다 하며는 그것이 선봉장때문이라는것을 리해 못해요 하고 그는 묻는것이였다. 그것을 느끼자 백산은 미영이에게 죄를 지었다는 무거운 자책을 느꼈다.

그러는 사이에 처녀는 눈을 뜨고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고있었다.

《선봉장님, 다시는 그런 말씀을 말아주세요. 누구도 저와 아버지사이는 갈라놓지 못해요.》

목소리가 예상외로 부드럽고 잔잔했다. 그러나 백산에게는 처녀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굽이치는 피의 흐름과 격한 숨소리가 느껴졌다. 《누구도》라는 그 말속에는 자기도 있다는것을 분명히 알아차렸던것이다. 아니, 꼭 자기를 겨냥해서 한 말일수도 있다. 미영이 자기를 버리면 버렸지 아버지와 갈라질수야 있는가.

그것은 백번 옳다. 자기가 무엇이기에 또 무슨 렴치로 부녀의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인가.

물론 사나이들이 녀자의 미모에 반하거나 언행에 끌리여 정을 품을수 있다. 또 녀자가 사나이들에게 반하여 한짝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녀자는 량반집 딸이고 자기는 상놈이다. 여기에는 엄연한 계선이 있고 등차가 있다.

자기가 아무리 뛰고뛰여도 그 계선을 지워버릴수 있고 그 차이를 뛰

여념을수 있겠는가. …

다음부터 그들은 내내 말없이 걸었다. 산은 점점 높아지고 길도 험해졌다. 그래도 걸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령마루에 올라서서 걸음을 멈추었다. 길을 잃은것이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새까만 어둠뿐인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성한 수림이 앞을 막아섰다.

《함께 찾아보자요.》

미영이 말하며 문득 손을 내밀었다. 어둠속에서 그의 하얀 손이 야광주처럼 빛을 뿌렸다. 백산은 방금전의 생각도 있은지라 주저하며 두 손을 마주 비비다가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다음부터는 급한 경사받이인데 눈까지 쌓였다.

한순간 잘못하다가는 어느 골짜기 어느 미궁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지 알수 없다. 서로서로 손을 꼭 잡고 몸도 마음도 의지하며 함께 걸었다. 이제는 달빛도 산너머로 사라져 그들의 행동을 자연히 눈감아주고있다. 더더욱 쌓인 눈과 급한 경사가 그들에게 손을 더 바싹 잡도록 보채인다.

그럴수록 백산의 가슴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절대로 가까이하지 말라고 보채는듯싶었다. 그러던 어느 한순간 그는 앞서가던 미영이 갑자기 자기 손을 나꿔채는 감각을 느꼈다. 그와 함께 그가 웨치는 《앗.》 하는 비명을 들으며 옆의 나무가지를 붙잡았다. 그때에야 백산은 미영이 자기의 손에 매달려 깊이를 알수 없는 허공중에 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한 녀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이를테면 녀자를 대하는 한 남자의 기개, 흔히 말하는 용감성이니 량심이니 의리니 도덕이니 하는 모든것을 한순간에 재고 평가할수 있는 계기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기회조차 백산에게는 차례지지 않았다. 그가 힘을 주어 미영을 끄당기는 순간 손에 잡았던 나무가지가 뚝 부러지며 그마저 어쩔새없이 아래로 굴러떨어졌던것이다. 순간에 눈앞이 아뜩해지고 하늘땅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무가지들이 우직우직 부러지고 눈가루가 사방으로 휘뿌려졌으나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얼마를 굴었는지 한참만에 눈을 떴을 때 그가 처음 느낀것은 자기

가 깊은 눈무지에 묻혀있다는 싸늘한 감각이였다. 아울러 자기 곁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있다는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왜 눈속에 묻혀있는지는 도무지 알수 없었다.

또 무엇인지 움직이였다. 그것은 분명 자기를 찾는 소리였다. (이게 누구인가. 왜 자꾸 나를 찾는것일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 말소리까지 들리였다.

《살았어요? 어디 상한데는 없어요?…》

백산은 정신을 차렸다. 목소리는 바로 턱밑에서 나고있었다. 한순간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이 자기 볼에 와닿았다.

《선봉장님! 왜 말이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였다. 그가 바로 턱밑에서 더운 김을 풍기며 찾고있었다.

그때에야 그는 자기가 미영을 꼭 그러안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 위급했던 순간에 자기가 다름아닌 그를 품에 안고 벼랑을 굴었던것이다.

그것은 분명 사랑이였다. 뜨거운 정이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를 그러안고 저 벼랑을 딩굴면서도 놓치지 않을수 있단 말인가.

문득 충주성을 점령할 때 관찰사놈을 그러안고 말에서 떨어졌던 일이 떠올랐다. 하필이면 하많은 옛일중에 그것도 다름아닌 이런 시각에 역적의 몰골이 상기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때도 지금처럼 붙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증오였다. 왜놈과 한짝이 되여 자기 사람을 죽인데 대한 복수였다.

사랑과 증오,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수 있을가.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서로 다른 현상이 아닌가.…

하다가 그는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량반집 규수를 사랑하다니. 아니,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그를 사랑할수 없다한것을 사랑에 비기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일어나려고 하였다. 팔다리가 뜨끔하고 어디선가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어쨌든 몸은 움직여졌다.

《살았군요. 무사했어요?》

행복에 겨운 미영의 목소리였다. 백산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영은… 몸이 일없소?》

《무사해요. 아무 일도… 선봉장님이 지켜줬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방울방울 어리였다. 하면서 그 위급했던 순간에 자기를 어떻게 그러잡고 품에 안았던가를 이야기하였다. 자기도 몰랐던 그 모든것을 어떻게 알고 기억했는지 알수가 없다.

《녀자는 아무리 급해도 정신을 잃는 법이 없고 리해타산을 할 정신적여유를 가진댔어요. 앞으로 어느 때든 이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어요.》 하고는 아까처럼 또 행복의 웃음을 지었다.

백산은 눈을 감았다. 무한한 행복감이 그로 하여금 몸을 옴짝할수 없게 묶어놓았다. 이제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밀려드는 행복의 파도가 그를 그냥 눈속에서 헤여날수 없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마음의 동요가 소용돌이를 하고있었다.

(아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나는 꿈을 꾸고있다. 절대로 그래선 안된다. …)

생각을 하고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다시 뼈마디가 우직거리고 팔다리가 쑤셨지만 일어나야만 했다.

《아직 얼마를 더 가야 하오?》

《다 왔어요. 산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미영이 다가와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러나 백산은 그를 조심스럽게 밀면서 앞장서 걸었다.

그곳은 제천에서 20여리 상거한 백운산밑의 절간이였다. 불교가 한창 성하던 고려때 지은 절인데 세월이 많이 흐르며 건물이 낡아지고 중들마저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떠나가버린 후 버림받은채로 오래동안 비여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절은 몇채가 무너지고 몇채는 그냥 남아있었는데 차디찬 어둠속에서 절이 통채로 윙윙 소리내며 우는듯 했다.

문짝이 떨어져나간 첫 대문칸에는 염라대왕을 노엽힌데 격노한 굴왕신같은 괴물들이 입을 한껏 벌리고 치째진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있는듯 했다. 달빛에 어렴풋이 비친 그 모습에 놀란 미영이 백산의 팔에 매달리자 이번에는 대웅전앞의 높은 석탑에

서 풍경들이 바람에 날리며 왈랑절랑 진저리를 쳤다. 그러자 미영은 아예 백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꼭 매달리다싶이 하였다.

백산은 그러는 미영을 달래이며 대웅전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갖신을 신은 발에도 알릴만큼 바닥이 부드럽고 폭신한감이 느껴졌다. 한발자국한발자국 들어갈수록 부드러운 촉감이 기분좋게 계속되였다. 순간 백산은 미영을 뿌리치고 두손으로 방바닥을 더듬었다.

틀림이 없었다. 더듬을수록 손바닥이 잠기도록 먼지가 두텁게 깔리였다.

이것이다, 이것. … 이것이 여기에 있었구나, 화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염초가. …

비록 하찮은것 같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것으로 화약을 만들어 일찍부터 외적과 싸워이기지 않았는가. 이제 또 우리가 이것으로 불꽃을 튕기며 왜적을 쳐없애리라.

생각을 하고난 백산은 불시에 뿌리쳤던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씨, 고맙소. 이 모든게 다 미영의 덕이요.》

그리고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무슨 사, 무슨 전 하는 건물들을 돌아보았다. 무너진 건물에도 그것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것 같았다.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고난 백산은 밖으로 나왔다. 당장 돌아가서 사람들을 동원하자고 해서였다. 절에서 먼저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미영이 나무에 몸을 기댄채 꼼짝않고 서있었다.

《저는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제야 백산은 달빛에 비치인 그의 해쓱한 얼굴을 보았다. 불시에 그를 쉬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빈방 하나가 나졌다. 중들이 살던 승방이다. 그곳에 문짝이 제대로 붙어있고 종이는 바르지 않았으나 대신 창살사이로 달빛이 흘러들어 방도 어둡지 않았다.

《그렇게 막 밟으면 어떻게 해요.》

백산이 방을 돌아보는데 미영이 날래게 달려나가 솔가지를 한줌 꺾어들고 들어왔다. 그것으로 방바닥의 먼지를 한구석으로 모으고 아래목쪽에는 보자기를 펴놓았다.

《춥지 않아요? 한모금 하세요.》

뜻밖에도 그가 품에서 병마구리 하나를 꺼내놓았다. 또 무엇인가 구수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안주감도 나왔다.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 리해해주세요.》

그가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백산은 또다시 꿈속에 잠겨든듯 했다. 아까 그 꿈의 련속이였다. 그럴수 없다고 했던 모든것을 부정하며 새로이 긍정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녀자인가. 녀자이면 다 이런가. 마음이 어쩌면 이렇듯 아름답고 살뜰할가. 여기에 어떻게 화답을 해야 하는가.

사람은 정에 산다. 정을 바치고 정에 끌리는것이 사람이다. 고이는 정, 넘치는 정을 쏟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으랴.

그는 손을 잡았다. 무릎을 감싸쥐고 하염없이 바라보는 처녀의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그 손등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불덩이라도 닿은듯 처녀는 흠칫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달빛이 흐르는 창가로 다가갔다. 두손을 가슴에 모아잡고 달빛을 우러르는 그의 눈가에 방울방울 눈물이 고여나오며 파르르 떨었다. 둥그런 하얀 달이 나무가지에 걸리여 쪼각난채 갈래갈래 흩어졌다.

이것은 무엇인가. 미영이 왜 우는것일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문득 자기 손에 눈을 주었다. 그 투박하고 거칠게 갈라진 손, 이것으로 그를 가까이한때문일가. 저 신선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손을…

하는데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열여덟 아름다운 처녀가
그리운 님과 마주서서
수집어서 말 못한채 작별하고
집으로 달려와선
대문중문 다 잠그고
배꽃에 비친 달을 우러러 눈물짓네

백산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시를 듣고도 순결하고 결백한 처녀의

마음에 대한 동경일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영이 먼저 말을 떼였다.

《옛 사람이 지은 시예요. 한다하는 량반이였는데 그가 량반들의 걸치레나 범절의 구속을 몹시 싫어했대요. 아마 그래서 이런 시도 지었던거지요?》

백산은 그것도 알지 못했다. 미영이 왜 지금 구태여 그 말을 하는지 대답을 찾지 못해 주밋거리는데 눈에는 금방이라도 시울을 넘어 천길나락으로 떨어질듯 눈물이 그득히 고여나오고있었다.

《미영씨, 언제도 말했지만 난 시를 모르오. 때로는 모르는것이 아는것보다 더 유리할 때가 있다더구만.》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후 갑자기 몸을 옹송그리고 벽쪽으로 몸을 기대여앉으며 말했다.

《추워요. 난 추워… 아, 몸이 떨려요.》

《춥다구? 진작 말할게지. 자, 이걸 덮소.》

백산이 곰털저고리를 벗어 그의 등에 씌워주었다. 미영이 매양 부럽게 바라보던 바로 그 덧옷이였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와닿자 미영은 와뜰 놀라듯 몸을 피하는것이였다.

《안예요. 그래선 안돼요. 절대… 어서 입으라요.》

백산은 털옷을 든채 멍청히 섰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가 왜 그러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러고 섰는가.

그러나 그것은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그의 몸을 돌처럼 굳어지게 했다.

(선봉장님, …누구도 저와 아버지사이는 갈라놓지 못해요. …)

좀전에 미영이가 했던 말이였다.

바로 그것이였다. 이제 그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원히 헤여날수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고말것이라는것이였다. 그것이 오싹 진저리가 나도록 몸을 싸늘하게 식혀주었다.

순간 그는 만사를 잊고 밖으로 튀여나왔다. 싸늘한 달빛이 그를 마중하였다. 그러자 구름처럼 높이 떴던 몸이 그제야 땅에 내려앉았다. 발에 걸채이는 무엇도 감각하였다.

길다란 나무가지였다. 어느 사냥군 아니면 약초채취군이 불을 지폈던 나무인듯 승방의 아궁까지 길게 드리워있었다. 그것이 다시한번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미영이 춥다고 했지. 불을 때주자. 그것만이 지금 그를 도와줄수 있는 길이다.

둘러보니 어디나 나무는 많았다. 누가 여기에 살림이라도 폈던듯 더미로 쌓아놓기도 했다.

그것을 아궁이에 처넣고 부시깃을 쳤다. 잠시후에는 아궁이 미여지게 불이 쏟아져나왔다. 그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보니 미영은 이미 잠들어있었다.

아래목은 벌써 손이 뜨거울 정도로 달아있었다.

백산은 미영에게 자기 털옷을 덮어주고는 아궁이앞에 쭈그리고앉아 잠이 들었다.

아침에 깨여보니 어느새 그 곰털옷은 자기에게 씌워져있었다.

4

《대장님이 가시려고 합니까. 안됩니다. 차라리 선봉장을 보내십시오. 대장님이 여기를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습니다.》

안승우가 말했다. 린석은 입을 지그시 다물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것은 승우가 만사를 제껴놓고 단둘이 마련한 자리다. 할말은 해야 하겠기에 기어코 마주앉았다.

《아니, 거기는 내가 가야 해. 내가 가야만 될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대장님은 선봉장을 누구보다 믿지 않습니까. 대장님이 하는 일이면 그도 다 할수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승우가 고집스레 되풀이했다.

린석은 속이 탔다. 당장 출발을 앞두고 이런 일이 제기될줄은 몰랐다. 그것은 생억지와도 같은것이였다.

지금 린석은 전라도와 경상도일대를 다녀오려 하고있다. 그곳에서 예상치 않던 일이 벌어졌던것이다.

먼저 리린영이 소식을 보내왔다. 그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소백산 깊은 골짜기로 밀려난 그들에 대고 선유사가 사람을 보내여 당장 의병을 해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리강년한테서는 자기가 병고로 오래동안 절에 들어가있는 동안 의병들이 봄철농사요, 집안사정이요 하면서 흩어져갈 생각을 하고있다고 했다. 안동에 나가있는 리범직과 리직신이들도 그와 비슷한 사정을 말하며 의병들을 해산할 의향을 보내왔다.

그것이 린석을 격분케 했다. 우리가 의병을 일으킨지가 언제인데 그때 피물인듯 뜨거운 술을 마시며 끝까지 싸우기로 맹세한 남아들이 그만한 일에 맥없이 손을 털고 물러난단 말인가.

그리하여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당장 행장을 갖추고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을 신칙하고있는데 승우가 문득 들고나온것이다.

《선봉장은 왜 걸고드나. 그가 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대장님의 행차에 그가 필요할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미영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들을 따로 갈라놓았으면 합니다.》

린석은 어이없이 승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백산과 미영이 함께 절간에 갔다온데 대한 불만이였다. 사람들속에서 두 젊은 남녀가 인적없는 산중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는데 대한 소문이 돌고있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둘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고 승우도 인정하는바였다. 반면에 그들의 수고로 다량의 화약원료가 생겨난데 대한 환성이 터졌다. 그들의 그만 한 대담성이 있었기에 큰일을 치게 되였다는 칭송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지금 승우는 그것을 걸고 린석의 발목을 붙잡는것이다.

《중군장, 그렇게 해서 왜놈을 더 많이 잡게 되였으면 좋지 뭐가 잘못된게 있나. 속통을 좀 크게 가지라구.》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또 떡은 떼고 말은 보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애의 뒤에 흉흉한 소문이 따라다니는것을 참을수 없습니다.》

《승우, 정 이럴터인가?》

갑자기 린석이 그의 이름을 자로 부르며 주먹으로 서안을 탕 내리쳤다.

《우리의 주되는 적은 왜놈이야. 왜놈과 싸우자고 일어난 이상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가 되여야지 저마다 제 리나는 일만 찾아할터인가. 내가 보건대 그들에게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것이 분명하니 다시는 간참을 말고 걱정도 말며 가만히 내버려두게.》

소리를 지르고 쏘아보는 눈이 쇠꼬치처럼 날카로웠다. 그 위압에 눌리워 승우가 눈만 꺼벅이고있는 사이에 린석은 밖으로 나왔다. 벌써 떠날 차비를 끝낸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그가 문을 나서니 바로 가까이에 미영이 서있었다. 금방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고있는듯 반짝이는 눈으로 고마움의 뜻을 표시했다. 그것이 격했던 그의 심정을 누그러들게 했다.

《미영아, 난 너의 립장을 지지한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큰 마음이 필요한것이다. 네 생각대로 하여라.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너무 버릇없이 굴어선 안된다.》

《큰아버지, 빨리 오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 몸이 성하셔야 합니다. 큰어머님이 걱정하셔요.》

린석은 그렇게 하고 미영과 헤여졌다. 그뿐만아니라 전부대 사람들이 떨쳐나와 그들을 바래주었다. 그 많은 사람들속에서 어째서인지 미영의 모습만은 유표하게 눈에 띄우며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린석이 스스로 택한 고행길이라고 할수 있었다. 선봉대에서 백명 기타 다른 부대들에서 선발된 도합 이백여명의 큰 부대가 백주에 대도로를 따라 고을과 고을, 도와 도의 지경을 넘어서며 도도히 행군해가는것이였다. 제천을 떠나 단양, 영주를 지나고 문경지경에 이를 때까지 별로 큰 접전이나 예상치 않던 긴박한 정황들이 조성되지는 않았다. 그들과 마주친 웬만한 고을의 군노 사령들은 물론 사또들까지 일체 접전을 피하고 물러갔다. 그러나 어쩌다 마주친 왜놈의

소부대나 관군부대와는 접전을 피할수 없었다. 그러다나니 어쩔수 없이 전사자들과 부상자들이 나타나군 했는데 그것이 문제였다.

보다 더 어려운것은 불리한 일기조건이였다. 한창 시작된 눈석이로 하여 사방 어디나 물이 차고넘치는데다 날씨는 련일 찌뿌둥해있었다. 갈길은 수백리 먼데 땅은 끝없이 질적거리고 습한 안개가 산과 골짜기를 끊임없이 에돌고있었다. 그것이 가뜩이나 건강이 좋지 못한 린석을 극도로 쇠약하게 했다.

부대의 군사적책임은 백산이 선발해준 오쨰가 맡았다. 그가 린석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말을 갈아대고 사람들도 붙여주었으나 크게 효과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태백산줄기의 험한 산속길에 말을 얼마 탈수도 없는데다 사람들이 부축을 해준다 해도 워낙 진창길이여서 아래도리는 노상 젖어있어야 했다. 그것이 가뜩이나 각기병으로 신고하는 린석의 팔다리를 더욱 못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간난신고를 하여 리린영을 찾아냈을 때 그는 소문처럼 문경고개를 내놓고 소백산속의 어느 한 골짜기에 숨어서 린석에게서 소식이 오기만 기다리고있었다.

그것이 린석을 참을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것이 왜적과 싸우자고 맹세를 다졌던 우리의 자세였던가. 사나이 한번 맹세를 다졌으면 죽기로 싸워야지 이게 무슨 꼴인가.

불호령을 내리고는 다음날로 전부대를 이끌고나가 문경고을을 들이치고 리화령을 다시 차지했다. 거기에 얼마간의 병력을 떼주고 이번에는 례천에 있다는 리강년을 찾아갔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도 리강년이란 사람은 알아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의병을 일으켜 례천고을을 차지해본적이 없다는것이였다.

가까스로 어느 절간에서 병중인 그를 찾아냈다. 그사이 몸은 많이 호전되였다고 한다. 놀라운것은 그의 유격부대라고 하는것이 겨우 몇십명밖에 안되는 기마대가 전부인것이였다. 알고보니 그의 유격싸움이라는것이 도처로 말을 타고다니며 적의 기지를 들이치고는 번개같이 사라지는것이 전부였다. 이를테면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싸움으로 그 영향을 넓혀나갈데 대한 애초의 의논대로 하지 않고있는것이였다.

거기에 또 화가 치민 린석은 다시 전부대를 이끌고 전투를 조직하여 례천고을을 차지했다. 거기에 또 얼마간의 사람들을 떼여주고 이번에는 리범직이 차지하고있던 안동고을로 향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안동고을이 눈에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분명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것이다.

고을이 모조리 불에 탔다. 읍거리에 즐비하던 동헌이나 객사, 다락과 정자들, 창고들은 말할것 없고 수백호 민가가 모조리 불에 타서 재더미가 되고만것이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였다. 린석이 알기에는 범직이 도착하는 길로 곧 안동읍을 차지하고 싸움은 물론 정사도 괜찮게 펴고있다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찾아보았으나 리범직도 간 곳이 없었고 그의 의병부대도 행적이 없었다.

원인은 얼마후 주변사람들을 만나보아서야 알수 있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리범직이 싸움을 잘한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런데 얼마전에 선유사라는 사람이 내려와 왕의 어지라고 하면서 의병투쟁을 그만둘것을 설유하였다. 그때에 안동에는 범직과 함께 리직신이도 와있었고 다른 주변에서도 모여와있어 의병수만 해도 4만이 넘었다. 그런데 범직이 왕의 어지라는 말 한마디에 넘어가 투쟁을 포기하고 의병들을 전부 해산해버리고말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혹심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줄이야. 의병들이 흩어지자마자 쫓겨났던 수많은 왜놈 순검들과 병졸들이 다시 들어와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잡아가고 온 읍거리를 초토화해버렸다. 놈들의 보복에 걸리여 순간에 고을을 날려버리고 사람들까지 잃어버렸던것이다. 그통에 리범직이와 리직신이도 놈들에게 붙잡힌 몸이 되고말았다.

아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범직이, 직신이, 너희들이 놈들의 본심을 몰라서 읍을 내놓고 의병들까지 해산한단 말이냐. 죽더라도 왜놈들과 끝까지 싸우자고 맹세를 다진 우리가 아니였더냐. 아, 내가 조금만 더 일찌기 왔더라도 이런 참극이 빚어지지 않았을것을…

복수의 피가 끓었다.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다 풀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때에 이르러 그 원한마저도 풀길이 없게 되였다. 제천에서 리필희에게서 소식이 왔던것이다.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빨리 돌아오라는것이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것이 또한 린석을 불안하게 하였다. 게다가 몸은 더 병약해져서 이제는 혼자 운신할수도 없게 되였다. 다음부터 모든 일은 오째에게 맡긴채 제천을 향하여 귀환길에 오르게 되였다.

5

리씨는 진하게 달인 십전대보고를 약단지에 담았다. 방에는 그가 매일처럼 끓이고 졸인 약냄새로 차고넘쳤다.

《이 령감이 왜 안 돌아오누, 약이 떨어진지 오랠텐데…》

부엌에서 미영이 불을 때다가 리씨를 보며 방긋 웃었다.

《큰어머닌 꽤나 걱정두 많네. 오실 때가 되면 오시지 않으리요?》

《오실 때가 뭐니? 열흘이면 오마했는데 벌써 스무날이 다 돼온다. 내가 그만큼 약을 더 가져가라고 했는데 인차 오마하며 안 가져가더니…》

《오째아저씨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깐깐하고 세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도 제가 다 말해줬어요.》

《말이야 낸들 안했겠니. 하지만 남자들이란 데퉁스러워서 곁에 꼭 녀자가 있어야만 한단다. 녀자없는 남자는 한지에 앉은 애기와 같애, 에그야…》

리씨가 한숨을 쉬며 단지를 옮겨놓았다. 그렇게 달여놓은 약이 벌써 서너단지나 되였다.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이 손을 입에 가져가며 소리없이 웃었다. 남자들이 그렇다면 녀자들은 다 저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였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의 생각은 백산에게 가있었다. 그가 충주에 간다고 갔는데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마음이 자꾸만 거

기로 쏠리고있는것이다.

《큰어머니, 약도 약이지만 기본은 무사히 돌아오는거예요. 남자들은 무엇을 해도 무서운걸 모르고 막 덤비니 그게 야단이지요.》

《됐다, 늙은이야 잘못되면 뭐라니. 너희들 젊은것들이 야단이지. 넌 선봉장이 걱정되지 않느냐?》

리씨가 말해서 생각은 아예 거기로 돌아가고말았다.

《걱정을 하면 뭘해요. 그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걸?》

《생각을 않다니. 네가 남자의 마음을 다 아니?》

《제가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나같은건 돌아다보지도 않아요.》

《됐다, 그게 진짜사내다. 어떤 녀석들처럼 녀자라면 오금을 못쓰고 달려드는 그따위들은 해서 뭘하니. 선봉장이야말로 인물 잘나고 생각깊고 아는것도 많은 진짜배기사내다. 이제 령감이 돌아오면 너희들일에 더 성수가 나서 돌봐줄게다. 이제 두고보아라.》

미영은 한숨을 내쉬였다. 백산에 대한 말이 잦을수록 마음 한쪽구석에서는 근심이 더 커가는때문이였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더 극성스레 나서 반대를 하는것이였다.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좋다고 하는것을 아버지만은 여전히 반대하고있다. 비록 백산이 지금은 평민이요, 보통의병장이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되면 린석이 나서 그를 장군, 대장군, 상장군으로 되도록 이끌어주겠다고 설복을 해도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않는데는 아버지대로의 론거가 있다. 나라는 설사 안정된다쳐도 그때에 가서 린석이 얼마만 한 일을 할수 있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한다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도 미영을 마음놓지 못하게 하며 깊은 한숨속에 잠기게 하는것이다.

미영이 바로 그런 시름에 잠겨있을 때 제천읍으로 난데없는 말달구지 세채가 들이닥쳤다. 매 달구지마다에는 쌀섬들이 그득그득 쌓여있는데 우여우여 소리치며 말을 몰아대는 주인들의 기세가 또한 볼만 하였다. 길가던 사람들은 물론 멀리 골목길에서 어물거리던 사람들까지 달려나와 웬일인가 구경삼아 모여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말들은 구경군들을 헤치며 곧바로 동헌으로 달려들었다. 말들이 멈춰서자 거기에서 김백산과 홍정식을 비롯한 선봉대원들이 내렸다.

떠드는 소리를 듣고 안승우가 달려나왔다. 뜻밖에 나타난 말과 그 우에 가득가득 실린 쌀섬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게 어디서 난것들인가. 다 우리것인가?》
《로획했습니다. 가흥에서 충주로 실어가던것들인데 매복을 했다가 호송병들까지 다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
승우가 묻는 말에 백산이 대답했다.
그것은 뜻밖의 횡재였다. 그러나 그저 횡재라고 하기보다는 더 큰 전망이 앞에 놓여있었다. …
원래부터 가흥은 의병대가 노리고있던 공격목표였다. 하다가 이번에 충주로 렴탐을 나갔던 그들은 뜻밖에도 대위 와다나베가 수비대장으로 가흥에 나갔다는것을 알고 그리로 걸음을 돌렸다. 가뜩이나 가흥에 눈독을 들이고있던지라 그냥 돌아설수가 없었던것이다. 도중에 마차행렬을 만났다. 불시에 들이쳐 호위병들까지 체포하고나니 또 한가지 놀라운 소식이 알려졌다. 이 쌀인즉 가흥창의 나라곡식인데 와다나베란 놈이 빼내여다가 충주에 팔아넘기는것이라는것이였다. 바로 그 일을 중간에서 조종하고 거간하는 놈이 바로 왜놈장사군 야마무라 놈이였다. 그놈이 마차를 대고 쌀을 인계받아서는 충주의 장사군들에게 넘겨주는것이였다.
《가흥을 쳐야겠네. 야마무라란 놈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지?》
말을 듣고나서 안승우가 흥분해서 말하였다. 야마무라인즉 승우가 용서할수 없는 적이였다.
《와다나베란 놈도 있습니다. 그놈이 수비대장인데 역시 가만히 놓아둘수 없는 놈입니다.》
백산이 역시 흥분했다. 그것이 가흥공격이라는데로 두사람을 몰아갔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류린석대장도 말한바가 있었던것을 여직 준비가 잘 안되여 실행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창의대장님이 도착하기 전에라도 우리끼리 해치우세. 그렇게 할수 있겠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상태로는 병력이 좀 딸릴것 같습니다.》
《내가 한초(구식군대의 구분단위. 백명이 한초이며 그 책임자를 초관이라고 한다.)의 병력을 떼여주지. 그만하면 되겠나?》

그것은 지금 백산의 부대에서 떼내간 인원을 념두에 두고 한 말이였다. 말하자면 백산의 부대에 본래의 수자를 채워주겠다는것이다.

백산은 동의했다. 물론 그것은 가흥에 대한 렴탐을 구체적으로 해보고 그때에 가서 의논할 문제였지만 그것만 해도 어디인가.

그리하여 그는 다음날로 다시 떠나 가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알아가지고 돌아왔다. 역시 해볼만 한 일이였다.

가흥은 충주에서 30리, 제천에서 40여리 상거한 곳으로서 한강을 끼고 서울까지 260리 물길이 시작되는 첫 나루터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여기에는 충청도의 전지역과 경상도의 십여개 고을의 식량이 모여드는 십수만석능력의 창고, 곧 가흥창이 있으며 또 륙로로 서울까지 이어지는 역참이 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것으로 하여 왜놈들은 가흥에 수비대를 배치하고 창고와 나루, 역참을 밤낮으로 지키고있는것이다. 역참에만 해도 20여마리의 말과 마차가 서울로 통하고있으니 그럴만도 한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의병들의 켠에서 분석해보면 우선 십수만석에 달하는 창고를 손에 넣을수 있고 서울로 통하는 보급로를 끊을수 있으며 충주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놈들의 제천에 대한 포위를 역포위로 바꾸어 충주성의 뒤덜미를 쥘수 있다는것이다.

문제는 놈들도 그만큼 가흥의 중요성을 알기때문에 수비력량이 간단치 않다는것이다. 백산이 타산하건대 적어도 지금 력량의 곱은 되여야 가능할것 같았다. 그래서 승우에게 말을 비쳤더니 그는 처음과는 달리 어딘가 좀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다.

《선봉장, 가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제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정 요구되면 내가 다시 생각은 해보겠네만 우선 지금 력량으로 공격해보게. 이건 내가 자네의 지략도 믿고 하는 말이니 가능한껏 노력을 해야지…》

하는수없었다. 있는 력량을 가지고 최대한 힘을 짜내는 수였다.

훈련을 강화하였다. 원래의 자기 부대 성원들만이래도 웬만할수 있었다. 그런데 본래의 근 3분의 1에 해당한 인원이 새로 들어오다나니 작전과 지휘가 곱절로 힘들었다. 밤에 낮을 이어 맹훈련을 거듭

하고 가홍에 대한 정찰도 다시 조직하였다. 가홍공격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백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심란해졌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필승을 가할수 있을것인지. …

공격을 래일로 앞둔 날 그는 홀로 강변에 나갔다.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딱히 찍어서 말을 할수 없었다. 하면 죄가 되고 가홍작전자체가 무산되고말것이기때문이였다. 그리고 백산이 자신도 너절한 인간으로 락인되고말것이다.

(과연 이래야만 하는가. 눈에 보이는 잘못을 두고도 말없이 참아야만 하는가.)

그는 하늘을 우러르며 생각하였다. 거기에 쪼각달이 떴다. 초저녁에 잠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상현달이다. 그 이지러진 달이 희미한 운무속에 겨우 자기를 드러내고 강변의 무성한 숲과 둥근 바위의 형체를 거무슥하게 그려주고있다.

발밑에서는 바위사이를 에돌며 흐르는 물이 쪼각달을 싣고 흥뗙이며 무슨 타령을 부르고있다. 아무의 권한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으며 제 마음대로 부르고 굴리는 저 흥타령…

그러나 지금 백산은 승우의 지위에 눌리워 할말을 못하고있다. 단지 지위라고만 하겠는지. 백산의 우려에는 아랑곳없이 그저 공격을 해보라는 외마디만 따라외울뿐이다. 방금전에도 그랬다. 하다가 실패하면 해당한 대책을 세우겠다는것이다. 그런데 그 대책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도 공격을 하라는것은 백산을 되도록 먼곳으로 떠나보내자는것이다. 미영과 하루라도 가까이 있는것이 싫다는것이다. 바로 그런 목적도 있었기에 승우는 처음부터 백산의 가홍공격을 지지했고 부추기기도 했던것이 아닌지.

적어도 백산에게는 그렇게 생각된다. 그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조건에도 타당하기때문일것이다.

그렇지만 백산은 그 말을 할수가 없다. 말을 한댔자 오히려 그가 졸렬하고 치졸한 놈으로 몰릴수 있기때문이다.

생각이 이쯤되면 앞일은 뻔하다. 두가지 길이 있을수 있는데 하나는 죽기로 싸우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싸움을 포기하는것이다. 그러나 공격은 이미 단행된것이나 다름없다. 결심이 섰고 그에 따른 작전도

다 세워진것이다. 그렇게 싸우다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는가.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던 백산은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는 놀랐다. 바로 뒤, 그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사람이 서있었던것이다.

《누구요?》 하는데 그가 더 바투 다가왔다.

《선봉장이 여기 있었구만. 왜 혼자 그러구 섰나?》

뜻밖에도 류린석대장의 부인이였다. 반가움과 함께 의혹이 뒤따랐다.

《대장님의 부인이 어떻게 여길 다 나오십니까?》

《자네 무슨 고민을 하고있는게구만. 속타는 일이라도 있는게지?》

《고민이라니요. 래일 싸움떠날 생각밖에 더 할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혼자 외딴 곳에 나와있을 필요가 있나. 사람들과 휩쓸려야지.》

무엇인가 정답고 친절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하면서도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왜 여기로 나왔는지 알수 없어 주밋주밋했다. 서로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까이 대하기는 이것이 처음인것이다.

《어서 들어가자구. 원, 사내꼽재기라는게 할말이 있으면 앞에서 씨원히 할게지 외딴데 나와서 혼자 속을 썩이다니, 쯔쯧…》

《부인님, 제가 무슨… 속을 썩이다니요.》

《자기가 옳고 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게 사내야. 대장부라는게 달래서 대장분가.》

여전히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러는데 리씨가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자구,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

《기다린다구요, 누가 절…》

《하긴 누구나 다 젊었을 땐 그런 법이지, 할말도 제대로 못하구 속으로 열병을 앓으면서. 지금말로 뭐라고 하더라. 그렇지, 사랑이라고 하지. 한창때는 누구나 다 그놈의 열병을 앓고야만다네. 그래야 사람이 돼.》

《부인님, 그건 무슨 말인가요. 제가 무슨… 어디로 간다는겁

니까.》
《가세, 덩지 아깝게 놀지 말구.》
백산이 주저했으나 리씨는 기어코 그를 잡아끌었다.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리씨가 거처하는 객사였다. 곧 류린석대장의 부부가 사는 곳이다.
리씨가 그를 방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잠간 어디에 갔다온다며 자리를 떴다. 아무도 없는 방에 육초가락 한대가 외로이 서서 방을 비치고있었다.
백산은 선채로 기다렸다. 누구일가. 왜 이런 곳에서 나를 만나자고 할가. 혹시 창의대장님이…
하는데 잠시후 문이 열리였다. 먼저 눈에 띄는것은 사람에 앞서 들어서는 밥상이다. 그 한끝을 잡은 하얀 손이 먼저 들어서고 뒤따라 사람이 들어섰다. 미영이다.
《이건 뭐요?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은?》
미영이 상을 놓고 다소곳이 머리를 수그린채 귀밑머리를 쓸어올렸다.
《저예요, 제가 기다렸어요.》
《미영이? 그런데 대장님 부인은…》
《이제 올거예요. 어서 앉으세요. 그동안 먼저 이것을 드세요.》
미영이 그래도 서있는 백산의 한팔을 잡아 조심히 끄당기며 말하였다.
상우에는 흰쌀밥과 몇가지 반찬외에 커다란 통닭이 한마리 놓여있었다. 금방 단지에서 꺼낸듯 김이 문문 나는 닭곰이였다. 거기에 또 언제 준비했는지 아래목에서 호로병을 하나 꺼내여 번들거리는 놋잔에 술을 한가득 쏟아부었다.
《미영씨, 이건… 왜 이렇게 하는거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몸도 축가고… 어서 드세요.》
《아니, 난 들지 않겠소.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는단 말이요?》
《래일 전장으로 떠난다지요. 그래서 큰어머니랑 다 생각해서 하는 일이예요.》
《큰어머니? 대장님 부인이 내가 어쨌다고 이런걸 다 차려준다는거

요.》

《맹세를 치세요, 더이상 묻지 않겠다고요.》

《대답을 하오. 난 내가 모르는 일을 해본적 없고 영문도 모르는 대접을 받아본적 없소.》

백산의 목소리는 거의나 거칠게 울렸다. 그러자 미영의 목소리도 어느덧 갈리였다.

《달라고 해도 고운놈 있고 주겠다 해도 미운놈 있다지요. 이제 와서 주겠다고 하는 내가 밉다면 할수 없지요. 그럼 소녀는 물러가겠습니다.》 하며 새침해서 돌아앉는데 고름을 고쳐매고 얼굴매무시도 다시 하는것이 당장 일어날 자세다.

백산이 급기야 그의 팔을 잡았다.

《말하오, 그냥은 안 보내겠소. 못 가오.》

《놓으라요. 난 그렇게 꼴짝한 사람하구는 말을 못해요, 안하겠어요.》

《꼴짝하다구? 내가 말이요?》

《음식을 놓구는 성을 내도 안되고 더럽다 해도 안된댔어요. 고만한것도 몰라서 요것조것 따지며 화를 돋구어요?》 하고는 맵짠 눈으로 백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때 백산은 그의 얼굴에서 자기를 떠보는 장난어린 미소를 보았으며 설사 아무리 성을 내더라도 참을수 있다는 아량도 엿보았다. 이어서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데 눈으로는 쏘아보고 입으로는 웃고있다는것도 가려보았다.

미영이 더 청하기 전에 상우의 잔을 닁큼 들어마셨다. 거기에 미영이 다가앉으며 닭의 다리를 쭉 찢어 갈라놓았다. 마침내 눈이 마주친 두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여났다.

《제가 욕 좀 한마디 하라요? 웃으며 하는 욕은 욕이 아니예요.》

백산이 어지간히 취한것을 보자 미영이 말했다. 부지런히 입을 놀리던 백산이 무슨 담벽이나 무너지는것을 막듯 두손을 쳐들었다.

《안돼, 방금전에 음식을 놓고는 성을 내면 안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무슨 욕이요?》

《욕도 달게 받으면 명약이래요. 들어보라요.》

백산은 어느새 그에게 녹아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그는 자

기가 그 무엇에 녹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는 미영의 말을 무조건 긍정하고 그가 끄는대로 끌려가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래 끌려가고있다. 이제 나는 모든것을 그가 하자는대로 하고야말것이다. 하고싶은대로 해보라지. 그때에는 또 그대로 응하고 말것이다.

《선봉장님은 사나이답지 못해요. 꽁하고 할 말도 못하고… 좀 대담하라요.》

백산은 잔을 들다말고 그를 쳐다보았다. 방금 욕을 하겠다던 말이 그저 해보는 말이려니 했더니 그런것이 아니였다. 그러니 혹시 속에 품었던 생각이라도 있었다는것이 아닌가.

《그건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이요?》

백산이 놀랍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야말로 그에게는 뜻밖이였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말한 사람도 없었다. 방금전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끌려갈것이라던 의식이 순간에 뒤집혀졌다.

《내가 꽁하다… 대담하라구?》

《그렇지 않구요. 왜 아버지한테 할 말을 못해요. 다른건 몰라도 군사야 거기서 더 잘 알지 않나요. 이제 그러다 작은 감정때문에 큰것을 잃게 돼요.》

백산은 다시 미영에게 똑바로 눈을 주었다. 항용 웃으려고 하던 그 영채도는 눈에 지금 수심이 어려있다. 진실로 백산을 위하려고 하는 순진하고 솔직한 심정이 슴배인 수심이다.

이번에는 백산이 이기지 못하고 먼저 눈을 내리깔았다. 리해가 갔던것이다.

《알만 하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오. 만약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다투게 되고 항용 그렇게 다투게 되면 의병대는 망하게 되오.》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잖아요. 사람만 더 보태면 크게 이길수 있는것을 왜 말 안해요. 그러다 패하면 어쩔려구요?》

《아니, 이길거요. 내가 좀더 피를 흘리면 되오.》

《또 자기만 희생하겠다는거예요. 제 몸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그건 어쩔수 없소. 바랄것을 바라야 하는거요.》
《정 그러면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니, 안되오. 절대로… 이건 미영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될것이요.》
불시에 백산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금방 방에서 튀여나가는 그를 붙잡듯…
미영은 그것을 못 본듯 여전히 백산을 향했다.
《저를 위한다는건 무슨 말이예요?》
《미영이 언제인가 말했지, 미영과 아버지의 사이를 누구도 갈라놓지 못한다구. 나는 나때문에 미영과 아버지의 사이가 틀려지는것을 바라지 않소.》
《그러니 그때문에…》 미영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깔았다.
《한생 자기를 희생하며… 한몸 바치겠다는것인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민이 있는거요. 부모가 부모로 되는것은 자식에 대한 남다른 사랑때문이 아니겠소. 세상에 혈육처럼 가까운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내가 거기에 끼여들수는 없는거요.》
미영은 다시 눈을 들었다. 이 순간 그에게는 백산이 하늘처럼 높이 우러러보였다. 아니, 저 바다처럼 넓고 깊고 시원해보였는지도 모른다.
지금 그는 푸르러 설레이는 바다에 뛰여들어 마음껏 물장난을 치고 응석을 부리며 뛰놀고싶다. 또는 산악처럼 높고 바위처럼 억센 거기에 몸을 의지하고 마음껏 소리치고싶다.
정아, 이 가슴에 차고넘치는 정아, 네 갈곳이 어디냐. 매양 이 가슴에 고이고 쌓여 갈데를 몰라 일렁이며 뜨겁게 열병을 일으키던 그리운 정아, 이제 너는 진정 쏟칠 곳을 찾았다. 소리치며 흘러가 부딪치고 솟구치며 안겨들 그 품을 찾았다. 지금껏 마음속으로만 그리고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만 보던 그 품에 한껏 안겨들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도 그 모든것을 쏟칠수 없고 말로도 할수 없는것이

녀자다.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할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직까지 자기를 놓지 않고있는 백산의 손우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거기에 방울진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선봉장님, 이번 싸움에 저를 데려가주어요.》

《미영씨가? 거긴 위험하오.》

《전장이야 늘 위험하지요. 하지만 우린 충주에서도 함께 싸우지 않았나요.》

《함께 싸웠지. 하지만 가흥은 충주와 다르오. 녀자들이 할일은 없을거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인차 이어졌다. 진정을 바치는 마음에는 어디서건 할일이 생기는 법이다.

《가흥을 차지하면 오래 있어야 한다지요. 그땐 제가 있어야 해요. 녀자들이 없으면 남자들은 인차 빈구석들을 드러내거던요. 그러면 싸움도 잘 안돼요.》

백산은 대답대신 미영을 잡은 손우에 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미영이 그우에 얼굴을 묻었다. 뜨겁게 흐르는 눈물이 그의 손등을 적셨다. 그것이 흘러드는 피물인양 백산의 몸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제 그 피가 하나로 흐르면 어쩔수없이 한몸이 될것이다.

백산은 그것을 느꼈다.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졌다. 이제 누가 그것을 갈라놓을수 있으랴. …

행복의 단맛은 불행의 쓴맛처럼 그렇게 강렬하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한다. 백산은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랑의 구석에서 무엇인가 자기들을 지켜보는듯 한 불안을 느끼고있다. 이제 그 구석에서 무엇이 튀여나오겠는지 알겠는가. 옛말에 영화가 가득하면 편안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면서도 그것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처음으로 맞잡은 손이 어쩌다 놓쳐질가 저저마다 꼭 그러쥐였다. 그우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붉은 실띠마냥 그들의 손을 하나로 굳게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다. …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방에 들어섰다. 투박한 갖신, 휘늘어진 도포, 푸들푸들 떨리는 손…

《이년놈들아—》

벼락치듯 하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안승우가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방안을 둘러보고있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바로 그때 승우가 달려들며 미영의 얼굴을 번개같이 후려갈겼다. 또 한번 날아들 때 백산이 밀치며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 미영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저를 때리십시오.》

《아버님? 네가 날보고 아버님이야? 이 상놈의 자식, 네가 감히 내 딸과 야합을 하자고 해?》

소리치고는 역시 번개처럼 백산의 귀쌈을 후려갈겼다. 그래도 끄떡없이 서있는 그를 보고 승우가 다시 달려들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영이 그앞을 막아섰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욕을 해도 말로 하고 인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선봉장은 상놈이 아닙니다!》

《상놈이 아니라구? 이 례의도 법도도 모르는 놈아, 부모 몰래 야합을 하는것이 상놈이 아니고 뭐냐. 개, 돼지만도 못한 놈이지?》

《아버지는 진정 그때문에 노하는것입니까, 량반이 아니라는 그때문에?》

《우리 가문이 바로 그랬다. 력대로 이런짓을 몰랐어.》

《량반도 량반나름이고 상놈도 상놈나름이지요. 아버지는 량반이여서 함부로 사람을 치며 모욕을 하는겁니까. 그것이 량반의 도덕입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기르지 않았다. 없는 네 어미 정까지 합쳐서… 내가 지금 노하는것도 너를 위한때문이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너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놀아대며 이 아비의 아픈 가슴을 허비여놓는단 말이냐.》

《말씀을 듣건대 아버지는 노상 량반이란 체면때문에 그러시는것 같은데 그것이 그리도 귀중한가요. 사람이 그때문에 사는것인가요?

아버지, 저도 이제는 과년한 처녀로서 보는 눈이 있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체면이나 명예로 사는것이 아니라 정에 삽니다. 그 정이란 물과 같이 자유로와서 흐르는 곬이 있고 고이고싶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도록 흘러갈데를 찾지 못해 일렁이던것을 이제야 쏟치는것도 그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리해못

하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말을 마치며 미영은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것이 승우를 더한층 놀라게 했다. 그러다가 과연 딸이 어디 가서 목숨이라도 잃지 않겠는가 하는 공포심을 자아내게 했던것이다. 그것이 이번에는 무작정 그의 손을 잡아끌게 했다. 차라리 자기가 데려다 곁에서 죽게 할지언정 백산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결심에서였다.

끝내 미영은 아버지의 손에 끌려가고말았다.

그것이 백산의 가슴을 타는듯 쑤시게 했다. 당장 뒤따라가서 그를 빼앗아오고싶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것이 당당하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하는것이 사나이다운 행동이 아니겠는가.

저도 모르게 몸이 그쪽으로 향했다. 하다가 무뚝 그 자리에 멈춰서고말았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그의 발목을 칡넝쿨마냥 휘감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인즉 다른 사람이 아닌 미영의 아버지다. 아울러 의병대의 중군이며 지금은 제천반일의병대를 책임지고있다. 그와 맞선다는것은 곧 의병대에 분파를 몰아오고 분쟁을 형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녀자 한사람, 저 미영이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을가.

아니, 미영이때문이 아니다. 나때문이다. 나 하나가 모든것을 참고 이기면 된다. 지금껏 그래왔던것처럼 의병대선봉장의 자세로 돌아와 오직 싸움에만 전념하면 된다. 미영을 다시 생각지 말며 쳐다보지도 말자. …

그렇게 생각하고나니 가슴은 더욱 쓰리고 아팠다. 결국 미영을 버려야 한다는것인데 그렇게 할수 있을것 같지 않았다. 이제 그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수 있단 말인가.

갑자기 몸이 휘친거렸다. 가슴이 후둑거리고 팔다리가 떨렸다. 가까스로 곁에 선 나무에 몸을 기대였다. 머리를 들어보니 하늘에 별이 총총하다. 아득히 저 멀리에 보일듯말듯 하는 저 별들도 개개는 다 자기의 생명이 있다. 누가 보지도 않고 아무도 안중에 두지 않는 저 별들도 자세히 살피느라면 제나름으로 웃고 즐기며 뛰뛰기를 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나는…

또다시 파고드는 모멸과 괴로움이 온몸에 실렸다. 과연 이대로 모

든것이 끝나고마는가. …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이밤 어딘가 마실을 갔든가 아니면 심부름이라도 갔다오는 려염집아이의 발자국소리일것이다.

그런데 소리는 타박타박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있다. 와서는 자기곁에 와서 뚝 그쳤다.

이상한 예감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바로 자기뒤에 서있는 미영을 보았다.

말없이 자기를 지켜보는 눈에 웃음이 어렸다. 아니, 정말 웃는지는 알수 없다. 지금 어느 겨를에 그가 웃을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보였을것이다.

《어떻게 또 왔소?》

부지중 중얼거렸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하다가 갑자기 달려와 백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온몸이 세찬 격정과 흐느낌으로 푸들푸들 떨렸다.

백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영이 어떻게 여기로 다시 왔을가.

하지만 묻지 않았다. 다만 만난을 무릅쓰고 또다시 일게 될 파란도 각오하며 돌아왔으리라는것만은 짐작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그를 위해주어야 하는가.

하는데 그의 가슴을 파고들듯 조용히 읊조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얼음우에 대닢자리보아
님과 나와 얼어죽을망정
얼음우에 대닢자리보아
님과 나와 얼어죽을망정
정든 님 오늘 밤 더디 새우시라
정든 님 오늘 밤 더디 새우시라

옛시였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는 시였다. 이제 그가 또 시를 모른다고 할수 있을가.

그러나, 그러나… 그가 또 망설이는데 미영이 계속하였다.
《죄스러워요, 용서하세요, 모든게 저때문이예요. 저를 마음껏 욕해주세요. …》
목소리는 아득히 먼곳에서처럼 들려오다가 급기야 가슴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6

가흥에서 전투는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있었다. 김백산의 선봉대에 대한 와다나베수비대의 공격이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것이다.
그사이 선봉대는 가흥을 완전히 장악했다. 불의의 공격으로 가흥지구의 역참과 나루터, 창고와 수비대의 보루까지 일시에 점령하였던것이다. 그로 하여 역참과 수로를 통한 서울에로의 통행과 세미운반은 완전히 중지되고 충주에 있는 왜군들의 공급로도 끊어졌다. 반면에 의병대에서는 역참의 수십마리 말과 말파리를 리용한 식량운반이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제천의 의병들과 주민들이 살수가 났다고 환성을 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잠간, 충주로 쫓겨갔던 와다나베가 력량을 몇배로 증강하여가지고 와서 의병대가 차지한 진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치렬한 공방전이 낮에 이어 밤에도 계속되였다. 그러는 과정에 의병대는 이미 차지했던 역참과 나루터를 하나하나 빼앗겼다. 그들만의 력량으로는 그 넓은 지역을 다 방어할수 없었던것이다.
이제 남은것은 창고와 놈들이 건설해놓은 보루였다. 그것만 차지해도 사실 가흥의 멱통을 쥐고있다고 할만큼 지위는 확고했다. 놈들이 발을 붙일만 한 곳이 다시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와다나베도 멀리 산굽이에 천막을 치고 밤낮없이 공격을 들이대고있는것이다.
백산은 제천에 거듭 련락을 보내여 원군을 요구하였다. 역참이 무너졌다, 나루를 내주었다 하는 애타는 목소리가 거듭거듭 제천에 가

닿았다. 그때마다 안승우는 보낸다, 보낸다 하면서 거의나 보내지 않았다. 싸움이 인 날부터 불과 몇십명을 보낸것이 전부였다.

그로서는 그럴만한 구실이 있었다. 충주에 틀고앉은 이다찌가 짜낸 궁리에 넘어간것이였다. 즉 제천에서 원군을 떼내지 못하도록 거듭 공격기도를 내비쳤던것이다.

사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였다. 몇문의 보총과 때로는 기관총 한두문을 가지고 학고개와 구학산밑을 오가며 소리나 몇번 냈을뿐 대부분 력량은 가흥에 가있었다. 백산이 그것을 알고 계속 원군을 요청했으나 승우는 이다찌의 전술에 놀라 절대로 기본력량을 헝클어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제천을 위하여 가흥을 절대로 내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만을 거듭 강조하여 보냈다.

그것이 문제로 되여 일부 의병장들과 의병들속에서 쉬쉬하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처럼 중요한 때에 가흥에 빨리 원군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였다.

바로 그러한 때 미영이 아버지를 찾아 동헌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가흥에 왜 원군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마루우에 앉아 조심스럽게 무릎을 감싸안으며 물었다. 그 첫마디에 벌써 승우가 못마땅히 눈살을 찌프리며 딸을 쳐다보았다.

《그건 왜 묻냐, 네가 웬 참견이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빨리 원군을 보내여 가흥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신다니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든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계집애가 왜 그따위 소문은 들고다녀?》

《아버지는 왜 그리도 속을 쓰지 못합니까. 의병을 일으킨것이 왜놈들과 싸우자는것이지 제천이나 틀고앉자는것입니까. 왜 전장에서 피흘리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놈들을 더 크게 이길 생각을 못하는가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따위 소리냐. 지금 제천은 남북으로 포위되여있다. 병력을 딴데로 돌렸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먹히울수 있단 말이야. 그때의 막강한 책임을 내가 다 지란 말이냐?》

《아버지가 지금 중군의 중임을 지고있는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선봉대가 없는 중군이나 제천을 생각이나 할수 있습니까. 이런 때 왜 그들을 도울 생각을 못합니까.》

《네가 그런 말을 안해도 생각이 거기에만 가있다는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네 눈에는 보이는게 선봉장밖에 없지. 네가 이곳 형편을 알기나 하느냐. 제천에서는 한명도 떼내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진실로 의병대를 위한다고 할것 같으면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가흥을 고수하는것뿐이야. 가겠으면 너나 가거라.》

마침내 미영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는 아버지의 본심이 뚜렷이 알렸기때문이였다.

《좋습니다. 아버지는 이 딸이 귀하고 딸을 위해 진심을 다 바쳤다고 말은 하면서도 언제한번 딸을 위해준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딸은 딸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탓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그게 아버지에 대고 하는 소리냐?》

승우가 놀라 소리쳤다. 그러나 그때 미영은 벌써 마루를 내려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고있었다. 승우는 따라가려다말고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그때 미영이 삼문을 넘어서며 잠간 문턱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에서 보기에도 그의 눈에 눈물이 어린듯 했다. 얼핏 떠오른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돌리니 그는 벌써 문밖을 나서고있었다. 눈에 띈것은 문턱을 스치는 치마자락과 얼핏 사라지는 저고리를 입은 뒤모습뿐이였다.

그것이 승우가 딸 미영을 본 마지막모습이였다. 물론 그때까지도 승우는 자기가 미영과 그렇게까지 갈라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밖에 나갔던 통인아이가 달려들어오며 밤새 미영이 없어졌다고 알려주었다.

불시에 어제 있었던 일들이 되살아나며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허둥지둥 그가 거처하던 방에 달려가니 모든것이 정상인데 다만 서안우에 벼루로 눌러놓은 종이장 하나가 유표하게 눈에 띄였다. 급히 집어들고 펼쳐보니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져 앞을 볼수가 없었다. 그는 가까스로 눈을 부비며 한자한자 더듬어나갔다.

《아버님이 이 글을 읽으실 때에는 제가 여기에 없을것입니다. 그때 놀라실 아버님을 생각하면 차마 떠날수 없고 글을 쓰는 이 손도 떨리고 눈물이 쏟아져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을수 없고 기어코 가야 할 몸이기에 몇자 적어놓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가흥으로 갑니다. 가서 죽어도 좋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올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달라질 제 모습은 아닙니다.

돌이키면 저를 이렇게 떠나게 한것은 아버지자신입니다. 아버님은 일찌기 어머니를 여읜 저를 홀몸으로 키우셨지요. 그 애지중지하신 마음이 무엇이였던지 하는것이 나는 지금 리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때나 무조건 아버지를 위한것으로만 되여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치신것입니다.

아버지는 제자들과 저에게 늘쌍 천상천하에서 나라보다 귀한것이 없으며 나라가 없으면 제몸도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생의 몸으로 단연 칼을 잡고 나선 아버님을 무한히 존경합니다. 하다면 이름도 지위도 없는 평민으로 단연 의군을 조직하고 전장에서 누구보다 용감히 싸우고있는 선봉장님에 대해선 뭐라고 할가요.

저는 몇해전 그이가 우리 향교마을에 찾아왔을 때부터 남다른 용맹과 대바른 행동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존경해왔고 흠모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줄곧 그를 천시하고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봉장님께 죄악으로 된다고 생각해왔고 아버님의 애국애족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는것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는것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에 선봉장님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돕는것이 옳다고 여겼기때문입니다.

아버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녀자의 삼종지례와 녀필종부가 곧 부덕(녀자와 안해가 지켜야 할 도리)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선봉장님께 향한 저의 정은 폭포수처럼 내려쏟치여 굳고굳은 암반까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그 물을 다시 돌려세울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평생을 떠돌아살며 부모의 사랑도 녀자의 정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여 싸움에서 더욱 용맹하고 지혜를 발동하여 저 극흉극악한 왜놈들을 더 많이 무찌를수만 있

다면 저는 백번이고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말이 리해되지 않는다면 저 고구려의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바보라고 하던 온달이 평강공주의 도움으로 어떻게 유명한 장수가 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지요. 저는 바로 오늘의 평강공주가 되고저 합니다.

오늘의 이 맹세를 저는 며칠후 가홍싸움에서 이기고 선봉장님과 함께 돌아와 실천으로 보여드리자고 합니다. 그때에는 아버님이 그토록 고집하는 량반상놈이 따로 있고 상놈은 량반앞에 복종만 해야 한다는 불공평한 이 세상이 바로잡혀야 한다는것을 리해해주셔야 합니다. 왜적들과 혈전을 벌리며 국가의 운명을 바로잡아나가야 하는 이때에는 모든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은 제가 타고갑니다. 며칠후 제가 다시 나타날 때에는 아버님이 부디 달려나와 축복해주리라는 기대를 안고 떠나갑니다.》

편지를 다 읽고난 승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글줄을 따라가며 마디마디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그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긍정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 읽고나서는 미영을 떼우게 되였다는 허탈감과 그에 뒤따르는 애착감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미영은 태여난 신분적처지로 보나 갖추고있는 인지덕의 례의로 보나 분명 량반집귀부인이지 막농사나 지으며 소발구를 끌 서민집아낙네는 아니였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키운 딸이였다. 한것을 졸지에 농사군집아낙네로 만들겠는가. 자기가 그 집에 얹혀살수 없는것은 물론 어쩌다 딸네 집 문객노릇을 하재도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을 할것만 같아 견딜수 없었다.

바로 이렇듯 딸에 대한 눈먼 사랑과 자기식의 완고한 고집이 급기야 승우의 립장을 돌변시켰다. 가홍에 나가있는 선봉대를 전부 철수시키자는것이였다. 이제는 그쯤만 해도 선봉대가 큰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만한 력량으로 가홍을 수일간 점거하고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공이 될수 있다. 게다가 거기에서 끌어들인 식량은 또 얼마인가. 그것만 해도 봄철 올곡식이 날 때까지 군량은 문제없다. …

이렇게 생각한 승우는 미영이 떠나간 다음날로 선봉대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물론 그것이 자기 딸에 대한 애착에서 취한 조치라고만 볼

수 없다. 이를테면 가흥에 대한 포기와 제천에 대한 고수의 일념이 그런 결심을 내리게 한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군사지식의 결여에서 오는 공포의식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에 첫 반기를 든 사람이 사석이였다. 그는 가흥의 고수가 곧 제천에 대한 방어로 된다고 하면서 자기 부대를 이끌고 가흥으로 가겠다고 들고나왔다. 그것이 제천고수를 주장하는 승우의 반발을 사서 론쟁이 점차 격렬해져갔다. 나중에는 백산이나 사석이 다 같은 평민출신으로 저들끼리 싸고돈다는 주장을 들고나옴으로써 론쟁은 량반상놈하는 신분적차이를 론하는데까지 승화되였다.

처음에 사석의 편에 서서 싸움을 주장하던 리필희가 신분문제가 상정되자 갑자기 입을 다물고말았다. 량반인 자기가 사석의 켠에 서서 승우를 욕할수 없게 되였던것이다. 대신 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급히 린석에게 사람을 띄워보냈다. 정확한 내용을 다 알릴수 없는 대신 빨리 돌아와달라는 요구만 거듭해보낸 서신이였다.

그것은 후에 있은 일이고 그날 아침 제천을 떠난 미영은 무작정 말을 때려몰아 가흥으로 달렸다. 기어코 자기 뜻대로 하고야말리라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버지에게 가슴아픈 서신 한장 남겨놓고 끝내 백산을 따르게 한것이다.

그렇게 제천에서 가흥까지 몇십리를 달리는 동안 가슴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모순된 감정으로 끊임없이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러다가 마지막령마루를 넘어서 한강을 가까이하고 솟은 가흥창의 낟알더미들과 역참건물수비대의 우뚝우뚝한 보루들이 한눈에 안겨오자 생각이 달라졌다. 여기가 바로 전장이며 저기 어디에 백산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온몸이 바싹 긴장해졌던것이다.

이제 만나면 그이가 날보고 뭐라고 할가. 물론 욕을 할거야. 하지만 그이한테는 내가 필요해. 그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를 돌봐주어야 해. 우선 끼마다 따끈한 밥을 해주고 옷도 빨아주어 선봉장으로서의 체면을 세워주어야지. 그리고 의병들과는 춤노래도 함께 하고 같이 휩쓸리며 힘을 돋구어주어야 해. …

이렇게 생각을 하니 다시 마음이 즐거워지고 빨리 그들에게 가닿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마침내 령마루를 넘어서자 말은 량쪽산을 끼고 가운데로 느릿느릿 굽이져내려간 길을 따라 천천히 달렸다. 내리받이여서 빨리 달릴수 없었던것이다.

한낮의 해별이 내려쪼이는 골짜기는 끝없이 조용하고 한적했다. 전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만큼 적막했다. 다만 어디서인가 비릿한 쇠내와 함께 화약내같은것이 풍겨왔다.

여기가 어딜가. 의병들이 피흘려싸운다는 곳은 어디쯤일가.

바로 그때 어디선가 땅 하는 총소리가 울리더니 뒤이어 총탄이 날아오는 왱 하는 소리가 귀바퀴를 울렸다. 미영은 깜짝 놀라 말머리를 돌렸다. 총탄은 거기로도 날아왔다. 삽시에 골짜기는 울부짖는 총탄소리로 가득찼다.

그때까지도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미영은 무작정 이쪽저쪽으로 말을 때려몰며 맴돌이를 거듭했다. 그때마다 총탄들은 련속 그를 따르며 좌우에 떨어졌다. 숲들이 놀라서 진저리를 치고 바위들은 앙칼진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 몇발자국만 가면 탄알이 바로 나를 맞힐것이야. 나는 죽었어. …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며 눈앞이 새까매지고 숨이 끊어지는듯하였다. 말도 더는 오도가도 못하고 공중높이 앞발을 쳐들며 투레질만 해댔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번개같이 뛰여나오더니 말우로 뛰여올랐다. 그다음 육중한 몸으로 그를 타고 누르더니 말을 때려몰았다. 순간에 말은 숲속을 파헤치며 뿌죽한 산모퉁이로 돌아섰다. 그와 함께 말은 곤두박질하며 나가넘어지고 그들은 굽이진 언덕을 따라 한참이나 딩굴었다.

그렇게 하고 눈을 떴을 때 미영은 시꺼먼 우멍진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있는것을 보았다. 순간 그는 활짝 웃음을 지으며 두손을 내밀었다. 백산인것이다. 끝내 찾아왔다. 이렇게 만났다. 어서 나를 일으켜주지 않고 저러고만 있을가.

드디여 나무등걸이같은 억세인 손이 두어깨를 꽉 그러잡았다.

《왜 왔소? 누가 오라고 했소?》

《왜 그러세요. 제가 온것이 그리도 미우세요?》

《누가 오라고 했는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이글거리는 눈, 푸들푸들 떠는 팔다리, 거센 숨소리가 당장 그를 어디론가 날려보낼듯 했다.

그제서야 그의 진정한 분노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미영은 와뜰 놀라며 몸을 옹송그렸다.

총탄이 비오듯 하던 죽음의 순간순간들, 숲속에서 번개같이 튀여나와 자기를 몸으로 덮으며 말을 때려몰던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불시에 되살아난것이다. 자기의 그 경망스러운 행동이 백산을 얼마나 놀라게 하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던가.

그러나 사실 그때까지도 미영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 그저 백산에게 빨리 가닿아야 한다는 일념에만 집착해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의병들과 왜군이 대치하고있던 중간지점일줄이야. 그것도 방금전에 교전을 끝내고 잠간 휴전을 하는 짬사이로…

이러나저러나 미영의 출현은 의병들에게 생활의 랑만을 돋구어주는 향기로, 싸움에서는 용기를 돋구어주는 힘으로 되였다. 아침저녁으로 끓여주는 구수한 장국과 봄나물이 모두 미영의 덕으로 인정되였다. 저녁시간이면 의병들속에 불리워다니며 노래도 불렀는데 그것이 집과 부모처자들에 대한 그윽한 향수를 불러주어 더욱 좋아했다.

그러나 미영의 뜻밖의 출현이 백산에게는 결코 반갑다고만 할수 없는 근심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원군이 올수 없다는 소식이 그를 불안하게 하였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군장에게서 직접 들은 말로서 더욱 확실한것으로 되였던것이다.

미영이자체도 문제다. 남자들만 있는 전장속에 녀자 하나를 따로 돌봐주기도 쉽지 않지만 보다는 그의 신변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해주는것이 문제였다. 백산이 아무리 애쓴다 한댔자 싸움의 정황을 담보할수 있겠는가. 더구나 원군이 올수 없다는것이 확실해진 지금에…

지금 의병들은 골짜기에 난 저 작은 오솔길을 가운데 두고 왜병들과 극도로 긴장하게 대치되여있다. 창고와 보루를 빼앗긴 놈들이 그것을 되찾기 위한 맹공격을 들이대고있는것이다. 반대로 의병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결사전을 벌리고있다.

그런데 원군을 보내지 않고있다. 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영, 이제라도 돌아가오. 꼭 가야만 하오.》

단둘이 마주섰을 때 백산이 말하였다. 여느때없이 긴장하고 침착한 모습이였다.

《왜 절더러만 가라는거예요. 싫어요, 안 갈터예요.》

《가야 하오. 여기서 미영이 할 일이 더는 없을거요.》

《왜 없다는거예요. 의병들이 모두 용감히 싸우고있잖아요.》

《싸우고있소. 그러나 원군이 오지 않는 한에는… 그렇다고 가흥을 내줄수야 없지 않소.》

《원군이 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백산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무언의 대답뒤에 보다 더 큰 대답이 있다는것을 미영은 대뜸 짐작했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그가 했던 말이 있다. 자기가 더 용감히 싸워 보충하겠다는것이다. 하다면 그 용감성이란 무엇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최후의 결사전이다.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싸움이다.

그렇듯 긴장하고 첨예한 속에 하루이틀 날이 지나갔다. 그때 제천에서 또다시 소식이 왔다. 가흥을 내주고 즉시 철수하라는 중군의 지시였다. 미영을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라는 그의 개별적인 부탁도 함께 보내여왔다.

이 뜻하지 않은 소식이 또다시 백산의 심정을 복잡하게 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흥을 내놓아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가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힘들게 차지한 곳이기에 쉽게 내놓는단 말인가.

백산은 그것을 손금보듯 환히 알고있다. 가흥이야말로 적아가 다같이 노리는 전략적요충지인것이다. 그만큼 적들은 여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있으며 제천에 대한 공격은 꿈에도 꾸지 않고있다. 그가 알아본데 의하면 지금 제천은 말탄 기군들 몇이 학고개와 구학산밑에 이따금 나타나 파수군에게 총 몇방 쏘고 달아나군 하는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그것에 놀라 중군장은 퇴군을 명령했다. 이것을 단지 군사적 무능에서만이라고 보겠는가.

다른 원인이 있을수도 있다. 필경은 미영이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

해서일것이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해당될것이다. 얼마나 가슴아프게 헤여진 미영인가.

물론 미영은 보낼것이다. 백산이자신부터 결사를 각오한 산고지에 그를 붙들어두는것을 원치 않는것이다. 그러나 미영은 여전히 고집했다. 가흥싸움을 기어코 이기고 백산과 함께 말을 타고가겠다는것이였다.

그러는 사이 선봉대에는 점점 더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적들이 그들에 대한 완전포위를 형성했던것이다. 반면에 의병대에는 화약과 화살, 철알까지 다 떨어져갔다. 이제 하루이틀사이에 원군이 오지 않으면 가흥이 무너질수 있다. 만약 원군이 올수 없으면 무기라도 보내달라, 우리는 끝까지 버티여낼것이다, 그는 이렇게 호소하고싶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가흥은 고수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그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되였다. 부대가 완전히 적들의 포위속에 든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백산이 이렇듯 고심하고있던 때 미영이 그앞에 나타났다.

《저를 제천에 보내주십시오. 원군을 데려오겠습니다.》

백산이 어둑컴컴해진 얼굴을 들고 놀랍게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는 죽어도 의병대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던 그였다.

《가오, 보내주겠소. 그러나 여기로 다시 올 생각은 마오. 혹시 원군이 올수 있다면 몰라도…》

《그에 대해선 걱정 안해도 돼요. 지금 그 일을 맡아할 사람은 저 하나뿐이예요.》

《그렇게 알고있다니 고맙소. 하지만 우린 놈들의 완전포위에 들었소. 그냥은 빠져나가지 못하오.》

미영은 그러는 백산을 한참동안 쳐다보았다.

《선봉장님, 저의 아버지를 원망하시지요?》

《왜 갑자기 그런걸 묻는거요?》

백산이 정녕 의아한 빛으로 되물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때문에 이제는 저와 아버지의 사이도… 원군을 끝까지 보내지 않는 한에는… 절대 전처럼 가까울수가 없어요.》

《미영씨, 그건 아버지의 잘못만이 아니요. 아버진 다만 이다찌놈에게 속고있을뿐이요. 그놈이 제천을 당장 들이칠것처럼 잔꾀를 부리는데… 만약 미영이 자신있다면 아버지에게 절대 속지 말라고 설복해보오. 그렇게 해서 원군을 데려올수 있다면 따로 전투를 조직해서라도 미영을 빼내보내겠소. …》

그러나 미영은 그럴 짬을 주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직 새까만 미명속의 어둠을 헤치고 말 한마리가 요란한 발굽소리를 내며 골짜기로 치달아올랐다. 얼마전 미영을 그렇게도 놀라게 했던 그 골짜기이다.

오늘 또 그 말에 미영이 올랐다. 원군을 보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로 하여금 이밤을 잠들지 못하고 모대기다가 새벽의 야음을 리용케 한것이였다. 아버지를 기어코 설복하여 꼭 원군을 달고올 결심이 온몸에 불길처럼 타오르고있었다.

예견했던것처럼 여기저기서 총탄들이 쏟아져나왔다. 왜병들이 길목에다 불무지를 지펴놓고 꾸무적거리다가 황급히 총들을 주어잡고 일어섰다. 미영이 그 한복판으로 뛰여들었다. 불무지를 걷어차며 막아서는 놈들을 들이받으며 순식간에 놈들의 포위를 헤쳐나갔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놈들의 시야에서도 벗어날것이다. 어둠속에 들리는것은 어방대고 쏘아대는 총소리와 여기저기로 포물선을 그으며 멀리 앞으로 날아가는 총탄들뿐이다. 잠시후에는 그것도 뜸해졌다. 이제는 되였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몸을 펴는 순간 무엇인가 갑자기 허리를 툭 하고 때렸다.

이것이 무엇일가, 누가 날 때리는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 그는 갑자기 하늘땅이 빙그르 도는것을 느끼며 말우에서 떨어졌다. 오흐응— 하며 우는 말의 투레질소리가 밤하늘을 울렸다.

7

류린석이 필희의 기별을 받고 제천에 도착한것은 바로 그무렵이

였다.

그러나 그때는 린석이 이미 운신을 못하고 의식조차 흐린 상태였다. 안승우와 리필희가 뛰쳐나가고 리씨가 눈물을 흘리며 맞아들였건만 린석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얼마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즉시 필희를 불러 자기를 왜 오라고 했는가,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일이 알아보았다. 문제가 가흥에 대한 공격과 제천고수로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을 안 린석은 와뜰 놀라 몸을 일으켰다.

《가흥을 차지했다구? 하다면 끝까지 지켜야지 왜 내놓는다는것인가, 왜…》 하고는 격한 숨결로 쓰러졌다가 다시 머리를 들었다.

《나를 동헌으로 내놓아달라. 맥을 놓아선 안돼. 가흥을 고수해야돼, 가흥을…》

사람들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끝내 동헌의 아래방에 보료를 두툼히 깔고 거기에 누웠다.

안승우와 리필희들이 무릎을 꿇고 옆에 앉았다.

《가흥은 우리가 충주에서부터 노려오던 곳이야. 한것을 이제 차지했으면 끝까지 고수해야지 왜 내놓는단 말인가, 왜?》

그가 승우를 쏘아보며 물었다.

승우는 고개를 수긋하고 원군을 보낼수 없었던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린석은 다 듣지도 않고 거듭 격분만을 표시했다. 이제라도 빨리 원군을 보내여 가흥을 지키게 하라는것이였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의병들이 떨쳐나섰다. 우선 린석을 따라갔던 오째의 선봉부대가 앞장섰다. 뒤따라 사석의 부대에서도 나섰다. 이렇게 대오를 편성한 원군은 다음날 먼저 제1진이 가흥을 향하여 구보로 출발하였다. 뒤따라 떠나게 될 2진과 함께 적들을 역포위로 섬멸할 계획이였다.

그것을 알길 없는 백산은 초조히 미영의 소식만 기다렸다. 그것은 확실히 김백산, 자기의 불찰이였다. 미영이 혼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를 하거나 따로 전투를 조직하여 무사히 나갈수 있게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채 그날 아침 뜻밖에 울리는 총성과 없어진 미영을 보고서야 그가 말을 타고 혼자 적진속으로 달려갔다는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백산은 적과 대치한 제일선에 나가 정황을 살폈다. 조용했다. 아침해발이 퍼지면 그때부터 탕탕 총소리를 울리며 공격을 하군 하던 적들이 죽은듯 잠잠하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고요와 정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 백산은 진종일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길이 없었다.

그때 모든 의병대원들중 놈들의 기도를 알고있는 사람은 미영이 하나뿐이였다. 그가 적진에 붙들려온것이였다.

그는 군막을 나란히 쳐놓은 어느 한 마당구석에 쓰러져있었다. 심한 부상으로 정신을 잃은채 끌려왔던것이다. 그때까지도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하다가 그는 귀설게 들리는 왜말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첫 순간에 그는 자기가 왜놈의 포위를 뚫지 못했다는 분하고 괴로운 생각에 몸부림을 쳤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심한 출혈과 아픔으로 어쩔수 없었다. 게다가 파수군 한놈이 총을 메고 노상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있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났을 때 몇놈의 왜군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저들끼리 왜말로 쑹얼거리더니 문득 한놈이 그를 가리키며 물었다.

《와다나베대위, 저건 무슨 계집인가?》

그때까지도 미영은 그 왜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는데 따라 인차 조선말로 주어대는 통역의 말을 듣고 알아차렸다.

《중좌님, 조선의병대계집인데 저희들이 체포했습니다. 저 선봉장의 애인이고 그때 무기거래를 했던 군수장의 딸입니다. 저년을 교환조건으로 리용하자고 합니다. 보루와 창고를 내놓는 대신으로 돌려주겠다. …》

순간 미영은 놀랐다. 자기를 저 보루와 바꾼다는것도 놀랍거니와 그 말을 하는자가 다름아닌 무기장사군 야마무라놈이였던것이다.

이다찌, 그놈도 미영이 자주 들어서 알고있던 놈이였다. 그옆에는 흰 도포에 검은 갓을 쓴 조선사람 하나가 따라섰는데 야마무라는 바로 그를 향해 통역을 하고있었다.

《와다나베, 충주성의 교훈을 잊었는가. 조잡하게 놀지 말고 그따위 송장은 내다버려. 우린 래일 대포를 가져다 저 의병대를 박산내자고 한다. 그렇게 한 값으로 우린 저 창고의 낟알을 전부 넘겨받게 된다. 조선측에서는 의병들때문에 우리와 교섭이 안되는것을 속타하면서 그만한 값을 치르면서라도 저 폭도들을 진압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봉대만 없애면 가흥창이 다 우리거란 말이야. …》

와다나베가 허리를 굽혀 힘있게 대답하고 야마무라는 열성스레 통역을 해댔다. 그것이 고마운지 조선량반이란 사람도 갓양테를 붙잡고 몇번이나 굽신거리며 인사를 했다. 이다찌가 계속하였다.

《야마무라, 자네가 조선측과 교섭을 잘하라구. 일만 잘되면 이번에도 크게 횡재를 할수 있어. …》

그 말에 야마무라가 삽살개처럼 여기저기 붙어돌아가며 무엇인가 연신 씨벌여댔다.

이윽하여 놈들이 군막안으로 들어가자 미영은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것은 겨우 피줄이나 뛰는 정도의 미세한 격동이였으나 마음은 왜놈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분노와 의병대의 운명에 대한 근심으로 끓었다. 의병대에 빨리 소식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도 다음부터 그에게 관심하는 놈들이 없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었다. 그는 낮동안 모진 고통을 참아가면서 죽은듯 한곳에 누워있었다. 그러는 동안 날이 어둡자 이다찌는 돌아가고 병졸들은 술독에 빠졌다. 래일의 승리를 위해 야마무라가 한턱 낸다는 것이였다.

그 틈을 리용하여 미영은 은밀히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일어서 걸을수 없는 대신 기여서 한치한치 숲속을 헤쳐갔다. 그렇게 얼마간 조심스럽게 가다가 언덕이 나지면 굴기도 했다. 빨리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진 아픔도 고통도 이겨내며 앞으로 나가게 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그가 두번씩이나 죽을번 했던 마지막계선, 그 자그마한 오솔길을 넘어섰을 때 더는 움직일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반듯이 누웠다. 그러자 하얀 달이 눈에 마주쳐왔다. 언제인가도 자기를 자꾸 따라오며 앞길을 밝히던 저 달, 선봉장님은 나에게 저

달속의 월궁선녀가 되라고 했지. 영원히 변치 않는 옥토끼로 남아있으라고 했지. …

순간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디 가까이에 의병들이 있으리라는 것이였다. 그들을 소리쳐찾으려 했으나 도저히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목소리조차 울리지 않았다. 생각을 바꾼 그는 손에 잡히는 나무 한가지를 꺾어들었다. 그리고 저고리를 벗어 그우에 걸었다. 있는 힘을 다해 높이 쳐들었다. 아, 달아달아, 더 밝게 비쳐주려마…

그렇게 하고있기를 그 얼마, 깜박깜박 흐려지는 의식속에 그는 누군가 자기를 흔드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러자 하얀 달빛에 비치인 선봉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자기 코앞에서 우멍진 눈을 하고 똑바로 쳐다보고있다. 미영은 저도 모르게 솟구치는 팔을 들어 그의 목을 그러안았다.

백산이 그를 안고 진지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 그는 또 의식을 잃고있었다.

《미영이, 정신차리오. 미영인 제집에 왔소. 우리한테로 돌아왔단 말이요.》

백산이 안타깝게 찾았다. 그래도 부채살처럼 쫙 펴진 속눈섭은 아래로 향한채 좀처럼 움직일줄 몰랐다.

그렇게 얼마를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의병들이 달려왔다. 자기를 지켜 굳어진듯 쳐다보는 그들을 보자 방싯 미소가 피여났다. 무슨 말인가 하려고 입을 벌렸다. 그러나 입술만 약간 움씰거릴뿐 목소리는 도저히 새여나오지 않았다. 그때에야 백산은 그가 말도 할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것이 백산의 온몸을 피로 끓게 했다.

《미영이, 왜 이렇게 되였소. 왜 말도 없이 혼자 가다가 이 지경이 되였소?》

미영이 그에 대답을 하려고 안타깝게 모지름을 썼으나 여전히 목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의병들의 흐느낌소리가 바다물소리처럼 세차게 들려왔다. 미영이 그 모습을 둘러보다가 그러지 말라고 손짓을 하고는 백산의 손을 끄당겼다. 그리고 그 바닥우에 자기 손가락을 대고 한자한자 쓰기 시작하였다.

《래일 놈들이 포사격함. 진지완전파괴… 대신 창고식량 왜놈들이 가진다… 불사르라.》

순간 백산은 와들뜰 놀랐다. 그것은 비록 몇자 안되는 글이였지만 그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렇게도 우려했던 포사격이 마침내 진행되게 된것이다. 이것은 순수 도창무기만 가지고있는 의병대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될수 있다.

백산이 리해한것을 보고 미영이 계속 써나갔다.

《와다나베, 야마무라 군막 왼쪽에서 세번째… 놈들이 지금 술… 오늘 밤 들이치라.》 하고는 백산을 쳐다보았다. 백산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미영은 행복에 겨운듯 미소를 짓고 손을 놓았다. 자기 임무를 다했다는 최후의 안도감과 행복에서였다.

그것이 백산으로 하여금 더더욱 의기를 끓게 했다. 그는 자기에게 그렇듯 중요한 소식을 전해준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미영이, 내 이제 놈들을 기어코 복수하겠소. 야마무라, 와다나베 모두 죽이고 미영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소.》

잠든듯 눈을 감았던 미영이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백산의 손을 끄당겨 쓰기 시작하였다.

《안예요. 저는 아버지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원군을 보내지 않는… 원망스러워요. 아버지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이때에 량반상놈만 따지며 체면만 생각하는… 그래서 나라도 망친거라고…》

《미영이, 아버지를 욕하지 마오. 아버지는 량반선비의 몸으로 반일전에 나선 의병장이요. 그리고 미영의 아버지이구. 후세사람들은 아버지를 애국적인 반일의병장으로, 의로운 딸을 낳아키운 훌륭한 부모였다고 길이 전할거요.》

그러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나왔다. 그것을 씻을 생각도 않고 계속하여 써나갔다.

《고마워요. 갑오년에 처음 만났던 이후 저는 줄곧 선봉장님을 희망으로 안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몸도…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미영, 이제 조만간에 왜놈들은 쫓겨가고 나라도 편안해질거요. 그때에는 나도 미영을 잊지 않겠소. 내곁에서 떼놓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겠소.》
미영의 얼굴에 미소가 피여났다. 있는 힘껏 고개를 흔들며 눈을 깜박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산은 밖으로 나왔다. 미영이 적진에서 알아온 귀중한 자료를 실전에 써먹어야 했다. 그것이 오늘 밤, 바로 이 시각이다.
그는 급히 싸움조직을 했다. 부대의 총력량을 동원하여 적진을 들이치고 창고더미들에 불을 놓으며 혼란된 틈을 리용하여 놈들의 포위를 뚫고나가는것이였다.
그렇게 하고 다시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미영이 아까처럼 자리에 누워있는데 어쩐지 방이 싸늘하고 선뜩한 감이 들었다.
《미영이, 웬일이요? 내가 왔소, 왜 말이 없소?》
다급히 찾았으나 대답이 없다. 손을 만져보니 싸늘하다. 아까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글을 날리던 그 손이 어느새 식어서 힘없이 늘어졌다. 다른 한손은 웬일인지 입에 물려있다. 피가 랑자하니 묻어있다. 이발로 깨문 자리이다.
이것은 또 웬일인가?
옷고름이 가슴에 접혀있었다. 아까 달빛에 그렇듯 우련히 자태를 드러냈던 흰 저고리고름이다.
급히 펼쳐보니 거기에 피로 쓴 글발이 나타났다.
《원쑤를 갚아주세요!》
또 다른 고름에는 쓰다만 글줄이다.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것일가.
피눈물이 났다. 이것이 사실인가. 과연 미영이 죽었단 말인가. 그렇게도 생을 즐기며 남다른 희망을 꿈꾸며 사랑의 열정으로 가슴을 태우던 그 몸도 죽을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실이였다. 이미 피가 통하지 않는 싸늘한 몸이 그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는 세상에 없다. 다시는 정념친 그 웃음을 볼수 없고 손바닥을 간지럽히며 매끄럽게 헤염치던 그 손도 다시 잡아볼수 없다.

그는 밖으로 뛰여나왔다. 벌써 싸움준비를 갖춘 의병들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미영의 사망소식을 듣고 더구나 격분한 그들이였다. 그들을 향해 백산이 주먹을 높이 쳐들었다.

《형제들, 왜적을 반대하여 떨쳐난 의병용사들! 우리는 지금 왜놈의 손에 무참히 죽어간 한 녀인을 보고있다. 그것은 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 동포모두의 죽음이다. 복수를 하자. 우리가 한 녀인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거나 눈물만 흘린다면 간악한 왜놈들은 더 오만방자해져서 래일은 그대들의 부모처자를 죽이고 우리 동포모두를 죽이려 할것이다. 우리 대대손손이 오랑캐족속에게 눌리우고 이 땅이 영원히 오랑캐의 땅으로 되고말것이다.

복수를 하자. 그의 몸은 비록 갔어도 령혼은 우리들에게 복수의 길을 가르쳐주었다. 먼저 간 선렬들과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녀인들의 복수를 위하여, 이 나라 남아들의 애국충정과 장한 기개를 떨치며 과감히 왜놈들을 족치자!》

소리는 비록 크지도 길지도 않았지만 모든 의병들이 뜨겁게 받아안고 따라웨쳤다.

《족치자! 족치자! 족치자!》

이어서 의병들은 어둠속을 전진해갔다. 한 대오는 놈들의 군막을 향하여, 다른 한 대오는 강기슭의 창고를 향하여…

백산이 앞장에 섰다. 먼저 보초놈을 활로 쏘아눕히고 천막안에 뛰여든 그는 놀라서 달려나오는 와다나베를 단칼로 베여넘겼다. 뒤따라선 홍정식은 천막뒤로 달아빼는 야마무라의 뒤등을 창으로 들이박았다.

이러한 복수전은 천막마다에서 진행되였다. 래일의 《승리》를 자랑하며 술에 만취되였던 놈들이 불시에 들이닥친 의병들의 공격에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는것이다.

바로 이런 쾌거를 타고 창고쪽에는 불시에 불길이 타올랐다. 처음에는 한두곳에서 점점이 피여오르던 불길이 순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되여 사방에서 치솟아올랐다. 절대로 왜놈들에게 쌀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병들의 장한 기개가 그대로 불길이 되여 한알의 낟알도 남김없이 태우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놈들의 포위환이요 뭐요 하던것은 순간에 달아나고 어디로나 훤한 통로가 열리였다. 바로 그러한 기세를 탄 의병들은 미영의 시신을 앞세우고 무사히 가흥을 빠져나왔다.

8

오째를 선두로 한 원군부대는 급보로 달렸다. 빨리 가흥에 도착하여 백산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먼 원정길에서 입은 피로도 잊고 또다시 전장으로 향하게 한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로정의 절반도 가지 못해서 멈춰서고말았다. 선봉대가 가흥을 내놓고 철수해오고있었던것이다. 그것도 례사행진대오가 아니라 무슨 상여대렬을 짓고 힘겹게 마주오고있었다.

맨앞에는 시체를 실은 령구가 서고 뒤에는 복새통에 적당히 만든 몇개의 만장이 따른다. 다음에는 각색 기발과 고취악대 그리고 의병들…

몇개 안되는 만장가운데 맨앞에 선 자그마한것이 유표하다. 《T》로 된 장대기의 량끝에 녀자의 흰 옷고름이 매달려 팔랑팔랑 나붓기는것이다. 거기에 쓴 글발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원쑤를 갚아주세요!》

《아버지에게…》

순간이 지나서 모든것을 짐작한 원군부대도 말없이 대오를 따라섰다. 고인앞에서 누구인들 순종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소문은 언제나 걸음보다 빨라서 상여대렬이 들어서기 전에 벌써 읍거리에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귀신중에도 처녀죽인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누가 그를 죽였는가, 왜 죽였는가.

애타게 대답을 기다리듯 세악수들이 상사곡을 소리높이 부르고있다. 불고 때리고 뜯으며 피나게 청을 돋구고있다. 하면서 대답이 없

는 구경군들을 지나 유유히 동헌마당으로 들어섰다.

대오가 멈춰서자 앞장에 섰던 김백산이 동헌으로 뛰여들었다. 곧바로 마당을 가로질러 성큼 대뜰우로 뛰여올랐다.

그우에서 서안을 마주하고있던 안승우가 놀라 머리를 들었다. 불이 일듯 이글거리는 눈이 자기를 향하고있다.

《왜 원군을 보내지 않았는가, 왜?》

당장 물어뜯을듯 성난 기상으로 다가든다.

《왜 보내지 않았는가, 왜? 왜? 왜…》

거듭 따져묻고는 그래도 대답이 없자 옆에 찬 칼을 빼들었다. 그 번쩍이는 칼을 동헌마루가 훤해지도록 공중에서 휘둘러대고는 그대로 아래로 내리쳤다. 순간에 서안이 두쪽으로 갈라지고 종이장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안승우가 기급하여 뒤로 물러섰다가 정신을 차렸다. 이것이 웬일인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것이 아닌가. 이상하고 불안한 생각에 밖으로 튀여나갔다.

사람들이 모여있다. 온 동헌마당이 가득차도록 하얗게 운집해있다. 첫눈을 끄는것은 앞에 선 만장과 령구, 세악수들의 힘찬 상사곡이다. 애타게 가슴을 쥐여뜯으며 청을 돋구는 저 상사곡소리…

그는 만장을 더듬어보았다.

《미영씨, 그대는 의병대의 꽃이였다.》

《그대 불사신의 몸으로 적정을 알려주어 우리는 이겼다.》

《월궁에 올라 약절구를 찧는 옥토끼의 모습으로 영생하라!》

…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다. 차마 이것이 우리 미영의것이겠는가.

그런데 가느다란 장대끝에 매달린 옷고름이 유표하다. 거기에 씌여진 글발이 가물가물 안겨들었다.

《원쑤를 갚아주세요!》

《아버지에게…》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옷고름도 필적도 미영의것이 분명하다. 저 피로 쓴 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무작정 령구로 다가갔다. 우에 씌운 백포를 걷고 뚜껑을 잡아제꼈

다. 과연 미영이 누워있다. 곧바로 머리를 우로 쳐들고 아버지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으며 멍청히 뜬 초점없는 눈으로 높은 하늘을 우러르고있다. 피기없는 하얀 얼굴도 까딱 움직이지 않는데 기슭으로 밀려난 몇오리 머리칼만 바람에 하느적이고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갑자기 사지가 꽛꽛해지며 몸이 뒤틀리워졌다. 자기도 모르게 악 소리가 나며 눈앞이 새까매졌다.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붙들었다. …

린석이 의식을 차린것은 바로 그때였다. 가흥을 고수하라는 명령과 함께 원군까지 떠나보내고 다시 깜박이는 의식속에 잠들었던 그는 밖에서 떠드는 소리에 눈을 떴다. 드르릉 분합을 열었다.

마루에 백산이 서있었다. 여섯척(1.8메터) 일장검을 한손에 거머쥐고 둥근 기둥에 몸을 기대여섰다. 문이 열리는것도 알지 못했다.

《선봉장, 자네가 어떻게 된 일인가. 언제… 가흥에서 돌아왔나?》

문득 들리는 소리에 백산은 고개를 돌렸다. 마루에는 아무도 없는데 동헌안방에서 류린석대장이 보료우에 상반신을 일으켜세우고 자기를 지켜보고있다.

순간 그는 반갑고 분하고 죄스러운 감이 한꺼번에 치솟아올라 털썩 무릎을 꿇고앉았다. 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꺼이꺼이 설분이 솟구쳐올랐다.

《대장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린석에게 천만뜻밖이였다. 싸움에서는 용맹하고 일에서는 불요불굴하며 생활에서는 비관이란 모르던 선봉장에게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자네가 웬일인가. 가흥을 내놓고 왔는가?》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구실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린석은 참을수 없었다. 더는 그대로 누워있을수 없었다.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이 모양을 해놓았느냐?》

그제서야 토막난 서안을 보고 린석이 다시한번 놀라 물었다. 그러나 백산은 그에 대한 대답을 않고 당장 목쳐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말을 해, 네가 가흥을 지키라고 한 내 명령을 받았느냐?》
《무슨 명인지 알수 없으나 가흥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흥뿐아니라…》 하고는 또 목이 메여 꺼이꺼이 흐느꼈다.
린석은 더 참을수 없었다. 급히 사람을 불러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거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웬 령구를 하나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섰는데 녀인들의 애절한 통곡소리가 마당을 울리고있었다. 목갈린 상사곡소리도 청을 돋구고있었다.
그가운데 문득 안승우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앞으로 다가왔다.
《아이고, 내 딸이 죽었소. 미영이… 나에게 다시 없는 일점혈육이였던 그가 날 버리고 저 혼자 갔소. …》
아이고데이고 웨치는 소리가 그대로 살을 벗기고 뼈를 부시는듯 했다. 미영이 죽었다는 말자체가 린석에게 천만뜻밖이였고 그만큼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렇게도 귀엽게 따르며 의병이 되기를 희망하던 그가 싸늘하게 식은 몸이 되여 자기를 외면하고 누웠다. 불러도 흔들어깨워도 대답이 없는 미영이다.
《그놈이 내 딸을 죽이였소. 선봉장 그 상놈이 그 애를 꼬여 전장에까지 끌고가서는… 끝내 죽게 했단 말이요. …》
안승우가 여전히 정신나간 사람처럼 넉두리를 엮어댔다. 그것이 더더욱 린석의 가슴을 찢는듯 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후회막급하다 하여도 어쩌는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것이다.
미영을 땅에 묻고 제사를 지냈다. 원래 부모보다 앞서간 자식은 봉분조차 세우지 않는다 했지만 그에게만은 모든 절차를 다 지켜 성의껏 장례를 치르게 했다.
그러나 승우의 슬픔은 조금도 가시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정신나간 사람처럼 린석의 앞에서 넉두리를 계속해댔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미영이 없는 세상을 제가 살아서 무엇하며 살기는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
선봉장, 그가 내 딸을 죽였소. 비천한 그 상놈이 홀아비의 품에서

고이 자란 내 딸을 꾀여내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까워지는것을 반대했고 전장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것을 끝내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그가 왜 갔는지 압니까. 가사나 돌보고 부모의 말이나 고분히 따라야 할 계집의 몸이…》

지금껏 저 혼자 중얼거리며 울분을 토하던 승우가 눈물을 거두고 갑자기 린석에게 돌아섰다.

《그것은 대장님때문입니다. 대장님을 믿고 오만해졌습니다. 계집들이란 믿을데만 생기면 인차 오만해서 못쓰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장님은 노상 그의 켠만 들어주며 둘이가 가까워지기를 바랐지요. 일에서나 둘사이문제에서나 대장님은 매번 선봉장만 옳다고 하면서 그만을 지지해주었습니다. 같은 량반이며 선비인 저를 무시하고…》

지금껏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같이 슬픔에 잠겼던 린석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승우,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자네를 무시하고 백산의 켠만 들다니?》

《그에 대해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도 저대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죽이든가 백산을 죽이든가 둘중의 하나만 택해달라는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딸을 죽게 한 저놈과 한 의병대에 같이 있을수 없습니다. 만약 그를 죽일수 없다면 제가 의병대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죽든가 리린영이네들을 찾아가든가, 다음일은 저도 책임질수 없습니다.》

《승우, 우린 사사를 돌보지 말고 배반하지 말며 필사를 각오하고 왜놈과 싸우자고 하늘에 맹세를 다진 사람들이야. 그쯤한 일에…》

《그쯤한 일이라구요? 그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대장님에게는 그쯤으로밖에 안 보입니까. 이제 또 상놈의 켠을 들어 나를 마저 죽이자 하는것입니까?》

린석은 입을 다물었다. 하자고 해도 억이 막혀 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당치도 않은 말이였다. 그럼에도 듣고보면 할말이 없었다. 이제 다같이 싸우자고 할수도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이제 또 다투라는 말로밖에 될수 없기때문이였다.

끝내 할말을 찾지 못한 린석은 그를 외면하고 백산을 불러대였다.
《말을 하게. 이제 어쨌으면 좋겠나?》
린석이 엄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대장님, 저는 이미 다 말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구실을 못한 놈입니다.》
순간 린석은 두손으로 백산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이 부대엔 몽땅 죽일 놈들뿐이냐? 왜 마음을 합쳐 함께 싸우겠다고 못하고 죽음만 청하는것이냐?》
《저는 한 녀자의 사랑도 받아줄수 없었고 생명도 지켜주지 못한 졸장부입니다. 죽어마땅합니다.》
《그게 너의 진심의 소리냐? 나는 너에게 죄가 없다는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중군장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 어쨌든 그는 딸을 잃은 아버지가 아니냐?》
《아니, 저는 사죄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를 그냥 놔준다면 다시 그를 향해 칼을 빼들것입니다. 원군을 보내지 않은 그 원한을 담아서… 그 참혈이 일기 전에 저를 죽여달라는것입니다.》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났다. 소문을 듣고 선봉대원들이 달려온것이였다.
《선봉장을 건드리지 말라. 그에겐 죄가 없다.》
《미영을 죽게 한것은 그 아버지다. 왜 원군을 보내지 않았는가?…》
파수군들이 막아섰으나 막지 못했다. 막 안으로 쓸어들려고 할 때 백산이 다가갔다.
《형제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래선 안된다. 우린 왜놈과 싸우자는것이지 조선사람끼리 싸우자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에 대해선 조금도 근심말라.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것이다. …》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일단 물러갔다. 그러나 그것은 린석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백산을 절대 다쳐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그것은 린석이 이미부터 해온 생각이기도 하였다. 백산이 없는 의병대를 생각이나 할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승우의 마음을 돌려세울수도 없다. 딸을 잃

은 아버지의 설음을 어느 누가 알수 있으며 대신해줄수 있단 말인가. 그만큼 그를 나무람할수도 없다. 하기만 하면 그는 제가 청했던것처럼 기필코 죽자고 할것이다. 그의 곡한 성미에 그렇게 하고야말것이다. 좋게 보아서 부대를 떠나자고 할것인데 그때에도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태반의 유생의병장들이 그의 뜻을 따른것이기때문이다. 즉 창의대장이 궁극적인 시기에 자기네 유생량반의 켠을 들지 않고 상놈의 켠을 들어주었다며 등을 돌려댈것이다.

그것은 곧 의병대의 분렬을 의미한다. 다음부터 자기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생각을 굴리던 밤이다.

뜻밖에도 백산이 찾아왔다. 허리에 호로병까지 하나 차고 와서 잔에 술을 따랐다.

《창의대장님의 심중을 리해합니다. 아울러 대장님이 언제나 저를 믿어주었고 매번 저의 켠을 들어주었다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저의 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청인가. 선봉장을 위한 일이라면 쾌히 응하겠네.》

《마시십시오. 그다음에 말하겠습니다.》

《말을 하게, 들어줄만 하면 마시겠네.》

백산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먼저 제앞의 잔을 들어 꿀꺽꿀꺽 마시였다.

《저를 부대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천반일의병대를 구원할수 있는 길은 그 하나뿐입니다.》

순간 린석의 눈살이 꼿꼿해졌다. 그때까지 손에 쥐고있던 잔을 와락 백산의 앞으로 밀어던졌다.

《내가 그럴줄 알고 잔을 들지 않았다. 당장 가지고가라. 그따위 수작이나 하자고 술병을 들고다녀?》

그러나 백산은 태연히 떨어진 잔을 들어다 다시 술을 따랐다.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대장님앞에는 중군장이냐 선봉장이냐 하는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 할 중임이 나서고있습니다. 대장님은 절대 그 둘을 다 한품에 끼고있을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둘을 다 죽일수도 없을것입니다. 저도 비록 청하기는 했지만 죽이지 않을것입

니다. 그만큼 방도는 명백합니다. 제가 부대를 떠나는것입니다.》
《가긴 어디로 가? 자네의 선봉대가 없는 제천반일의병대를 생각이나 할수 있는가. 이건 내가 아니라 제천반일의병대전체가 반대하는것이야.》
《대장님, 저는 제가 떠나겠다고 했지 선봉대가 떠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저 하나에 한한 문제입니다.》
린석의 눈살이 다시 굳어졌다. 그의 말이 이제야 리해되였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다. 과연 그가 자기 부대를 버리고 어디로 떠날수 있단 말인가.
《괜한 소리, 자네가 부대에 들인 피와 땀이 얼마이구 정인들 얼마나 깊이 스며있기에 훌쩍 버린단 말인가. 내가 하라고 해도 자네가 하지 못할걸.》
《저도 그때문에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병대를 위해서, 왜놈과 싸움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나 하나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견디면서 의병대를 건재하게 할수 있다면 그것은 백번이라도 그렇게 하는수입니다.》
마침내 린석은 잔을 들어 단번에 쭉 들이켰다. 그리고 와락 백산을 그러당겨 품에 안았다.
《이 사람, 자넨 어쩌면 그리도 사려가 깊은가. 고맙네, 내가 그 말을 따르지. 하지만 이것은 내가 어쩔수없이… 정황이 그런만큼 당분간 응할뿐이네. 부대의 운명을 위해서… 그러나 조만간 다시 나를 찾아오겠다는 약속만은 해야 해.》
《저 역시 대장님을 잊을수 없습니다. 때로는 대장님을 저의 친부모처럼 가깝게 의지하고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도 하게 된것입니다.》
그것이 두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다시 만날 결심도 더 굳게 다지게 하였다.
이렇게 백산의 결심은 그대로 실행되였다. 자기의 선봉대를 버리고 떠난다는것이 죽기보다 괴로운 일이였지만 의병대가 처한 운명과 류린석창의대장의 처지를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하여 그는 아직 미명인 어뜩새벽에 누구도 몰래 병영을 빠져나와 종

적을 감추었다. 그때까지는 자신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고 그만큼 누구에게 행적을 밝힐수도 없었다.

그것은 린석에게 말할수 없는 실책이였다. 그 운명적인 시각에 부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알수 없는 그의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선봉장이 없어졌다, 우리 대장이 보이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느냐, 간곳이 어디냐?… 그 어뜩새벽에 벅적 소동이 일었다. 의병들이 저마다 뛰여다니며 있을만 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다. 나중에는 미영의 무덤에까지 가보았다.

뜻밖에도 거기에서 백산의 행적을 짐작케 하는 흔적을 찾아냈다. 미영의 유서가 적힌 옷고름이 있었던것이다.

《원쑤를 갚아주세요!》

《아버지에게…》

그 옷고름이 그날 만장의 앞장에 세워졌던 모습그대로 미영의 무덤앞에 꽂혀있었다. 백산이 남모르게 건사했다가 작별인사로 거기에 꽂아놓고 간것이다.

하다면 그가 간 곳이 어디겠는가. 구태여 미영의 피묻은 글발을 여기에 세워두고간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모두가 짐작했다. 백산이 더는 부대에 있을 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몸을 피한것이다. 하면서도 미영에 대한 정을 잊을수 없어 그가 품었던 원쑤 왜놈에 대한 분노와 아울러 아버지에게 다하지 못한 마지막말마디를 풀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발을 여기에 세워놓았을것이다.

그것을 안 그들은 다시 동헌으로 향했다. 오쨰, 정식이들이 글발을 앞에 들고 뒤에는 선봉대원들이 따랐다.

그때까지도 린석은 그것을 몰랐다. 알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겨내며 동헌으로 나왔다. 어쨌든 대장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필요한만큼 위의는 갖추어야 했다. 동헌에 틀고앉아야 했다.

안승우도 나왔다. 역시 그가 끌어냈던것이다.

그런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났다.

《대장과 중군은 나오라. 담판할것이 있다!》

《대답을 똑바로 안하면 동헌을 들부시겠다!》
듣기부터 오싹 소름이 끼쳤다. 가슴이 철렁했다.
사람을 시켜 그들을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대답조차 여느때와 다르다.
《우리는 더는 량반의 노복이 아니다. 뜰아래에 굽혀서서 머리를 숙일수 없으니 밖에 나와서 동등하게 마주서자.》
하는수없이 나갔다. 선봉대를 비롯한 의병대원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있었다. 그 맨앞에 오쨰와 정식이들이 서있었다.
《우리 대장이 어디 갔는가, 어떻게 했는가 말해주시오.》
오쨰가 말했다. 수많은 눈총들이 린석을 향해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다. 이제 그들은 벌써 상하나 반상의 차이를 초월한 대등한 립장들이였다.
《그는 떠나갔소. 자기가 부대에 있으면 기필코 싸움이 난다며… 처음에는 자기가 죽을것을 바랐지만 그것은 더 큰 환난을 초래한다며 떠나갔소.》
《당신이 그에게 명령했지, 부대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갔을거요. 그만큼 그는 가흥싸움과 미영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끼고있었소.》
《가흥싸움이라구요, 미영의 죽음?…》
문득 옆에 서있던 홍정식이 나섰다.
《대장님, 중군장님, 이 글을 보십시오. 이것은 미영씨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쓴 글입니다. 여기에는 왜놈에 대한 증오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피의 절규가 담겨져있습니다.… 선봉장이 책임을 느꼈다구요? 물론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흥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미영까지 죽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군장에게 있습니다. 원쑤들의 자그마한 간계도 알아보지 못하고 딸의 운명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며 끝내 원군을 보내지 않은 그 비렬한 행동이 가흥도 딸도 다 잃게 했단 말입니다.》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제서야 처음 보는듯 옷고름에 눈을 주었다. 물론 처음이 아니였다. 몇번이나 본듯 했다. 하면서도 관심하지 않았다. 한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관심할 겨를이 없었다.

한것을 이제 처음인듯 다시 보니 너무도 격하고 억이 막혔다. 그것을 덥석 안고 품에 가져갔다. 딸의 피줄인듯 자기에 대한 원망인듯 가슴이 터지도록 요동을 했다. 그가 살아일어나 《아버지—》 하고 부르며 잘못을 따지는듯 했다. 그것이 더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대장은 오해했소.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량반의 켠을 들어 선봉장을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뭔가 무사하리라 생각한것이 어리석었소. 그리구두 대장이라구?

이제는 우리가 가겠소. 김백산의병장을 따라 우리도 가겠단 말이요. 이름있는 량반님네들끼리 잘 싸워보시오.》

오쨰가 말하였다. 그러자 군중속에서 힘찬 웨침소리가 그에 호응하였다.

《우리도 가자. 김백산대장을 따라가자!》

《가자, 우리는 이제 더는 제천반일의병대가 아니다. 김백산대장을 찾아 모두 앞으로!》

수많은 창과 칼, 기발이 하늘로 치솟아오르며 군중이 설레이였다.

순간 린석은 갑자기 몸이 떨리고 맥이 쑥 빠지는것을 느꼈다. 너무도 뜻밖에 급진적으로 일어난 일이여서 사태를 짐작도 수습할 사이도 없었다. 아니, 하자고 한들 그들이 이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설것인가. 이미 등지고 돌아선 자기를 바라고 다시 모여들겠는가.

그들은 당당히 떠나간다. 자기의 실수로,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후과를 참을수 없어 떠나간다. 하다면 이제 그것을 순간의 실수라고만 할수 있겠는가.

린석은 자기가 늘 창칼을 잡은 의병들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 그들을 위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의병장들에게 가있었고 그들에 의하여 싸움의 승패도 결정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만큼 그의 대부분 격문이나 호소들이 다분히 궁중의 고위관리들, 지방의 장관들이나 토호아전들을 대상하고있었다. 이것은 태반의 의병을 이루는 농민이나 그 계층의 평민들, 하층 빈민들은 제외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그는 백산이 부대를 떠나가겠다는 의견을 제기할 때 그의 뒤에 서있는 의병들을 생각지 않았다. 무엇보다 백산이자체를 깊이 생각지 않았다. 그는 량반이 아닌 평민출신 의병장이다. 이것은 누

구의 잘못을 론하기 전에 량반 대 평민이라는 견해부터 앞에 서게 한다. 이때 창의대장의 립장이 어떤가. 누구를 지지해줄것인가?

바로 이러한 때 린석은 량반의 립장에 섰다. 그것이 비록 백산의 의견을 듣고 처리한 일이라 해도 결과는 같다. 백산은 오직 부대의 안녕을 위하여 부대를 떠나가겠다고 했을뿐이지 잘못은 없다. 한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훌쩍 그 의견에 동의함으로써 은연중 백산을 버리고 승우를 지지한것으로 되여버렸던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았던가.

명백히 그렇다. 일이 터진 다음부터 그는 시종 승우를 옹호하는 립장에서 그가 범한 오유와 실책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는 딸을 잃은 승우에 대한 동정도 없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량반의병장이라는 옹호와 지지가 시종 지배하고있었다. 바로 그것이 백산의 제의를 선뜻 받아물게 하였던것이다.

잠간 생각을 하는 사이에 그 많던 의병들이 간곳없이 사라졌다. 남은것은 자기와 안승우, 리필희 그리고 여기저기 드문히 서있는 몇사람뿐이다.

문득 그들곁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홍정식이네 서울패들이였다.

《대장님, 저도 가겠습니다. 백산형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고 싸움을 배워준 선생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영원히 외토리로 남게 될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량반상놈만 따지며 살 세월이 아닌것 같습니다.》 하고는 꾸벅 인사를 한채 종적없이 사라졌다.

후에 알고보니 사석의 부대도 떠나갔다. 필희의 부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소식을 들은 린석은 무릎을 때리며 꺼이꺼이 눈물을 흘렸다. 자기가 그렇게도 값없고 무기력한 존재인줄을 몰랐다. 의병들에게 그렇듯 신용없이 한순간에 배척당할줄 미처 몰랐다.

자기로서는 있는 힘껏 왜놈들을 미워했고 끝까지 싸움도 하자고 했건만 왜 자기를 버리고 달아났는가. 그들도 결국 왜놈과 싸우자고 모여왔었고 지금도 싸우자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순간에 마음들을 돌려 사라지고마는가. 모두 어디로 갔

는가.

그럴수록 백산과 같은 평민출신의 의병장, 의병의 절대다수를 이루고있는 평민들에 대하여 자신이 너무도 무관심했고 뭔가 부족했었다는 쓰라린 자책과 후회가 더욱 고패쳤다. 실상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도 의병의 대부분을 이루는 평민들을 어떻게 한다는 방략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들이 피로써 나라를 지켜낸다면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것인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것인지 하는 방도는 더구나 없었다. 바로 이것이 의병들로 하여금 린석을 믿을수 없게 하였고 가장 긴요한 때에 백산을 밀쳐낸 그를 가차없이 차버리게 했던것이다. 그도 역시 량반이라고…

그러나 그때 린석은 그것을 다 알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의 불찰과 아차하는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괴로움에 모대길뿐이였다.

9

…류린석의병장각하.

이렇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돌이키면 우리는 이미 구면인데 매번 좋지 못한 때마다 만나군 하였습니다. 당신이 충주나 가흥을 일시 차지하기는 했지만 나는 매번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가흥에서 당신네가 와다나베와 야마무라를 죽이고 창고를 불지르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닥 큰 손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듣자니 이번에 귀측에서 선봉장이하 많은 사람들이 부대를 떠나갔다고 하는데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린 바로 그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천에 대한 만단의 공격준비가 되였습니다. 어떻게 하겠는지?

청한다면 우리는 의병대의 생명도 재산도 고스란히 담보해줄수 있습니다. 요컨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손을 들고나오면 다 용서해줄뿐아니라 친구로서도 맞이해줄수 있다는것입니다.

이 최후의 관용을 선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후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책임질수 없습니다.

조선주둔 일본군《토벌》대장 이다찌중좌

구학산고개에 나가있는 파수들이 받아온 이다찌의 최후통첩이였다.

그것을 읽고난 린석은 그놈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다찌, 네놈이 검질기게는 뒤쫓는구나, 끝까지 해보자, 나 역시 용서치 않을테다. …

했으나 무엇으로 어떻게 그놈과 맞서겠는지는 알수 없었다.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던것이다. 있다면 천연의 요새로 되여있는 학고개와 구학산고개를 지키는것인데 거기에 있던 대부분 의병들이 떠나갔다.

그러나 어쨌든 제천을 지켜야 했다. 의병이 여기 제천에서 처음 일어났고 전국에 싸움을 호소하지 않았던가. 이다찌에게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싸움준비를 다그쳤다.

이때에 이르러 이다찌는 마침내 공격에로 나왔다. 형세는 저들에게 극도로 유리했다. 충주성을 이미 차지한데다가 뒤통수를 겨눈 총구처럼 자기들을 위협하던 가흥의 선봉대도 없어진것이다. 이제는 오직 제천 하나에만 력량을 집중하면 되였다.

그들이 타산했던것처럼 제천으로 향하는 두 고개에는 방어력량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을 알아차린 놈들은 멀리서부터 총포사격을 가해왔고 대부대의 력량을 산고지로 올려밀었다.

천연의 요새로 굳게 믿었던 학고개와 구학산 두 고개는 적아간의 치렬한 격전장으로 변했다. 봄내 가물었던 산고지들에 불이 당기며 온 산판이 화염에 휩싸였다. 그런 속에서 의병들은 마지막조총탄과 화살을 날리며 창칼을 비껴들고 돌진해나가다가 하나하나 죽어갔다. 마침내 적들은 텅빈 고지로 기여올라와 제천에 대한 다음번 공격좌지를 차지할수 있게 되였다.

사태가 그렇게 번져갈것을 예견하고있던 의병들은 모두 창칼을 비껴들고 고을밖으로 나갔다. 거기서 강이나 숲을 끼고 최후결전을 벌리자는것이였다.

린석도 활을 메고 나갔다. 한옆에는 칼을 찼다. 화살도 날릴수 없게 될 때에는 칼로 마지막 한놈이라도 찍고 자기도 죽자는것이였다.

그것은 최후의 결사전이였다.

생각을 할수록 가슴이 터지는듯 하였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렇듯 죽음을 몰아온 자신에 대한 원망에서였다. 이제 결사전을 한댔자 그것은 왜놈에 대한 복수의 몇분의 하나도 되지 않을것이였다.

놈들은 그런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단병접전을 피하고 산고지우에서 읍거리에 대한 집중사격전술을 썼던것이다. 놈들이 쏘아대는 기관총과 보총의 일제사격이 읍거리를 들었다놓았다.

골안을 들부시듯 뚜루룩 땅땅거리는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밖으로 튀여나오다가 영문모를 총탄에 맞아 무리로 쓰러졌다. 순간에 하얀 시체들이 골안에 널렸다. 여기저기 집들에 불까지 달렸다.

그때까지 결사전을 각오하고 변두리로 나갔던 의병들이 놀라서 돌아섰다. 그들로서는 예견치 못했던 일이였다. 역시 원거리사격으로 의병들을 제압하기 위한 놈들의 전술이였던것이다.

《안되겠소. 사람들을 빨리 피신시키고 우리도 자리를 떠야 하겠소.》

한동안 당황했던 린석이 승우네들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가슴이 아프지만 할수 없었다.

《제천을 내놓아야 한단 말입니까?》

《사태가 어쩔수없이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고있소.》

린석이 힘겹게 말했다. 내심으로는 그보다 더 큰 불안이 비껴들고 있었다. 의병대가 더이상 견디여내기 힘들것이라는 그나름대로의 예감이였다. 이제 여기에 그냥 틀고앉아 저 산우에서 퍼붓는 철의 소나기를 피할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그들은 자리를 떴다. 인명의 손실이라도 되도록 적게 내기 위하여 빨리 읍거리를 빠져나가자는것이였다.

대부분의 주민들도 비록 처음에 놀라기는 하였으나 점차 머리를 정돈하고 산으로 올랐다. 그속에서 린석도 자기를 잃지 않고 여기저기 뛰여다니며 사람들을 피난시키다가 마지막에야 산으로 올랐다. 그가 바로 산골짜기로 잡아들 때 승우를 비롯한 몇사람이 마주

내려왔다.

《저… 부인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우가 불안이 어린 소리로 말했다. 마을에서는 함께 떠났는데 산에 올라와보니 없다는것이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로친이 또…)

불안한 예감이 뇌리를 쳤다. 무작정 돌아서 다시 읍거리로 향했다. 여느때에는 그렇게 하리라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이였다.

거리에는 여전히 총포탄이 울부짖고 집들이 불타고있었다. 그 사이를 누비며 리씨를 찾았다. 그러나 리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객사로 달려갔다. 리씨는 거기에도 없었다. 늘 쓰던 그릇깨비며 약탕관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리씨가 가지고 떠났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하다면 그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또다시 그를 찾아헤맸다. 그러다가 무너진 어느 한 집근처에서 무춤 걸음을 멈췄다. 몸에 익은 약냄새가 코를 자극했던것이다. 씁쓸하면서도 향긋하고 구수한 맛이 나는 십전대보탕냄새였다. 그것이 여기 어디에 리씨가 있을것이라는 예감을 자아내게 했다.

그리하여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하였다. 하다가 그만 한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안해가 무너진 지붕아래에 깔려있는것이 보였던것이다. 의병들이 달려와 그 지붕을 벗겨냈다. 그러자 안해의 모습은 더욱 완연히 나타났다. 한손에는 약탕관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그릇깨비들을 꽉 끼고 모로 누워있는것이였다. 총탄이 바로 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었다.

순간 린석은 갑자기 자기가 그 총탄을 맞은듯 한 아픔에 꺼이꺼이 흐느꼈다.

《여보, 여보―》

그는 소리쳐불렀다. 그러나 말은 한마디도 새여나오지 못하고 가슴속에서만 소용돌이를 하였다. 품에 안은 약탕관과 그릇들을 꺼내려 하였으나 팔에 꽉 끼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이 더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여보, 이게 무슨짓이요. 제 몸부터 빨리 피할것이지 이것들이 무

엇이라고…》

말을 안했고 할수도 없었지만 그가 어쩌다 이렇게 되였을것이라는 광경이 주마등처럼 눈앞으로 지나갔다.

아마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놈들의 첫 총포성에 놀라 갈팡질팡하다가 산으로 올랐을것이다. 그러다 이런것들이 생각나 다시 내려와 꼭 필요한것들을 품에 안고 뛰다가 적탄에 맞았을것이다. 거기에 집마저 무너지며 그밑에 깔리였을것이다.

그 깨여진 약단지가 여기에 딩굴고있다. 거기서 풍기는 약냄새, 약냄새…

약탕관이 쓰러진 시체나마 찾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까짓 약탕관이나 그릇깨비들이 무엇이라고 가던 길을 돌아설것은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당신을 그런것들과 바꾸기를 바라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러나 아무리 애타고 쓰라린 후회도 욕망도 리씨를 다시 일궈세우지는 못했다. 누워서나마 자기를 살풋이 쳐다보며 무엇인가 훈시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 그 뜻밖의 잔소리나마 이제 다시 들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러나 들을수 없다. 그럴뿐아니라 검질기게 뒤따르는 이다찌의 추격을 피해 주변의 산속을 끊임없이 헤매였다. 며칠만에야 이름없는 어느 한 산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것이 원쑤왜놈, 특히 이다찌에 대한 분개심을 배가해주었다. 제집과 땅을 곁에 두고 이런 산속에 배겨있게 되였다는 분노와 반발심이였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는것이 또한 그의 처지이기도 하였다.

안승우가 그를 찾아왔다.

《대장님, 이제라도 저를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된것이 다 저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때 백산이 칼로 나를 베여죽이고 그가 부대에 남아있어야 할것이였는데…》

《중군장, 가만히 있게. 그렇지 않아도 아픈 이 가슴을 자꾸 허비여놓을텐가?》

린석이 격해서 소리쳤다.

그것은 진심이였다. 백산을 떠나보내놓고 시종 그 후회속에 사는 린석이였던것이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뒤따라 흩어져간 의병들

은 다 어디로 갔는지. 생각같아서는 이제라도 달려가 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싶다. 함께 싸우자고 피타게 호소하고싶다. 그러나 할수가 없다.

《그러고보면 그 딸년이 오늘을 내다보기라도 한것 같습니다. 고것이 기어코 선봉장을 끄당겨 제사람이 되게 하자고 했던것인데… 그래서 이 아비에게도 마지막원망을 남기게 된것이였지요.》

《중군장, 때를 놓친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네. 이제라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살아야 돼. 어떻게든 원쑤갚을 생각을 해야지. 그게 미영의 마지막부탁이야.》

이렇게 소리를 쳤지만 방도가 없다. 또다시 놈들의 추격이 시작된것이다.

그들은 높은 산등성이에 올랐다. 다음은 넓은 개활지대이다. 피할데가 없다.

모두 결사의 각오를 하고 싸움준비에 달라붙었다. 얼마 남지 않은 화약과 화살들을 장비하며 놈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총탄이 날아왔다. 귀청을 째며 나무가지를 후려갈기고 바위들을 앙칼지게 물어뜯었다. 골짜기를 들부셨다. 그래도 대답이 없는 의병들을 향하여 놈들이 기여들었다. 숲속에서 벌레의 무리처럼 우글거리며 한치한치 다가들었다.

땅— 마침내 린석이 첫 화승총알을 날렸다. 몇놈이 쓰러졌다. 또 몇방의 총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연약하고 외로운 소리였다. 놈들은 여전히 기여든다. 아득바득 다가든다.

모두 손에 창칼을 쥐였다. 최후의 결사전이다. 그렇게 오래동안 벼르며 기다려온 마지막시각이 다가온것이다.

바로 그때 저 산릉선 어디선가 난데없는 총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와와 만세를 웨치며 달려오는 함성도 들렸다.

그러자 놈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빼들었던 총창도 거두고 저마다 돌아서 아래로 내빼기에 바빴다. 그뒤를 의병들이 따랐다. 창칼을 비껴들고 달려가며 닥치는대로 후려갈겼다. 그리하여 넓은 골짜기에 한놈의 적들도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마주달려온 사람들을 보았다.

의병들이였다. 자기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무기를 든 의병부대였다. 그중 한사람이 린석의 앞으로 달려와 인사를 했다.

《창의대장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령남의병장 서상렬 인사를 드립니다.》

린석은 깜짝 놀랐다. 서상렬이라니,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단 말인가.

《맞구만, 분명히 서대장이야. 자네가 분명…》

꽉 붙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너무도 꿈만 같고 신기했다. 어쩌면 지금같이 위급한 때에 마치 알고나 그랬던것처럼 불시에 나타날수 있단 말인가.

《대장님을 찾아 제천으로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총소리가 나기에 달려왔는데 이렇게 때맞춤이였군요. …》

인사가 끝나자 상렬이 대답했다. 그것이 린석의 의혹을 더 자아냈다.

《제천에는 어떻게? 자네야 서울공격을 목표로 하고있지 않았나. …》

《그럴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공격은…》

상렬이 설명했다.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그때 선유사란 사람이 내려와 의병투쟁을 그만둘데 대하여 설유를 하였다. 거기에 대장 박준영이 공감함으로써 내부분렬이 조성되였다. 참모 서상렬이 완강히 반대하였던것이다. 그를 이길수 없었던 박준영은 한밤중에 성문을 열어놓아 관군이 무난히 입성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여 오래동안 준비해오던 서울공격기도는 파탄되고 상렬은 싸움을 주장하는 의병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왔다. 그때 마침 제천반일의병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여 그리로 가던 길이라는것이였다.

《결국 서울공격이라는 거사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내부의 알륵으로 파탄되고말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또 한번 커다란 교훈으로 되였습니다. 우리가 왜놈과 싸우자면 무엇보다 마음부터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것입니다.》

《잘 알았네. 나도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쓰라린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을 놓고 생각이 많았네. …》

린석이 이야기하였다. 백산을 떠나보내놓고난 이후의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다.

말을 듣고나자 상렬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대장님, 복수를 합시다. 이제 당장 그 싸움을 조직합시다. 제천을 탈환하고 이다찌도 잡읍시다.》

그가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아닌게아니라 당장 일을 칠듯 한 기상이였다. 그것이 서상렬에 대한 믿음과 고마움으로 차넘치게 했다. 그의 크고 꽛꽛한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피줄인양 몸에 흘러들며 자기이상 높이 우러러보이기도 했다.

《고맙네, 진정… 이제부터는 자네가 부대의 일을 맡아주게. 당장 싸움도 그렇고… 나는 더이상 부대를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대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것입니까. 지금은 모든 힘을 다하여 왜놈과 싸울 때입니다.》

상렬이 놀라서 반문하였다. 그러나 린석은 이미 빠진 좌절감에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나는 대장감이 못되는 사람이야. 아까운 사람들을 잃고 제천까지 빼앗기고… 김백산이만 곁에 있었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걸세. 한것을 떠밀듯 부대를 떠나라고 했거던. 거기에 다른 사람들까지 따라설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나. …》

《대장님, 뜻만 변하지 않는다면 산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만납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그가 떠날적에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나. 저는 잘못한것도 없이 오직 부대를 온건히 보존하자고, 자기때문에 내부싸움이 일지 않게 하겠다고 조용히 떠나갔거던. 한것을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따라갔지. … 확실히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대장님은 아직도 그 말씀입니까. 그것이 복수를 다지는 이 시각에 채택하신 결심입니까.

자격이 없다구요? 하다면 선생님이 전국에 거듭하여 날린 격문과 호소, 시문들은 어떻게 리해해야 할가요. 그리하여 전국이 떠들썩하게 들고일어난 의병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는것입니까. 그리고 제

천에 이어 충주와 가흥까지 타고앉았던 공적은 누구에 의한것이였습니까?》

《하지만 이제 와선 그 모든것들을 다 내놓지 않았나. 어쩔수 없이… 그게 바로 나란 사람이야.》

그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지금까지 마음속으로만 후회되던 그 모든것들이 상렬을 만나자부터 터져나왔다.

그러나 실상 그때 린석이 후회할것은 그것뿐이 아니였다. 사실 당시의 린석은 많은것을 모르고있었다. 의병투쟁에 대한 자기식의 뚜렷한 일가견이 없었던 사실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가 일단 싸움에 나서자고 전국에 격문을 보내고 호소를 했으면 응당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지휘했어야 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도처에서 일어난 의병들을 지켜만 볼뿐 서로 련계를 맺고 공동의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가 이렇게 싸우고있으니 너희들도 같이 일어나 싸우라는 식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호소에만 매달렸을뿐이다. 이 커다란 실책의 뒤에는 임금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굴종, 온 나라의 투쟁을 지휘하기 위한 정신적지주의 결여, 군사지휘능력의 부족, 낡은 봉건적신분제도에 의한 구태의연한 예속,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무자비한 탄압 등 허다한 조건들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린석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수도 없었다.

서상렬도 알지 못했다. 그가 안것은 린석이보다 앞선 군사지식과 이미 실패한 경험에서 찾은 교훈뿐이다. 하기에 그는 말했다.

《대장님, 사람은 먼길을 에돈 다음에야 비로소 바른 길을 찾는다고 했지요. 이것은 실패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것을 말해주는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길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떠나간 사람들의 원한이야 어떻게 하겠나.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였거던.》

《세상 떠난 사람들은 어쩔수 없지만 산 사람들은 꼭 만나게 됩니다. 두고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다시 찾아와 대장님을 떠받들 때가 꼭 있

을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때입니다.》
상렬이 마치 그때를 눈에 보기나 하는듯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10

마침내 제천에 대한 공격준비가 완성되였다. 그 준비를 서상렬이 맡아하였다. 이번에 저 왜놈《토벌》대를 격멸하고 이다찌놈까지 처단하여 그간 의병대가 입은 손실을 기어이 받아내자는것이였다. 다음부터 린석은 내내 가라앉지 않는 흥분속에 떠있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천을 공격하면 반드시 고을이 불탈터인데 놈들을 밖으로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놈들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겠는지 그것이 걸려있습니다.》

상렬이 말하였다.

문득 얼마전 이다찌가 자기에게 보냈던 최후통첩이 떠올랐다. 그때 답답하고 울분에 찼던 심정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이렇다 하게 할말이 없어 속으로만 묵새기며 대답을 못했던것이다.

이제 그 대답을 쓰자. 그것으로 그놈을 기어이 끌어내여 복수를 안기자.

그렇게 생각한 그는 즉시 서안을 마주앉았다.

《그 일을 나한테 맡기게. 내가 끌어내지. 기어코 끌어내고야말겠네.》 하고는 붓을 날렸다.

왜놈《토벌》대장 이다찌에게

너 이다찌에게 알린다. 일전에 네가 나에게 싸움을 청하며 항복을 요구할 때 강약의 부동으로 일시 제천을 내놓고 철수한적이 있었다.

오늘 그때 하지 못했던 회답을 보내며 너에게 싸움을 청하는바이다.

생각컨대 나와 너는 일찍부터 개인적인 원쑤였고 언제이든 맞붙어

결판을 내여야 할 적이였다.

그사이 네가 우리 사람을 많이 죽이였고 나도 네놈의 종자들을 적지 않게 죽이였다. 이로써 우리사이는 사적으로뿐아니라 도저히 풀수 없는 국가간의 원쑤로 되였다.

너희놈들은 바다 한구석에 처박힌 섬나라족속으로서 일시 분수에 넘치게 강해진것을 믿고 오만하고 파렴치하기 그지없어졌다.

대체 나라가 나라로 되게 하는것은 륜리와 도덕, 신의가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너의 나라는 안으로 부자군신간에도 신의가 없이 서로 물고뜯고 살륙을 하며 밖으로는 이웃나라들을 마구 침범하고 강탈하며 그 간악하고 흉악무도하기가 이를데 없다. 나라는커녕 오랑캐나 금수란 말로써도 미처 표현할수가 없으니 어찌 그 죄상을 다 렬거할수 있겠는가.

내 우리 겨레의 순결한 도덕과 의리로써 너희의 그 간악무쌍한 무리를 무찌르자고 일어났던바 오늘에 와서 너와 결산을 하자는것이다.

나에게 필요한것은 너의 그 머리이다. 조선을 승진과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너의 욕망대로 그 머리를 잘라 섬나라에 보내서 이다찌중좌의 공적을 길이 전하도록 하자는것이다. 떨지 말고 꼭 접전에 응하라. 장소는 금곡산자드락이며 날자와 시간은 병신년 3월 ×일 오시(오전 11～12시사이)로 한다.

제천반일의병대장 류린석

다 쓰고 상렬에게 넘겨주었다.

상렬이 그것을 읽어보고는 흐뭇함을 금치 못했다.

《아주 멋있게 되였습니다. 이다찌가 이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싸우기 전에 죽은 몸이지요.》

《보다는 내 목이 필요해서라도 나올거네. 제놈의 출세에 필요할것이거던.》

다음날 아침 해가 동쪽산머리에 둥실 솟아오를 때 그들은 금곡산밑에 도착하여 일제히 숲속에 숨어들었다. 거기서는 제천읍을 가로막고 있는 둥그런 산릉선과 해묵은 뙈기밭들, 그사이로 오불꼬불 뻗어간 좁은 길들이 환히 바라보였다. 이제 놈들이 거기에 나타날것이다. 그것

들이 릉선을 내려 이쪽기슭에 접어들기만 하면 전군이 일제히 달려나가 창격전을 벌릴것이다. 원거리공격수단이 부족한 의병대의 무장장비를 타산하여 상렬이 세운 계획이였다. 문제는 이다찌가 접전에 어떻게 응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저놈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린석도 숲속에 몸을 숨기고 긴장한 시선으로 앞을 주시하고있었다. 그것은 이다찌놈에 대한 복수전인 동시에 왜놈들에 대한 제천반일의병대의 총결산이라고도 할수 있는 싸움이였다. 이번 싸움에 제천반일의병대의 앞으로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만큼 린석이하 모든 의병대원들은 긴장되여있었고 각오도 높았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

그날은 력사에 이렇다 하게 기록할만 한 사건이 없는 보통날이였다. 겉으로 보기에도 눈에 띄게 나타나는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평범하고 조용한 보통날에도 일제의 조선강점책동은 더욱 악랄하게 강화되고있었다. 이미 청세력을 구축한 일제는 조선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런데 왕이 하루아침에 로씨야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통에 형세가 급변하였다. 청국과 조선을 향하여 급격히 남하하는 로씨야세력을 밀어내지 않으면 조선을 먹을수 없다는것이 확실해졌다.

다음부터 일제는 로씨야와 싸움준비에 달라붙었다. 저들의 침략적야욕을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이건 가리지 않는 이 섬나라 사무라이들은 자국의 국민총생산을 로씨야와의 싸움준비로 돌리는 한편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을 다그치며 중요산업대상들에 대한 강탈에 최대의 마력을 집중하였다.

거기에서 걸리고있는것이 의연 조선사람들속에 뿌리깊이 배겨있는 투철한 반일의식과 특히는 손에 무장을 들고있는 반일의병투쟁이였다. 만약 이러한 요소를 조금이라도 허용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전국적무장봉기에로 번져질지 알수 없는것이다.

바로 이것을 타산한 일제는 아직 식민지도 아닌 조선땅 각지를 제마음대로 싸다니며 군사보루를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켰으며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나라가 이렇듯 식민지로 전락될 급전직하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왕이란 사람은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궁궐보수와 외교적교섭만을 념불처럼 외우며 돌아올줄 몰랐다. 평시에 그토록 충군충의를 떠들며 《불충불효》와 《대역부도》한 행위들에 대해 기염을 토하던자들이 이때에 와서 정사에 대하여서는 말 한마디 벙긋 내비치지 않는것은 물론 목을 어깨밑으로 들이밀고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는 산 화석이 되고말았다. 극상해서 우국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이 빨리 환궁을 하여 정사를 보아달라는 상소운동을 벌리는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온 나라 국민이 그처럼 바라는 환궁의 날은 그가 궁을 떠난 날부터 옹근 한해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바로 그런 날들에도 손에서 창칼을 놓지 않고 왜놈의 총구에 당당히 맞서나선 사람들은 평범한 백성들과 선비유생들이였다. 하느님도 임금도 벼슬아치도 믿을수 없고 오직 제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자각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무기를 놓을수 없게 하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날에 린석은 의병들과 함께 산기슭에서 이다찌놈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이놈이 어찌된 일인가. 왜 응하지 않을가?》

지루한 대기끝에 린석이 중얼거렸다.

상렬만은 나무그루터기에 몸을 기대고 배포유하게 앉아있었다.

《나올것입니다. 창의대장님의 몸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다찌가 그것을 놓치자고는 안할것입니다.》

《제 모가지는 두렵지 않대? 내 오늘 우리 조선의병의 본때를 알게 해줄테다.》

《버릇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도 언제나 제가 이긴다고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놈들이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오고갈 때까지도 앞에서는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놈들이 결코 조용히 있기만 한것은 아니였다. 우선 이다찌놈이 가만있지 않았다. 린석의 통첩을 받고나서 우선 한바탕 악담을 퍼부은 다음 제놈의 졸개들을 불러들였다. 이번 기회에 류린석 의병대를 아예 전멸시키자는것이였다.

이렇게 하고 전군을 의병토벌에 내몰았다. 그보다 앞서 몇놈의 장

교들은 의병들과 거의 같은 시각에 산릉선에 올라 그들의 움직임을 망원경으로 세심히 지켜보고있었다. 그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한것이 의병대보다 뒤늦게 출동하게 된 조건으로 되였다.

그것을 알리없는 의병들은 여전히 몸을 숨긴채 긴장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때는 오초(11시)가 지나 어디에나 해빛이 가득넘치고 봄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왔다. 산자드락아래 넓은 공지에는 밤도와 서렸던 희뿌연 젖빛안개가 어느새 걷히고 새로 난 잎새들에 령롱한 이슬들이 가득 맺혔다. 어디서나 싱그러운 봄향기가 풍기고있었다.

봄은 의병들의 계절이다. 이 봄과 함께 의병들은 더 힘찬 싸움의 계절을 마련할것이다.

이렇듯 그들이 한창 봄향기에 취해있을 때 어디선가 《온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온 골짜기가 바람에 휩쓸리듯 솨 설레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적들이 나타났던것이다.

그것은 이미 전투서렬을 지은 산개대형이였다. 놈들이 산릉선은 물론 그아래의 넓은 공지와 습지대까지 차지하고 일렬횡대로 공격해오고있는것이였다. 그 산개대형이 한차례 또 한차례 끝없이 나타났다. 마치 조수에 떠밀리는 파도와도 같았다.

물론 그것은 의병대에서도 예견하고있던 일이였다. 그러나 공격서렬이 가까와오자 점차 불안감을 느꼈다. 공격의 앞선에 순수 조선사람들로만 구성된 관군을 세웠던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관군과 싸우고나면 목적하는 왜놈을 칠수 없다는데 있었다. 게다가 죽음은 조선사람만 당할수 있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다찌놈이 선택한 전법이였다.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으라는것이다.

놈은 충주성싸움때에도 이런 수법을 썼다. 그러나 성우에서 싸울 때는 사정이 달랐다. 활과 화승총으로 왜놈만 골라가며 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면에 관군이 앞을 막아섰다.

그것을 바라보는 린석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비렬한 놈, 또 저따위 수법에 매달려?…》

린석이 중얼거리는데 상렬도 당황해났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쨌든 관군과 싸워서는 안돼. 당장은 접전을 피하며 생각해보자구.》

《그렇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구, 조금만 더…》

그렇게 결심이 내려졌다. 좌우로 전령을 보내여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사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사이 적들은 바득바득 다가왔다. 관군의 뒤를 보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왜병들이 바싹 따르고있었다. 마침내 적들과의 사이가 몇십보로 줄어들었다. 그때까지 온몸에 진땀을 빼며 지켜보던 몇몇 의병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몸을 벌떡벌떡 일으켰다.

나중엔 전구간의 의병들이 모두 일떠섰다. 순간에 량켠이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고 접전에 들어갈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바로 그때 총검들이 마주서 숲을 이룬 속으로 누군가 한사람이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그가 누군지, 왜 그러는지 처음에는 아무도 영문을 몰랐다. 그런데 그가 대치한 량켠가운데 두두룩 솟은 바위우에 우뚝 올라서서 흰 도포깃을 바람에 날리며 팔을 펴자 량쪽군사들이 거대한 힘에 떠밀리우듯 우르르 물러났다.

류린석이였다. 그가 당장 싸움이 터질듯 긴장한 일촉즉발의 시각에 한몸을 내대고 량쪽군사들의 한가운데로 뛰여든것이였다.

《관군용사들, 의병여러분, 형제들!

제가 제천반일의병대장 류린석입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사람은 용렬하나 오늘의 이 위급함을 보고있을수만 없어 이렇듯 나섰습니다.》

량쪽군사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흰 도포에 흰 창옷을 입고 흰 갖신에 흰 수염을 날리며 바위우에 우뚝 선 모습이 갑자기 신령이라도 나타난듯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보다싶이 저는 늙고 체소한데다가 병약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이 한몸을 일으켜 의병에 나선것은 오직 왜놈들을 내쫓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내 나라를 구원하자고 하는 일념에서입니다.

저 왜라고 하는것은 바다구석에 처박힌 섬나라로서 수백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며 조공까지 해오던 보잘것 없는 족속들입니

다. 그런데 최근에 로략질과 싸움으로 남보다 좀 개명한것을 턱대고 오만방자해져서 우리의 왕궁을 습격하고 국모까지 살해한 살인강도이며 야수입니다.

이런 오랑캐족속을 그냥 놔두어야 하겠는가. 옛사람들도 용서 안한 저 금수와 같은 놈들을 우리 대에 와서 살려두어 이 땅을 오랑캐의 땅으로 만들고 우리모두가 오랑캐족으로 화하겠는가.

우리는 모두 한겨레이고 한피줄일진대 무엇때문에 섬나라오랑캐들이 쥐여주는 총을 잡고 제사람들을 죽이겠는가. 그렇게 하여 동족상잔을 몰아오면 손해를 보는것은 우리뿐이며 덕을 볼것은 왜놈들뿐입니다.

우리의 적, 공동의 적은 왜놈입니다. 그가 누구이건 조선사람이라면 모두 왜놈을 반대하는데로 총부리를 돌려야 합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린석이 올라선 바위에 총탄이 떨어지며 하얀 돌가루가 퍼져나갔다. 뒤이은 총탄들이 주변의 나무숲과 바위틈들을 두들겨댔다. 모두가 무슨 영문인가 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격한 웨침소리가 들렸다.

《우리 사람이 죽었다. 왜놈들이 조선사람을 쐈다.》

그제서야 모두 정신을 차리고 돌아섰다. 바라보니 왜놈기관총수가 린석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있었다. 그통에 그를 막고있던 관군이 무리로 쓰러진것이다.

《왜놈이 우리 사람을 죽였다. 저놈을 복수하자!》

《우리의 적은 왜놈들이다. 총부리를 왜놈에게로 돌리자!》

군중속에서 이런 소리가 터지며 일시에 돌아섰다. 거기에 의병들까지 합세하여 와와 소리치며 돌진해갔다. 저들의 무기가 위력한것만 믿고 뒤에서 방심하고있던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공격의 파도에 와뜰 놀라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걸음을 사이에 두고 뒤따르던 놈들이라 미처 몸을 뺄수가 없었다.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창과 칼에 얻어맞고 총탄에 맞구멍이 났다. 나머지 놈들은 덮어놓고 뛰여야 산다는 생각으로 저들이 떠났던 산고지로 도망쳐올라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지고있었다. 제천고을쪽에서부터 한무리의 의병들이 놈들을 향해 달려올라오고있었던것이다.

순간에 놈들은 수많은 의병들이 둘러싼 포위속에 들었다. 그때로부터 싸움은 이미 교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전으로 통쾌하게 진행되였다. 의병이고 관군이고 할것없이 모두 왜놈을 향하여 창칼을 휘둘렀고 탄환을 날렸다.

바로 그때에 린석도 고지를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그 위급했던 순간에 량쪽군사들가운데 뛰여들었던지 알수 없었다. 다만 평시에 절대로 우리 사람들끼리 싸워서는 안된다는 뼈에 절도록 사무친 교훈이 그를 충동하였으리라는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가.

이런 생각을 하며 고지에 올라섰을 때 싸움은 이미 끝나가고있었다. 먼저 도착한 상렬이 그를 맞이하였다.

《대장님, 전과가 실로 대단합니다. 유생력량의 대부분을 소멸하고 많은 무기와 탄약을 로획하였습니다. 제천읍도 도로 찾았습니다.》

《제천읍을? 언제, 누가… 찾았단 말인가?》

《다 대장님의 공적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무슨 소릴? 그야 다 서대장이 싸움지휘를 잘한 덕분이지. 자네가 실로 큰 공을 세웠네.》 하는데 상렬은 정색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대장님의 공적입니다. 왜군을 금곡산밑으로 끌어낸것도, 일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량군의 사이에 뛰여들어 관군이 총부리를 돌리게 한것도 다 대장님이 아닙니까. 이것은 실로 대장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아니, 그게 무슨…》 하는데 둘러섰던 의병들이 일시에 화답을 했다.

《옳습니다, 대장님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긴것은 전적으로 대장님덕분입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과연 그것이 나의 공적이였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었을가 하는 이미 잊혀진지 까마득히 오래된 아이적때의 즐거움과 긍지감이 가득 떠올랐다. 저도 모르게 도포소매로 눈굽을 찍고 바라보니 앞에 제천고을이 펼쳐졌다. 불탄 흔적은 있으나 여전히 제 모습으로 서있는 고을이다.

《고을은 우리가 차지했다구? 언제, 누가…》

아까 했던 말을 반복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있습니다.》

서상렬이 대답하며 앞을 가리켰다. 그러자 둘러섰던 수백명 의병대가 대쪽처럼 갈라지며 앞이 환하게 열리였다.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앞에 자기도 모를 또 한 대오의 의병들이 정렬해있었던것이다.

(저게 누구들인가. 어디서 온 의병들인가.)

반갑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한 가운데 천천히 다가갔다. 하다가 갑자기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앞에 섰던 사람도 그를 향해 마주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눈에 익고 몸에 배여있었기때문이였다. 선봉장 김백산이였다. 백산이…

《창의대장님, 그새 귀체건강…》 하면서 무릎을 꿇는데 린석은 그럴 틈을 주지 않고 달려가 무작정 그를 그러안았다.

《백산이 이 사람, 자네가 살아돌아왔구만. 죽었던 사람이 환생했다한들 이보다 더 반갑겠나?》

말을 하는데 목이 꽉 막히여 더 할수가 없었다. 대신 내심으로는 너무도 많은 말마디를 나누고있었다. 그를 붙잡아두지 못했던 막급한 후회와 떠나보내고난 뒤의 혼란, 잠시도 잊을수 없었던 그에 대한 그리움…

백산은 그사이 좀더 커지고 듬직한 사람이 된듯 했다. 여전히 군말이 없고 마디마디가 맵짰으며 알속이 배겨있었다.

《대장님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그래서 김백산이구 선봉장이지.》

련속 등을 두드리며 뜨거운 격정을 표시했다.

안승우가 다가왔다. 그러자 백산은 그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중군장님, 용서하십시오, 철없고 버릇없는 저를… 제가 아버님의 아픈 심정을 너무도 몰라주었습니다.》

《내가 무슨 아버지이겠나, 구실도 못하는것이… 자네야말로 시대의 남아이고 나라의 영웅이야. 이제라도 미영이 있었더면 내 기어코 일을 성사시키련만…》

《아버지, 뜻이 같고 마음만 변치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될것입니다. 저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고마우이, 내 이제 미영을 다시 보는듯 한 기분이네.》 하는데 과연 승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이 둘러섰다. 보니 모두 낯익고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석이, 정식이들을 비롯한 선봉대원들과 제천반일의병대원들이였다. 서상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던것이 바로 이때를 내다보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네들은 어떻게 여기 나타나게 되였나. 저 고을은 어떻게 차지하게 되였구?》
린석이 기쁨중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을 터놓았다. 짐작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막은 알수 없었던것이다.
《대장님, 다른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 부대를 떠나 곧장 서대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디에든 의지할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대장님은 쫓은 사람도 떠나온 사람도 다 잘못되였다고 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더욱 합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선봉대에서와 사석의 부대까지 뒤따라 도착하자 서대장님은 이러다가는 제천의병대가 망할수 있다고 하면서 전부대를 이끌고 여기로 왔습니다.》
백산이 그사이 있은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역시 가슴이 뜨거운 이야기였다.
《그런데 제천은 언제 차지했나. 그간 종적도 보이지 않더니?》
《우린 이미전에 고을의 반대켠에 와서 대기하고있었습니다. 하다가 놈들이 전장으로 나갈 때 일시에 돌입하였습니다. 결국 제천고을도 대장님의 지략으로 찾은셈이지요.》
린석은 다시한번 백산을 그러안았다. 이렇게 만난것이 모두 신기한 꿈이라도 꾸는것 같았다.
그때였다. 언덕아래쪽에서 몇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나며 이쪽으로 달려왔다.
《대장님, 잡았습니다. 그놈… 큰놈을 잡았습니다.》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앞선 사람은 오째였다. 그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는 방금 전령이나 받고 나갔던 사람처럼 린석을 향해 한번 꾸벅 인사를 해보이고는 다시 큰소리로 떠들었다.

《대장님, 잡았습니다. 이다찌놈입니다. 저기…》

《무엇이라구, 이다찌놈을… 그놈을 사로잡았단 말이냐?》

《세상 겁쟁이인걸요. 뭐가 무서운지 전장에는 나가지도 않고 숲속에 숨어서 형세만 관망하고있던걸요, 마차까지 대기시켜놓구서요. 그런걸 우리가 뒤에서부터 일시에 들이쳤지요. …》

이번에도 린석은 오째를 힘껏 그러안았다.

《그런즉 네가 또 뒤통수치기를 했구나. 잘했다. 그런데 목에 걸었던 부작은 어쨌니?》

《그 나무패쪽이요? 에이, 시끄러워서 집어던졌습니다. 그것때문에 불안하구 불편하구. 그때문에 죽지 않는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와 웃었다.

마침내 이다찌놈을 끌어왔다. 어깨와 가슴에 금빛 번쩍이는 띠를 두른 몸인데 의병들이 그우에다 소똥이 묻은 바줄로 꽁꽁 묶었었다.

그놈을 보는 순간 린석의 눈이 굳어졌다. 바로 그놈이였다. 총리의 방에까지 뛰여들어 권총을 휘두르던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저 왜놈의 종자, 저 뿔처럼 불쑥 나온 광대뼈, 멍석처럼 툴툴 말린 입술, 바람에 날릴듯 꼬부라진 코수염… 오래동안 품고 벼려오던 분노가 불시에 자라올랐다.

《이다찌 이놈, 네가 나를 잡겠다고 쫓아다녔지. 나 역시 네놈을 기다렸다.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결산을 하자.》

린석이 이렇게 말하며 누구에게라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이다찌의 권총을 자기 손에 쥐여달라는것이였다.

마치 그러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던듯 오째가 허리주머니에서 로획한 이다찌의 권총을 서상렬에게 주었다. 상렬은 그것을 받아 장탄여부와 안전장치를 확인한 다음 방아쇠만 당기면 나갈수 있게 격발기를 당겨서 린석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린석이 생전처음 손에 쥐여보는것이였다. 그러나 일단 두손

에 받쳐들자 오래동안 몸에 배인듯 줌안에 꼭 들고 마음도 편안했다. 총구를 이다찌에게 돌렸을 때조차 단방에 그를 명중하리라는 자신심이 생겼다.

《이다찌 이놈, 여길 똑똑히 보라. 네가 이 총으로 우리 김복한이를 쏘았고 숱한 조선사람을 죽게 했지. 네놈을 살려두면 또 우리 백성들을 죽이겠기에 용서할수 없다. 우리 제천반일의병대의 명의로 아니, 전체 백의동포의 명의로 네놈을 사형에 처한다.》

말을 마치며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이다찌가 그 엄한 호령에 놀라 짐승같이 소리를 지르다가 순간에 머리를 땅에 처박고 너부러졌다. 그때에도 린석은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총소리가 그치고 사위가 조용해지자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다. 김백산이, 서상렬이, 안승우, 사석, 리필희, 오째, 홍정식이…

《마침내 복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린석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한껏 숨을 들이쉬였다. 지금까지 가슴을 조이며 순간도 안정을 몰랐던 가슴이 단꺼번에 거뜬해지며 하늘로라도 날아오를것 같았다. 그러자 봄날의 훈훈한 열기와 감미로운 향기에 몸까지 달아올랐다.

아니, 그것은 자연의 봄에 의한 향취만이 아니였다. 이들, 자기를 둘러싼 의병장들과 의병들모두가 이 봄과 함께 새로 태여났고 성장한 사람들처럼 신비롭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호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였다고만 여겨지던 그들이 이제부터는 자기가 의지하고 뿌리를 내리며 자양분을 섭취할 토양이였고 스승들이였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던 가슴이 한껏 열리며 새로운 기쁨이 그득하니 차올랐다.

린석이 이처럼 한창 희열에 떠있을 때 고을의 아래쪽길로 한무리의 의병들이 들어서는것이 보였다. 저게 누구들인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아래에서 사람이 뛰여올라와 보고했다. 리린영과 리강년의 부대들이 도착했다는것이였다.

《무엇이라구? 리린영과 리강년이들이…》

부지중 그 이름들을 외우고 아래로 달려내려갔다. 잠시라도 서서 기다릴수 없는 사람들이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린석이 다가가자 그들이 정렬했던 의병들과 함께 마주달려왔다.

뜨거운 상봉이 벌어졌다. 모두가 제천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달려왔다는것이였다.

《우리야 제천반일의병대가 아닙니까. 제천을 내놓은 제천반일의병대가 무슨 명목으로 싸움을 하겠습니까.》

《대장님, 우린 저 뾰족봉에서 다진 맹세를 죽어도 잊지 않을것입니다. 〈왜놈과 끝까지 싸운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울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힘있게 말하였다.

린석도 하고싶은 말이 있었다. 그들의 결심이 또 한번 린석에게 힘이 되고 고무로 된것이다.

지금 동헌앞에 모인 수천의 의병들, 그것은 영원히 흩어지지 말아야 할 하나의 대오이며 하나의 마음이였다. 린석은 동헌앞의 우뚝한 층계우에 올라섰다.

《의군여러분, 여러 형제자매들, 용사들!

오늘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이고보니 기쁨과 감회를 이루 다 말할수 없다. 그사이 우리가 몇번씩 헤여지고 모이기도 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었다. 왜놈을 쳐야 한다는 그 하나의 마음이였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순간에 마음이 통하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지난 을미년 그해 첫 봉화를 일으킨 때로부터 우리는 많은 일을 하였다. 가슴아픈 실패와 시련도 겪었다. 오해와 곡절도 있었다. 그러나 오직 나라를 위하고 왜적과 싸운다는 공통된 마음이 만사를 젖혀놓고 여기로 모이게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길에서 생명도 운명도 같이할것이다. 그 길에서 우리모두가 죽을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참상도 당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존귀한 나라라는것이 있기에 모든것을 박차고 싸워야 하며 여기에 모든것을 바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간 선렬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그들을 길

이 추모하게 된다. 그들은 한사람한사람 값비싼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남겨주었고 교훈도 찾게 해주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백성들과 손을 굳게 잡고 보다 더 광범한 인사들을 망라하는 싸움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철천의 원쑤 왜놈들을 이 땅에서 내쫓고 내 나라의 기강을 힘있게 떨치자!》

그가 손을 높이 쳐들자 수천명 의병들이 기발을 흔들고 기치창검을 번뜩이며 힘있게 호응했다.

《떨치자! 떨치자! 떨치자!—》

그 힘찬 웨침소리는 오래동안 제천고을을 흔들고 산야를 울리며 멀리멀리 메아리쳐갔다.

그후 이야기

이렇듯 제천고을을 다시 차지한 류린석반일의병대는 태백산일대와 황해도, 평안도일대를 넘나들며 계속 싸움을 벌리였다.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리조봉건정부의 압력으로 더는 활동을 할수 없게 된 류린석은 그해 평안도 초산(당시)땅에 이르러 다시한번 격문을 날리며 친일관리들을 신랄히 규탄하고 반일투쟁을 호소한 다음 압록강을 건너 료동지방으로 갔다.

이후 중국의 동북지방과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의 조선동포들속에서 반일애국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갔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쏘아죽이자 그것을 해내외의 수많은 동포들에게 알려준것이 그 대표적 실례의 하나이다.

1905년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의 강압날조는 반일의병투쟁을 더욱 강화하게 하여 그를 13도의군 도총재로 활약하게 하였다. 그때 그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등 각지에서 또다시 의병투쟁을 벌려 일제와 친일주구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안겨주었다. 이때에는 벌써 의병구성에서 로동자, 농민, 애국적군인, 청년학생, 상공업자 등 보다 광범한 군중들이 망라됨으로써 투쟁의 폭과 심

도에서 많은 질적변화가 일어났다.

김백산과 서상렬, 안승우들은 류린석과 헤여진 후 그곳에서 계속 싸움을 벌리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리린영과 리강년이들은 《을사5조약》날조이후 류린석이 벌린 호소에 따라 또다시 의병장으로 나서 투쟁하다가 역시 왜놈들의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류린석은 그렇듯 높은 애국심과 투철한 반일의식을 안고 일제와 용감히 싸웠으나 놈들의 야수적탄압과 봉건정부의 급진적인 대일굴종자세, 사회발전자체의 미숙성 그리고 류린석이 지니고있던 이러저러한 부족점들로 하여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동북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가 73살이였다.

지나온 사실이 다 력사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을미년의 봉화, 이것은 침략자를 반대하는 애국의 심장들이 지펴올린 애국의 불길이였으니 그 불길 활화산처럼 타번지려면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군력이자 국력, 강한 군사력을 가질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도, 민족의 존엄도 수호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후대들에게 남긴 력사의 교훈이다.

장편력사소설 **을미년의 봉화**

저　　자	**박 종 철**
편　　집	**김 광 성**
표지, 삽화	**강 상 준**
편　　성	**김 남 숙**
교　　정	**김 승 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9월 1일
발　　행	주체100(2011)년 9월 5일

ㄱ－16258　　　　값 200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379－7